

제55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구결 자료 이용의 활성화 방안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제주 고문헌·고문서와 차자표기

일시: 2018년 8월 16일(목) ~ 8월 17일(금)

장소: 제주 씨엘블루호텔

주최: 구결학회

공동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후원: 국립한글박물관

■ 제55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일정표 ■

2018년 8월 16일(목)

시 간	발표 및 내용	비 고
09:00- 09:30	등 록	
09:30- 09:50	개회사 및 인사말	사회: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09:50- 10:00	휴 식	
기획 주제 발표: 제1부 구결자 처리의 표준화		
10:00- 10:20	유니코드 등록을 위한 구결자 기초 자료 구축 현황 발표: 하정수(동국대학교)	사회: 장경준 (고려대학교)
10:20- 10:40	구결자의 유니코드 국제 표준 등록 방안 발표: 김준수(서울시립대학교)·배진솔·엄상혁(서울대학교)	
10:40- 11:00	구결자 자형의 정리와 표준화에 대하여 발표: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00- 11:20	점토구결의 전산 입력 현황과 과제 발표: 문현수(송실대학교)	
11:20- 12:00	[종합 토론] 이건식(단국대학교), 박진호(서울대학교), 김선철(국립한글박물관)	
12:00- 13:00	점심 식사	
기획 주제 발표: 제2부 구결 자료의 응용 방안		
13:00- 13:20	『유가사지론』 석독구결 자료의 번역과 불교학적 의의 발표: 김지오·김성옥(동국대학교)	사회: 박용식 (경상대학교)
13:20- 13:40	석독구결을 통해 본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교육 내용 발표: 김유범(고려대학교)	
13:40- 14:00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발표: 김미미(국립한글박물관)	
14:00- 14:20	구결의 특성을 반영한 구결자료 전시 방안 발표: 장윤희(인하대학교)	
14:20- 15:00	[종합 토론] 김성주(동국대학교), 황선엽(서울대학교),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	
15:00- 15:10	휴식	

2018년 8월 16일(목)

시 간	발표 및 내용	비 고
개인 연구 발표		
15:10- 15:50	《眞言集》悉曇章의 ‘濁音’에 대한 음운분석 발표: 안영희(안양대학교)	사회: 박부자 (성신여자대학교)
15:50- 16:30	제주어의 시상법 발표: 고영근(서울대학교)	
16:30- 16:40	휴식	
일본 훈점어학회 초청 발표		
16:40- 17:20	일본 훈점 자료 및 구결자료의 영어 기술방법에 관해서 Methods for English Transcriptions of Kundoku and Gugyoel Texts 발표: 매슈 지스크(Matthew Zisk, 야마가타대학(山形大学))	사회: 정승혜 (수원여자대학교)
17:20- 18:00	일본에서의 「漢文」의 구조와 변형 日本における「漢文」の枠組みとバリエーション 발표: 다나카 소타(田中草太, 도쿄대학(東京大学))	
18:00- 19:00	저녁 식사	
19:00- 20:30	제주지역 이두 자료 강독 발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사회: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2018년 8월 17일(금)

시 간	발표 및 내용	비 고
지역 특집: 제주 고문헌·고문서와 차자표기		
09:00- 09:30	제주 고문헌의 판본 발표: 윤봉택(서귀포예총 회장(전 문화재전임연구원))	사회: 신우봉 (제주대학교)
9:30- 10:00	제주의 고문헌 발표: 홍기표(제주도문화재위원회)	
10:00- 10:30	제주 고문서와 이두 발표: 양진석(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30- 10:40	폐회사	사회: 이용 (서울시립대학교)
10:40- 18:00	제주 지역 고문헌 답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박영국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삼다의 고장 제주에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세 명의 신인이 태어난 고대 국가였던 탐라 제주에서 한국의 고대 문자인 구결을 연구하는 학술 행사가 열려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자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자는 인간의 언행, 지식,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진보를 가능케 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지금의 한민족이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문화에 한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 문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듯 한글 창제 이전 우리 민족이 사용한 주요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자를 차자표기의 수단으로서 사용했고, 우리말 표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결, 향찰, 이두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한글이 없던 시대에 오랫동안 우리말 표현 욕구를 충족해주었던 이러한 표기 양식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한글박물관은 개관 이후부터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구결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작년에 국보급 유물의 가치를 지닌 11세기 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66을 수집했고, 국가 지정 유물로 신청하기 위해 구결학회와 공동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석독 구결 자료의 기초 연구와 응용 방안>이라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결 자료를 어떻게 전시, 교육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수면 아래 숨어 있었던 구결 자료가 널리 알려져 구결 연구에 활력이 더해지길 고대합니다. 더불어 오늘처럼 관과 학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문자 문화에 담긴 민족의 슬기와 전통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박영국

■ 목 차 ■

<기획 주제 발표 제1부>

유니코드 등록을 위한 구결자 기초 자료 구축 현황	하정수	◆ 001
구결자의 유니코드 국제 표준 등록 방안.....	김준수배진솔엄상혁	◆ 015
구결자 자형의 정리와 표준화에 대하여.....	안대현	◆ 035
점토구결의 전산 입력 현황과 과제.....	문현수	◆ 037

<기획 주제 발표 제2부>

『유가사지론』 석독구결 자료의 번역과 불교학적 의의.....	김지오김성옥	◆ 053
석독구결을 통해 본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교육 내용.....	김유범	◆ 07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김미미	◆ 083
구결의 특성을 반영한 구결자료 전시 방안.....	장윤희	◆ 107

<개인 연구 발표>

《眞言集》悉曇章의 ‘濁音’에 대한 음운분석.....	안영희	◆ 111
제주어의 시상법.....	고영근	◆ 127

<초청 발표 및 특강>

일본 훈점 자료 및 구결자료의 영어 기술방법에 관해서... 매슈 지스크(아키타 대학)	◆ 137
[한국어] 日本에서의 ‘한문’의 개념과 변종..... 다나가 소타(도쿄대학)	◆ 145
[일본어] 日本における「漢文」の枠組みとバリエーション... 田中草大(東京大学)	149
제주지역 이두 자료 강독..... 오창명	◆ 153

<지역 특집 발표>

제주 고문헌의 판본..... 윤봉택	◆ 163
제주의 고문헌..... 홍기표	◆ 191
제주 고문서와 이두..... 양진석	◆ 205

<기획 주제 발표>
제1부

유니코드 등록을 위한 구결자 기초 자료 구축 현황

하정수(동국대)

1. 들어가며

국어사 자료에는 한국식 한자, 이두, 옛한글, 구결자 등 특수한 문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아스키, 완성형, 조합형 등의 코드 체계에서는 옛한글, 구결자를 표현할 수 없었다. 1992년 ‘훈글 2.0 전문가용’에서 구결자 244자에 HNC 코드번호가 처음으로 배정되었고, ‘훈글 3.01’에서 구결자 16자가 추가되었으며 ‘훈글 97’에 이르러 구결자 9자가 새로 추가되어 총 269자의 구결자를 ‘훈글’에서 표상할 수 있게 되었다(박진호 2015: 114-115). 유니코드의 사용자 정의 영역에 배정된 255자의 구결자는 옛한글과 마찬가지로 국제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별도의 영역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컴바탕’, ‘한컴돋움’, ‘새굴림’, ‘새궁서’, ‘새돋움’, ‘새바탕’처럼 구결자를 지원하는 글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구결자들은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다. 구결자를 포함한 정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구결자가 포함된 정보의 국제적인 유통을 위해 구결자 문자 코드를 국제적인 표준에 등록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한글 부호는 크게 한국 KS표준인 KSX 1001(정보교환용 부호계: 국가기술표준원)과 ISO10646-1 Unicode 1.1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한글 문서 작성기는 한국 표준인 KSX 1001 한글 부호와 국제표준인 ISO10646-1 Unicode 1.1을 탑재하고 있다(홍완표 2015: 40). 유니코드 컨소시엄은 각 나라 사이에 문자 코드의 충돌을 일으키는 문자 코드 영역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기관에서 유니코드의 제정과 업데이트를 주관하고 있으며 국제표준기구(ISO)도 유니코드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ISO/IEC 10646). 따라서 유니코드에 등록된 문자들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데 확장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유니코드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코드 버전 11.0의 한중일 통합 한자 확장 F(Range: 2CEB0 - 2EBE0) 일부분

2CEB0

CJK Unified Ideographs Extension F

2CEFF

2CEB0 — 1.1 𠂇 JMJ-059293	2CEC4 — 1.5 𠂈 GZ-0971307	2CED8 — 1.7 𠂉 JMJ-057477	2CEEC — 1.12 𠂊 USAT-05499
2CEB1 — 1.2 𠂋 JMJ-056820	2CEC5 — 1.5 𠂌 USAT-04901	2CED9 — 1.8 𠂍 GZ-1302101	2CEED — 1.12 𠂎 GPGLG-1001
2CEB2 — 1.2 𠂏 GZ-3422508	2CEC6 — 1.5 𠂐 JMJ-056832	2CEDA — 1.8 𠂑 GZ-1271201	2CEEE — 1.12 𠂒 GPGLG-3026
2CEB3 — 1.2 𠂓 JMJ-056821	2CEC7 — 1.5 𠂔 JMJ-059297	2CEDB — 1.8 𠂕 JMJ-059300	2CEEF — 1.13 𠂖 GZ-4871201

발표자 외 3명(김원식, 문현수, 안대현)은 지난 2016년 1월 구결학회(제51회)·한국법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에서 ‘유니코드 구결자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그때까지의 기초 자료 구축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작업의 계기는 일본과 중국은 유니코드 등록을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동북 공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실제 내용이 잘못 판단된 자형과 구결자를 잘못 이해한 결과를 유니코드 등록에 반영하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조성덕·김경석 2012). 따라서 당시 작업의 목표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구결자를 유니코드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로 삼아 구결학회의 공식적인 안을 만드는 데 이 작업 결과를 토대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견식 선생과 박진호 선생의 자문을 받아 발표자를 포함한 4명이 분담하여 2015년 봄부터 약 10개월 동안 기초 자료 구축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결자 유니코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고 이후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후속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발표는 2016년 1월까지의 작업 결과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후속 작업을 위한 작업 과정의 기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2. 구결자 기초 자료 구축 현황

2.1. 작업 기준 및 작업 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문자코드를 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자형만 동일하면 자음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문자코드만을 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유니코드의 사용자 영역인 ‘U+F67E~U+F77C’에 임시로 배정된 255자의 구결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여 구결자의 독음이 다르더라도 자형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코드를 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 발견된 구결자를 추가했어도 ‘한글’에서 배정된 문자코드보다 그 수가 14개 적어졌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사에서는 유니코드의 ‘Yi Syllables’ 영역에 33자의 구결자를 추가로 배정하였다. 이는 유니코드로 입력된 구결자를 ‘한글 97’이나 그 이하 버전의 문서에서도 바르게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독음이나 원자가 다른 구결자를 별도로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김원식·문현수·안대현·하정수 2016: 2-4).

[표 1] ‘한글’의 구결자 269자 및 유니코드 사용자 영역 구결자 288자

‘한글’의 구결자 269자	‘한글 2.0 전문가용’ 구결자 244자 (1D00~1DF3)	ハ力力加可去去巨令ナ口古昆尔尔；人ハ木戈曰果官己ハ 卩隱乃尹刃那女又奴トヒ尼ヒヒ斤丨夕多如ナ大力加丁底 丁劣田刀都巴斗斗豆入ナ地矢知支陳の示月等の示月冬ム矣 弋代し乙尸、人四罪羅難汝駟驢要呂……以糸論了リ牙牙 才利今日里各示音ナ个广広麻麼万萬賣分ス尔赫弥彌フ面毛 勿ッ米米刀巴邑火七叱ィ沙八企舍一西イ示立戸所小ゝ是ニ 示寸时时氏申士四白生旧見児ゝ良尸阿牙尸厓フ也方才今 言言藥ハ亦余ゑハ午五り玉ノイ平溫溫ト臥西要千广應 ヲ衣ム矣ゝ是リ己伊弋引印刀上其齊齊之子他土吐下何ノイ 平尸戸忽兮屎ッ為爲十
----------------------	--	--

	‘한글 3.01b’ 추가 구결자 16자 (1DF4~1E03)	中艮号直义行飛叻禾刁心而才人与牛
	‘한글 97’ 추가 구결자 9자 (1E04~1E0C)	角成言造打好今人其
유니코드 구결자 288자	사용자 영역 구결자 255자 (U+F67E~ U+F77C)	可可号去去去巨令ナ口古昆戈木人曰果官尔尔豈直皆艮ハ只 尹刃那乃難汝女又义奴論了ト匕尼行匕飞飛斤丿尸卩隱丨夕 多如支大力力叻加底了了田刁刀都斗斗豆ナ地矢知陳示等 月の入冬ム矣弋代、人四罪羅駟驢要呂……以糸今牙牙牙 禾利里客尸し乙广広麻麼个个万萬木賣久分祿弥彌フ面毛勿 未米リ市音巴火口巴邑シ沙三八全舍立イ一西戸所小寸時時 ニ示氏申士而白生七叱旧児見牙阿にう良厂厓フ也方才才於 言言言藥予余与一ニ亦人曳り五ノ午玉溫溫臥于牛位身殷フ 衣、川是伊己印印引成應刀忍上劣者其其言言齊齊心之造他 打土吐下何ノイ乎好忽兮今屨ッ為爲人十中子甲
	한글 호환 영역 구결자 33자 (U+0F0450~ U+0F0470)	ハ己ハヒナ力加巴の市月リ曰尔ッ市、是四今ハノイ乎ト西 要广ム矣弋尸戶
2016년 미작업	유니코드 구결자 19자	可去豈皆只飞个未巴三於言予位殷印忍者甲

자료 작업은 [표 1]을 바탕으로 하여 이견식(1996)의 목록 선정 원칙을 참고하여 아래 가)-라)의 원칙과 양식에 따라 작업 대상 구결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문헌의 이미지에서 채록하였다.

가. 구결자 통합 원칙

- 1) 모양이 동일하면 통합한다.
- 2) 음이 다르거나 원글자가 다른 경우에도 통합한다.

나. 구결자 배열 원칙

- 1) 구결자 독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 2) 일차 목록과 이차 목록을 통합하여 정렬한다.
- 3) 독음이 같을 경우 구결자 총획수 순서로 배열한다.
- 4) 독음과 획수가 같을 경우 원자 유니코드 순서로 배열한다.

다. 구결자 채록 원칙

- 1) 필획이 선명한 것을 채록한다.
- 2) 자형이 대표적인 것을 채록한다.
- 3) 복합토보다 단일토를 채록한다.
- 4) 좌측토보다 우측토를 채록한다.
- 5) 변란 외부보다 변란 내부의 것을 채록한다.

6) 종이 손상이 적은 것을 채록한다.

라. 구결자 채록 양식

1) 채록 양식 DB 구조

[표 2] 데이터베이스(DB) 구조

요소명	내용(기본 원칙)
구결 실제 문자	
기존 코드	N_001
신규 코드	
한컴 내부 코드	
독음 정보	
원 글자 정보	
출전 부분 확대 이미지명	N_001_출전문헌고유번호_권차_장차_행차_p.jpg
출전 전체 확대 이미지명	N_001_출전문헌고유번호_권차_장차_행차_w.jpg
출전 문헌명	구인: 001, 화소: 002, 화엄: 003, 금광: 004, 유가: 005, 소곡본: 109, 남권회본: 112
권차	000(세자리 숫자)
장차	000(세자리 숫자)
행차	00(두자리 숫자)
출전 내용	구결자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단위 제시

2) 채록 양식 HWP 구조

[표 3] 한글 작업 파일 구조

<해당 구결자>	
메타 정보	
부분 확대 이미지	해당 부분 전체 이미지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 ① 작업 대상 구결자를 확정하여 엑셀파일로 정리한다.
- ② 작업 대상 구결자를 석독구결은 문헌별로 음독구결은 구결자별(1-70, 71-140, 141-210, 210-268)로 분담한다.
- ③ 엑셀 목록의 작업 대상 구결자를 텍스트(한글) 파일에서 검색한다.
- ④ 검색된 구결자와 문헌에서 실제 사용된 구결자를 비교하여 자형 중심의 원칙에 부합하는 용례를 선정한다.
- ⑤ 선정된 용례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림판에서 열어 용례가 나타난 부분에 붉은색 동그

라미를 표시한다.

- ⑥ 해당 부분을 전체 이미지 저장 방식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저장한다.
- ⑦ 해당 이미지의 용례 부분이 잘 보이는 부분을 선택하여 자른다.
- ⑧ 선택된 부분을 부분 이미지 저장 방식에 맞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 ⑨ 분담한 자료별로 전체 및 부분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 저장한다.
- ⑩ 엑셀 파일의 해당 구결자 옆에 기본 정보와 이미지 이름, 텍스트 정보를 기입한다.

2.2. 석독구결 자료

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의 전거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화엄경소 권35’, ‘화엄경 권14’, ‘유가사지론 권20’, ‘합부금광명경 권3’, ‘구역인왕경 권상’에 먼저 해당 자료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자료의 이미지에서 전거를 수집하였다. 문헌 고유번호 앞자리의 ‘0’은 석독구결 문헌을 나타낸다. 음독구결은 고유번호 앞자리에 ‘1’을 부여하였다. 2016년에 새로 보고된 ‘자비도량참법’을¹⁾ 추가한다면 새로운 문헌 고유번호 ‘006’을 부여할 수 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 문헌 고유번호 ‘099’까지 연속적인 확장이 가능하다.

[표 4] 석독구결 자료 문헌 고유번호

문헌 고유번호	자료	비고
001	구역인왕경	
002	화엄경소	
003	화엄경	
004	합부금광명경	
005	유가사지론	
006	자비도량참법	신자료

석독구결이 입력된 텍스트 자료에서 해당 구결자의 용례를 검색하여 앞에서 제시한 선정 원칙에 따라 사용례를 선정하였다. 용례가 선정된 뒤 해당 용례 부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미지를 가공한 뒤, 가공된 이미지에 붙이는 명칭은 ‘구결자 기존코드_문헌고유번호_권차_장차_행차_w/p(w-전체/p-부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전체 이미지: ‘N_006_001_001_014_08_w.’ 부분 이미지: ‘N_006_001_001_014_08_p.’

구역인왕경은 53개 구결자에 대하여 엑셀 파일과 이미지 작업을 진행한 후에 전체 이미지 53개와 부분이미지 53개를 [표 5]와 같은 한글 파일로 채록하였다. 다른 4종의 자료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최근의 석독구결 자료는 ‘자비도량참법 권4’ 잔권 5장으로 남권희 선생에 의해 2015년에 경주 기림사에서 발굴되어 2016년에 영인 자료가 학계에 공개되었다(남권희·남경란 2016)

제55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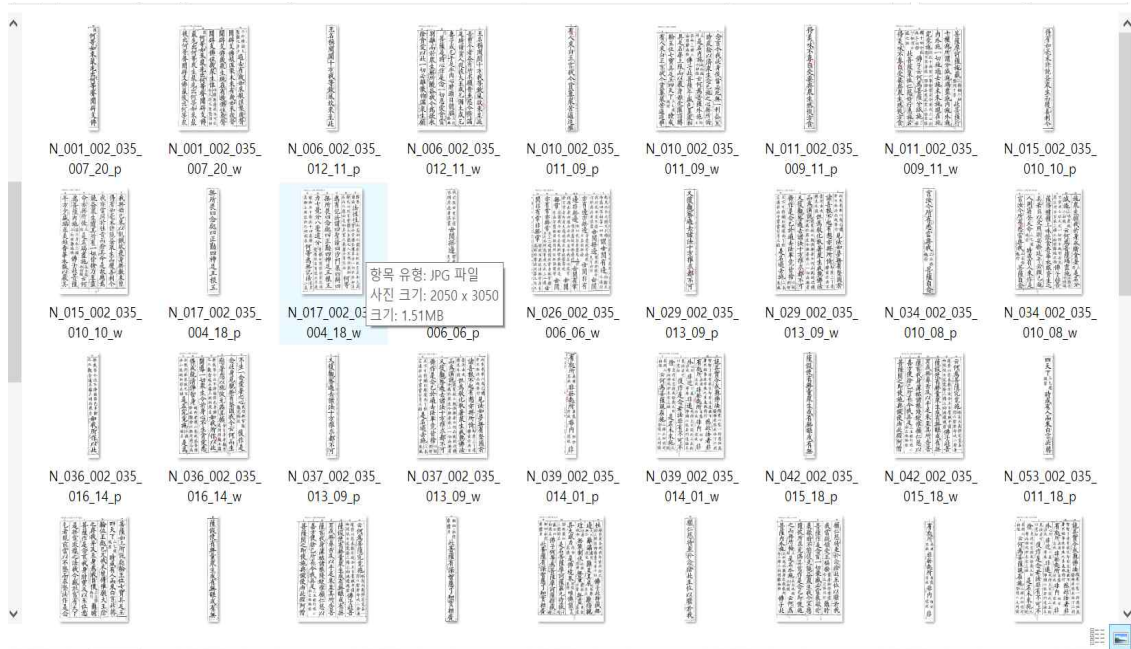
석독구결 작업 결과 엑셀 파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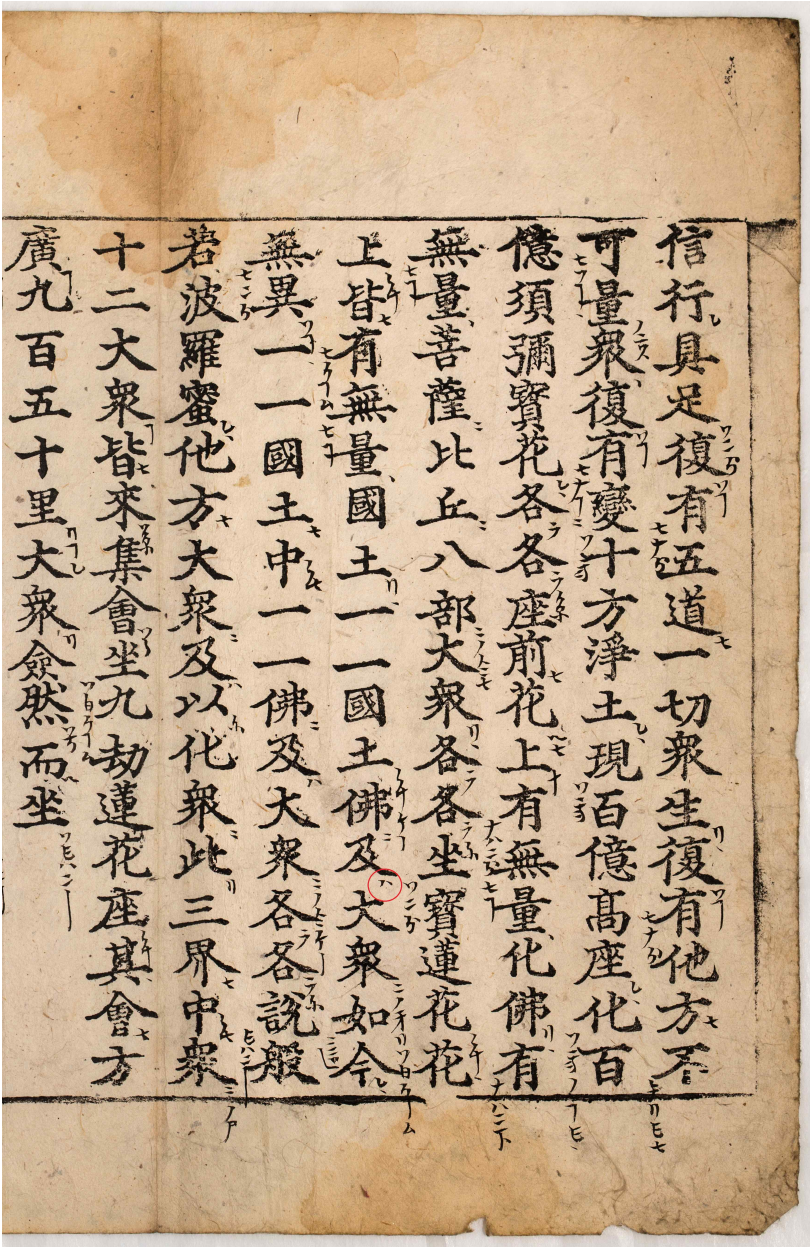
작업 이미지 모음_그림(구역인왕경)_컬러 이미지



참조-작업 이미지 모음_그림(화엄경소)_흑백 이미지



[표 5] 구결자별 채록 결과 한글 파일 (석독구결에 사용된 ‘ハ’)

구결자	기존 코드	HNC 코드	독음 정보	원 글자 정보	출전 문헌명 권차 장차 행차
ハ	N_001	1D00	ㄱ/기/과/여	只/果/亦	001_001_002_05
출전 내용	一一國土ヲ十ヶハ佛ハ及ハ大衆ハノチリソ白ろム				
					

2.3. 음독구결 자료

음독구결 구결자 전거 수집은 석독구결 자료의 전거 수집 방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전거 수집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그 수가 많아서 대상 자료를 초기의 음독구결 자료와 수집 대상 구결자가 분명하게 보이는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음독구결의 대상 자료와 그 고유번호(앞의 세 자리 숫자)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음독구결 구결자 사용례를 수집하였다.

[표 6] 음독구결 자료 문헌 고유번호

문헌 고유번호	자료	비고
101	09380000_00_원각약소주경	보물 제938호
102	법화1-권4-7 재촬영	
103	법화2-권3-4	
104	법화3-권1-3	
105	법화4-권5-7	
106	법화5-권1-3	
107	법화6-권1-3	
108	09390000_00_능엄경	
109	소곡본 능엄경	
110	07590000_00-능엄경	
111	11530000_00_법화경	
112	능엄경_남권회본01	
113	11040000_00_지장보살본원경	
114	춘추좌전	
115	시전	
116	11930000_00_자비도량참법	
-		향후 추가

음독구결 자료는 문헌이 아닌 구결자별로 분담하여 작업하였다. 현재 구축된 부분이미지와 전체 이미지 자료는 구결자 고유번호 N-001에서 N-140까지이다. 음독구결 엑셀 파일은 석독구결 엑셀 파일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구결자 열에 기본 정보와 이미지 이름(전체, 부분), 출전 정보 등을 기입하였다.

제55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음독구결 정리 엑셀 파일

B3	A	B	C	D	E	F	G	H	I	J	K	L	M
1	구글자	기존 코드	신규 코드	HNC 코드	특음 정보	원 글자 정보	출전 부분 이미지명	출전 전체 이미지명	출전 문헌명	권자	장차	행차	출전 내용
2	ㄱ	N_001		1D00	기/기/파/역	只/美/亦	N_001_103_003_00 1b_05책_p.jpg	N_001_103_003_00 1b_05책_w.jpg	<소2법3:31b_5_책>				以喻ノ天善惟ノ三衆智西ノ、能達善滅諸 者ノヒ
3	가	N_002		1D01	가/머	加	N_002_108_003_03 1a_08본_p.jpg	N_002_108_003_03 1a_08본_w.jpg	<소5법3:31a_8_본>				<法華3:108a_4-108b_1>是時々 勝陀 王ノ即舍相辭々 共讚此奉々々ヒ
4	가	N_003		1D02	가	加	N_003_104_002_01 2b_26본_p.jpg	N_003_104_002_01 2b_26본_w.jpg	<소3법2:212b_5_본>				<法華分曉2:54a_2> 其年々 慕還々 財富々 無量々 多有田宅々 及諸僮僕々 ヒ
5	가	N_004		1D03	가/머	加	N_004_113_상 _003b_06본_p.jpg	N_004_113_상 _003b_06본_w.jpg	<지장상3:5b_5_본>				而此女母々 未出生信々々ヒ
6	가	N_005		1D04	가	可	N_005_101_상 2_026a_11책_p.jpg	N_005_101_상 2_026a_11책_w.jpg	<0938圓略상2:26a_11_책>				三々 聚法ヒ 講於所學々 爲今出離2々 爲 出離2々ツリヒ
7	가	N_006		1D05	가	去	N_006_101_상 2_003b_01책_p.jpg	N_006_101_상 2_003b_01책_w.jpg	<0938圓略상2:3b_1_책>				欲離 云 自性清淨心々 西無明風動々 乃 至無明々 滅々 智性2 不壞々ヒヒ
8	가	N_007		1D06	가	去	N_007_103_006_01 5b_07본_p.jpg	N_007_103_006_01 5b_07본_w.jpg	<소4법8:15b_7_본>				惟值諸聖跡々 無能識其美々々1
9	가	N_008		1D07	가	巨	N_008_114_001_01 3b_03전_p.jpg	N_008_114_001_01 3b_03전_w.jpg	<春秋1:13b_3_전>				王々 窮其々々 國人々 終昇殿公訟々ヒ
10	가	N_009		1D08	가	속	N_009_112_005_01 0b_17책_p.jpg	N_009_112_005_01 0b_17책_w.jpg	<남01楞嚴05:10b_17-11a_1_책>				宿以法々々1 報性數經々ッヒヒ 佛令 覺心々々2
11	가	N_010		1D09	가/대	在/大	N_010_112_004_03 0a_12책_p.jpg	N_010_112_004_03 0a_12책_w.jpg	<남01楞嚴04:30a_12_책>				故々 曰言此 不明々 則無所明々ッヒヒ
12	가	N_011		1D0A	고	古	N_011_101_상 2_003a_5책_p.jpg	N_011_101_상 2_003a_5책_w.jpg	<0938圓略상2:3a_5_책>				一々 傳幻覺生々々 以爲義本々ッヒ
13	가	N_012		1D0B	고	古	N_012_101_상 2_013c_17책_p.jpg	N_012_101_상 2_013c_17책_w.jpg	<0938圓略상2:13c_17_책>				問曰 人自善々 二17 法本無々 何謂 三名々
14	가	N_013		1D0C	고	昆	N_013_103_004_05 8a_03책_p.jpg	N_013_103_004_05 8a_03책_w.jpg	<소2법4:58a_3_책>				依一婆娑々 尚法婆娑々 1 則十方1 故難 스
15	가	N_014		1D0D	공	龍							
16	가	N_015		1D0E	공/머	龍/頭			<소공楞嚴01:1a_24_본>				其所化人 何言眞實々 亦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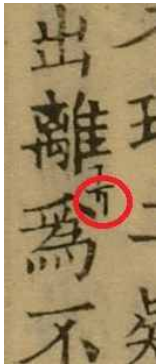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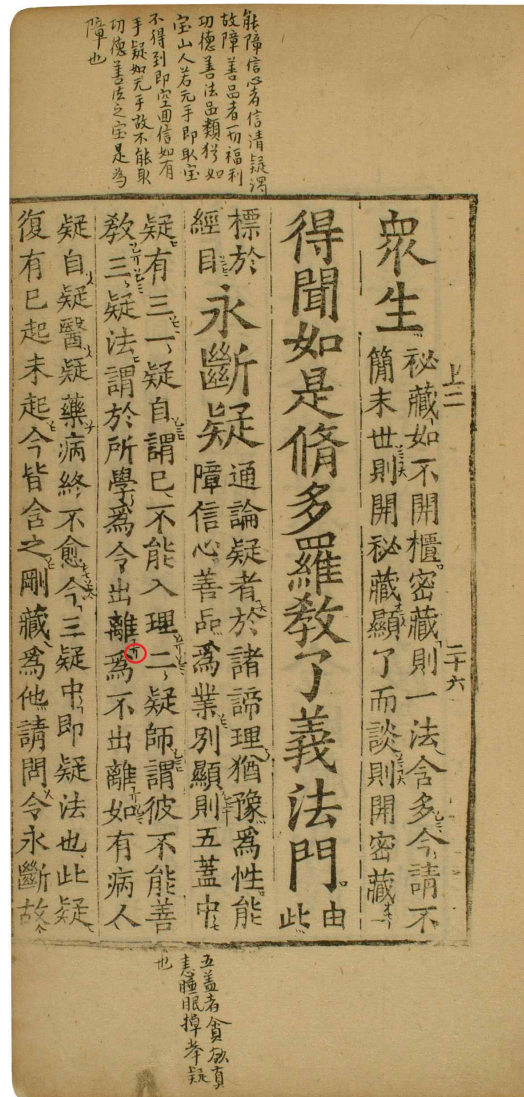
음독 구결 구결자별 부분 이미지 및 전체 이미지



위의 엑셀 파일과 이미지 파일은 다음의 [표 6과] 같은 한글 파일로 작성되었다.

[표 6] 구결자별 수집 결과 한글 파일(예: 음독구결에 사용된 ‘可’)

구결자	기존 코드	HNC 코드	독음 정보	원 글자 정보	출전 문헌명 권차 장차 행차
可	N_005	1D04	가	可	101_상2_026a_11해
출전 내용	三 疑法ヒ 謂於所學 爲令出離 1 可 爲不出離 1 可 ヽニ、				



3. 작업 미비점 및 보완 필요 사항

① 유니코드 사용자 영역에 추가된 19자 작업 미비

-원인: 초기 대상 작업 구결자의 확정 시 한글(HNC) 코드 기준

-방안: 유니코드 사용자 영역 기준 대상 작업 구결자 확정

② 음독구결 자료 파일명 형식 미통일

-원인: 문헌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음. 기존 구축 텍스트 파일 검색 불가

-방안: 대상 문헌의 추가 및 문헌 추가 시 파일명 형식의 일관성 유지

③ 사용자 영역 배당 추가 19자 이후 재추가 구결자 목록

-원인: 새로운 구결자 출현, 석독구결 자료 신발견(자비도량참법)

-방안: 사용자 영역 배당 재추가 및 유니코드 등록 자료 구축 병행

④ 작업 방식의 효율성 검토

-원인: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의 채록 작업 방식의 차이, 문헌의 종류와 양

-방안: 유니코드 등록을 위한 샘플 확정 이후 작업 방식 선택

이외에도 엑셀 파일에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는 구결자가 기입된 부분의 텍스트 파일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나 독음의 영문 표기 등 유니코드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 방식을 논의 하여 부분적인 또는 전면적인 작업 방식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

4. 나오며

여기에서 제시하는 향후 과제는 2016년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유니코드 등록을 위한 구결자의 기초 자료의 구축 작업은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유효한 당시의 당면 과제를 1-3으로 정리하고, 두 가지를 덧붙여 제시한다.

① 구결자의 유니코드 등록을 위해서는 학자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리가 필요하다. 특히 구결학회와 개별 연구자의 노력보다는 문자코드 관련 분야의 공동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② 구결자뿐만 아니라 이두, 한국식 한자, 옛한글 등을 문자 코드 표준화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③ 유니코드 등록 문제와 별개로 구축된 기초 자료의 효과적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초 작업 조직에서부터 유니코드 등록 과정을 경험한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을 통한 교류가 필요하다.

⑤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같은 공공기관과 사업을 연계하여 작업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성과물을 공공의 자산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원식·문현수·안대현·하정수(2016), 「유니코드 구결자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대하여」, 구결학회(51회)·한국법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구결학회, 1-17.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199~232.
- 박진호(2015), 「국어 정보화의 방향-문자코드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25권 제2호, 국립국어원, 97-120.
- 이건식(1996), 「口訣字의 코드체계 定立을 위한 試論」, 『구결연구』 1, 구결학회, 235-265.
- 이건식(2010), 「국어정보화와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 제20권 제4호, 국립국어원, 111-126.
- 조성덕·김경석(2012), 「이두 한자 9자에 대한 전거 자료」, 구결학회 2015년 3월 21일 신상현 선생 유허발표회 발표 자료.
- 정재영·박진호(2002), 「구결 자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와 정보화』, 愚山 洪允杓教授 回甲 紀念 論文集 간행위원회, 태학사, 139-149.
- 홍완표(2015), 「데이터전송효율을 고려한 유니코드의 한글글자마디에 대한 연구」, 『JKIECS』 vol 10 no 1, 39-46.
- Unicode Consortium(2018), 「Chapter 18 East Asia」, 『The Unicode® Standard Version 11.0』, 691-740.(<http://www.unicode.org/versions/Unicode11.0.0/>)
- 《웹사이트》
- <http://www.unicode.org/charts/> for access to a complete list of the latest character code charts.
- <http://www.unicode.org/charts/PDF/Unicode-11.0/> for charts showing only the characters added in Unicode 11.0.
- <http://www.unicode.org/Public/11.0.0/charts/> for a complete archived file of character code charts for Unicode 11.0.
- <http://www.unicode.org/versions/Unicode11.0.0>

구결자의 유니코드 국제 표준 등록 방안

김준수(서울시립대)·배진솔(서울대)·엄상혁(서울대)

1. 서론

본 발표는 구결자의 유니코드 국제 표준 등록을 위한 이전까지의 노력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제적 등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구결자의 문자 코드 등록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중반 문자 코드의 컴퓨터상의 구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2년에는 구결학회의 주도로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 사용자 영역에 구결자가 등록되었으며, 1994년 무렵에는 구결학회·문자코드위원회·국립국어원의 주도로 UCS에 등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 표준 코드 등록에 있어 실제적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2010년대 말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그간의 선행 노력들과 연구 성과를 정리한 후, 실제적 등재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구결자의 컴퓨터상의 구현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구결학회·문자코드위원회·국립국어원 등의 노력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련 논문과 보고서,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관계자들의 인터뷰는, 구술 및 서면 인터뷰 형식을 취하였다.²⁾ 둘째는 구결자의 유니코드 국제 표준 등록을 위한 실제적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들을 정리하여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구결자의 비표준 코드 현황

2018년 8월 현재 구결자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Word에서 구현이 가능하다.³⁾ 그 외의 프로그램에서는 구현되지 않는다.

한/글의 경우, 구결자는 한글(HNC) 영역의 1D00~1E0C에 269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유니코드 문자표의 사용자 영역(옛한글 포함)의 F67E~F77C에 255자, 한글 호환 영역의 0F0405~0F0470에 33자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에서의 입력 및 출력은 특정 폰트에 국한된다. 바탕, 한컴바탕, 신명조 등의 폰트만이 구결자를 문제 없이 구현해 낼 수 있다. 함초롬바탕 등의 폰트는 일부 구결자만이 구현 가능하다. 그 외의 폰트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유니코드에 등재되지 않은 구결자는 한/글과 MS Word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
- 1) 본 발표의 기획과 준비는 이진식(단국대) 선생님의 지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2) 이승재(국립국어원), 조남호(명지대), 신상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경석(부산대)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약 20여 년 전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3) 국내의 구결 연구자들은 주로 한/글을 이용하여 구결자의 입출력을 한다. 구결사전 및 자토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의 자료가 입력된 sktot 역시 한/글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는 구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한/글과 MS Word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구결자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까닭에 구결자가 제목에 들어간 논문의 검색 및 출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⁴⁾ 심지어 한/글과 MS Word에서도 일부 폰트에서만 완전 구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의 구결 연구 성과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구결자의 국제 표준화 및 유니코드 등록이 시급한 시점이다.

3. 구결자 전산화 및 표준화를 위한 선행 노력

1990년대 초중반 컴퓨터의 보급 및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문자 코드의 전산화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문자 코드의 전산화 흐름을 타고 한글의 컴퓨터상의 구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류 속에서 옛한글과 구결자의 컴퓨터상의 구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이 발달되면서 국가 간 문자 코드를 통합할 필요성이 증대했고, 이로 말미암아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결성되었고 유니코드가 부상하였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구결자를 전산화하고 유니코드에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한글과컴퓨터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기업과 접촉하여 구결자를 해당 문서작성기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구결자 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구결자를 유니코드에 등록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본장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앞선 노력들을 정리할 것이다.

3.1. 한국어전산회, 1989년

처음으로 구결자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전산화한 사례는 구결자와 이두자를 구별하지 않고 100자의 구결자와 이두자를 <보석글 II>에서 입출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등재된 구결자는 김두찬, 이승재 교수가 선정했으나 선정 원칙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알려진 구결자와 이두자 중에서 자주 쓰이거나 한자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없는 구결자나 이두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이건식 1996: 250).

생획의 구결자만이 대상이 되었으며 한자와 자형이 동일한 구결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당시 발견되었던 모든 생획 구결자가 등재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용자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글자수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목록이 아니며 그 자형도 세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구결자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홍윤표 1995: 196).

3.2. 구결연구회(現 구결학회), 1992년

4)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구결자와 자형상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여 구결자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비근한 예로, 이용(1999)에서는 논문의 제목에서 구결자 ‘ㄱ’을 나타내기 위해 한글의 ‘ㄱ’을 사용하였으며, 김양진(2007)에서는 구결자 ‘ㄴ’과 ‘ㄷ’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 가타카나의 ‘ㄴ’과 ‘ㄷ’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구결자와 자형상 유사해 보인다는 이점은 있지만, 검색에 제한이 있고 모든 구결자를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결연구회>에서 244자의 구결자 목록과 그 표음을 정하여 폰트를 제작하고, 이를 넘겨받아 ‘한글과컴퓨터’가 문서작성기 ‘한/글 2.0 전문가용’에서 구결자를 구현했다. 244자 구결자는 ‘1D00’(ハ)부터 ‘1DF3’(十)까지의 문자 코드를 담당받았다. 제정 원칙은 아래와 같다(이건식 1996: 236-240).

- (1) 가. 생획의 구결자와 전자의 구결자를 모두 등재한다.
 나. 자형이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하지만 한자 원자나 자형의 형성방식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등재한다.
 다. 자형이 동일하고 한자 원자가 같지만 표음이 달라지면 각각 별도로 등재한다.
 라. 개인적인 필기습관에 의한 서체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하여 등재한다.
 마. 모음조화 규칙에 따른 모음 차이는 배제하고 그 표음을 정한다.
 바. 구결자의 배열 순서는, 첫째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하되 ‘·’와 ‘.’는 모음의 맨 뒤에 배열했으며, 둘째 동일한 자음 내의 순서는 자형의 획수가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배열한다.

이후 ‘한/글 3.01b’(1995. 8.)에 구결자 16자(1DF4~1E03)가 추가되었으며, 이어 ‘한/글 97’(1997)에 구결자 9자(1E04~1E0C)가 추가되었다. 이에 한글과컴퓨터사의 문서작성기에는 ‘한/글’에는 총 269자의 구결자가 수록되어 있다(정재영 외 2002: 41).

그러나 구결자 목록 선정 기준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구결자의 자음을 잘못 규정한 경우가 있으며 구결자의 자형 규정에 오류가 있다. 또한 개인적인 필기 습관일 뿐 자형상의 차이가 변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했다. 또한 대표음 전용 현상으로 그 표음을 통합할 수 있는 구결자 역시 분리하여 목록에 등재하였다(이건식 1996: 240-243).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서작성기에 244자의 구결자를 구현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구결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3.3. 이승재(1993)

이승재(1993)에서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구결자의 결정 방법과 그 목록을 제시했다. 글자 모양만을 가지고 구결자를 결정하게 되면 학자마다 구결자의 숫자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결자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2) 가. 同一 讀法의 원칙 : 글자 모양이 같더라도 읽는 방법이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구결자로 취급한다.
 나. 同一 變形의 원칙 : 같은 한자에서 오고 같은 독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형 과정이 서로 다르다면 다른 구결자로 취급한다.
 다. 同一 書體의 원칙 : 서체가 다르면 서로 다른 구결자로 취급한다.
 라. 同一 時代의 원칙(同一 資料의 원칙 또는 同一 筆者의 원칙) : 문자사의 관점에서 세운 원칙으로 시대나 자료, 필자가 다르다면 다른 구결자로 취급한다.

이 원칙은 1992년 문서작성기 ‘한/글 2.0 전문가용’에 적용된 구결자의 선정 기준을 보다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입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구결자의 자형을 각기 다른 문자로 취급한다면, 이는 검색뿐만 아니라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일한 형태소에 두 개의 구결자가 배당되어 있다면, 검색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 상황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3.4. 국립국어원 K763문서(1994. 1.) / 국립국어원 K830문서(1994. 8.)

1992년 6월 제22차 WG2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 전에 구결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ISO/IEC 10646-1에서는 빠졌다(송관호 1996: 41). 1993년 10월 ISO/IEC의 WG2에 구결자의 표준화와 관련된 초안(N936)을 제출했으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다.⁵⁾ 이후에 있을 제25차 ISO/IEC JTC1/SC2/WG2 회의(1994. 4. 터키)에서 논의할 구결자 목록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자음(字音) 중심의 구결자 목록(275자)’과 ‘자형(字形) 중심의 구결자 목록(240자)’이 제시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은 ‘구결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음 중심의 구결자 목록’을 채택하고 그 선정 원칙을 제시했다. ‘자형 중심의 구결자 목록’은 전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작성한 목록이다.

(3) 가. 정체자 구결자를 구결자 목록에 포함한다.

나. 동일한 자형의 구결자일지라도 독음이 다르면 다른 코드값을 배당한다.

다. 구결자의 배열은 독음의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해당 원칙은 이승재(1993)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과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ISO의 원칙은 하나의 자형에는 하나의 코드가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에 입각한다면 ‘자음 중심의 구결자 목록’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원의 K830문서(1994. 8.)에서는 ‘자형 중심의 구결자(240자)’를 최종안으로 채택했으며 그 선정 원칙은 아래와 같다.

(4) 가. 동일 자형에는 동일 코드를 배정한다.

나. 한자와 자형이 같은 정자 구결자도 포함한다.

다. 구결자의 배열은 독음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독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획순으로 한다.

이와 같은 선정 원칙은 ISO의 원칙에 상당히 부합하지만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在’의 생획자 ‘ナ[겨]’와 ‘大’의 생획자 ‘ㄸ[대]’는 동일한 자형이지만 그 소리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만약 둘을 하나의 구결자로 처리한다면 검색하는 이가 일일이 ‘[겨]’인지 ‘[대]’인지를 판

5) 해당 문서(N936)의 제목은 ‘A Draft proposal on adding Gugyeol’이며 작성자는 김경석 교수(부산대)로 되어 있다. 김경석 교수와 연락해 본 결과,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없었으며 그 문서가 WG2에 제출되었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N936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유니코드 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구결자가 유니코드에 등록되지 못한 것은 합의된 구결자의 목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정자체 구결자를 동일한 자형인 한자와 어떻게 차별성을 두어 ISO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추가적으로 1993년에 제안된 초안(N936)의 ‘1.Background’ 앞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그 내용은 구결자는 한자에서 변형된 문자이지만 그 기능과 쓰임이 한자와 전혀 달랐다는 점과 구결자는 한자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3.6. 이견식(1996)

1992년 ‘한/글 2.0b’의 244자 구결자 코드체계의 상세한 제정 경위와 제정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수록된 구결자의 목록과 표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승재(1993)에서 사용된 용어를 빌려오면서도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5) 가. 동일 독법의 원칙

- ㄱ. 독법이 다르면 자형이 다르거나 같거나 간에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 ㄴ. 자음의 전용현상에 따라 독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한다.

나. 동일 변형의 원칙

- ㄱ. 자형 형성방식이 달라 자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 ㄴ. 한자 원자가 다르고 자형 형성방식이 다르나 자형이 우연히 같아졌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 ㄷ. 개인적인 필기 습관에 따른 자형상의 미세한 차이는 변별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하나의 구결자로 통합한다.
- ㄹ. 자형 형성방식이 같으나 시대적인 변화로 분명한 자형상의 차이를 보여 줄 경우 서로 다른 구결자로 규정한다.

위의 원칙은 상당히 전산화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또한 구결자의 정연한 체계를 위하여 정자체 구결자를 등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표음이 다르지만 동일한 자형을 각기 다른 구결자로 규정하는 원칙은 검색이나 정렬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국제표준위원회의 원칙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문서상에서 검색이나 정렬을 용이하게 하면서, 유니코드에 등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3.7. 제33차 ISO 문자 코드 회의, 1997년

1997년 6월에 ISO/IEC의 WG2에서 N1606(Postponement of Gugyeol Proposal)을 제안하고 수차례에 걸쳐 구결자 등록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중국과 일본 등의 반대로 제안을 철회했다(신상현 2015).⁶⁾

6) ISO/IEC의 WG2에 N936(1993. 10.)와 N1606(1997. 6.)이 제안된 것은 유니코드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내용까지는 실려 있지 않다. 또한 당시 회의록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3.8. 신상현(2015)

2015년 3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구결자를 UCS에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구결자를 한자로 취급하는 방안의 경우, 동일한 자형은 UCS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한자와 동일한 정자체 구결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작은 글자체로 폰트를 조정하여 정자체 구결자를 등록하는 것인데, 정자체 구결자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전거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낱글자 분해를 최소화하거나 한자와 같아지는 구결자를 없애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9. 김원식 외(2016)

김원식 외(2016)에서는 구결자를 유니코드에 등록하기 위한 전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자형의 동일성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형 중심의 문자 코드 정리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니코드 사용자 정의 영역에 배정된 255자의 구결자(U+F67E~U+F77C)를 중심으로 전거를 마련했다. 개인적인 필기 습관이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자형이 미세한 차이를 보일 경우 통합할 것인지, 현재처럼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구결자는 2018년 현재까지 유니코드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구결 전문가들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컴퓨터 전문가들의 구결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국어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적 구현을 위한 원칙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구결자 목록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 사이의 합의되지 않았다. 구결자의 선정 원칙, 음가 추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구결자의 국제 표준 코드 등록 방안

4.1. 국제 표준 등록의 필요성

구결자는 현재 유니코드 국제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영역(PUA)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지원이 없으면 언제든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글과 MS Word 이외의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PDF나 웹브라우저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되려면 국제 표준 코드로 등록되어야 한다. 셋째, 한/글이나 MS Word에서도 특정 폰트에서밖에 구현이 되지 않는다. 넷째, 중국에서 이두자와 구결자를 소수 민족 문자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에서 구결자에 대한 이해도는 국내 구결 연구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구결의 입출력, 검색 등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구결자를 사용하는 것은 구결 연구자이다. 따라서 구결 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 등록을 위한 구결 연구자들의 노력이

시급하다.

4.2. ISO/IEC의 기준 및 원칙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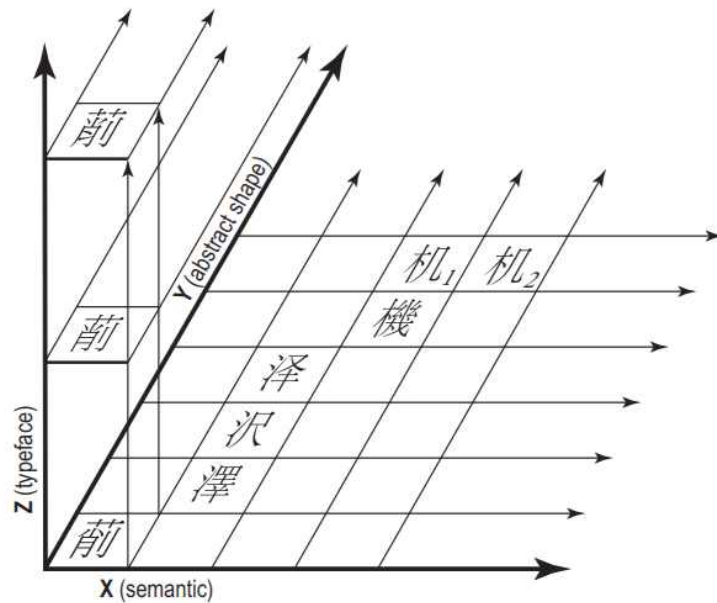
유니코드 국제 표준 규격에 신규 문자를 등록하는 기준은 《신규 문자 및 문서 할당의 원칙과 절차》(ISO/IEC JTC 1/SC 2/WG 2 N4502)의 부록 F, G에서 확인할 수 있다⁷⁾. 각각의 문서에서는 신규 문자가 기존 문자의 변형인지, 조합인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부록 F는 기존 문자의 변형을, 부록 G는 기존 문자의 조합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구결의 경우 부록 F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2.1. 비단일화

비단일화 공식 기준(Formal Criteria on Disunification) (ISO/IEC JTC 1/SC 2/WG 2 N 1724)에서는 유사해 보이는 두 문자를 비단일화하여 구별하고자 할 경우, 구별에 드는 수고와 비단일화 결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하여,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해두었다. 자형상, 양식(behavior)상, 문헌상의 차이가 현격할수록 구별에 드는 수고는 줄어들 것이다. 해당 문서에서는 소수점 구별 기호를 일반 점과, Å를 A+°과 비단일화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전자는 거부, 후자는 채택되었다). 구결은 중세 한국어 문헌의 기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이득을 지니고 있으나 자형이 한자와 비슷하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보인다.

한자는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많아 한자의 단일화 기준은 유니코드 11.0(2018: 702-706)에서 한자의 단일화 원리에 대하여 별도로 논하고 있다. 첫 번째 규칙은 하위호환성을 위해 기존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 규칙은 자원(字原)이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규칙으로는 글꼴상의 차이와 추상적 자형의 차이를 분리하여 글꼴상의 차이로 판별된 것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자원 및 의미(1), 실제 글꼴(2), 추상적 자형(3)의 삼차원의 그래프를 형성한다.

7) 유니코드에 등록되기 위한 규정은 유니코드 국제 표준화 기구 작업 그룹 중 하나인 WG 2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유니코드의 한자의 단일화 기준[Figure 18.3 (유니코드 11.0 2018: 702)]

4.2.2. 배당 영역

위의 기준을 만족한 문자는 사용자 정의 영역(PUA), 보조 다국어 평면(SMP), 기본 다국어 평면(BMP) 중 하나에 배당된다. 배당되는 위치는 기존에 배당된 문자의 위치와 사용자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매우 작고 폐쇄된 집단만이 사용하고, 기존에 아직 부호화된 적이 없는 경우 PUA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구결은 이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MP에는 현재 상용되는 문자를 주축으로 하여, 기존 집합에 추가되는 문자만이 주로 배당되도록 되어 있다. BMP의 여유 공간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도 BMP의 배당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SMP에 배당된다. 잘 알려진 문자 가운데 SMP에 배당된 문자로는 췌기 문자가 있으며, 근래에 추가된 변체거나 역시 SMP에 배당되었다.

위의 비단일화 과정에서 한자와의 차별성이 어느 단계까지 입증되는지에 따라 배당 영역의 소집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한자와 자형상의 차이만을 인정받는다면 BMP 한자 영역의 일부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실제로 몇몇 구결자는 BMP 한자 영역에 추가되어 있다. 한편 별개의 문자 체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유사한 원리로 형성된 가나 및 주음부호와 마찬가지로 구결 역시 별개의 범주로서 배당될 것이다.

4.2.3. 사용자 수

3. Proposed category (select one from below - see section 2.2 of P&P document):

A-Contemporary	☒	B.1-Specialized (small collection)	☐	B.2-Specialized (large collection)	☐
C-Major extinct	☐	D-Attested extinct	☐	E-Minor extinct	☐
F-Archaic Hieroglyphic or Ideographic	☐	G-Obscure or questionable usage symbols	☐		

<그림 2> 유니코드의 사용자 수에 따른 범주

- (6) A: Contemporary(상용) - 미얀마 문자
- B: Specialized(특화) - 이용률은 높지 않으며 원어민 화자가 적거나 매일 사용하지 않음(글자 수에 따라 B1(적음), B2(많음)으로 하위 분류) - 자바 문자 / 쉐놈
- C: Major extinct(소멸했으나 자료가 많음) - 선형문자 B
- D: Attested extinct(소멸이 입증됨) - 사마리아 문자
- E: Minor extinct - Khotanese
- F: 고고학적 상형문자 혹은 표의문자 - 히에로글리프, 거란 문자, 여진 문자
(글자 수가 매우 많음 - 160자 이상)
- G: 소멸, 혹은 용법을 알 수 없는 상징 - 룡고룡고 문자

유니코드에서 제시한 사용자 수 범주는 <그림 2>와 (6)에서처럼 8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구결의 경우 글자 수가 200여자로 다소 많아 F로 볼 수도 있는 한편, 문헌의 양이나 연구의 진척도 면에서는 C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 혹은 F의 부류에 있는 문자들의 제안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구결의 등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유사한 대상으로 비교되는 일본어의 변체가나는 현대 일본어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보기에 어려우나 A로서 제안되었다.

4.2.4. 참고 사례

① BMP 한자 영역의 한국 이두

BMP 한자 영역에 실린 한국 이두는 91자⁸⁾이다. 이는 1990년 중국 국가 표준 GB12345-90⁹⁾에서 홍콩과 한국에서 쓰이는 문자를 각각 58자, 92자씩 등록한 결과이다(국립국어원 2010: 14)¹⁰⁾. 중국 국가 표준에서는 92자를 등록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91자만이 실려있다. 이 과정에서 'Idu'라는 이름으로 제안하였으나 그 안에는 이두자, 구결용 약자, 한국의 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 한자 사전에도 몇몇 자는 '음독자', 몇몇 자는 '구결자'로 훈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다.

<표 1> BMP 한자 영역의 한국 이두자

𠂔 (U+4E06)	𠂕 (U+4E37)	𠂖 (U+4E41)	𠂗 (U+4E4A)	𠂘 (U+4E5B)
𠂙 (U+4E64)	𠂚 (U+4E65)	𠂛 (U+4E6B)	𠂜 (U+4E6C)	𠂝 (U+4E6D)
𠂞 (U+4E6E)	𠂟 (U+4E6F)	𠂠 (U+4E72)	𠂡 (U+4E76)	𠂢 (U+4E7A)
𠂣 (U+4E7B)	𠂤 (U+4E7C)	𠂥 (U+4E7D)	𠂦 (U+4E87)	𠂧 (U+4EAA)

8) GB 12052-89에서는 94자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𠂔, 𠂕, 𠂖가 빠졌다.

9)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홍콩, 대만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유니코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이어졌다. 제공된 자료 목록은 JTC1/SC2/WG2/IRG N10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ISO/IEC 10646 개정판(제2판) 최종 위원회 초안(FCD)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문, 2010.9.

𐄂 (U+4EBD)	𐄃 (U+4ED2)	𐄄 (U+4FA4)	𐄅 (U+516F)	𐄆 (U+517A)
𐄇 (U+536A)	𐄈 (U+5381)	𐄉 (U+5391)	𐄊 (U+53BC)	𐄋 (U+54DB)
𐄌 (U+551F)	𐄍 (U+55B8)	𐄎 (U+55ED)	𐄏 (U+5655)	𐄐 (U+56CD)
𐄑 (U+56D5)	𐄒 (U+5788)	𐄓 (U+58ED)	𐄔 (U+591E)	𐄕 (U+593B)
𐄖 (U+5AA4)	𐄗 (U+5CBE)	𐄘 (U+5DEA)	𐄙 (U+5DEC)	𐄚 (U+5DED)
𐄛 (U+5DFC)	𐄜 (U+5EE4)	𐄝 (U+603E)	𐄞 (U+65C0)	𐄟 (U+65D5)
𐄠 (U+6729)	𐄡 (U+6730)	𐄢 (U+680D)	𐄣 (U+6927)	𐄤 (U+693A)
𐄥 (U+698B)	𐄦 (U+698C)	𐄧 (U+6A74)	𐄨 (U+6A75)	𐄩 (U+6A7B)
𐄪 (U+6AF7)	𐄫 (U+6B0C)	𐄬 (U+6B15)	𐄭 (U+6D4C)	𐄮 (U+70BA)
𐄯 (U+7233)	𐄰 (U+729C)	𐄱 (U+7320)	𐄲 (U+7364)	𐄳 (U+7553)
𐄴 (U+785B)	𐄵 (U+7873)	𐄶 (U+78D7)	𐄷 (U+7A24)	𐄸 (U+7A52)
𐄹 (U+7B7D)	𐄺 (U+7E07)	𐄻 (U+7F56)	𐄼 (U+7F98)	𐄽 (U+824D)
𐄾 (U+83BB)	𐄿 (U+848A)	𐅀 (U+8644)	𐅁 (U+87A6)	𐅂 (U+8968)
𐅃 (U+8FF2)	𐅄 (U+9007)	𐅅 (U+9064)	𐅆 (U+95AA)	𐅇 (U+95CF)
𐅈 (U+97B0)				

이 중에서 10여 자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으로 ‘구결(kwukyel)’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표 2>). 이 부류에는 한국 국자로서 사용되는 문자는 없으나 음독자와 구결자가 섞여 있다. 예컨대 ‘𐄂’는 ‘구결(kwukyel)’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음독자이다. 또한 ‘𐄂’과 같은 합자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구결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 2> ‘구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글자

𐄂 (U+4E06)	𐄃 (U+4E37)	𐄄 (U+4E4A)	𐄅 (U+4E5B)	𐄆 (U+4E65)
𐄇 (U+4E87)	𐄈 (U+4EAA)	𐄉 (U+4EBD)	𐄊 (U+4ED2)	𐄋 (U+516F)
𐄌 (U+536A)	𐄍 (U+53BC)	𐄎 (U+58ED)	𐄏 (U+6729)	𐄐 (U+6730)
𐄑 (U+7F56)				

② 일본의 変体仮名 등록

일본의 변체가나는 총 285자가 유니코드 10.0부터 SMP 가나 보충 영역(U+1B000 - U+1B0FF)에 등록되어 있다. 변체가나 등록 제안서는 L2/15-239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변체가나의 제안서는 개인이 제출한 2009년의 제안서와 정보처리학회에서 제출한 2015년의 제안서, 두 개가 존재한다. 전자는 채택되지 않은 데 비해 후자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4.3. 국제 표준 코드 등록 방안

구결자를 국제 표준 코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결자의 목록을 확정해야 하며, 구결자가 등재되어야 하는 논리성을 확보해야 하고, 구결자의 실제 사용 전거를 마련해야 한다.

4.3.1. 구결자 목록의 확정

기존의 자음 중심의 원칙을 재고하고, 자형 중심의 원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는 두 글자의 자음이 다르더라도 자형이 같다면 하나의 문자 코드를 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현재 HNC 사용자 영역에는 269자가 들어가 있는데, 유니코드

사용자 영역에는 255자만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 때문이다(김원식 외 2016: 5). 자형 중심의 원칙을 세울 경우,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7) 가. 동일 자형이더라도 음가가 서로 달라 다른 글자로 처리된 경우.
(예: ‘乎’의 생획자인 ‘丿[오](1dc4)’, ‘丿[호](1de8)’)
- 나. 동일 자형이더라도 형성 방식이 달라 다른 글자로 처리된 경우.
(예: ‘在’의 생획자인 ‘ナ(1d09)’와 ‘大’의 생획자인 ‘ナ(1d2d)’, ‘音’의 생획자인 ‘ㄴ(1d6e)’와 ‘立’의 생획자인 ‘ㄴ(1d94)’)
- 다. 동일 자형이더라도 서체상의 차이에 따라 다른 글자로 처리된 경우.
(예: ‘ㄴ(1d5e)’와 ‘ㄴ(1d5f)’, ‘ㄴ(f6e3)’과 ‘ㄴ(f6e4)’)
- 라. 시대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
(예: ‘ㄴ(f6de)’와 ‘ㄴ(f6df)’, ‘久(f6f7)’과 ‘久(f6f8)’)

자형 중심의 원칙에 따라 (7가, 7나, 7다, 7라)의 경우 모두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한 글자로 통합해야 한다.¹¹⁾ (7라)의 경우 폰트상 구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다.

본 발표에서 제안하는 자형 중심의 구결자 목록 제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8) 가. 동일 자형의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진 것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예: 丿/丿 등)
- 나. 동일 자형의 서로 다른 형성 방식을 가진 것은 자형상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
(예: ナ/ナ, ㄴ/ㄴ 등)
- 다. 정자와 생획자는 서로 구별한다.
(예: 加/カ/カ, 去/去 등)
- 라. 동일 음가의 구결자 사이의 획의 유무는 서로 구별한다.
(예: カ/カ 등)
- 마. 개인 필기 습관이든, 시대상의 차이든 서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예: ㄴ/ㄴ, 去/去, 乙/乙, 久/久, ㄴ/ㄴ/ㄴ 등)

구결자 목록을 배열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9) 가. 대표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 나. 정자와 생획자가 있을 때 생획자를 먼저, 정자를 나중에 배열한다.
- 다. 동일 음가에 대해서는 획순이 적은 것부터 배열한다.

구결자의 이름(문자명)을 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0) 가.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 나. 동일 음가의 경우 ‘IL, I, SAM, …’을 매긴다.

11) (7나)의 경우, 자형상 약간의 차이를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구결 입력 자형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형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 음가에 아래아(·)가 포함된 글자는 ‘ARAEA’라고 명기한다.

라. 음가를 알기 어려운 글자는 ‘UNKNOWN’이라고 한다.

위의 원칙에 따라 구결자 목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총 243자이다.

<표 3> 자형 중심의 구결자 목록과 그 명칭

연번	자형	유니코드	통합된 글자	대표음	문자명
1	ハ	F696	ハ0F0450 ハ0F0452 ハ0F0464	ㄱ	GUGYEOL G
2	号	F680		가	GUGYEOL GA IL
3	可	F67F	ㄱ0F67E	가	GUGYEOL GA I
4	力	F6B6	ㄱ0F0455	가	GUGYEOL GA SAM
5	方	F6B7		가	GUGYEOL GA SA
6	叻	F6B8		가	GUGYEOL GA O
7	加	F6B9	ㄱ0F0456	가	GUGYEOL GA YUK
8	何	F76C		가	GUGYEOL GA CHIL
9	去	F681		거	GUGYEOL GEO IL
10	去	F683	ㄱ0F682	거	GUGYEOL GEO I
11	巨	F684		거	GUGYEOL GEO SAM
12	ナ	F686		겨	GUGYEOL GYEO
13	口	F687		고	GUGYEOL GO IL
14	古	F688		고	GUGYEOL GO I
15	毘	F689		곤	GUGYEOL GON
16	尔	F690	ㄱ0F691 ㄱ0F045D	곰	GUGYEOL GOM
17	人	F68C		과	GUGYEOL GWA IL
18	木	F68B		과	GUGYEOL GWA I
19	果	F68E		과	GUGYEOL GWA SAM
20	戈	F68A		과	GUGYEOL GWA SA
21	曰	F68D	ㄱ0F045C	과	GUGYEOL GWA O
22	官	F68F		관	GUGYEOL GWAN
23	斤	F6AB		근	GUGYEOL GEUN
24	己	0F0451		괴	GUGYEOL GEUI IL
25	十	F779		괴	GUGYEOL GEUI I
26	中	F77A		괴	GUGYEOL GEUI SAM
27	豈	F692		기	GUGYEOL GI
28	𠂔	F695		곤	GUGYEOL ARAEA GAN
29	𠂔	F693		곤	GUGYEOL ARAEA GAT
30	皆	F694		기	GUGYEOL ARAEA GAI
31	ㄱ	F6AC		ㄴ	GUGYEOL N IL
32	隱	F6AF		ㄴ	GUGYEOL N I
33	乃	F69B		나	GUGYEOL NA IL
34	尹	F698		나	GUGYEOL NA I
35	尹	F699		나	GUGYEOL NA SAM
36	那	F69A		나	GUGYEOL NA SA
37	女	F69E		녀	GUGYEOL NYEO IL
38	汝	F69D		녀	GUGYEOL NYEO I

39	ノ	F6A0		노	GUGYEOL NO IL
40	又	F69F		노	GUGYEOL NO I
41	奴	F6A1		노	GUGYEOL NO SAM
42	卜	F6A4	卜 0F0468	누	GUGYEOL NU
43	ヒ	F6A5		니	GUGYEOL NI IL
44	尼	F6A6		니	GUGYEOL NI I
45	行	F6A7		느	GUGYEOL ARAEA NA IL
46	ヒ	F6A8	ヒ 0F0453	느	GUGYEOL ARAEA NA I
47	飞	F6A9		느	GUGYEOL ARAEA NA SAM
48	飛	F6AA		느	GUGYEOL ARAEA NA SA
49	丨	F6B0		다	GUGYEOL DA IL
50	如	F6B3		다	GUGYEOL DA I
51	夕	F6B1		다	GUGYEOL DA SAM
52	多	F6B2		다	GUGYEOL DA SA
53	ナ (자형 변형)	0F0454		대	GUGYEOL DAE IL
54	大	F6B5		대	GUGYEOL DAE I
55	𐄢	F711		더	GUGYEOL DYEO IL
56	𐄣	F6BA		더	GUGYEOL DYEO I
57	𐄤	F6BB		더	GUGYEOL DYEO SAM
58	𐄥	F6BD		더	GUGYEOL DYEO SA
59	丁	F6BC		뎡	GUGYEOL DYEONG
60	田	F6BE		덴	GUGYEOL DYEN
61	刀	F6C0		도	GUGYEOL DO IL
62	都	F6C1		도	GUGYEOL DO I
63	斗	F6C2		두	GUGYEOL DU IL
64	斗	F6C3		두	GUGYEOL DU I
65	豆	F6C4		두	GUGYEOL DU SAM
66	入	F6CE		들	GUGYEOL DEUL
67	土	F6C5	土 F769	디	GUGYEOL DI IL
68	地	F6C6		디	GUGYEOL DI I
69	矢	F6C7		디	GUGYEOL DI SAM
70	知	F6C8		디	GUGYEOL DI SA
71	支	F6B4		디	GUGYEOL DI O
72	吐	F76A		디	GUGYEOL DI YUK
73	陳	F6C9		딘	GUGYEOL DIN
74	の	F6CD	の 0F0458	득	GUGYEOL ARAEA DA IL
75	月	F6CC	月 0F045A	득	GUGYEOL ARAEA DA I
76	ホ	F6CA	ホ 0F0459	득	GUGYEOL ARAEA DA SAM
77	等	F6CB		든	GUGYEOL ARAEA DAN
78	冬	F6CF		둘	GUGYEOL ARAEA DAL
79	ム	F6D0	ム 0F046C	디	GUGYEOL ARAEA DAI IL
80	矣	F6D1	矣 0F046D	디	GUGYEOL ARAEA DAI I
81	弋	F6D2	弋 0F046E	디	GUGYEOL ARAEA DAI SAM
82	代	F6D3		디	GUGYEOL ARAEA DAI SA
83	乙	F6EA	乙 F6EB	르	GUGYEOL R IL
84	尸	F6EC	尸 0F046F	르	GUGYEOL R I
85	、	F6D4		라	GUGYEOL RA IL
86	人	F6D5		라	GUGYEOL RA I

제55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87	四	F6D6	𠄎0F0462	라	GUGYEOL RA SAM
88	哭	F6D7		라	GUGYEOL RA SA
89	羅	F6D8		라	GUGYEOL RA O
90	難	F69C		란	GUGYEOL RAN
91	驢	F6D9		러	GUGYEOL REO IL
92	驢	F6DA		러	GUGYEOL REO I
93	呂	F6DC		려	GUGYEOL RYEO
94	𠄎	F6DE	𠄎F6DD 𠄎F6DF	로	GUGYEOL RO IL
95	以	F6E0		로	GUGYEOL RO I
96	录	F6E1		록	GUGYEOL ROK
97	論	F6A2		론	GUGYEOL RON
98	了	F6A3		료	GUGYEOL RYO
99	令	F6E2	令0F0463	리	GUGYEOL RI IL
100	牙	F6E3	𠄎F6E4 𠄎F6E5	리	GUGYEOL RI I
101	禾	F6E6		리	GUGYEOL RI SAM
102	利	F6E7		리	GUGYEOL RI SA
103	里	F6E8		리	GUGYEOL RI O
104	吝	F6E9		린	GUGYEOL RIN
105	宀	F703		口	GUGYEOL M IL
106	音	F704		口	GUGYEOL M I
107	广	F6ED	广0F046B	마	GUGYEOL MA IL
108	庌	F6EE		마	GUGYEOL MA I
109	麻	F6EF		마	GUGYEOL MA SAM
110	麼	F6F0		마	GUGYEOL MA SA
111	𠄎	F6F2	𠄎F6F1	마	GUGYEOL MA O
112	𠄎	F702		마	GUGYEOL MA YUK
113	万	F6F3		만	GUGYEOL MAN IL
114	萬	F6F4		만	GUGYEOL MAN I
115	木	F6F5		매	GUGYEOL MAI IL
116	賣	F6F6		매	GUGYEOL MAI I
117	分	F6F8	久F6F7	며	GUGYEOL MYEO IL
118	𠄎	F6F9		며	GUGYEOL MYEO I
119	弥	F6FA		며	GUGYEOL MYEO SAM
120	彌	F6FB		며	GUGYEOL MYEO SA
121	𠄎	F6FC		면	GUGYEOL MYEON IL
122	面	F6FD		면	GUGYEOL MYEON I
123	毛	F6FE		모	GUGYEOL MO
124	勿	F6FF		몰	GUGYEOL MEUL
125	未	F700		미	GUGYEOL MI IL
126	米	F701		미	GUGYEOL MI I
127	𠄎	F6BF		몰	GUGYEOL ARAEA MAL
128	𠄎	F707		ㅂ	GUGYEOL B IL
129	巴	F708	巴0F0457	ㅂ	GUGYEOL B I
130	邑	F709		ㅂ	GUGYEOL B SAM
131	邑	F705		ㅂ	GUGYEOL B SA
132	火	F706		봣	GUGYEOL ARAEA BAT
133	七	F722		ㅅ	GUGYEOL S IL
134	叱	F723		ㅅ	GUGYEOL S I

135	ㅅ	F70A		사	GUGYEOL SA IL
136	沙	F70B		사	GUGYEOL SA I
137	三	F70C		삼	GUGYEOL SAM
138	ハ	F70D		샤	GUGYEOL SYA IL
139	全	F70E		샤	GUGYEOL SYA I
140	舍	F70F		샤	GUGYEOL SYA SAM
141	ㅅ (자형 변형)	0F0405F		셔	GUGYEOL SYEO IL
142	立	F710		셔	GUGYEOL SYEO I
143	一	F712		셔	GUGYEOL SYEO SAM
144	西	F713	西 0F0469	셔	GUGYEOL SYEO SA
145	所	F715		소	GUGYEOL SO IL
146	戸	F714	戸 0F0470	소	GUGYEOL SO I
147	小	F716		쇼	GUGYEOL SYO
148	寸	F717		시	GUGYEOL SI IL
149	时	F718		시	GUGYEOL SI I
150	時	F719		시	GUGYEOL SI SAM
151	二	F71A		시	GUGYEOL SI SA
152	示	F71B		시	GUGYEOL SI O
153	氏	F71C		시	GUGYEOL SI YUK
154	ㄷ	F71F		시	GUGYEOL SI CHIL
155	申	F71D		신	GUGYEOL SIN
156	士	F71E		스	GUGYEOL ARAEA SA
157	白	F720		습	GUGYEOL ARAEA SAP
158	生	F721		싱	GUGYEOL ARAEA SAING
159	旧	F724		스	GUGYEOL ARAEA ZA IL
160	児	F725		스	GUGYEOL ARAEA ZA I
161	兒	F726		스	GUGYEOL ARAEA ZA SAM
162	牙	F727		아	GUGYEOL A IL
163	阿	F728		아	GUGYEOL A I
164	ㄷ	F72A		아	GUGYEOL A SAM
165	ㅍ	F6AD		아	GUGYEOL A SA
166	ㅍ	F6AE		아	GUGYEOL A O
167	良	F72B		아	GUGYEOL A YUK
168	厂	F72C		애	GUGYEOL AE IL
169	厓	F72D		애	GUGYEOL AE I
170	っ	F72E		야	GUGYEOL YA IL
171	也	F72F		야	GUGYEOL YA I
172	方	F730		어	GUGYEOL EO IL
173	才	F731		어	GUGYEOL EO I
174	丰	F732		어	GUGYEOL EO SAM
175	於	F733		어	GUGYEOL EO SA
176	宀	F734	宀 F735	언	GUGYEOL EON IL
177	言	F736		언	GUGYEOL EON I
178	龔	F737		얼	GUGYEOL EOL
179	余	F739		여	GUGYEOL YEO IL
180	与	F73A		여	GUGYEOL YEO I
181	乚	F73B		여	GUGYEOL YEO SAM
182	ゝ	F73C		여	GUGYEOL YEO SA

제55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183	亦	F73D		여	GUGYEOL YEO O
184	乚	F73E		여	GUGYEOL YEO YUK
185	曳	F73F		예	GUGYEOL YE
186	ㄹ	F740		오	GUGYEOL O IL
187	五	F741		오	GUGYEOL O I
188	ㄱ	F742		오	GUGYEOL O SAM
189	午	F743		오	GUGYEOL O SA
190	牛	F749		오	GUGYEOL O O
191	玉	F744		옥	GUGYEOL OK
192	溫	F745		온	GUGYEOL ON IL
193	溫	F746		온	GUGYEOL ON I
194	臥	F747		와	GUGYEOL WA
195	要	F6DB	要 0F046A	요	GUGYEOL YO
196	于	F748		우	GUGYEOL U
197	位	F74A		위	GUGYEOL WI
198	肩	F74B		은	GUGYEOL EUN IL
199	殷	F74C		은	GUGYEOL EUN I
200	應	F758		응	GUGYEOL EUNG
201	ㄹ	F74D		의	GUGYEOL EUI IL
202	衣	F74E		의	GUGYEOL EUI I
203	乚	F729		의	GUGYEOL EUI SAM
204	ㄴ	F74F	ㄴ 0F0460	이	GUGYEOL I IL
205	ㄴ	F750	ㄴ 0F045B	이	GUGYEOL I I
206	是	F751	是 0F0461	이	GUGYEOL I SAM
207	伊	F752		이	GUGYEOL I SA
208	已	F753	已 0F0451	이	GUGYEOL I O
209	印	F755	印 F754	인	GUGYEOL IN IL
210	引	F756		인	GUGYEOL IN I
211	刃	F759		인	GUGYEOL IN SAM
212	忍	F75A		인	GUGYEOL IN SA
213	成	F757		일	GUGYEOL IL
214	者	F75D		자	GUGYEOL JA
215	上	F75B		적	GUGYEOL JEOK IL
216	𠂔	F75C		적	GUGYEOL JEOK I
217	𠂔	F760	𠂔 F761	저	GUGYEOL JYEO IL
218	其	F75E		저	GUGYEOL JYEO I
219	其	F75F		저	GUGYEOL JYEO SAM
220	齊	F762		저	GUGYEOL JYEO SA
221	齊	F763		저	GUGYEOL JYEO O
222	之	F765		지	GUGYEOL JI IL
223	只	F697		지	GUGYEOL JI I
224	造	F766		짚	GUGYEOL JIZ
225	子	F77B		작	GUGYEOL ARAEA JA
226	他	F767		타	GUGYEOL TA IL
227	打	F768		타	GUGYEOL TA I
228	心	F764		터	GUGYEOL TYEO
229	下	F76B		하	GUGYEOL HA
230	ノ	F76D	ノ 0F0465	호	GUGYEOL HO IL
231	ㄷ	F76E	ㄷ 0F0466	호	GUGYEOL HO I
232	乎	F76F	乎 0F0467	호	GUGYEOL HO SAM

233	好	F770		호	GUGYEOL HO SA
234	忽	F771		홀	GUGYEOL HOL
235	𐄢	F772		히	GUGYEOL HI IL
236	兮	F773		히	GUGYEOL HI I
237	屎	F774		히	GUGYEOL HI SAM
238	ㄴ	F775	ㄴ 0F045E	ㅎ	GUGYEOL ARAEA HA IL
239	為	F776		ㅎ	GUGYEOL ARAEA HA I
240	焉	F777		ㅎ	GUGYEOL ARAEA HA SAM
241	ハ	F778		히	GUGYEOL ARAEA HAI
242	甲	F77C		?	GUGYEOL UNKNOWN
243	予	F7738		?	GUGYEOL UNKNOWN

4.3.2. 한자와의 차별화를 위한 논리

구결자를 독자적인 문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한자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자와의 차별성에 있어서는 정자와 생획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자의 경우, 한자와 자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¹²⁾ 구결자와 한자의 차이는 문자 체계상의 차이, 기능상의 차이, 로마자 대문자와 소문자의 관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자와 구결자는 문자 체계상 서로 차이가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구결자는 음절문자의 성격을 지닌다. 구결자는 일본의 가나와 마찬가지로 한자를 변형하여 만든 문자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 음절문자이다. 일본의 変体仮名가 최근 등재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한자와 구결자는 문자의 실제 사용(기능)이 서로 다르다. 한자는 한문과 중국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이지만, 구결자는 한문을 읽을 때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문자이다. 일본의 훈독지시부호(ゝ ー 二 三 四 中 下 甲 乙 丙 丁 天 地 人)의 경우 그 기능이 한자와 다르다(유니코드 3190~319F).

셋째, 한자와 구결자의 모양이 동일한 것이 문제로 대두될 경우, 로마자의 대문자와 소문자의 관계(C/c, K/k, M/m, N/n, O/o, P/p, S/s, U/u, V/v, X/x, Z/z)를 참조할 수 있다. 구결자의 자형은 한자와 같지만 크기가 한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상단에 치우치게 형성된 훈독지시부호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다.

신상현(2015)에서는 한자와의 차별성을 두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한자와 동일한 자형을 빼고 등록하는 방법, 구결자의 크기를 한자보다 작게 처리하는 방법, 낱글자 분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다.¹³⁾

한편 한자와 얼마큼 차별성을 확보하는가는, 구결자를 유니코드의 어떤 영역에 배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구결자를 한자의 확장(extension) 영역에 배당할 것인가, 한글 영역에 배당할 것인가, 별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SMP 영역의 한 면(plain)을 배당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加可去令木曰栗宜隨乃尹那女奴尼斤多如大力底底丁田刀都巴斗斗豆入地矢知支陳月等月冬矣代乙羅難驢要論利曰里各音麻廢萬彌面毛勿未邑火企舍立所小是示時氏申士白生兒喪阿牙厓也言麟余喪午五玉平显溫卜臥要于應衣矣癸伊引印上其齊之子他土吐下何乎尸尸忽爲十中艮行飛禾牛成進打好’ 등

13) 구두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구결자를 조합형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컨대 부가 기호(diacritic)의 첨가 방식과 같이 ‘加’의 경우 ‘ㄹ’과 ‘ㄱ’의 조합이 가능하게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4.3.3. 전거 마련

구결자가 실제로 사용되었고, 사용되는 문자라는 전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려시대 문헌에 대한 실제적 전거 마련에 대해서는 김원식 외(2016)에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고대한국어 연구를 하는 저서 및 논문에서 실제로 구결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4.4. 등록 절차

국제: (IRG) - WG2 - SC2 - JTC1 - ISO/IEC

국내: 구결 연구자(구결학회) - 국립국어원 / 문자코드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 국립전파연구원

5. 결론

(생략)

참고문헌

김원식·문현수·안대현·하정수(2016), 유니코드 구결자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대하여, 2016년 1월 구결학회 제51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

박진호(2015), 국어 정보화의 방향 — 문자 코드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97-120.

신상현(2015), 구결자 UCS 등록을 위한 설명 자료, 구결학회 3월 월례강독회 발표문, 1-20.

송관호(1996), 한국전산원 표준본부 총괄보고서 - KS C 5601 KS C 5700 의 변환 및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이건식(1996), 口訣字의 코드체계 定立을 위한 試論, 구결연구 1, 구결학회, 235-265

이승재(1993), 高麗末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325-379.

정재영·박진호(2002), 구결 자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139-149.

홍윤표(1995), 연구 보고서 한글 코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Unicode 11.0, Ch.18. East Asia

<http://www.unicode.org/versions/Unicode11.0.0/ch18.pdf>

Unicode 제안서 제출 목록

<http://unicode.org/wg2/docs/n1750w97.htm>

Unicode WG2,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llocation of New Characters and Scripts

<https://www.unicode.org/wg2/docs/n4502.pdf>

ISO/IEC JTC 1/SC 2/WG 2 N 1724 (Annex F)

<http://std.dkuug.dk/JTC1/SC2/WG2/docs/n1724r.pdf>

JTC1/SC2/WG2/IRG N1094

<https://hanzi.uni-han.com.cn/downloads/IcoreSourceID.doc>
ISO/IEC 10646 개정 판(제2판) 최종 위원회 초안(FCD)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문, 2010.9.
[http://www.korean.go.kr/common/download.do;front=19C2BB66A80B4BF1D351F757809F1D06?file_path=reportData&c_file_name=41f18971-2914-4549-93bb-cc5bf032b53f_0.pdf&ofile_name=ISO%20IEC%2010646%20%EC%A0%9C2%ED%8C%90%20%EC%B5%9C%EC%A2%85%20%EC%9C%84%EC%9B%90%ED%9A%8C%20%EC%B4%88%EC%95%88\(FCD\)%EA%B2%80%ED%86%A0%20%EA%B2%B0%EA%B3%BC%20%EB%B3%B4%EA%B3%A0%EC%84%9C.pdf&downGubun=reportDataViewForm&report_seq=513](http://www.korean.go.kr/common/download.do;front=19C2BB66A80B4BF1D351F757809F1D06?file_path=reportData&c_file_name=41f18971-2914-4549-93bb-cc5bf032b53f_0.pdf&ofile_name=ISO%20IEC%2010646%20%EC%A0%9C2%ED%8C%90%20%EC%B5%9C%EC%A2%85%20%EC%9C%84%EC%9B%90%ED%9A%8C%20%EC%B4%88%EC%95%88(FCD)%EA%B2%80%ED%86%A0%20%EA%B2%B0%EA%B3%BC%20%EB%B3%B4%EA%B3%A0%EC%84%9C.pdf&downGubun=reportDataViewForm&report_seq=513)
L2009/09099 2009년 변체가나 제안서
<https://www.unicode.org/L2/L2009/09099-hentaigana.pdf>
L2015/15239 2015년 변체가나 제안서
<https://www.unicode.org/L2/L2015/15239-hentaigana.pdf>

구결자 자형의 정리와 표준화에 대하여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

<별지 참조>

점토구결의 전산 입력 현황과 과제

문현수(숭실대)

1. 머리말

2000년 7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초조본 『瑜伽師地論』 卷8에서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교수에 의해 각필로 된 점토구결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종 이상의 점토구결이 발견되어 보고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자료로서, 최근에 가천박물관 소장 『瑜伽師地論』 卷53을 비롯하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瑜伽師地論』 卷66이 자료의 목록에 추가되는 등, 앞으로도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점토석독구결의 구결점과 부호는 한자의 내외부에 기입되어 있는데, 구결점의 경우 기입된 위치와 형태에 따라 변별적인 언어음과 대응된다. 따라서 점토석독구결이 언어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구결점이 어떠한 언어음과 대응되는지 밝히는 해독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구결점의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결점이 변별되는 위치와 형태가 각각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결점의 위치와 형태의 수는 자료의 계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자료의 계통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현토된 동일한 형태의 구결점이 별개의 언어음과 대응되기도 한다. 따라서 구결점의 판독 및 해독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자료의 계통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동일한 위치의 구결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자의 자형에 따라 물리적인 위치는 변이를 보이므로, 구결점의 위치를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서는 구결점의 기준 위치와 변이 위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편 점토석독구결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점토를 판독하고 해독한 결과를 일정한 형식을 취해 표기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점토를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점토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가령 동일한 구결점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전산화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일일이 영인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점토의 표기와 전산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전산화하는가에 있다. 자료별로 구결점이 달리 현토되는 현상도 반영하면서도 자료의 통일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점토의 판독과 해독의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창기에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방식의 점토 표기와 전산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현재는 장경준(2003)에서 제안한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을 토대로 점토의 표기와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점토석독구결의 표기와 전산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점토석독구결의 전산 입력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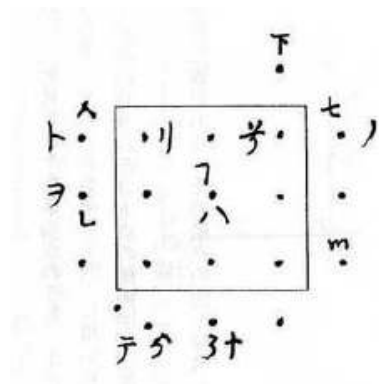
2. 점토석독구결의 전산화 과정

점토구결이 처음 발견된 이후 이를 학계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점토를 지면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초창기의 논의인 南豐鉉(2000), 李丞宰(2000), 윤행순(2001), 鄭在永(2001), 小林(2002) 등에서는 점토석독구결을 소개하고 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한자에 직접 점토를 표시하거나, 가상의 사각형을 제시하여 점토를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2)	(1)
生問今相然煩	耶何當續不惱	瑜伽師地論의
故先而寂自	建說轉靜性	點吐口訣
文色是起者	三聚名由謂	
種諸略彼若	欲法說起法	
生 (유3,1,8) 煩故生	三惱不時	
種自寂其	樂性靜相	
	(유8,1,14-16) 行自	

[그림1] 南豐鉉(2000: 19)



[그림2]
小林(2002: 46)

[그림1]은 南豐鉉(2000: 19)에서 『유가사지론』의 점토석독구결을 해독하기 위해 제시한 그림이다. 여기에는 컴퓨터로 입력된 한자를 기준으로 원본에 현토된 구결점과 부호들을 펜으로 직접 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구결점의 해독은 “煩惱自性”의 ‘性’자의 下邊左段에 찍힌 점은 ‘1/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뒤의 ‘者’자의 가운데에 찍힌 점은 ‘1/은’을 나타내는 것이다”와 같이 구결점이 현토된 한자를 제시하고 구결점의 위치와 형태를 대략적으로 제시한 후 이것이 어떠한 구결자와 대응되는지 밝히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 해독된 구결점을 종합하고 이를 구결자 중심의 문장 형태로 바꾸어 해독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小林(2002: 46)에서는 [그림2]와 같이 일본의 문훈독 연구에서 점도(點圖)를 통해 훈점을 나타내는 방식을 이용하여 한자를 가상의 사각형으로 상정한 후, 각각 해독된 구결점들을 그 내외에 제시하고 대응되는 구결자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차용하여 鄭在永(2001: 44), 李丞宰(2000: 139)에서는 [그림3], [그림4]와 같이 컴퓨터로 입력된 한자를 제시하고 그 한자 위에 가상의 사각형을 제시한 후, 사각형 내외부에 구결점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에서는 구결점의 위치와 형태를 언급할 때, “此”에는 □이 찍혀 있으므로 ‘此’를 훈독하여 ‘이’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李丞宰 2000: 144)”처럼 구결점의 위치와 형태를 가상의 사각형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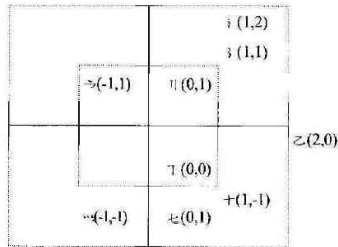
佛子 是名菩薩摩訶薩第八如相迴向 自性若分別

[그림3]
鄭在永(2001: 44)

[그림4]
李丞宰(2000: 139)

그러나 이처럼 구결점을 한자나 사각형 안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은 구결점의 위치가 세밀하게 변별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치 변별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는 25군데의 위치가 변별되며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0여개의 위치가 변별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처럼 수십 개의 위치로 변별되는 구결점을 조그마한 사각형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은 위치 변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李丞宰(2001)에서는 [그림5]와 같이 가상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점토의 위치를 25개로 나눈 후, 이에 숫자를 매겨 점토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사각형 내외부의 위치에 숫자를 매긴 후 한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를 언급할 때 숫자의 위치만을 언급하는 방식은 사각형에 직접 구결점을 표시하는 방식보다 표기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으며 지면을 통한 전달에도 큰 장점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李丞宰(2001)에서는 ‘[1]22’, ‘[1]07’과 같이 구결점의 형

태를 ‘[]’ 안에 직접 제시하고 그 뒤에 구결점의 위치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위치와 형태의 조합으로서 언어음과 대응되는 구결점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과 표기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구결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6] 김영옥(2002: 170)

한 이 논의에서는 점토의 형태를 변별하기 위해 이를 자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는 ‘[+단일], [+점]’과 같은 자질의 조합으로 제시하며, ‘\’는 ‘[+점],[+선],[+일렬],[+순행],[+사선]’과 같은 자질의 조합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7] 장경준(2003)

이후 장경준(2003)에서는 점토의 형태 정보는 李丞宰(2001)에서와 같이 집적점인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점토의 위치 정보는 李丞宰(2001)과 같이 25개로 분할하여 표시하되, 김영옥(2002)의 좌표 표시 형식도 일부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x축이 동일하면 일의 자리 숫자가 동일하고 y축이 동일하면 십의 자리 숫자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¹⁾

또한 25군데보다 더 세분하여 위치를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22~33’처럼 보조 기호 ‘~’를 사용하여 22위치와 33위치 사이의 점토를 표기하거나 ‘+51’처럼 보조 기호 ‘+’를 사용하여 51위치보다 사각형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점토를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25개의 위치 변별이 이루어지는 『화엄경』 점토석독구결과 40개 이상의 위치 변별이 이루어지는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이 같은 점토석독구결이라는 공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치 변별의 차별성도 함께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경준(2003)에서는 점토의 위치 표시는 해독을 반영한 추상적 위치인 ‘기준 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림8] 能
성암본 유가05 13:19



[그림9] 尔
성암본 유가05 06:22



[그림10] 尔
성암본 유가08 08:10

위의 [그림8,9,10]은 장경준(2003: 113)에 제시된 예들인데, 모두 ‘尔’로 해독되는 55위치의

1) 이러한 번호 부여 방식은 이용 선생님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장경준 2003: 113).



[그림11] 성암본
유가08 07:09

단점으로 해독되는 예들이다. 그런데 [그림9]에서 ‘ㅅ’로 해독되는 단점은 물리적인 위치로 보자면 53위치에 가깝고, [그림10]에서 ‘ㅅ’로 해독되는 단점은 물리적인 위치로 보자면 54위치에 가깝다. 따라서 장경준(2003)에서는 ‘현토된 결과물로서의 물리적인 위치(즉, **변이 위치**)’에 따라 점토를 표시하면 동일하게 해독되는 점토가 달리 표기될 수 있으므로 ‘해독을 반영한 추상적인 위치(즉, **기준 위치**)’에 따라 점토를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해독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른 위치로 오독할 만한 경우에는 ‘=’ 표시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은 단순히 구결점이 어떤 언어음과 대응되는지 밝히는 과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올바르게 해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결말에 몰려서 현토되어 있는 구결점들을 빠짐없이 판독하고 해독해 낸 후, 둘째로 이 가운데 자토석독구결의 우측토에 대응되는 구결점과 좌측토에 대응되는 구결점을 구분해 내어야 하며, 셋째로 이들이 문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올바른 배열순서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우리말 어순에 알맞게 읽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점토석독구결의 판독 및 해독 과정은 단계성을 띠며, 각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장경준(2003: 114-119)에서는 점토의 판독 및 해독 결과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기록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유가08 07:09>

A:深[15(·)]{+15(·)}難[24(·)]渡[15(·),43(l)?#43(·)]故[55(·)]順流[22(·),경계선]{21(·)}漂[43(l)?#43(·)]故[21(·)]名[54(·)]暴流[53(·),+55(·)]

B:深[糸]難[彳]渡[X,x]故[彡]順流[彳]漂[x]故[丿]名[ㄣ]暴流[ㄣ,x彡]

C:深(彳)糸 難彳 渡Xx{故}彡 順流(彳)彳 漂x{故}丿 名ㄣ 暴流ㄣx彡

D:깊어서 어렵게야 건너는 까닭이며, 順流하여 떠내려가는 까닭으로 일컬어 暴流라고 하며,

E:깊어서 건너기 어렵고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기 때문에 사나운 흐름이라 하며,

(1)에서 A는 점토의 판독안으로서, 구결점이 현토된 한자 오른쪽 ‘[]’ 안에 판독된 구결점과 함께 부호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구결점의 판독은 기본적으로 ‘15(·)’처럼 위치 정보와 형태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위치 정보는 두 자리 아라비아숫자로 제시되며 형태 정보는 ‘()’ 안에 구결점의 형태를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때 해당 한자에 구결점이 둘 이상 존재할 때에는 해독 순서에 따라 구결점의 판독안을 나열하며 부호는 마지막에 기록한다. 이때 위치나 형태가 둘 이상의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을 경계로 모두 제시하되, 해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판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독안 끝에 ‘?’를 붙이며, 판독된 구결점이 해독에 반영하기 힘든 경우 ‘{ }’ 안에 표시한 후 ‘[]’ 뒤에 제시한다.

B는 A에서 판독한 구결점과 대응하는 구결자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 ‘?’는 아직 해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해독안 뒤에 표시하

며, ‘X’는 어떤 구결자들로 해독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할 때, ‘x’는 해독되는 구결자들의 일부가 분명치 않을 때 사용한다.

C는 B의 구결점 해독안을 토대로 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문장화한 석독구결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 }’는 자토석독구결과 같이 부독자의 표시에 이용되며, ‘()’는 대응되는 구결점은 없지만 해독 과정에서 보충되는 구결자를 표기하기 위해 쓰인다. 그리고 D는 C의 석독구결문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문을 제시한 것이며, E는 해당 부분의 역경원 번역을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장경준(2003)에서 제시된 점토의 전산화 방안은 판독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판독 및 해독 과정을 단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점토석독구결자료의 전산화 및 출판화는 대체적으로 장경준(2003)에서 제안된 방안에 따라 이루어져 오고 있다.

3. 점토석독구결의 전산화 현황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총 15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견(공개) 시기, 소장처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사진본 확보, 이점본 작성, 전산화 완료, 해독안 출판 여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번호	자료명	발견(공개)	소장처	사진본 확보	이점본 작성	전산화 완료	해독안 출판	비고
1	瑜伽師地論 卷3	2000년 10월	호림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2	瑜伽師地論 卷5	2000년 7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3	瑜伽師地論 卷8	2000년 7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4	瑜伽師地論 卷8	2005년 8월	日本 南禪寺	△	×	○	×	『유가사지론』 계통
5	瑜伽師地論 卷53	2011년 11월	가천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6	瑜伽師地論 卷66	2017년 2월	국립한글박물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7	合部金光明經 卷3	2004년 4월	개인(김병구)	△	○	○	×	『유가사지론』 계통 자토구결병기
8	法華經 卷1	2000년 12월	연세대 중앙도서관	×	○	×	×	『유가사지론』 계통
9	(晉本)華嚴經 卷20	2001년 3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0	(周本)華嚴經 卷6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1	(周本)華嚴經 卷22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2	(周本)華嚴經 卷31	2000년 12월	호림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3	(周本)華嚴經 卷34	2001년 3월	호림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4	(周本)華嚴經 卷36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15	(周本)華嚴經 卷57	2000년 8월	성암고서박물관	○	○	○	○	『화엄경』 계통

[표1]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현황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에 발견된 것들로서, 최근에 가천박물관본 『유가사지론』 권53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이 추가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 확보되어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다. 다만 연세대본 『법화경』 권1은 아직 정밀한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선사본 『유가사지론』 권8과 『합부금광명경』 권3은 저해상도의 사진만이 공개되어 있다. 가천박물관본 『유가사지론』 권53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은 최근에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이루어져 조만간 연구자들에게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위 자료들에 대해 실사를 하고 현토된 점토를 종이에 옮겨 적은 이점본도 존재한다. 이들은 자료의 사진 촬영이 힘들었던 연구 초창기기에 직접 원본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들을 한 데 모아 鄭在永 외(2003)과 같이 공간된 바도 있다. 정밀한 사진 자료가 확보된 최근에는 자세한 이점본 작성보다는 사진상으로 확인이 힘든 점토만을 대상으로 원본 열람 후 이점을 하는 추세이지만,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자료와 같이 현재 원본 열람이 힘든 자료들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이점본을 연구 보조 자료로서 최근에도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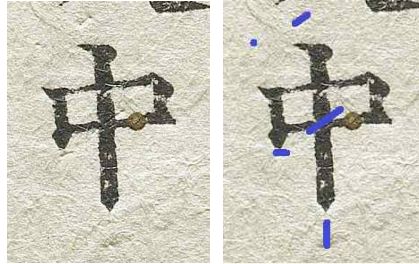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전산화는 공개된 사진본과 이점본을 바탕으로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모임에 의해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장경준(2003)에서 제시된 점토의 전산화 방안 따라 수행되었다(장경준 2008ㄴ:72-75). 이 전산화 자료들은 현재 Daum의 구결연구 카페(<http://cafe.daum.net/gugyeol>)에 공개되어 있으며,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로는 가천박물관본 『유가사지론』 권53, 연세대본 『법화경』 권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이 있는데, 이 중 앞의 둘은 사진본의 확보 및 공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전산화도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은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을 중심으로 사진 영인본을 비롯하여 자료의 전산화 및 출판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8년 안에 공간될 예정이다. 한편 성암본 『유가사지론』 권5·권8, 성암본 진본 『화엄경』 권20, 성암본 주본 『화엄경』 권6·권22·권36·권57, 호림본 주본 『화엄경』 권31·권34는 앞서 언급한 소장 연구자들의 전산화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李承宰 외(2005; 2006ㄱ; 2006ㄴ; 2009ㄱ; 2009ㄴ)의 형태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4. 점토석독구결 전산화의 향후 과제

4.1. 판독 및 해독의 정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전산화가 이루어져 연구자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수정을 거쳐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전산화 자료의 이용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즉 이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한 공동 연

구물로서 각 자료별로 시간을 두고 작성된 전산 자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결점의 해독안이 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산 자료의 판독안에 기록된 구결점의 위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추상적인 위치인 기준 위치를 기준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구결점 판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장경준 2009: 250-251).



[그림12] 호림본

[그림12-1]

주본 화엄경

권34 08:03

(2) <주본화엄34, 08:03>

A:雖住海水[11(·)]劫火[24(|),25(-)]中[11(·),13(/),53(|),42(-),33(/)]堪[35(·)]受此法
[41(·),13(·)]必[23(:)]得[43(|)]聞[31(·)#31(:),52(·)]

B:雖住海水[レ]劫火[リ,X七]中[レ,ㄣ令,ㄣ十,X,ㄥ]堪[矢]受此法[乙,Xム]必[ハ]得[ㄣ 糸]聞[X,ㄥ]

C:海水、劫火リX七 中、ノ令ヲ十 住X{雖}4 堪矢 此 法乙 受Xム 必ハ 得ゝ糸 聞X分

D:비록 바닷물이니 劫火의 가운데이니 하는 것에 住하더라도, 능히 이 법을 받되 받드시 능히 들을 수 있으며,

E:바닷물과 겁화(劫火) 중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듣자올 수 있으려니와

(3) <유가20, 31:14-15>

A:若世間心雖復已斷，猶得現行，彼於後時任運而滅

B: 若 世間₇ 心₁ 復ハ 已斷_ソ立_七人_ハ{雖₄} 猶_リ 得_ル 現行_ソ尸_ニ 彼₁ {於₇}後₇ 時_ニ
十 任運_テ 而_ニ 滅_ソテ_ソナ_ヲ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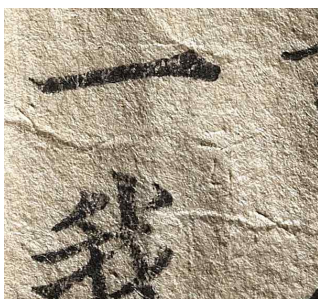
C: 만약 世間の 마음은 다시 이미 끊어졌어도 여전히 능히 現行하지만, 그는 뒤의 때에 자유자재로 滅하고 할 것이며,

가령 주본 『화엄경』 권34의 전산화된 결과물을 출판한 李承宰 외(2009ㄴ)에서는 [그림12]의 ‘中’에 현토된 구결점을 (2)처럼 ‘[11(·),13(/),53(।),42(-),33(/)]’로 판독하고 ‘[ㄴ, ㄷ, ㄹ, ㅁ, ㅂ, ㅅ, X, 4]’로 해독하고 있다. 이 경우 42(-)는 양보 구문의 서술어에 쓰인 어미 구성의 일부를 나타내는 자토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본 『화엄경』에서 42(-)는 모두 선어말어미 ‘-ㄹ’로 해독되며 양보 구문의 서술어에 쓰인 어미 구성으로 해독되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안대현 2009ㄴ; 文玄洙 2017).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토석독구결에서 (3)처럼 ‘ㄴ’가 쓰이는데, [그림4]의 ‘中’에 현토된 구결점을 42(-)가 아닌 32(-)로 판독하고 ‘ㄴ’로 해독한다면 (2)처럼 42(-)를 ‘X’로 해독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李承宰 외(2009ㄴ)에서는 42(-)가 아닌 32(-)일 가능성에 대해 각주로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42(-)가 어떠한 구결자로 해독되는지 전산화 당시에 불분명했다는 점, 또 33(/)에 비해 42(-)로 판독한 구결점이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42(-)로 판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산화된 자료에는 위와 같은 위치 판독 오류 외에도 형태 판독의 오류, 부호 판독의 오류, 점토 해독 순서의 오류 등이 보고된 바 있다(文玄洙 2017). 이는 관련 연구의 발전에 따른 해독 결과의 진전에 기인한 것도 있고 단순한 판독, 해독 오류인 것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 구축된 전산화 자료들의 경우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한편, 단순 판독 오류나 해독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꾸준히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다양한 조명 각도에서 찍은 고해상도 사진 자료의 확보

한자에 각필로 현토된 점토는 조명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점토가 현토되었더라도 사진 촬영시 각도에 따라 점토가 잘 보이지 않아 판독이 누락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점토석독구결 전산 자료의 판독안 및 해독안의 정밀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되도록 다양한 조명 각도에서 찍은 고해상도 사진 자료의 다량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3] 주본 화염경
권57 20:09



[그림13-1]



[그림13-2]

위의 [그림13]과 [그림13-1]은 동일한 자료를 서로 다른 조명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一’의 오른쪽 아래에는 51(\·)과 대응되는 세 개의 구결자가 현토되어 있는데, [그림13]에서는 ‘ㄴ’과 ‘ㄷ’은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 마지막 구결자는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그림13-1]에서는 첫 번째 구결자인 ‘ㄴ’과 마지막 구결자인 ‘ㄷ’은 선명히 보이는데, 두 번째 구결자인 ‘ㄹ’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진 중 하나의 사진만을 보고 구결자를 판독한다면 판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사진을 모두 보고 판독한다면 판독 오류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동일 자료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다양한 조명 각도에 찍은 고해상도의 사진을 다량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판독 및 해독의 정밀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3. 구결점 형태의 유니코드화

구결점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구결점의 위치 정보의 입력은 장경준(2003)에서 제안한 아라비아 숫자 입력 방안으로 충분한 반면, 형태 정보의 입력은 현행 입력 가능한 유니코드 기호만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 알려진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크게 『화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 자료들에서 쓰인 구결점의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표3]과 같다.

형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점	·	13639	58.23%	13639	58.23%
선		6194	26.44%	3556	15.18%
	-			1013	4.32%
	\			878	3.75%
	/			747	3.19%
쌍점	:	2478	10.58%	799	3.41%
	..			759	3.24%
	·.			513	2.19%
	·:			407	1.74%
눈썹	·	784	3.35%	196	0.84%
	·-			154	0.66%
	·			123	0.53%
	/·			112	0.48%
	·/			73	0.31%
	·-			64	0.27%
	\·			56	0.24%
	÷			5	0.02%
	·\			1	0.00%
	느낌표			!	329
i		62	0.26%		
·-		23	0.10%		
/^		16	0.07%		
-·		14	0.06%		
\		4	0.02%		
\.		4	0.02%		
./		0	0.00%		

[표2]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쓰인 구결점의 형태와 사용 빈도(文玄洙 2017: 34)

형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점	·	5427	77.99	5427	77.99
선	/	1086	15.61	543	7.80
	\			217	3.12
	-			248	3.56
				78	1.12
쌍점	·.	424	6.09	101	1.45
	·.			135	1.94
	..			104	1.49
	:			84	1.21
눈썹	·\	22	0.32	18	0.26
	\·			3	0.04
	/·			1	0.02

[표3]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 사용된 구결점의 형태별 사용 빈도(장경준 2006:214)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엄경』 계통에 쓰이는 구결점의 형태는 『유가사지론』 계통에 쓰인 구결점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며 종류도 훨씬 많다. 이 중 ‘./’는 실제로 현토된 예가 발견되지 않지만 이는 자료의 양이 적어 발생한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면 점토석독구결에서는 단점 1개, 쌍점 4개, 선 4개, 눈썹 9개, 느낌표 8개로, 총 26개 유형의 구결점이 쓰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결점의 형태는 장경준(2003)의 제안에 따라 아래한글 프로그램에서 ‘한글 두벌식 옛글(신명조)’ 자판을 기준으로 되도록 컴퓨터 자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합하여 입력되었다. 각 구결점 형태들의 입력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번호	형태	입력 방법
1	·	유니코드 [00B7]의 값을 갖는 기호를 입력한다.
2	..	‘·[00B7]’를 두 번 조합하여 입력한다.
3	:	유니코드 [003A]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4	·.	‘·[00B7]’과 ‘.[002E]’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002E]’는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5	∴	‘.[002E]’과 ‘∴[00B7]’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6	/	유니코드 [002F]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7	\	유니코드 [005C]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8	-	유니코드 [002D]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9		유니코드 [007C]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 ’ 키[Shift+W]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10	∴	‘∴[00B7]’과 ‘ [007C]’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11	∴	‘ [007C]’과 ‘∴[00B7]’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12	ㄴ	유니코드 [2238]의 값을 갖는 기호가 존재하지만, 입력의 편의상 키보드의 ‘ㄴ[3157]’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13	ㄷ	대응되는 유니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키보드의 ‘ㄷ[315C]’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14	/∴	‘/[002F]’과 ‘∴[00B7]’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15	∴/	‘∴[00B7]’과 ‘/[002F]’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16	∴\	‘∴[00B7]’과 ‘\[005C]’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17	\∴	‘\[005C]’과 ‘∴[00B7]’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18	÷	유니코드 [00F7]의 값을 갖는 기호를 입력한다.
19	!	유니코드 [0021]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20	i	유니코드 [0069]의 값을 갖는 기호로, 키보드의 ‘i’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21	∴-	‘∴[00B7]’과 ‘-[002D]’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22	-∴	‘-[002D]’과 ‘∴[00B7]’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23	/^	‘/[002F]’과 ‘^[0060]’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0060]’는 키보드의 “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24	∴/	‘∴[00B7]’과 ‘/[002F]’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25	∴\	‘∴[00B7]’과 ‘\[005C]’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26	\∴	‘\[005C]’과 ‘∴[00B7]’를 조합하여 입력한다.

[표4] 구결점의 형태와 입력 방법

그런데 현행 입력 방식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첫째, ‘∴’ ‘.’처럼 둘 이상의 기호를 조합하여 입력해야 하는 구결점의 경우 하나의 구결점에 **복수의 유니코드가 할당**된다. 특히 ‘∴’, ‘-’, ‘|’, ‘/’, ‘\’의 경우 단독의 구결점으로 쓰이기도 하므로 전산처리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의 경우 **폰트에 따라 출력이 달리 되는 문제**가 있다. ‘\’는 [005C]의 값을 갖는 유니코드 기호로서, 폰트에 따라 ‘\’로 출력이 되기도 하고 ‘W’로 출력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문자로 인식되지만 전산상에서는 동일한 문자로 인식된다. 따라서 ‘\’로 입력된 구결점이 인쇄시 폰트 변경으로 인해 ‘W’로 잘못 인쇄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림14]주본 화엄경 권22
16:07[그림15] 주본 화엄경 口
권34 04:12

셋째, ‘/’, ‘\’와 같이 두 기호의 조합으로 표기되는 구결점의 경우 형태가 어그러져 보이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각각 [그림14], [그림15]와 같이 현토되는 구결점들이다.

넷째, ‘,’ ‘\’처럼 형태는 동일하지만 유니코드상에서는 달리 인식되는 기호들이 존재하여, 입력 과정에서 입력자가 착각할 경우 통일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00B7]’는 ‘[2027]’와 형태상 동일하고, ‘\’[005C]는 ‘\’[FF3C]와 형태상 큰 차이가 없어 입력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ㄱ’의 경우처럼 현행 유니코드로는 입력이 불가능한 구결점이 있다. ‘ㄱ’는 ‘ㄱ’의 문체부 훈민정음체로는 출력이 가능하지만 유니코드상으로는 ‘ㄱ’와 동일한 코드가 할당되어 문자코드상 변별이 되지 않는다.

여섯째, 신명조 폰트 사용시 위치 표시에 쓰이는 ‘~’가 윗첨자처럼 출력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의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는 신명조 폰트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신명조 폰트를 사용할 때 구결점의 위치 표시에 사용되는 부가 기호 ‘~’가 ‘~’처럼 윗첨자 형식으로 출력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결점 형태들을 일본의 ‘훈독 순서 지시 부호’와 같이 유니코드에 등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결점 형태의 유니코드화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현재 단일 유니코드로 입력이 불가능한 구결점 형태만을 유니코드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모든 구결점 형태들을 새로운 문자영역을 할당하여 유니코드화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방안은 기존에 입력 가능한 것들과 새로 유니코드화된 것들이 한 문자영역에 모여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후자는 기존에 입력 가능한 것들의 경우 형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유니코드를 할당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결점 형태의 유니코드화는 우선 후자의 방안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유니코드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적어도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상에서만큼은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존의 구결점 형태와 신규로 유니코드를 할당받은 구결점 형태를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16] 역독선
성암본 유가08
03:19



[그림17] 지시선
성암본 유가08
04:21



[그림18] 경계선
주본 화엄경22
15:02



[그림19] 빼침선
성암본 유가05
08:15

한편 점토석독구결에서는 [그림16-18]처럼 ‘역독선’, ‘지시선’, ‘경계선’ 등의 부호들도 구결점과 함께 쓰이는데, 이들도 유니코드화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구결점과는 달리 동일한 부호라도 형태상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 대표형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호들은 현행처럼 직접 문자화한 후 구결점 뒤에 표기하는 편이 실용성의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이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부호로 간주되던 [그림19]의 빼침선은 최근에 언어음과 대응되는 점토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문현수 2014),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빼침선은 구결점이므로 여타의 부호와 달리 유니코드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2000년대 초반 점토석독구결이 최초로 발견된 후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점토석독구결의 연구는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점토석독구결의 표기 방언의 마련과 전산화 역시 이 과정에서 이룬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의 전산화는 대다수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전산화가 되지 못한 자료도 일부 존재하기도 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정밀화가 요구되는 자료도 존재한다. 아직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는 전산화를 하는 한편, 기존에 전산화된 자료도 포함하여 다양한 조명 각도에 따른 고해상도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산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정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점토석독구결의 전산화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구결점 형태의 유니코드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영옥(2002), 「11세기 문법형태들을 찾아서-초조대장경본 『유가사지론』 권3을 중심으로-」,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출판부, 157-172.
- 南豐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 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한국서지학회, 5-45.
- 李丞宰(2000),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 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
- 문현수(2014), 「『瑜伽師地論』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빠침선의 기능」,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49-283.
- 文玄洙(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研究』11, 口訣學會, 211-247.
- 박진호(2004), 「周本 《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129-148.
- 朴鎭浩(2006), 「晉本 《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 『口訣研究』 16, 口訣學會, 173-208.
- 안대현(2008ㄱ),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08ㄴ),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51, 國語學會, 195-227.
- 안대현(2009),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빠침선에 대하여」, 『口訣研究』22, 口訣學會, 197-218.
- 윤행순(2001), 「한국의 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ヲコト)點에 대하여-瑜伽師地論을 중심으로-」,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91-106.
- 李丞宰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1』, 태학사.
- 李丞宰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2』, 태학사.
- 李丞宰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3』, 태학사.
- 李丞宰 외(2009ㄷ),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4』, 태학사.
- 李丞宰 외(2009ㄹ),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5』, 태학사.
- 장경준(2002), 「구결점(口訣)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 로-」, 『국어사 자료 연구』3, 국어사자료학회, 5-30.
- 장경준(2003),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11-121.
-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6),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성암본 『유가사지론』 권5, 8의 사례를 중심으로-」, 『口訣研究』16, 口訣學會, 209-239.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8ㄱ), 「高麗初期 點吐口訣의 諸符號」,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307-339.
- 장경준(2008ㄴ),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67-98.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國語學』56, 國語學會, 249-279.
- 鄭在永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7, 口訣學會, 33-56.
- 小林芳則·西村浩子(2001), 「韓國遺傳의 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36-68.
- 小林芳則(2002),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点との關係」, 『朝鮮學報』 107, 朝鮮學會. pp.1-82.

<기획 주제 발표>
제2부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번역과 불교학적 의의

김지오(동국대) · 김성옥(동국대)

1. 서론

“글자 한 자의 빠춤이나 더함이 전 세계의 파멸을 의미할 수 있다” -탈무드-

교외별전, 불립문자, 염화미소 같은 말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은 언어와 문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형태는 경장, 율장, 논장, 그리고 수많은 고승들의 주석서까지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문헌과 기록이란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특히 불립문자가 강조되는 한국 불교의 선(禪)적인 풍토에서, 문자로 기록된 불교 문헌은 핵심적 의미만 취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며, 자구(字句) 하나하나의 세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¹⁾ 그러나 의미란 문자에서 나오는 것인데, 문자를 소홀히 하고 의미만 취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이런 기록들이 한국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요의(要義)만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팔만대장경은 한국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은 처음부터 문자화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합송(合誦)의 형태로 전해지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기록된 후, 중국을 거쳐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다시 한 반도로 전래되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도안의 오실본(五失本)과²⁾ 현장의 5종불번(五種不翻)을³⁾ 보면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개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고립어인 중국어를 교착어인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도 내용적 등가성이든, 형태적 등가성이든 동일한 번역 결과가 보장되기 어렵다. 한문은 낱말의 배열에 의해 의미가 만들어지는 언어이므로,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로 표현해야 할 정교한 정보들은 번역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 개방성이 큰 언어이기 때문이다.

여러 전승 과정과 번역 과정을 거쳤기에 부처님(또는 論師)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습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따르는 종교라면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는 작업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자구(字句) 한 자(字)라도 정밀하게 탐색하는 노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나아가 불경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이런 비판과 문제의식은 서윤길(2004)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五失本이란 ①범본과 번역문의 어순이 반대이므로 어순의 변경 문제가 있다. ②범어경전은 質을 받드나 중국인들은 文을 좋아하므로 대중의 마음에 맞게 번역하면 본래의 질박함을 잃을 우려가 있다. ③범본은 반복이 많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지 않을 수 없다. ④범본에는 번잡스럽게 느껴지는 설명문이 많이 이를 대량 삭제하지 않을 수 없다. ⑤범본은 단락이 바뀔 때마다 앞에서 서술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데 번역에서는 이를 제거한다. -서윤길(2004:3)에서 재인용-

3) ①비밀한 뜻이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秘密之故不翻), ②한 글자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含多義故不翻), ③동양에서는 쓰지 않고 인도 서천에서만 쓰이는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此方所無故不翻), ④옛부터 써내려 온 관습된 말은 그대로 쓰고 번역하지 않는다(古例故不翻), ⑤뜻이 가벼워 질 우려가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尊重故生善故不翻).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가사지론』 번역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차자로 표기된 고려시대 석독구결 번역이고,⁵⁾ 다른 하나는 한글로 기록된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이다.⁶⁾ 이 두 번역의 비교·대조 연구는 구결 번역과 한글 번역을 견주어 본다는 의미 외에도,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최고(最古)의 번역과 근래에 이루어진 현대의 번역을 견주어 『유가사지론』에 대한 이해와 번역의 수준을 통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2장에서는 이 두 번역 사이의 차이 유형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3장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여러 부분 중 논의의 가치가 있는 예들을 중심으로,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하고 옳은 번역인지 번역 비평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2. 석독구결 번역과 역경원 번역의 차이(유형)

2.1. 형태론적 층위

단어나 어구를 다르게 파악한 경우이다. 한 유형은 특정 형태의 품사를 달리 파악한 경우이고, 다른 한 유형은 동일한 성분으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 파악을 달리한 경우이다.

- (1) A[원문]: 何以故由諸有學雖有聖法而相續中非聖煩惱之所隨逐現可得故

B[석독구결]: 何以故_ㄴ 諸 有學_ㄴ 聖法 {有} 4 나 人 {雖} 4 而_ㄴ 相續_ㄴ 中_ㄴ + 非聖煩惱_ㄴ {之} 隨逐_ㄴ 所_ㄴ 現_ㄴ 得_ㄴ {可} ㄷ ㄴ 乙 由_ㄴ 1 ㄴ ㄴ {故} ㄴ <유가 04:02-04:04>; 相續의 중에 비聖煩惱의 隨逐한 바가 나타나 얻을 수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니

C[역경원]: 왜냐 하면 유학(有學)들은 성법(聖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相續)하는 가운데 성법이 아닌[非聖] 번뇌(煩惱)가 뒤따르게 되어 실제로[現]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A[원문]: 先得見道有學解脫已得見迹

B[석독구결]: 先_ㄴ 見道_ㄴ 1 有學 解脫_ㄴ 得_ㄴ 已_ㄴ 得_ㄴ 見迹_ㄴ ㄴ <유가05:11-12>; 먼저 見道位인 有學의 解脫을 얻고 나서 능히 見迹하며

- 4)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유가행과의 대표적인 전적 가운데 하나로, 현장이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난 것도 바로 이 『유가사지론』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가사지론』 권20은 「본지분」의 17지 가운데 12번째에 해당하는 수소성지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성문·독각·보살의 삼승이 공통적으로 닦아야 할 문(聞)·사(思)·수(修) 3가지의 수행법, 즉 정법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지혜의 경지[聞所成地]·정법을 사유함으로써 생겨나는 지혜의 경지[思所成地]·선정을 닦음으로써 생겨나는 경지[修所成地]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5) 구결의 번역학적 가치와 지위에 대한 논의는 장경준(2011), 김성주(2017), 김지오(2017)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온전한 번역물로서의 구결의 지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 6) 역경원 번역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판한 한글대장경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동국대전자불전연구소의 번역(강명희 번역)이다. 한글대장경이 출간되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번역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 전자불전연구소의 온라인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자불전연구소 번역을 기본 검토 대상으로 삼되, 필요한 경우 출판본 한글대장경 번역도 사용할 것이다.

C[역경원]: 먼저 견도(見道)의 유학(有學)의 해탈(解脫)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견적(見迹)을 얻고

(3) A[원문]: 謂我當於无戲論涅槃心无退轉

B[석독구결]: 謂₁ 我₁ 當_ハ {於}无戲論涅槃₃ + 心₃ + 退轉_ノ尸 无₃ <유가 08:17-19>; 즉 ‘나는 마땅히 无戲論涅槃에서 心에 退轉함이 없어

C[역경원]: ‘나는 회론이 없는[無戲論] 열반涅槃)에서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1)의 구결 번역에서는 ‘相續’을 명사로 파악하였고, 역경원에서는 동사로 파악하였다. (2)의 구결 번역에서는 ‘得’을 부사 ‘능히’로 파악하였고, 역경원에서는 ‘얻다’란 동사로 파악하였다. (3)의 구결 번역에서는 ‘心’에 처소격 조사를 현토해 퇴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로 파악하였고, 역경원에서는 ‘심’에 주격 조사를 붙여 퇴전하지 않는 주체로 파악하였다.

(4) A: 不生達須蔑戾車中 謂於是處 无四衆行 亦無賢聖 正至 正行 諸善丈夫

B: 達須_ハ 蔑戾車_ハノ令_セ 中_ニ 謂₁ {於}是處_ニ 四衆_ニ 行_ハ令_セ 无_キ 亦 賢聖_ニ 正至_ハ 正行_ハノ令_セ 諸 善丈夫 無(오_ノ令_セ) 生_尸 不_多ノ尸_矢 <유가02:02-03>; 달수이니 蔑戾車이니 하는 것(곳) 가운데, 이른바 이곳이 ~한 곳에 나지 않는 것이다.

C: 말하자면 이곳에 4중(衆)의 행(行)이 없고 또한 현성(賢聖) 정지(正至) 정행(正行)의 여러 좋은 장부[善丈夫]가 없는 곳에 달수(達須)와 멸려차(蔑戾車)로 태어나지 않는다.

(5) A: 我我今者何所在耶

B: 我_ハ 我₁ 今_ニ{者} 何_ニ 所₃ + 在_ハ令_セ 耶_ニ{耶} 不_多ノ牙₁ 耶_ニ{耶} 尸_矢 <유가08:17-19>

C: ‘우리들은 지금 어떤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역경원 한글대장경>

C’: <나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야 하리라』고 한다. <전자불전연구소>

(4~5)에서 각 형태에 대한 품사 처리는 동일하지만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이다. (4)에서는 ‘달수(達須)와 멸려차(蔑戾車)’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구결 번역에서는 ‘장소·지역’으로 파악한 반면, 역경원 번역에서는 ‘종족·집단’으로 파악하였다.⁷⁾ 그리고 (5)에서는 ‘我我’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구결 번역에서는 속격 조사를 붙여 ‘나의 나’로 파악한 반면, 역경원에서는 ‘우리들’이란 1인칭 복수로 파악하였다.

2.2. 통사론적 층위

7) 역경원 번역에서는 “Dasyu의 음사어로서 졸렬하고 악하며 하천하고 더러운 무리를 말한다. Mleccha의 음사어로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하천한 무리들을 말한다.”를 각주를 달아 인간 부류의 하나로 번역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국역일체경>의 각주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2.2.1. 수식 범위에 대한 차이

‘SVO’ 구조를 갖는 한문에서는 동사의 (빈어에 대한)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판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나 동사구, 부정사 등의 수식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 차이를 보이는 예가 많다. 특히 부정사의 수식 범위가 달라지면 의미가 정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도 나타나, 일반 동사의 수식 범위가 달라질 때보다 해석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6) A: 不生憂慮謂我我今者何所在耶

B: 憂慮乙 生リヨネ 謂ル 我ヲ 我今者{者} 何ニ 所ヨリ 在ルニテリヨネ七口ニ{耶}
不冬ノヲリリヨネ七口ニ{耶} <유가08:17-19>; 憂慮를 내어서 말하기를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며

C: 우려(憂慮)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며, ‘우리들은 지금 어떤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6)에서는 ‘不’이 지배하는 영역을 달리 파악한 대목으로, 의미 차이가 큰 문장이다. 구결에서는 “B : [不[生[憂慮] 謂[我我今者何所在耶]]”으로 파악하였고, 역경원에서는 “C : [不[生[憂慮]]] / [謂[我我今者何所在耶]]”으로 파악하였다.

2.2.2. 끊어 읽기(구두점)

‘2.2.1’과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차이이다. 동사의 지배 영역이 달라지게 되면 문장의 끊어 읽기(구두점)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데, 두 가지 사례만 다뤄본다.

(7) A: 勿我於彼正審觀察心一境位 當作障導

B: 我ニ {於}彼 正審觀察ノ令七 心一境位ヨリ 當ハ 障導乙 作ルニテ 勿ノヲリリヨネ七口ニ{耶}
不冬ノヲリリヨネ七口ニ{耶} <유가 09:01-02>; 나로 (하여금) 그 正審觀察하는 心一境位에서 마땅히 障導를 짓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C: 나는 그들에 대해서 곧바로 자세히 관찰하지나 않을까? 심일경(心一境)의 위(位)에 마땅히 장애가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이다.

(7)은 ‘勿’이 걸리는 범위와 ‘正審觀察心一境位 當作障導’의 끊어 읽기가 다른 경우이다. 구결에서는 “나로 하여금 저 바로 관찰하는 심일경위에서 마땅히 障導를 짓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다”로 해석되어 ‘勿’이 문장 전체에 걸리며, ‘觀察’이 ‘心一境位’를 수식하는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역경원 번역에서는 ‘勿’이 ‘正審觀察心’까지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여 문장을 끊어버렸다(관찰하지나 않을까?)

(8) A: 堪能證得寂靜清涼 唯有餘依涅槃之界

B: 堪能ヲ 寂靜 清涼ニヨネ 唯ハ 餘依ヨリ 有七 涅槃七{之} 界乙 證得ニテヲ四<유가20, 06:07>; 寂靜 清涼하여서 오직 餘依가 있는 涅槃의 경계를 堪能히 證得할 것이라서

C: 능히 적정(寂靜)의 청량(清涼)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여의열반계(有餘依涅槃界)이니

(8)에서도 證得의 지배 영역에 따라 문장의 끊어 읽기가 달라지고 있다. 구결에서는 “[證得[寂靜清涼 唯有餘依涅槃之界]]”으로 파악하여 ‘界’에서 문장이 끊어지지만, 역경원에서는 ‘證得[寂靜清涼]] [唯有餘依涅槃之界]’로 파악하여 ‘清涼’에서 한 번 더 끊어진다.

2.2.3. 절 접촉 관계의 차이

결과 절 사이의 연결 관계를 달리 파악한 경우이다.

(9) A: 誓受禁戒 誓受精勤 常修善法 而我今者 於四種苦 爲脫何等

B: 誓尔 禁戒乙 受コテ 誓尔 精勤ヲ 常ニ 善法乙 修メルハ乙 受コテハ 而レ 我ハ 今ニ{者}{於}四種 苦ヲ + 何ニ 等シルハ乙 {爲}脫スルハ 而レ 有リセリ <유가18:12-14> ; 禁戒를 받고 맹세하여서 精勤히 항상 善法을 닦는 것을 받고 하였으나, 나는 이제 四種 苦에서 어떤 것들을 벗어났는가?

C: 금계(禁戒)를 받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며, 정근(精勤)을 받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항상 선법(善法)을 닦아서 나는 지금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어떤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9)의 구결 번역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역접 관계로 파악했으나(而), 역경원에서는 순접으로 파악하였다.

3.3. 문체론적 충위

두 번역의 문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종결어미 ‘-다’의 사용에 따른 문장의 호흡과 길이 문제이다. 구결 번역에서는 ‘-다’로 문장을 종결한 부분이 217번 출현하고,⁸⁾ 역경원 번역에서는 347번 출현한다. 역경원 번역이 130회나 문장을 더 짧게 나누었다.

석독구결 ‘-다’	역경원 ‘-다’
217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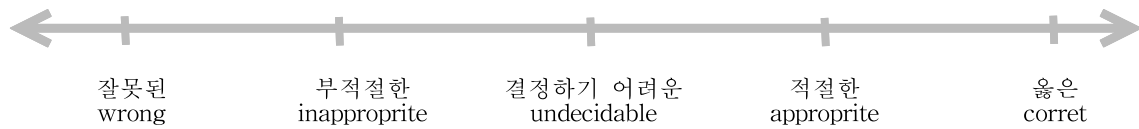
종결어미 사용 양상의 측면만 본다면 구결 번역은 호흡이 긴 만연체의 문체를 사용한다
면, 역경원 쪽은 더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3. 번역 비평과 불교학적 의의

3.0. 비평 방법

비교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학적(敎學的)으로 타당한 번역이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번역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번역의 결과가 그저 ‘옳다’와 ‘그르다’로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결정 짓기 모호한 영역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8) '1'가 나타난 전체 횟수에서 인용문에 나타난 내포문의 '-다'와 분열구문에 나타난 '有ナ 1 ~11'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결정하기 어려운(undecidable)’ 단계의 문제는 그저 문맥에만 의존해 정합성을 판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판별 방법이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유가사지론』이 최초로 기록된 산스크리트 원본을 활용해 난해한 문맥의 정합성을 따져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가사지론』 「본지분」의 많은 부분이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교정 출판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수소성지에 해당하는 권20은 산스크리트본이 전하지 않는다.

[illegible]

『유가사지론』 산스크리트본 전승 현황 -가츠라쇼유 외5(2014) 인용-

대신 티벳 대장경에는 <rnal 'byor spyod pa'i sa>라는 제명으로 『유가사지론』의 전체 텍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기 어려운(undecidable)’ 문맥에 있어서는 티벳본 <수소성지>를 참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⁹⁾

이때, 티벳어 대장경이 산스크리트 대장경을 대체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인가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티벳본은 산스크리트본의 축자적 번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본의 원래 형태에 비교적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티벳 문자 자체가 산스크리트 경전의 번역을 염두에 두고 창제되었던 만큼,¹⁰⁾ 티벳본은 산스크리트본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본래 티벳어는 단음음절의 고립어라는 점에서 명사의 성·수·격에 따른 어미변화가 일어나는 산스크리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산스크리

9) 불교학계에서 자주 이용하는 티벳대장경은 테르게판과 북경판이다. 현재 ACIP(Asian Classics Input Project)를 통해 티벳문자와 영문문자로 된 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테르게판이다. <https://www.asianclassics.org> 참조.

10) 632년 툐미 삼보타(Thon-mi Sambhota)가 만든 티벳 문자는 인도의 문자권 내에 속하며, 인도 굽타(Gupta) 문자체에 의거해서 창제되었다(Michael Hahn: 2016). 티벳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송첸감포(581~649)왕 시대였다는 것이 정설이고, 왕은 툐미 삼보타를 인도에 유학시켰으며, 그가 귀국한 후 인도에서 배운 산스크리트어와 문법학을 바탕으로 하여 티벳 문자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그 후 티손데첸(742~797) 왕은 불교를 국교로 정하였고, 양가의 제자들을 모아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고 번역사업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다(허일범: 1990). 7세기 경부터 경전번역을 시작하여 9세기에는 대부분 출판을 마무리 하게 된다. 13세기에는 처음으로 티벳대장경을 개판(開版)하였고, 현재 나르탕판·데르게판·초네판·북경판·라사판 등이 남아 있다.

트어에 나타나는 주격·목적격·도구격·향격·탈격·소유격·처격 등의 어미변화를 표시하기 위하여 티벳어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격조사를 갖추고 있다. 이점에서 티벳본은 한역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의 문법관계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수소성지의 문제적 구문에 대하여 한역본과 함께 티벳본을 대조하는 일은 ‘결정하기 어려운’ 문맥의 정합성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위상 역시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형태 층위의 문제

3.1.1. 我我

『유가사지론』 권20에는 ‘我我’란 용어가 3차례 등장하는데(8장 18행, 22장 22행, 25장 21행), 모두 동일한 문장이므로 8장의 예만 인용한다.

(10) A: 我我今者何所在耶

B: 我₁ 我₂ 今₃{者} 何₄ 所₅+ 在₆ 今₇ 耶₈ 不₉ 多₁₀ 不₁₁ 多₁₂ 不₁₃ 多₁₄ 不₁₅ 多₁₆ 不₁₇ 多₁₈ 不₁₉ 多₂₀ 不₂₁ 多₂₂ 不₂₃ 多₂₄ 不₂₅ 多₂₆ 不₂₇ 多₂₈ 不₂₉ 多₃₀ 不₃₁ 多₃₂ 不₃₃ 多₃₄ 不₃₅ 多₃₆ 不₃₇ 多₃₈ 不₃₉ 多₄₀ 不₄₁ 多₄₂ 不₄₃ 多₄₄ 不₄₅ 多₄₆ 不₄₇ 多₄₈ 不₄₉ 多₅₀ 不₅₁ 多₅₂ 不₅₃ 多₅₄ 不₅₅ 多₅₆ 不₅₇ 多₅₈ 不₅₉ 多₆₀ 不₆₁ 多₆₂ 不₆₃ 多₆₄ 不₆₅ 多₆₆ 不₆₇ 多₆₈ 不₆₉ 多₇₀ 不₇₁ 多₇₂ 不₇₃ 多₇₄ 不₇₅ 多₇₆ 不₇₇ 多₇₈ 不₇₉ 多₈₀ 不₈₁ 多₈₂ 不₈₃ 多₈₄ 不₈₅ 多₈₆ 不₈₇ 多₈₈ 不₈₉ 多₉₀ 不₉₁ 多₉₂ 不₉₃ 多₉₄ 不₉₅ 多₉₆ 不₉₇ 多₉₈ 不₉₉ 多₁₀₀ 不₁₀₁ 多₁₀₂ 不₁₀₃ 多₁₀₄ 不₁₀₅ 多₁₀₆ 不₁₀₇ 多₁₀₈ 不₁₀₉ 多₁₁₀ 不₁₁₁ 多₁₁₂ 不₁₁₃ 多₁₁₄ 不₁₁₅ 多₁₁₆ 不₁₁₇ 多₁₁₈ 不₁₁₉ 多₁₂₀ 不₁₂₁ 多₁₂₂ 不₁₂₃ 多₁₂₄ 不₁₂₅ 多₁₂₆ 不₁₂₇ 多₁₂₈ 不₁₂₉ 多₁₃₀ 不₁₃₁ 多₁₃₂ 不₁₃₃ 多₁₃₄ 不₁₃₅ 多₁₃₆ 不₁₃₇ 多₁₃₈ 不₁₃₉ 多₁₄₀ 不₁₄₁ 多₁₄₂ 不₁₄₃ 多₁₄₄ 不₁₄₅ 多₁₄₆ 不₁₄₇ 多₁₄₈ 不₁₄₉ 多₁₅₀ 不₁₅₁ 多₁₅₂ 不₁₅₃ 多₁₅₄ 不₁₅₅ 多₁₅₆ 不₁₅₇ 多₁₅₈ 不₁₅₉ 多₁₆₀ 不₁₆₁ 多₁₆₂ 不₁₆₃ 多₁₆₄ 不₁₆₅ 多₁₆₆ 不₁₆₇ 多₁₆₈ 不₁₆₉ 多₁₇₀ 不₁₇₁ 多₁₇₂ 不₁₇₃ 多₁₇₄ 不₁₇₅ 多₁₇₆ 不₁₇₇ 多₁₇₈ 不₁₇₉ 多₁₈₀ 不₁₈₁ 多₁₈₂ 不₁₈₃ 多₁₈₄ 不₁₈₅ 多₁₈₆ 不₁₈₇ 多₁₈₈ 不₁₈₉ 多₁₉₀ 不₁₉₁ 多₁₉₂ 不₁₉₃ 多₁₉₄ 不₁₉₅ 多₁₉₆ 不₁₉₇ 多₁₉₈ 不₁₉₉ 多₂₀₀ 不₂₀₁ 多₂₀₂ 不₂₀₃ 多₂₀₄ 不₂₀₅ 多₂₀₆ 不₂₀₇ 多₂₀₈ 不₂₀₉ 多₂₁₀ 不₂₁₁ 多₂₁₂ 不₂₁₃ 多₂₁₄ 不₂₁₅ 多₂₁₆ 不₂₁₇ 多₂₁₈ 不₂₁₉ 多₂₂₀ 不₂₂₁ 多₂₂₂ 不₂₂₃ 多₂₂₄ 不₂₂₅ 多₂₂₆ 不₂₂₇ 多₂₂₈ 不₂₂₉ 多₂₃₀ 不₂₃₁ 多₂₃₂ 不₂₃₃ 多₂₃₄ 不₂₃₅ 多₂₃₆ 不₂₃₇ 多₂₃₈ 不₂₃₉ 多₂₄₀ 不₂₄₁ 多₂₄₂ 不₂₄₃ 多₂₄₄ 不₂₄₅ 多₂₄₆ 不₂₄₇ 多₂₄₈ 不₂₄₉ 多₂₅₀ 不₂₅₁ 多₂₅₂ 不₂₅₃ 多₂₅₄ 不₂₅₅ 多₂₅₆ 不₂₅₇ 多₂₅₈ 不₂₅₉ 多₂₆₀ 不₂₆₁ 多₂₆₂ 不₂₆₃ 多₂₆₄ 不₂₆₅ 多₂₆₆ 不₂₆₇ 多₂₆₈ 不₂₆₉ 多₂₇₀ 不₂₇₁ 多₂₇₂ 不₂₇₃ 多₂₇₄ 不₂₇₅ 多₂₇₆ 不₂₇₇ 多₂₇₈ 不₂₇₉ 多₂₈₀ 不₂₈₁ 多₂₈₂ 不₂₈₃ 多₂₈₄ 不₂₈₅ 多₂₈₆ 不₂₈₇ 多₂₈₈ 不₂₈₉ 多₂₉₀ 不₂₉₁ 多₂₉₂ 不₂₉₃ 多₂₉₄ 不₂₉₅ 多₂₉₆ 不₂₉₇ 多₂₉₈ 不₂₉₉ 多₃₀₀ 不₃₀₁ 多₃₀₂ 不₃₀₃ 多₃₀₄ 不₃₀₅ 多₃₀₆ 不₃₀₇ 多₃₀₈ 不₃₀₉ 多₃₁₀ 不₃₁₁ 多₃₁₂ 不₃₁₃ 多₃₁₄ 不₃₁₅ 多₃₁₆ 不₃₁₇ 多₃₁₈ 不₃₁₉ 多₃₂₀ 不₃₂₁ 多₃₂₂ 不₃₂₃ 多₃₂₄ 不₃₂₅ 多₃₂₆ 不₃₂₇ 多₃₂₈ 不₃₂₉ 多₃₃₀ 不₃₃₁ 多₃₃₂ 不₃₃₃ 多₃₃₄ 不₃₃₅ 多₃₃₆ 不₃₃₇ 多₃₃₈ 不₃₃₉ 多₃₄₀ 不₃₄₁ 多₃₄₂ 不₃₄₃ 多₃₄₄ 不₃₄₅ 多₃₄₆ 不₃₄₇ 多₃₄₈ 不₃₄₉ 多₃₅₀ 不₃₅₁ 多₃₅₂ 不₃₅₃ 多₃₅₄ 不₃₅₅ 多₃₅₆ 不₃₅₇ 多₃₅₈ 不₃₅₉ 多₃₆₀ 不₃₆₁ 多₃₆₂ 不₃₆₃ 多₃₆₄ 不₃₆₅ 多₃₆₆ 不₃₆₇ 多₃₆₈ 不₃₆₉ 多₃₇₀ 不₃₇₁ 多₃₇₂ 不₃₇₃ 多₃₇₄ 不₃₇₅ 多₃₇₆ 不₃₇₇ 多₃₇₈ 不₃₇₉ 多₃₈₀ 不₃₈₁ 多₃₈₂ 不₃₈₃ 多₃₈₄ 不₃₈₅ 多₃₈₆ 不₃₈₇ 多₃₈₈ 不₃₈₉ 多₃₉₀ 不₃₉₁ 多₃₉₂ 不₃₉₃ 多₃₉₄ 不₃₉₅ 多₃₉₆ 不₃₉₇ 多₃₉₈ 不₃₉₉ 多₄₀₀ 不₄₀₁ 多₄₀₂ 不₄₀₃ 多₄₀₄ 不₄₀₅ 多₄₀₆ 不₄₀₇ 多₄₀₈ 不₄₀₉ 多₄₁₀ 不₄₁₁ 多₄₁₂ 不₄₁₃ 多₄₁₄ 不₄₁₅ 多₄₁₆ 不₄₁₇ 多₄₁₈ 不₄₁₉ 多₄₂₀ 不₄₂₁ 多₄₂₂ 不₄₂₃ 多₄₂₄ 不₄₂₅ 多₄₂₆ 不₄₂₇ 多₄₂₈ 不₄₂₉ 多₄₃₀ 不₄₃₁ 多₄₃₂ 不₄₃₃ 多₄₃₄ 不₄₃₅ 多₄₃₆ 不₄₃₇ 多₄₃₈ 不₄₃₉ 多₄₄₀ 不₄₄₁ 多₄₄₂ 不₄₄₃ 多₄₄₄ 不₄₄₅ 多₄₄₆ 不₄₄₇ 多₄₄₈ 不₄₄₉ 多₄₅₀ 不₄₅₁ 多₄₅₂ 不₄₅₃ 多₄₅₄ 不₄₅₅ 多₄₅₆ 不₄₅₇ 多₄₅₈ 不₄₅₉ 多₄₆₀ 不₄₆₁ 多₄₆₂ 不₄₆₃ 多₄₆₄ 不₄₆₅ 多₄₆₆ 不₄₆₇ 多₄₆₈ 不₄₆₉ 多₄₇₀ 不₄₇₁ 多₄₇₂ 不₄₇₃ 多₄₇₄ 不₄₇₅ 多₄₇₆ 不₄₇₇ 多₄₇₈ 不₄₇₉ 多₄₈₀ 不₄₈₁ 多₄₈₂ 不₄₈₃ 多₄₈₄ 不₄₈₅ 多₄₈₆ 不₄₈₇ 多₄₈₈ 不₄₈₉ 多₄₉₀ 不₄₉₁ 多₄₉₂ 不₄₉₃ 多₄₉₄ 不₄₉₅ 多₄₉₆ 不₄₉₇ 多₄₉₈ 不₄₉₉ 多₅₀₀ 不₅₀₁ 多₅₀₂ 不₅₀₃ 多₅₀₄ 不₅₀₅ 多₅₀₆ 不₅₀₇ 多₅₀₈ 不₅₀₉ 多₅₁₀ 不₅₁₁ 多₅₁₂ 不₅₁₃ 多₅₁₄ 不₅₁₅ 多₅₁₆ 不₅₁₇ 多₅₁₈ 不₅₁₉ 多₅₂₀ 不₅₂₁ 多₅₂₂ 不₅₂₃ 多₅₂₄ 不₅₂₅ 多₅₂₆ 不₅₂₇ 多₅₂₈ 不₅₂₉ 多₅₃₀ 不₅₃₁ 多₅₃₂ 不₅₃₃ 多₅₃₄ 不₅₃₅ 多₅₃₆ 不₅₃₇ 多₅₃₈ 不₅₃₉ 多₅₄₀ 不₅₄₁ 多₅₄₂ 不₅₄₃ 多₅₄₄ 不₅₄₅ 多₅₄₆ 不₅₄₇ 多₅₄₈ 不₅₄₉ 多₅₅₀ 不₅₅₁ 多₅₅₂ 不₅₅₃ 多₅₅₄ 不₅₅₅ 多₅₅₆ 不₅₅₇ 多₅₅₈ 不₅₅₉ 多₅₆₀ 不₅₆₁ 多₅₆₂ 不₅₆₃ 多₅₆₄ 不₅₆₅ 多₅₆₆ 不₅₆₇ 多₅₆₈ 不₅₆₉ 多₅₇₀ 不₅₇₁ 多₅₇₂ 不₅₇₃ 多₅₇₄ 不₅₇₅ 多₅₇₆ 不₅₇₇ 多₅₇₈ 不₅₇₉ 多₅₈₀ 不₅₈₁ 多₅₈₂ 不₅₈₃ 多₅₈₄ 不₅₈₅ 多₅₈₆ 不₅₈₇ 多₅₈₈ 不₅₈₉ 多₅₉₀ 不₅₉₁ 多₅₉₂ 不₅₉₃ 多₅₉₄ 不₅₉₅ 多₅₉₆ 不₅₉₇ 多₅₉₈ 不₅₉₉ 多₆₀₀ 不₆₀₁ 多₆₀₂ 不₆₀₃ 多₆₀₄ 不₆₀₅ 多₆₀₆ 不₆₀₇ 多₆₀₈ 不₆₀₉ 多₆₁₀ 不₆₁₁ 多₆₁₂ 不₆₁₃ 多₆₁₄ 不₆₁₅ 多₆₁₆ 不₆₁₇ 多₆₁₈ 不₆₁₉ 多₆₂₀ 不₆₂₁ 多₆₂₂ 不₆₂₃ 多₆₂₄ 不₆₂₅ 多₆₂₆ 不₆₂₇ 多₆₂₈ 不₆₂₉ 多₆₃₀ 不₆₃₁ 多₆₃₂ 不₆₃₃ 多₆₃₄ 不₆₃₅ 多₆₃₆ 不₆₃₇ 多₆₃₈ 不₆₃₉ 多₆₄₀ 不₆₄₁ 多₆₄₂ 不₆₄₃ 多₆₄₄ 不₆₄₅ 多₆₄₆ 不₆₄₇ 多₆₄₈ 不₆₄₉ 多₆₅₀ 不₆₅₁ 多₆₅₂ 不₆₅₃ 多₆₅₄ 不₆₅₅ 多₆₅₆ 不₆₅₇ 多₆₅₈ 不₆₅₉ 多₆₆₀ 不₆₆₁ 多₆₆₂ 不₆₆₃ 多₆₆₄ 不₆₆₅ 多₆₆₆ 不₆₆₇ 多₆₆₈ 不₆₆₉ 多₆₇₀ 不₆₇₁ 多₆₇₂ 不₆₇₃ 多₆₇₄ 不₆₇₅ 多₆₇₆ 不₆₇₇ 多₆₇₈ 不₆₇₉ 多₆₈₀ 不₆₈₁ 多₆₈₂ 不₆₈₃ 多₆₈₄ 不₆₈₅ 多₆₈₆ 不₆₈₇ 多₆₈₈ 不₆₈₉ 多₆₉₀ 不₆₉₁ 多₆₉₂ 不₆₉₃ 多₆₉₄ 不₆₉₅ 多₆₉₆ 不₆₉₇ 多₆₉₈ 不₆₉₉ 多₇₀₀ 不₇₀₁ 多₇₀₂ 不₇₀₃ 多₇₀₄ 不₇₀₅ 多₇₀₆ 不₇₀₇ 多₇₀₈ 不₇₀₉ 多₇₁₀ 不₇₁₁ 多₇₁₂ 不₇₁₃ 多₇₁₄ 不₇₁₅ 多₇₁₆ 不₇₁₇ 多₇₁₈ 不₇₁₉ 多₇₂₀ 不₇₂₁ 多₇₂₂ 不₇₂₃ 多₇₂₄ 不₇₂₅ 多₇₂₆ 不₇₂₇ 多₇₂₈ 不₇₂₉ 多₇₃₀ 不₇₃₁ 多₇₃₂ 不₇₃₃ 多₇₃₄ 不₇₃₅ 多₇₃₆ 不₇₃₇ 多₇₃₈ 不₇₃₉ 多₇₄₀ 不₇₄₁ 多₇₄₂ 不₇₄₃ 多₇₄₄ 不₇₄₅ 多₇₄₆ 不₇₄₇ 多₇₄₈ 不₇₄₉ 多₇₅₀ 不₇₅₁ 多₇₅₂ 不₇₅₃ 多₇₅₄ 不₇₅₅ 多₇₅₆ 不₇₅₇ 多₇₅₈ 不₇₅₉ 多₇₆₀ 不₇₆₁ 多₇₆₂ 不₇₆₃ 多₇₆₄ 不₇₆₅ 多₇₆₆ 不₇₆₇ 多₇₆₈ 不₇₆₉ 多₇₇₀ 不₇₇₁ 多₇₇₂ 不₇₇₃ 多₇₇₄ 不₇₇₅ 多₇₇₆ 不₇₇₇ 多₇₇₈ 不₇₇₉ 多₇₈₀ 不₇₈₁ 多₇₈₂ 不₇₈₃ 多₇₈₄ 不₇₈₅ 多₇₈₆ 不₇₈₇ 多₇₈₈ 不₇₈₉ 多₇₉₀ 不₇₉₁ 多₇₉₂ 不₇₉₃ 多₇₉₄ 不₇₉₅ 多₇₉₆ 不₇₉₇ 多₇₉₈ 不₇₉₉ 多₈₀₀ 不₈₀₁ 多₈₀₂ 不₈₀₃ 多₈₀₄ 不₈₀₅ 多₈₀₆ 不₈₀₇ 多₈₀₈ 不₈₀₉ 多₈₁₀ 不₈₁₁ 多₈₁₂ 不₈₁₃ 多₈₁₄ 不₈₁₅ 多₈₁₆ 不₈₁₇ 多₈₁₈ 不₈₁₉ 多₈₂₀ 不₈₂₁ 多₈₂₂ 不₈₂₃ 多₈₂₄ 不₈₂₅ 多₈₂₆ 不₈₂₇ 多₈₂₈ 不₈₂₉ 多₈₃₀ 不₈₃₁ 多₈₃₂ 不₈₃₃ 多₈₃₄ 不₈₃₅ 多₈₃₆ 不₈₃₇ 多₈₃₈ 不₈₃₉ 多₈₄₀ 不₈₄₁ 多₈₄₂ 不₈₄₃ 多₈₄₄ 不₈₄₅ 多₈₄₆ 不₈₄₇ 多₈₄₈ 不₈₄₉ 多₈₅₀ 不₈₅₁ 多₈₅₂ 不₈₅₃ 多₈₅₄ 不₈₅₅ 多₈₅₆ 不₈₅₇ 多₈₅₈ 不₈₅₉ 多₈₆₀ 不₈₆₁ 多₈₆₂ 不₈₆₃ 多₈₆₄ 不₈₆₅ 多₈₆₆ 不₈₆₇ 多₈₆₈ 不₈₆₉ 多₈₇₀ 不₈₇₁ 多₈₇₂ 不₈₇₃ 多₈₇₄ 不₈₇₅ 多₈₇₆ 不₈₇₇ 多₈₇₈ 不₈₇₉ 多₈₈₀ 不₈₈₁ 多₈₈₂ 不₈₈₃ 多₈₈₄ 不₈₈₅ 多₈₈₆ 不₈₈₇ 多₈₈₈ 不₈₈₉ 多₈₉₀ 不₈₉₁ 多₈₉₂ 不₈₉₃ 多₈₉₄ 不₈₉₅ 多₈₉₆ 不₈₉₇ 多₈₉₈ 不₈₉₉ 多₉₀₀ 不₉₀₁ 多₉₀₂ 不₉₀₃ 多₉₀₄ 不₉₀₅ 多₉₀₆ 不₉₀₇ 多₉₀₈ 不₉₀₉ 多₉₁₀ 不₉₁₁ 多₉₁₂ 不₉₁₃ 多₉₁₄ 不₉₁₅ 多₉₁₆ 不₉₁₇ 多₉₁₈ 不₉₁₉ 多₉₂₀ 不₉₂₁ 多₉₂₂ 不₉₂₃ 多₉₂₄ 不₉₂₅ 多₉₂₆ 不₉₂₇ 多₉₂₈ 不₉₂₉ 多₉₃₀ 不₉₃₁ 多₉₃₂ 不₉₃₃ 多₉₃₄ 不₉₃₅ 多₉₃₆ 不₉₃₇ 多₉₃₈ 不₉₃₉ 多₉₄₀ 不₉₄₁ 多₉₄₂ 不₉₄₃ 多₉₄₄ 不₉₄₅ 多₉₄₆ 不₉₄₇ 多₉₄₈ 不₉₄₉ 多₉₅₀ 不₉₅₁ 多₉₅₂ 不₉₅₃ 多₉₅₄ 不₉₅₅ 多₉₅₆ 不₉₅₇ 多₉₅₈ 不₉₅₉ 多₉₆₀ 不₉₆₁ 多₉₆₂ 不₉₆₃ 多₉₆₄ 不₉₆₅ 多₉₆₆ 不₉₆₇ 多₉₆₈ 不₉₆₉ 多₉₇₀ 不₉₇₁ 多₉₇₂ 不₉₇₃ 多₉₇₄ 不₉₇₅ 多₉₇₆ 不₉₇₇ 多₉₇₈ 不₉₇₉ 多₉₈₀ 不₉₈₁ 多₉₈₂ 不₉₈₃ 多₉₈₄ 不₉₈₅ 多₉₈₆ 不₉₈₇ 多₉₈₈ 不₉₈₉ 多₉₉₀ 不₉₉₁ 多₉₉₂ 不₉₉₃ 多₉₉₄ 不₉₉₅ 多₉₉₆ 不₉₉₇ 多₉₉₈ 不₉₉₉ 多₁₀₀₀ 不₁₀₀₁ 多₁₀₀₂ 不₁₀₀₃ 多₁₀₀₄ 不₁₀₀₅ 多₁₀₀₆ 不₁₀₀₇ 多₁₀₀₈ 不₁₀₀₉ 多₁₀₁₀ 不₁₀₁₁ 多₁₀₁₂ 不₁₀₁₃ 多₁₀₁₄ 不₁₀₁₅ 多₁₀₁₆ 不₁₀₁₇ 多₁₀₁₈ 不₁₀₁₉ 多₁₀₂₀ 不₁₀₂₁ 多₁₀₂₂ 不₁₀₂₃ 多₁₀₂₄ 不₁₀₂₅ 多₁₀₂₆ 不₁₀₂₇ 多₁₀₂₈ 不₁₀₂₉ 多₁₀₃₀ 不₁₀₃₁ 多₁₀₃₂ 不₁₀₃₃ 多₁₀₃₄ 不₁₀₃₅ 多₁₀₃₆ 不₁₀₃₇ 多₁₀₃₈ 不₁₀₃₉ 多₁₀₄₀ 不₁₀₄₁ 多₁₀₄₂ 不₁₀₄₃ 多₁₀₄₄ 不₁₀₄₅ 多₁₀₄₆ 不₁₀₄₇ 多₁₀₄₈ 不₁₀₄₉ 多₁₀₅₀ 不₁₀₅₁ 多₁₀₅₂ 不₁₀₅₃ 多₁₀₅₄ 不₁₀₅₅ 多₁₀₅₆ 不₁₀₅₇ 多₁₀₅₈ 不₁₀₅₉ 多₁₀₆₀ 不₁₀₆₁ 多₁₀₆₂ 不₁₀₆₃ 多₁₀₆₄ 不₁₀₆₅ 多₁₀₆₆ 不₁₀₆₇ 多₁₀₆₈ 不₁₀₆₉ 多₁₀₇₀ 不₁₀₇₁ 多₁₀₇₂ 不₁₀₇₃ 多₁₀₇₄ 不₁₀₇₅ 多₁₀₇₆ 不₁₀₇₇ 多₁

을 의미한다(김성철, 2004:54). 결국 ‘나’라는 것이 가명(명칭)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회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교학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²⁾

3.1.2. 相續

(12) A: 何以故由諸有學雖有聖法而相續中非聖煩惱之所隨逐現可得故

B: 何以故_一諸_二有學_三聖法_四{有}_五雖_六而_七相續_八中_九+非聖煩惱_{一〇}{之}_{一一}隨逐_{一二}所_{一三}現_{一四}得_{一五}{可}_{一六}由_{一七}入_{一八}乙_{一九}由_{二〇}入_{二一}故_{二二}→ <유가 04:02-04:04>

C: 왜냐 하면 유학(有學)들은 성법(聖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相續)하는 가운데 성법이 아닌[非聖] 번뇌(煩惱)가 뒤따르게 되어 실제로[現]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결에서는 속격 ‘七’이 현토된 것을 근거로 ‘相續’을 명사로 파악한 것을 알 수 있고, 역경원에서는 ‘상속하다’라는 동사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상속(相續)이란 ‘계속되는 것’, ‘연속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사론』 등에서는 ‘연속되는 개인 존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장경준 외3(2015:123 각주54)에서 기술한 바대로 “상속하는 所依身, 즉 신체”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배울 것이 남아 있는 유학(有學)들은 성법을 지니더라도 아직 육체에 번뇌가 남아 있다-, 이런 고유 명사로 이해할 때 문맥의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참고로 티벳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3) de ci'i phyir zhe na, 'di ltar slob pa'i chos rnams kyang 'phags ba'i chos rnams yin mod kyi, 'phags pa'i ma yin pa'i nyon mongs pa dang yang 'brel par rnam par snang ba'i phyir ro, ;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학(有學)의 제법은 비록 성법(聖法)이라 하더라도, [*] 성스럽지 않은 번뇌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부분이 ‘而相續中’이 들어가야 할 위치인데, 티벳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한역을 하면서 의역하여 삽입한 표현이므로 원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1.3. 十十種

(14) A: 如是三支廣聖教義謂十十種

B: 是 如_一支_二廣聖教_三義_四謂_五十十種_六→ <유가07:18-19>; 이와 같은 세 支의 廣聖教의 義는 말하자면 ‘열 가지와 열 가지’이니 <장경준외3(2005)역>

C: 이와 같은 3지(支)는 자세한 성교(聖敎)의 이치이니, 열 가지를 말한다.

<전자불전연구소 역>

C': 이와 같은 세 갈래는 거룩한 교법을 넓히는 이치로서 열 가지를 말하였나니,

<한글대장경 역>

12) ‘나의 나’가 지니는 교학적 의미가 본식이나 알라야식과 같은 근원적인 심식론(心識論)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수소성지의 내용상 수행자들이 선정에서 생겨나는 지혜를 닦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기술하는 맥락 속에서 이 구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맥은 두 번째 處인 修因緣을 총정리하는 부분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같은 3支(如是三支)’란 ‘聞正法圓滿, 涅槃爲上首, 能熟解脫慧之成熟’을 말한다.

권20 修所 成地	4處	7支	
	①修處所	① 生圓滿	
	②修因緣	② 聞正法圓滿	正說法(隨順, 無染汚), 正聞法(遠離憍傲, 遠離輕蔑, 遠離怯弱, 遠離散亂)
		③ 涅槃爲上首	有餘依涅槃界(1. 聞所成慧~9. 證得無學解脫), 無餘依涅槃界(10. 解脫圓滿)
		④ 能熟解脫慧之成熟	十種法(1. 聞所成慧~10. 解脫圓滿)
	③修瑜伽	⑤ 修習對治	
	④修果	⑥ 世間一切種清靜	
		⑦ 出世間一切種清靜	

자세한 내용은 聞正法圓滿에 6가지, 涅槃爲上首에 10가지, 能熟解脫慧之成熟에 10가지가 있으므로 ‘六・十・十種’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한문 원문에서는 ‘十十種’으로 기술하였고 구결은 원문을 충실히 따라 ‘10가지와 열 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반면에 역경원에서는 ‘열 가지’로 옮기고 있다. 이에 대한 티벳어 원본은 아래와 같다.

- (15) 'di dag rgyas par byed pa ni 'di lta ste, rnam pa bcu po de dag yin par rig par bya ste, ; 이것들을 자세히 설한다면, 즉 그것들이 10종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rnam pa bcu po’은 10種을 나타내므로 역경원 번역과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¹³⁾

3.2. 통사 층위의 문제

3.2.1. 不의 지배 영역

부정사 ‘不’의 지배영역을 달리 파악해, 의미 해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예이다. 유사한 문맥이 3번 반복되는데(8장 18행, 22장 22행, 25장 21행), 번역 양상이 3군데 모두 유사하다.

- (16) A: 謂當於无戲論涅槃 心无退轉 不生憂慮 謂我我今者何所在耶

B: 謂我當於{於}无戲論涅槃}+ 心}+ 退轉ノ无} 憂慮乙 生リ}尔 謂我
→ 我今{者} 何} 所}+ 在ノ去リ}+ 七ロノ{耶} 不冬ノチリ}+ 七ノ{不
か: 이른바 나는 반드시 무희론열반에 대해 마음에서 물려남이 없어, 우려를 내어 이
르길,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겠는가? 하지 않는 것이다’ 하며

C: ‘나는 희론이 없는[無戲論] 열반涅槃)에서 마음이 물려나지 않도록 우려(憂慮)를 일

13) 참고로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에는 ‘十十種’으로, 국역일체경에는 ‘十種’으로 기술되어 있다.

으키지 않겠다’고 하며, ‘우리들은 지금 어떤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구문은 출가자가 해야 할 일[所作] 4가지 가운데 두 번째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티벳본의 전후맥락을 한역본과 함께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7) ci bdag yongs su yi chad pa'i phyir mya ngan las 'das pa spros pa med pa las bdag gi yid phyir ldog par mi 'gyur zhing, bdag gi bdag gang yang med do zhes mya ngan las 'das pa spros pa med pa la mos shing mngon par dga' bar bya ba dang,
나는 두려움 때문에 무희론열반에서 나의 마음[意]이 퇴전하지 않으면서,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무희론열반에 대하여 신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다.

- (18) 二於无戲論涅槃信解愛樂所作 謂當於无戲論涅槃 心无退轉 不生憂慮 謂我我今者爲何所在耶

티벳본과 한역본을 살펴보면, 우선 한역에서는 ‘二於无戲論涅槃信解愛樂所作’을 앞부분으로 도치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가지 해야 할 일[所作]을 나열하면서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한 효과적인 번역인 셈(두괄식으로 소주제문을 앞에 제시한 형식)이다. 그리고 한역에서는 ‘謂我我今者爲何所在耶’ 의문형으로 번역한 반면에, 티벳본에서는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bdag gi bdag gang yang med do)’는 평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어디에 있겠는가’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수사의문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티벳본을 살펴본다면,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퇴전하지 않고,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열반에 대하여 신해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문맥상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憂慮)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역자가 ‘謂我我今者爲何所在耶’를 ‘不生憂慮’와 연관시킨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¹⁴⁾ 그런데 구문상으로는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열반에 대하여 신해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내용이 티벳본에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번역의 차이가 명확해지도록 이 구문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①구절	二於无戲論涅槃信解愛樂所作
구결	二 {於}无戲論涅槃} + 信解愛樂ノ今七 所作ニトナ 둘째는 无戲論涅槃에 대해 信解 愛樂하는 所作이니,
역경원	둘째는 희론이 없는[無戲論] 열반(涅槃)에 대해서 신해(信解)하고 애락(愛樂)하는 소작(所作)이니,
티벳역	mya ngan las 'das pa spros pa med pa la mos shing mngon par dga' bar bya ba; 무희론열반에 대하여 신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이다.

14) 유사한 구문이 22장 22행에서도 ‘亦無憂慮 謂我我今者爲何所在’의 형태로 등장한다. 한역만으로 본다면,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려(두려움)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장경준, 2005:35)은 타당하게 보인다.

제②구절	謂當於无戲論涅槃 心无退轉
구결	謂 我 當 於 {於}无戲論涅槃 } + 心 } + 退轉ノ尸 无 }
역경원	즉 ‘나는 마땅히 无戲論涅槃에 대해 마음에서 물러남이 없어,
티벳본	mya ngan las 'das pa spros pa med pa las bdag gi yid phyir ldog par mi 'gyur zhing; 무희론열반에 대해 나의 마음이 퇴전하지 않으면서,

제③구절	不生憂慮 謂我我今者何所在耶
구결	憂慮乙 生 二 } 亦 謂尸 我 二 我 今 者 {者} 何 二 所 } + 在 二 二 二 } 七 口 二尸 {耶} 不 多 ノ 牙 二 二 } 七 一 二尸 矢 少
역경원	憂慮를 내어서 말하기를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며
티벳본	bdag yongs su yi chad pa'i phyir.... bdag gi bdag gang yang med do zhes; 나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문제가 되는 제③구에 대하여 구결 번역은 “憂慮하여 ‘나의 나가 어디에 있는가? 하지 않는다’로 번역되었다. 한편 역경원에서는 ‘憂慮하지 않으며, 나의 나가 어디에 있는가? 한다’로 번역되었다.

이 문제는 한역과정에서 문장의 도치로 인해 ‘謂我我今者爲何所在耶’와 ‘无戲論涅槃信解愛樂所作’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로 보인다. 한역만을 살펴본다면, ‘謂我我今者爲何所在耶’는 ‘不生憂慮’에 걸리는 것, 즉 우려의 내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티벳본을 참조한다면,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은 무희론열반에 대하여 신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석독구결과 역경원의 번역은 어느 한쪽의 완전한 오역이 아니라 각각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¹⁵⁾

15) 유사한 구문인 25장 21행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gang gi tse de rgyu rnam pa lnga po, rnam pa nyi shus bsdu pa de dag gi sred pa zad pa, ②'gog pa mya ngan las 'das pa la sems legs par gnas par gyur pa na, ③yongs su yi chad pa'i phyir, de'i yid phyir ldog par mi 'gyur zhing, ④bdag gi bdag gang yang med do zhes, sems gnas par gyur pa'i mod la bden pa rtogs pa zhes bya ste, ⑥'di ni bden pa rtogs pa zhes bya'o.

①그 때 5인(因) 20상(相)을 섭지한 그들의 애욕이 다할 때, ②적멸열반에 마음이 잘 안주하게 된다면, ③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퇴전하지 않으면서, ④‘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⑤마음이 안주하게 되는 순간에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니, ⑥이것을 성제현관(聖諦現觀)이라 한다.

티벳본에서 이 구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해한 구문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한역에서는 알맞게 끊어 읽고 구문의 위치도 도치시켜 다음과 같이 문장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①彼於爾時 由此五因二十種相 攝持其心 ②於愛盡寂滅涅槃界中 令善安住 ③無復退轉 心無驚怖 ④謂我我今者何所在耶 ⑤當於如是心安住時 應已知名入諦現觀 ⑥如是名入聖諦現觀

①그는 이 때에 5인(因)의 20가지 상(相)에 의하여 그 마음을 섭지한다. ②애욕이 다한 적멸열반계에 잘 안주하게끔 하고는, ③다시는 퇴전함이 없게 하며, 마음에 놀랍고 두려움이 없게 한다. ④‘우리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 ⑤이와 같이 마음이 안주할 때에 마땅히 이미 진리의 현관에 들어갔으며, ⑥이와 같은 것을 입성제현관이라고 이름하는 줄 알아야 한다(역경원 번역).

그렇다면 ‘無驚怖 謂我我今者爲何所在耶’에서 ‘無’가 걸리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역경원의 번역은 “마음에 놀랍고 두려움이 없게 한다. ‘우리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라고 끊

3.2.2. 접속어 而

한문의 而는 접속어로 순접과 역접을 모두 아우른다. 그러나 구결에서는 ‘而’의 기능에 따라 다른 현토를 하여 이를 구분하는데, ‘ㄴ’이 붙으면 순접, ‘ㄱ’이 붙으면 역접을 표시한다.

(17) A: 誓受禁戒 誓受精勤 常修善法 而我今者 於四種苦 爲脫何等

B: 誓尔 禁戒乙 受ㄴ哥 誓尔 精勤ㄴ 常ㄴ 善法乙 修ㄴ尸入乙 受ㄴㄴㄴㄴㄴㄴㄴ 而ㄴ 我ㄴ 今ㄴ{者} {於}四種 苦ㄴ+ 何ㄴ 等ㄴㄴ乙 {爲}脫ㄴㄴㄴㄴㄴㄴㄴ ㄴㄴㄴㄴㄴㄴㄴ<유가18:12-14> ; 禁戒를 받고 맹세하여서 精勤히 항상 善法을 닦는 것을 받고 하였으나, 나는 이제 四種 苦에서 어떤 것들을 벗어났는가?

C: 금계(禁戒)를 받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며, 정근(精勤)을 받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항상 선법(善法)을 닦아서 나는 지금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어떤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문장에서 구결 번역은 ‘而ㄴ’을 취함으로서 선후행 문장을 역접으로 파악하였고, 역경원 번역에서는 순접으로 파악하였다.¹⁶⁾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은 금계도 받고 부지런히 선법을 닦았는데도, 4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구결의 ‘而ㄴ’이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3.2.3. 有智同梵行者

(18) A: 若諸有智同梵行者由見聞疑

B: 若 諸 有智ㄴㄴ 同梵行者ㄴ 見聞疑乙 由ㄴ<유가20, 06:22>; 만약 모든 有智한 同梵行者가 見聞疑를 말미암아

C: 만약 지혜 있는 자와 범행(梵行)을 같이하는 자가 보고 듣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구결에서는 ‘有智’를 ‘同梵行者’의 수식 성분으로 처리하였고, 역경원에서는 ‘有智’와 ‘同梵行者’를 동격으로 나열하는 성분으로 처리하였다. 한문 구조상으로도 구결문과 역경원 번역 모두 허용 가능한 해석이다. 이에 대한 티벳 번역은 아래와 같다.

(19) tsangs pa mtshungs par spyod pa shes pa rnams

ㄴ梵 ㄴ同 ㄴ行 ㄴ有智 ㄴ복수형

산스크리트어 복합어를 어떻게 보았는가에 따라 의미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①‘지혜가

어 있고 있다. 구결문에 따르면, “마음에 두려워하여서 이르기를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함이 없고 한다.”로 해석된다. ‘無’가 걸리는 범위를 역경원 번역에서는 ‘驚怖’까지로 보았고, 구결문에서는 ‘何所在耶’까지로 본 것이다.

여기에서 티벳본을 참조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이 퇴전하지 않고,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에 마음이 잘 안주할 때, 진리의 현관에 들어간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문맥상 ‘나의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은 구결문과 같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두려움(驚怖)’의 내용으로 읽힌다. 하지만 구문상으로는 그의 마음이 안주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역경원의 번역 역시 타당성을 지닌다. 석독구결과 역경원의 번역, 어느 한쪽의 완전한 오역은 아닌 것이다.

16) 이 부분은 티벳본의 문장 순서와 한역이 크게 달라서 접속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있는, 범행과 같은 수행을 닦는 자들’, 즉 ‘shes pa’를 수식어로 볼 수도 있고, ②‘범행과 같은 수행을 하는 자, 지혜가 있는 자들’, 즉 동격의 형태를 지닌 복합어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번역만 옳다 판정할 수 없다.

3.3. 문체 층위의 문제

번역이란 원천 언어의 내용만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문체(style)까지 옮기는 작업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문장을 ‘Thank you’라고 번역했다면 내용에 대한 번역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문체(또는 그 이상)는 번역되지 못한 부족한 번역이다. 우리의 연구가 『유가사지론』의 번역을 대조하는 작업인 만큼, 내용 번역의 정확성을 넘어 문체의 구현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체란 다양한 요소들로 발현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종결어미 ‘-다’의 사용 빈도에 따른 문장의 길이와 끝맺음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종결 양상과 관련된 문체는 한문 원문에서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 한문은 문장의 종결과 연결에 관한 표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연체나 간결체에 대한 정보를 유효적으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문체의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두 번역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¹⁸⁾

2.3에서 기술한 것처럼, 두 번역에서 ‘-다’에 의한 문장 종결 양상이 100회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역경원의 문체가 가독성과 문장 이해를 돕는 바람직한 문체로 여겨지고, 석독구결 식의 문장 끊기는 장황한 만연체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석독구결에서는 왜 호흡이 긴 문체를 사용한 것일까? 이것은 구결의 전통적인 관습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번역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면, 어디에서 끊고 어디에서 끊지 않았는가에 대한 번역자의 내용에 대한 인식과 경계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쉽게 보이기 위해 『유가사지론』 권20의 과문 체계 안에서 종결 양상을 표시해 보도록 한다.¹⁹⁾

『유가사지론』 권20 전체 구성과 내용		
권20 修所 成地	4處	7支
	①修處所	① 生圓滿
	②修因緣	② 聞正法圓滿
		③ 涅槃爲上首
		④ 能熟解脫慧之成熟
	③修瑜伽	⑤ 修習對治
	④修果	⑥ 世間一切種清靜
		⑦ 出世間一切種清靜

17) 만일 구결본 유가사지론에 구두점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문장 종결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본 『유가사지론』에는 구두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18) 구결 번역이나 역경원 번역이나 한문본을 번역한 것이지 티벳본을 번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티벳본을 비교 작업에 활용한 만큼 티벳본의 종결 양상도 참고삼아 제시해 본다.

19) 내용 구성과 과문 나누기는 장경준외3(2015)을 참고하여 필자의 견해를 덧붙여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과문뿐 아니라 이번 연구 전반에 걸쳐 이 책의 도움을 많이 얻었다. 상세한 번역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신 장경준·문현수·오민석·허인영 선생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석독구결	역경원	티벳본
① 生 圓 滿	개관		낙장	01장:05행	·
				01:06	·
				01:08	·
				01:08 ´	·
				01:12	·
				01:14	01:14
				01:15	·
				01:16	01:16
				01:19	01:19
	依內	1)중동분원만	낙장	01:21	01:21
		2)처소원만	낙장 02:03尸矢	01:22	·
				02:01	·
				02:03	02:03
		3)의지원만	02:06尸矢	02:06	02:06
		4)무업장원만	02:09尸矢 02:10ナㄱ ㄹ	02:09	·
				02:10	02:10
		5)무신해장원만	· 02:16ナㅇㄷ	02:13	·
				02:16	02:16
	依外	개관	02:19ㄹ	02:19	02:19
		6)대사원만	02:23尸矢	02:23	02:23
		7)세속정법시설원만	03:05尸矢	03:05	03:05
		8)승의정법수전원만	03:11尸矢	03:11	03:11
		9)정행불멸원만	03:13尸矢	03:13	03:13
		10)수순자연원만	03:18尸矢	03:18	·
		소결	03:19ㄴㅈ · 03:22ナㅇㄷ	·	03:19
				03:20	·
	요약		· 03:23人 ㄹ 04:01ㄹ 04:02ㄹ · 04:06ㄹ	·	·
·				·	
04:01				·	
04:02				04:02	
04:04				04:04	
04:06				04:06	

			석독구결	역경원	티벳본
② 聞 正 法 圓 滿	개관		04:06 ㄴㅈ	04:06	04:06
	正說法	隨順, 無染汙	04:09 ㄹ	04:09	04:09
			04:10 當知ㄴ ~ㄱ 丁	04:10	04:10
	正聞法	遠離驕傲	·	04:10	·
		遠離輕蔑	04:12 尸矢	04:12	·
		遠離怯弱	04:13 ㄴㅈ	04:13	·
		遠離散亂	04:14 當知ㄴ ~ㄱ 丁	04:14	04:14

			석독구결	역경원	티벳본
③	개관		04:19 尸矢	04:19	04:19

涅槃爲上首			04:20 𑖦	04:20	・
			04:21 𑖦 𑖦	04:21	・
			04:23 當知𑖦 𑖦~𑖦 𑖦	04:23	04:23
	十法	1)聞所成慧	・ (𑖦)	05:01	도치가 심해 대조 불가
		2)三種信解	・ (𑖦)	05:05	
		3)遠離憊闇惡尋思	・ (𑖦)	05:06	
		4)趣入思所成智	・ (𑖦)	05:07	
		5)趣入二修方便	・ (𑖦)	05:08	
		6)證得修所成智	・ (𑖦)	05:09	
		7)發起勝解	・ (𑖦)	05:10	
		8)證得有學解脫	・ (𑖦)	05:12	
		9)證得無學解脫	・ (𑖦)	05:13	
		10)解脫圓滿	05:14 𑖦𑖦𑖦 𑖦 05:16 𑖦𑖦𑖦 𑖦 05:17 當知𑖦 𑖦~𑖦 𑖦	05:14 05:16 05:17	05:14 05:16 05:17
	獲得五 種勝利	개관	05:18 當知~𑖦 𑖦 05:21 𑖦𑖦 𑖦	05:18 05:21	・ 05:21
			・ ・ ・ ・ ・ (𑖦) ²⁰⁾	05:22 05:23 06:01 06:02 06:03	・ ・ ・ ・ 06:03
		修正行時 饒益	・ ・ ・ ・ 06:10 𑖦𑖦𑖦 𑖦𑖦𑖦 𑖦 06:12 𑖦𑖦𑖦 𑖦 ・ 06:13 𑖦𑖦 𑖦 𑖦	・ 06:06 06:07 06:09 06:10 06:12 06:12 ' 06:13	・ ・ 06:07 06:09 ・ 06:12 ・ 06:13

		석독구결	역경원	티벳본
④ 能 熟 解 脫 慧 之 成 熟	개관	06:16 𑖦𑖦𑖦 𑖦 ・ ²¹⁾	06:16 06:17	・ 06:17
		・ ・ ・	06:19 06:20 07:02	도치가 심해 대조 불가
	1)有覺了欲堪忍譏論	・ ・ ・	06:19 06:20 07:02	
	2)愛樂聽聞	・	07:03	
	3)便發請問	・	07:03 '	
	4)聞甚深法義	・	07:04	
	5)轉得明淨	・	07:06	
	6)能除遣先所生疑	・	07:08	
	7)能見過患深心厭離	・	07:09	
	8)不生願樂	・	07:11	
	9)修集能對治彼所有善法	・	07:13	

20) '聽聞法時 饒益'에 관한 내용이 끝나므로 종결형이 기대되는데 연결어미 '-𑖦'로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10)心生正願	07:14 リナセヒ	07:14	
요약	07:16 リナセヒ	07:16	07:16
2處 총괄	•	07:18	•
	•	07:18'	•
	07:19 ナリリ	07:19	07:19
	07:20 當知 _レ リ _レ 丁	07:20	07:20
	•	07:21	•
	07:23 ナリ入 _レ リ	07:23	07:23

※ 표에 나타난 숫자는 장차 표시이고(장번호:행수), 석독구결자료의 장차에 따라 종결형이 나타나는 곳을 표시한 것이다.

‘•’은 그 장차와 행에 종결표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이다.

2處까지의 문장의 종결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역경원 번역은 문장 하나하나의 간결함과 명료성을 높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내용이 미시적으로 잘게 쪼개지다 보니 권20의 구조와 체계를 보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석독구결의 종결 문체는 가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과문에서 내용의 층위적 변화가 생기는 곳에서 ‘-다’를 사용해줌으로써 일종의 과단부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거시적인 구조를 보이는 데에는 더 효과적인 문체라 할 수 있다.

한편 티벳본의 종결 양상을 살펴보면, 역경원의 종결 패턴보다는 석독구결의 종결 패턴에 훨씬 더 가까운데, 이는 전체 문종결의 ‘-다’가 사용된 빈도에서도 입증된다.

석독구결 ‘-다’	역경원 ‘-다’	티벳본 종결부호 ‘ ’ ²²⁾
217회	347회	204회

물론 석독구결이나 역경원이 번역한 것은 한문본이므로 이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이 한역했던 『유가사지론』의 원래 텍스트는, 과문이 거시적으로 드러나는 만연체의 문체였음을 티벳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역 중 석독구결의 문종결 패턴이 최초의 원천 언어에 가깝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고려시대 스님들의 번역이 매우 명료하고 정료했으며 때로는 현대의 한글대장경 번역보다 더 훌륭하였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장경준:2011)”, “고려시대 유가사지론 해독의 수준이 매우 높고 엄밀했다(백진순:2015)”, 이것이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경험치의 축적에서 온 연구자들의 추정일 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我我(나의 나/bdagi bdag)’의 번역처럼 구결 번역의 정확성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게 된 것은 이번 연구의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十十種’의 처리에서 보았듯, 동국역경원의 번역도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 결코 조악한 번역본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거둔 수확이라 할 수 있다.

21) 각 장의 개관이 끝나는 위치는 모두 종결 ‘-다’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엔 ‘入_レ’로 끝난다. ‘當智_レリ_レ’의 ‘_レ’와 함께 ‘_レ’의 종결적 기능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22) 티벳에서는 세로줄 ‘|’로 절을 나누고, 두 개의 줄을 그어 ‘||’로 문장의 종결을 표시한다. 서술문·의문문·명령문을 나타내는 종지형 조사 뒤에는 반드시 ‘||’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번 연구의 부수적인 성과는 유가사지론 연구에 티벳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문본의 개작의 실체를 엿볼 수 있었던 점이다. 티벳본은 한역본과 완벽하게 1:1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미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문’에 있어서 티벳본이 결정적인 모든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티벳본과의 대조를 통해 일부는 보다 세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스크리트어본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원본의 내용을 알맞게 끊어 읽고 핵심 주제를 도치시킴으로써 내용상의 맥락을 놓치지 않은 것이 한역본의 큰 장점이란 사실도 파악하였다.

석독구결에 대한 국어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불교학자, 역사학자, 번역학자 등 인접 분야의 연구자들과 공유해야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깊은 공감을 표시한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확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성주(2017), 「화엄경(주본)의 구결과 현대역」, 『한국 고전번역사의 전개와 지평』, 도서출판 점필재, 17-38.
- 김지오(2017), 「음독구결의 번역학적 이해」, 『한국 고전번역사의 전개와 지평』, 도서출판 점필재, 39-63.
- 김성철(2004),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불교시대사.
- 동국역경원(1995),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¹⁾, 東國譯經院.
- 박윤철(2009), 「불경 번역 방법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0-3, 121-139.
- 서윤길(2004), 금강경 우리말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송혁기(2010),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서 평가에 대한 일고-‘번역의 정확성’ 항목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 1, 129-170.
- 장경준 외3(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경준(2011), 「석독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 『번역학연구』 12-4, 145-168.
- 허일범(1990), 『티베트어의 기초와 실천』, 민족사.
- 가츠라 쇼류 외(2014), 『유식과 유가행』, 김성철 역, 씨아이알.
- 吉祥 編(2005), 『불교대사전』, 서울: 흥법원.
- 岩野眞雄 編(1981), 『國譯一切經』 印度撰述部 15, 東京: 大東出版社.
- J. W. 드용(2014), 『현대 불교학 연구사』, 강종원 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 Michael Hahn(2016), 『고전 티벳어 문법』, 안성두·최성호 역, 씨아이알.
- Werner Koller(1990),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박용삼 역, 숭실대학교 출판부

<https://www.asianclassics.org> (ACIP:Asian Classics Input Project)

<http://www.cbeta.org/> (CBETA 중화전자불전협회)

<http://www.chibs.edu.tw/> (유가사지론자료고)

<http://abc.dongguk.edu/ebti/c2/sub1.jsp>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

<http://www.sutra.re.kr/home/index.do> (고려대장경연구소)

석독구결을 통해 본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교육 내용

김유범(고려대)

1. 머리말

국어의 역사에서 중세국어 이전 시기의 국어인 고대국어는 중세국어의 전신으로서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우리말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¹⁾ 주로 차자표기 자료들로부터 당시의 언어적 특성을 귀납해 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대국어 시기는 국어사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대국어는 연구의 차원뿐 아니라 교육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고대국어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자료라는 점, 또한 그러한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분명하고 객관적인 국어학적 해석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고대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충분히 교육 내용에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해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출발로 하여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대국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발표가 고대국어의 연구 못지않게 고대국어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국어사 연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

국어사의 가치와 중요성은 우리가 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²⁾ 이러한 믿음은 국어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결코 필요 없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준다.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시대나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불이 켜져 있다는 점을 이러한 믿음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그동안 국어사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되어 왔고 그 성과도 꽤 많이 축적되었다.

1) 고대국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고대국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구결 연구와 더불어 국어 자음 체계의 변화에 근거해 고대국어를 삼국시대부터 13세기까지 보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의 견해를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남풍현(2003): 삼국시대~13세기 중엽

([상고] 삼국시대, [중고] 통일신라시대, [근고] 고려 초~13세기 중엽)

김무림(2004): 삼국시대~13세기([전기] 삼국시대~10세기 이전, [후기] 10~13세기)

2) 이기문 교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요즈음 우리나라 人文學의 앞날에 대한 비관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국어를 말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어가 살아 있는 한, 그 근원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 민족 사이에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기문 2009:69-70).

일제의 무단통치기를 겪으며 민족의식의 발로는 국어와 한글 연구로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사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이와 같은 관심은 한글의 새로운 표기법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고 우리말의 뿌리를 캐는 어원 연구가 1920년대부터 시작되도록 했다.³⁾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과 더불어 일제의 극심한 억압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및 국어사 연구에 치중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 이래로 주력해 온 고어 해석과 어원 탐구, 그리고 향가 해독에서 발전된 성과를 보이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가 양주동 선생의 『古歌研究』(1942)이다.

이처럼 국어사 연구는 우리 민족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우리만이 지닌 것의 가치가 중시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염증과 반감이 일어나는 현실은 국어사 연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우리는 국어사 연구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가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국어사 연구는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다. 새롭게 밝혀 낸 국어사적 사실들은 현대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고 세계의 문자사나 언어학사 기술에서 참고할 만한 유익한 사실들도 밝혀내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국어사 교육은 국어사 연구의 이러한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국어사 연구에서 밝혀낸 새롭고도 가치 있는 연구 결과가 국어사 교육에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수십 년 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새롭고 역동적인 연구의 분위기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향가 <헌화가>를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3) 우리나라 학자가 국어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행한 최초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거론된다. 權惠奎. 1923.5.25. 「語源 몇」, 『朝鮮語文經緯』, 京城: 廣文社, 131-137.

헌화가

紫布岩乎过希	지뵈 바회 ㄱ새	자쫘빋 바위 가에
執音乎手母牛放教遣	자뵈몬손 암소 노히시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吾勝不喻慚勝伊賜等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花勝折叱可獻乎理音如	고쥬 것거 바도림다.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김완진 해독·해석

이 할아버지가 살던 통일 신라 시대의 우리말은 고대 국어에 속한다. 그 시절에는 한글이 없었지. 그래서 한자를 빌려 와서 우리말을 표기했어. 이를 차자 표기라고 하는데,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쓰는 것을 음차, 뜻을 빌려 쓰는 것을 훈차라고 했단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자꾸나.

	花	勝	折	叱	可
훈(뜻)	꽃	소리 울릴	꺾을	꾸짖을	가할
음(소리)	화	힐	절	질	가

고쥬 → 꽃을 것거 → 꺾어 * '叱'은 'ㅅ' 표기에 쓰임.

'헌화가'는 차자 표기 방법 중의 하나인 '향찰'로 쓰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려무나.



[그림 1]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창비)

[그림 1]은 우리말의 변천과 관련해 향가 <헌화가>를 통해 고대국어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만으로 고대국어를 소개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고대국어의 어떤 모습과 특징을 지닌 언어인지는 전혀 언급도 못하고 차자표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단 이 교과서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 '고대국어=차자표기'라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처럼 보인다.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교육 내용의 축소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이와 같은 부분은 놓아두더라도 [그림 1]은 향가 해독 및 해석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 구절의 '獻乎理音如'에 대한 해독이 김준영(1979)의 '받조오림다' 이후 '받조보림다'(서재극 1975), '바도림다'(김완진 1980)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큰 진전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 이곳의 '音'만을 '이'로 읽어 온 오래된 관습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⁴⁾

그 후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이때의 '音如'가 본래는 '音叱如'이며, 이것은 '당위/의무, 가능성/능력'과 같은 양태적 의미를 갖는 '-ㅁ다' 형태의 어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⁵⁾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ㄴㅁ ㅁ', 15세기 『삼강행실도』(충신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ㅁ다'(뵈ㅁ다)의 존재는 <헌화가> 중 '獻乎理音如'의 '音如'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로 이어진 문법 요소로서 국어 문법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림 1]에서처럼 '獻乎理音如'의 해독을 '바도림다'로, 해석을 '바치오리다'로 한다면 '獻乎理音如'는 동사 어간 '받-', 선어말어미 '-오-', '-리-', '-음-', 어말어미 '-다'와 같은 문법적 구성을 상정하게 된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音(叱)'의 존재와 그 의미를 충분히

4) 이와 관련해 『국어사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音'을 '이'로 보고 있다.

獻花歌의 '獻乎理音如'의 '音'자가 중세국어의 공손법 어미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ㄹ'(m)을 나타낸 '音'이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p.91)

5) 이에 대한 정리된 논의는 박진호(2008:321-322)를 참조할 수 있다.

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중세국어에까지 이어진 고대국어의 어미 ‘-ㅁ다’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국어사 연구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여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훨씬 흥미로웠을 것이다.

한편, 국어사 교육은 중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중등학교의 경우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은 훈민정음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고등학교에 가서야 처음 접하게 된다. 국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조차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교육과정의 잦은 개편에서 국어사 관련 내용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이 국어사와 관련해 배우게 되는 내용은 점점 빈약해져 간다. 문학 수업에서 고전 작품을 현대어로 번역해 학습하고 있는 상황도 관련이 있다.

이와 달리 대학에서는 전공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진지한 국어사 교육이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거치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참을성 있게 공부해 보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은 국어사 수업에 마음의 문을 닫는다. 국어사가 전공 필수가 아닌 경우 국어사는 피해야 하는 과목이며, 전공 필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배우는 식으로 한 학기를 견디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대학 강의실의 학생들 모습이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어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용의 심오함과 난해함, 그리고 한자는 물론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낱설고 특이한 한글 표기가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사를 가까이하기에 힘든 대상으로 만든다. 게다가 교수가 국어사의 내용을 학생들의 입장과 눈높이를 고려해 가며 부단히 정비하고 그것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교수들을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국어사 연구가 국어사 교육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교육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문법 교육을 전공한다며 국어사 교육의 이런저런 측면을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국어사를 연구하지 않으면서 그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훌륭한 교수법도 교수법 자체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철저한 장악과 치열한 고민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연구된 내용들이 어떻게 교육되는지 잘 알지 못하며 그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구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의 체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국어사와 관련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어사 연구자들은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연구에서 거둔 수확들을 교육적으로 정비해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국어사 교육에서 고대국어의 위상

국어교육에서 국어사를 가르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국어 자체에 대한 지식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국어교육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

어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국어사는 국어교육의 중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당장 학생들의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돈이 안 되는 학문은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세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어사를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대국어가 지닌 다양한 문법적 특성들을 가르치는 일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약을 받는데, 현대국어 이전의 국어에 대해 다루는 일이 달갑게 느껴질리 없다. 최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국어사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미흡한 면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이전 교육과정들에서는 국어사 전체를 언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교육과정에서 국어사는 주로 중세국어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중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1) 공통 교육과정(공통 과목)

가. 고등학교 1학년 문법 영역 성취기준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나. 학습 요소

국어의 역사성,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음운 변동(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두음 법칙,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 문법 요소(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국어의 발전에 관심 갖기(한국어의 위상, 국어 사랑)

다. 해설

[10국04-01] 이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한글 창제 후의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국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의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사용하며, 시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국어의 변화와 관련된 평가에서는 시대별 언어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묻기보다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알고 언어가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둔다.

(2)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 선택)

가. 언어와 매체 중 ‘국어의 탐구와 활용’ 영역 성취기준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

6)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서를 비롯한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것만을 골라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우린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체제로 된 학교가 아닌, 실용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원을 다니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아닌, 평생을 지니고 가며 불현듯 떠올려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들이다. 학교 교육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나. 해설

[12언매02-08] 이 성취기준은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차자 표기 자료로 남아 있는 고대 국어,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되, 상세한 국어사 지식의 학습보다는 개략적인 어휘의 변화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적 지식을 세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국어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 사회나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 혹은 모둠별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1)은 공통 과목인 ‘국어’, (2)는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부분의 교육과정 중 국어사와 관련되는 내용들로서 (1)에서는 현대국어와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중세국어를, (2)에서는 자료의 활용 측면에서 고대국어와 중세국어를 언급하고 있다. (1)과 (2) 모두 국어사 자체 지식보다는 현대국어와의 차이 또는 이해하기 쉬운 국어사 자료를 통한 개략적인 어휘 변화 정도를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어사는 각 시대의 국어의 모습이 통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해될 때 의미가 있다. 비록 중세국어는 국어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에 없는 중세국어는 그 진면목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 또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만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란 피상적이거나 때론 오히려 그릇된 이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화의 과정 전체가 고려되지 않는 국어사 교육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교량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근대국어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비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현대국어가 지닌 변화된 모습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것이 많으며, 이것은 그 시기에 존재했던 국어의 변화 법칙과 양상을 따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다. 언어가 어떤 시기에 변화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에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고 (2)에서 ‘차자 표기 자료’ 정도로 언급된 고대국어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사에서 중세국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과 중세국어 이전에 우리말의 역사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대국어는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차자표기로 기록된 “내용이나 표현이 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어사 교육에서 고대국어는 차자표기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온 사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표기로부터 자유로운 국어의 역사는 있을 수 없지만, 국어교육에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비해 고대국어는 유독 표기에 강하게 매여 있었다. 접근 방식을 달리해 차자표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국어의 특징들이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되었다면 고대국어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교육에서 고대국어에 이처럼 외면 받은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지난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고대국

어가 언급되었던 부분을 참조해 보면 그 위상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⁷⁾ 비록 ‘간략하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고대국어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국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국어사 교육의 기본에는 충실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국어사 교육 자체가 매우 약화된 이번 교육과정에서 고대국어의 국어교육 분야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하게 느껴진다. 물론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를 대비하는 것이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대국어에서 꼭 가르쳐야 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교육 내용들을 잘 정비하여 제시해 두는 것이 미래의 국어사 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도 확실한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석독구결

고대국어와 관련해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는 1차적으로 고대국어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고대국어를 연구한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고대국어의 지닌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적 측면을 고려하면 먼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지닌 특징과는 다른, 고대국어만의 언어 특징이나 후대 언어 현상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언어 양상, 그리고 고대국어를 기록해 놓은 자료의 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더불어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 선정에서 국어교육적 관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대국어의 여러 가지 내용 중 어떤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어교육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우(2013)에서 국어과 내용 체계인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에 따라 제시한 다음과 같은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을 참조해 볼 수 있다.

(3) 가. 지식

학술적 명확성, 학습 난이도, 시기별 대표성, 고전문학 해석과 관련한 실용성
나. 탐구와 적용

7) 국어Ⅱ 중 [문법]과 관련된 (11), 독서와 문법 중 ‘국어 자료의 탐구’와 관련된 (26)에서 고대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밑줄은 필자)

(11)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고대, 중세, 근대 국어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탐구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 속에 선인들의 사고가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국어의 변천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방향까지 모색해 보도록 한다. 국어의 미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어 동질화 문제를 다루고 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탐구하여 본다.

(26)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

국어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국어 변천의 양상을 탐구하고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국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차자(借字) 표기와 한글 표기의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에 걸친 음운과 표기, 단어와 문장의 주요 변천 양상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국어 자료는 역사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 현대국어와의 연관성,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다. 태도

국어사 지식 자체의 흥미,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 국어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

(3)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3가)에서 ‘고전문학 해석과 관련한 실용성’은 향가의 이해와 연관된 유용한 기준이다. 또한 (3다)에서 ‘국어사 지식 자체의 흥미’나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은 고대국어에서 선정될 내용이 어떠한지 고민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3나)의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이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은 본 발표에서 이후로 논의하려고 하는 석독구결과 관련해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이 단순히 국어사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국어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를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의 결과가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며 발표자가 고대국어와 관련해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고대국어 소개 내용

국어의 계통과 형성

나. 고대국어의 음운 관련 내용

된소리 계열의 미형성, 모음조화

다. 고대국어의 문법 관련 내용

명사형 어미(-ㄴ, -ㄹ), 명사 부정법과 동사 부정법

라. 고대국어의 어휘 관련 내용

고구려와 신라의 어휘 차이 [예 買(*미) vs. 勿(*물)],

고유어에서 한자어로의 변화 [예 居西干/次次雄/尼師今/麻立干 vs. 王]

마. 고대국어의 자료 관련 내용

고유명사 표기 자료, 향가 자료, 이두 자료, 구결 자료

바. 고대국어의 표기 관련 내용

차자표기의 기본 원리, 석독구결

(4가)는 국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고대국어로부터 오늘날의 국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어의 역사를 큰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국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상식처럼 되어 있는 국어의 알타이어족설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이야기는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을 지닌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나)는 오늘날과 같이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와 같은 전형적인 자음 조직이 고대국어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국어 어휘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모음조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국어와의 차이와 더불어 국어의 초기 모습에 어떠한 특성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다.

(4다)는 오늘날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하는 ‘-ㄴ’, ‘-ㄹ’이 고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도

가능했었다는 점, 부정의 대상이 명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그 부정법이 달랐었다는 점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해 고대국어를 살펴봄으로써 관형사형 어미의 전반적인 변화 과정을 탐구하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다.

(4라)는 고대국어를 이루고 있는 삼국의 언어 특성과 관련해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 고유어 어휘가 중국의 영향으로 점차 한자어로 바뀌어 간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대국어에 존재했던 어휘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며 오늘날의 국어를 이루게 된 국어 어휘의 바탕과 변화 양상에 대해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4마)는 고대국어를 담고 있는 자료의 유형을 보인 것으로 고대국어의 자료는 어휘 자료와 문장 자료, 독해를 위한 자료와 창작을 위한 자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주로 향가 자료는 서동요, 이두 자료는 임신서기석에 실려 있었는데, 이것은 (3)과 같은 선정 기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결 자료를 포함해 보다 대표성과 탐구 및 흥미 유발 가능성을 지닌 자료들을 선별해 고대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4바)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표기에 사용했던 고대국어 당시의 특징적인 표기, 즉 차자표기에 관한 교육 내용이다. 고대국어 하면 차자표기를 떠올릴 정도로 차자표기는 고대국어를 특징짓는 상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차자표기가 바로 고대국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석독구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자표기에 대한 교육 내용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대국어의 표기와 관련해 석독구결에 대한 이야기는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이나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과 더불어 ‘국어사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까지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고대국어 관련 교육 내용은 중세국어 교육 내용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국어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하게 해 준다. 국어사 연구의 측면에서 고대국어는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들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지만, 국어사 교육과 관련해서 정도의 내용들을 정비해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대국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의 새로운 교육과정들에서 정상적인 국어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4)와 같은 교육 내용들이 흥미롭고 짜임새 있게 정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4바)의 석독구결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한 것에 비해 국어사 교육에서는 그 특징은 물론이고 존재조차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발표자는 석독구결이 한자 사용의 기피, 학습량의 경감 등과 같은 미명 아래 정작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이 배제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어사 교육에서 구결을 학습 내용으로 다룬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동몽선습"은 조선 중종 때에 박세무가 쓴 어린이 학습서이다. 이는 중세 국어 시기의 책이지만, 남아 있는 구결 표기를 통해 고대 국어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구결 표기

2 다음은 "동몽선습"의 표기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구결 표기에 대해 알아보자.

원 문 天地之間萬物之衆厓唯人伊最貴爲尼所貴乎人子隱以其有五倫也羅

독 법 천지시간만물지중에 유인의 최귀하니 소귀호인자논 이기유오륜야나.

현대어역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1 밑줄 친 부분이 현대어 역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정리해 보자.

厓	伊	爲尼	隱	羅

2 "동몽선습"은 한문을 처음 배우는 아동들의 교재로 지은 책이다. 한문에 밑줄 친 구결자를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그림 2]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천재)

[그림 2]는 고대국어 교육 내용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자료는 중세국어 시기의 것이다. 이 자료의 구결 표기를 통해 고대국어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한 ‘도움말’은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구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모두 고대국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국어사 연구자들이 국어사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결에 대한 [그림 2]와 같은 교육 내용은 구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의 역사적 모습을 왜곡한 것은 물론, 구결의 쓰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마도 학생들은 원문에 동일하게 본체자로 적힌 한자들을 보고 본래의 한문 원문과 보조적으로 기입된 구결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이 활동의 중요한 목표인 구결자를 표기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국어 교육에서 구결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석독구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석독구결은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로 나뉘지만, 국어사 교육에서는 자토석독구결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석독구결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가. 한자의 약체자를 사용한 보조적 표기
 - 나. 한문의 이해에 우리말의 문법적 요소 활용
 - 다.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풀어 읽기

(5가)는 구결자의 쓰임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의 학습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이해 수단으로서 구결자가 사용된다는 점, 동일한 구결자의 잦은 반복과 더불어

빠른 필기를 위해 한자의 본체자가 아닌 약체자를 사용한다는 점은 구결자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고, 실제 형태가 왜 한자의 약체자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제재가 된다. 더불어 한자의 본체자와 약체자를 비교해 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인지 양상의 한 예를 경험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된다.

(5나)는 외국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은 중국어가 기반인 한문을 그와는 다른 언어인 국어로 이해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요소들이 발달한 국어는 외국어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석독구결 자료가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때 사용된 문법적 요소들이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고대국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임도 교육적 의의를 높여 준다.

(5다)는 석독구결이 지닌 가장 큰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다. 후대의 음독구결과는 달리 석독구결은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차자표기 자료들이 갖지 못한 특징을 보여 준다.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된 구결자와 역독점을 통해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흥미로운 장치는 국어사 교육에서 탐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중국어와 국어의 통사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언어 교육적으로 유익한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석독구결과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학습자의 탐구 가능성,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국어사와 국어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 가능성과 같은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들에 잘 부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하며 현실에 맞는 국어사 교육 내용이 되도록 절차탁마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국어사 연구에서 쌓아 온 석독구결에 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내용들이 국어사 교육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국어사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보태지기를 기대한다.

5. 맺음말

이제까지 국어사 연구와 국어사 교육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위상과 의의,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다. 중세국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중세국어 이전에 우리말의 역사와 흔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의 발길은 고대국어로 향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어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 중 하나인 탐구 가능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석독구결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필자는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기문 교수의 다음과 같은 당부를 떠올려 본다.

이 발표의 첫머리에서 저는 국어사 연구를 헛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그 건설 현장의 한 귀퉁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귀퉁이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과 취향으로 결정됩니다. 자기가 택한 귀퉁이에서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할수록 좋은 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귀퉁이에서 일 하면서도 집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집 전체의 윤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자기의 일을 옳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 연구가 헛집을 짓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꿈과 상상력이 빛나는 고귀한 헛집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집 전체를 보며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려 한다. 더불어 여기에 발표자는 짓고 있는 헛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집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이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사람들이 이 집의 가치를 알도록 해 주는 일, 이 일이 국어사 교육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국어사 교육에 대한 국어사 연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

참고문헌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무림(2011), 「口訣 및 吏讀 漢字音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6, 구결연구, 55-76.
-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일조각.
- 김민수(2005), 「고대국어 연구의 기본과제」, 제18회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동국대학교 다항관 세미나실, 2005.2.2.
- 김성주(2008), 「字吐釋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39-66.
- 김완진(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유범(2012),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회고」,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41-64.
- 김준영(1979), 『鄉歌文學』, 형설출판사.
- 남풍현(2003),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22. 남풍현(2009:16-36)에 재록.
- 남풍현(2006), 「韓國의 古代口訣資料와 그 變遷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615-637.
- 남풍현(2009), 『古代韓國語研究』, 시간의물레.
- 남풍현(2010), 「韓國語史 研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5-20.
- 문현수(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2008), 「鄉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 51, 국어학회, 313-338.
-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7-33.
- 서재극(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98/2008), 『新訂版 國語史概說』(초판 제1쇄/수정판 제19쇄), 태학사.
- 이기문(2006),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45-70.
- 임용기·홍윤표 편(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67-98.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47-80.
- 전정예(2010),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 정재영(2006), 「韓國의 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129-189.
- 황선엽(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35-6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김미미(국립한글박물관)

1. 머리말

이 글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구결 자료를 소개하고 자료의 활용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결은 한문 문장에 우리말 조사와 어미 또는 어휘 형태의 일부를 토로 달아, 한문을 우리말로 풀이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를 표기한 문자에 따라 크게 한자를 빌려 쓴 차자구결과 한글을 쓴 한글구결로 구분된다. 한글구결은 15세기 이후 간행된 연해 자료 전반에 광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차자구결 자료에 한정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차자구결 자료를 크게 석독구결과 음독구결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소장 구결 자료를 활용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연구 및 전시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2.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 현황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2014년 10월 9일(한글날) 서울시 용산구에 개관하였다.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진흥’을 목표로 하여 한글과 한글문화 자료의 조사·수집·연구·전시·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글박물관은 개관 이후 약 3년 동안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료 44,000여 점을 수집하였으며(2017년 12월 기준)¹⁾, 한글문화 자원 포털 ‘디지털한글박물관’을 통해 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1,237점, 135,961면)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중 강연회 및 유관 학회들과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씨부인한글상언·정조어필한글편지첩·곤전어필』(2014), 『고열녀전』(2015), 『해부학』 권1~3(2016~2018) 등 소장 자료 연구서 발간 및 다양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2층과 3층에서는 한글의 역사를 다룬 상설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과 한글문화를 토대로 한 기획전시를 매해 3~4회 개최하고 있다.²⁾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아,

1) 총 44,206점(구입 24,338점, 기증 19,868점) 가운데에는 보물 4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2점, 등록문화재 1점이 포함되어 있다.

- 보물(4점): 『월인석보』 권9, 권10 2점(제745호), 『선종영가집언해』 권하 1점(제1163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1점(제1886호)

- 서울시 유형문화재(2점): 『해동제국기』 2점(제310호)

- 등록문화재(1점): 『말모이』 원고 1점(제525호)

2) 2014년 개관 이래 한글박물관에서 개최한 기획전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

- 2015년: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다.-소설 속 한글>, <디지털 세상의 새 이름_코드명 D55CAE00>, <꿀꿀꿀-한글 디자인>

- 2016년: <슬기롭게 사이 좋게-초등 교과서 속 한글 이야기>, <광고 언어의 힘>, <1837년 가을 어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0여 종이 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글문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및 한글문화의 종합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글박물관은 한글로 이룩된 한글문화의 면면을 보여 주는 유·무형의 한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글이 이룩되기까지의 역사와 그 창제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자료를 함께 수집·연구하고 있다. 한자 또는 한자를 변형하여 쓴 고유 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등의 자료가 그 대상이 되겠으나 한글 자료에 비하여 아직 자료 수집이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다만 2015년에 소장된 『유가사지론』 권20을 계기로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자료의 문화재적·국어사적 가치를 기관 차원에서 공감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2017년에 구입한 『유가사지론』 권66의 국보 지정을 위한 기초 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망이 기대된다.

2.1. 구결 자료 목록

2018년 7월 기준 한글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약 20,011건 56,083점이다. 이 가운데 등록시스템(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는 약 10,215건 18,407점이며, 시스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차자구결 자료는 23건 49점이다. 차자구결 자료는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도록 한 석독구결과 한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각 어절 단위에 우리말 토씨를 달아 읽도록 한 음독구결로 크게 구분된다.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석독구결 자료는 『유가사지론』 권20과 권66의 2건 2점이 있고, 음독구결 자료는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선종영가집』을 비롯한 16세기 이후의 자료 21건 47점이 있다.

[표1]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차자구결 자료 목록(2018년 7월 등록 자료 기준)

연번	구분		자료명	자료번호	시대	수량		비고
						건	점	
1	석독	점토	유가사지론 권66 (瑜伽師地論 卷66)	한구000641	11세기 (초조본)	1	1	
2	구결	자료	유가사지론 권20 (瑜伽師地論 卷20)	한구(구)003378	1246년 (재조본)	1	1	보물 제1886호
3	음독 구결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한구(구)003379	1544년	1	1	
4			선종영가집 권상, 하 (禪宗永嘉集 卷上, 下)	한구(구)003383	1570년	1	1	
5			선종영가집 권상, 하 (禪宗永嘉集 卷上, 下)	한구(구)003384	1572년	1	1	

- 는 혼례날-덕온공주 한글 자료>, <훈민정음과 한글 디자인(일본 도쿄)>, <원도, 두 글씨장이 이야기>
- 2017년: <훈민정음과 한글 디자인>, <소리×글자: 한글 디자인(미국 LA)>, <순간의 풍경들, 『청구영언』 한글 노랫말 이야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한글 전래 동화 100년>, <한중일 서체 특별전>
 - 2018년: <겨울 문학 여행(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 <소리×글자: 한글 디자인>, <나는 몸이로 소이다: 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

6	소학집설구결 권3~4 (小學集說口訣 卷3~4)	한구000304	16세기 초	1	1	
7	소학집설 권5(小學集說 卷5)	한기004041	17~19세기	1	1	
8	경덕전등록 권17~20 (景德傳燈錄 卷17~20)	한구(구)003380	17세기	1	1	
9	경덕전등록 권21~24 (景德傳燈錄 卷21~24)	한구(구)003381	17세기	1	1	
10	경덕전등록 권28~30 (景德傳燈錄 卷28~30)	한구(구)003382	17세기	1	1	
11	예기집설대전 권1~30 (禮記集說大全 卷1~30)	한구000670	17~19세기	1	16	
12	예기집설대전 권6 (禮記集說大全 卷6)	한기004080	17~19세기	1	1	
13	예기집설대전 권5, 17·18, 29·30 (禮記集說大全 卷5, 17·18, 29·30)	한기004070	18세기	1	3	
14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한구000261	17~19세기	1	1	
15	맹자 권3(孟子 卷3)	한기004737	17~19세기	1	1	
16	맹자집주대전 권3~14 (孟子集註大全 卷3~14)	한기004075	17~19세기	1	6	
17	맹자집주대전 권5~6 (孟子集註大全 卷5~6)	한기004819	17~19세기	1	1	
18	맹자집주대전 권13~14 (孟子集註大全 卷13~14)	한기004739	17~19세기	1	1	
19	맹자집주대전 권13~14 (孟子集註大全 卷13~14)	한기004738	18세기	1	1	
20	서전정문(書傳正文)	한기004710	17~19세기	1	1	
21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	한기004607	18~19세기	1	1	
22	소학제가집주언해 권1~6 (小學諸家集註諺解 卷1~6)	한구000306	조선후기	1	5	
23	소학제가집주언해 권1, 3~6 (小學諸家集註諺解 卷1, 3~6)	한기004459	1918년	1	1	
합계				23	49	

2.2. 석독구결 자료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석독구결 자료는 『유가사지론』 권6과 권20의 2권 2점이다. 『유가사지론』은 대승불교의 한 유파인 유가행파의 기본적인 논서로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설(說)하고 당나라 현장(玄奘)이 역(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유가사지론』 권6은 점이나 선으로 구성된 구결점으로 토를 단 점토석독구결 자료이며, 『유가사지론』 권20은 한자를 간략화한 구결자로 토를 단 자토석독구결 자

료다. 『유가사지론』 권20은 남풍현(1999), 장경준 외(2015) 등에서 이미 해제 및 역주가 상세히 이루어진 바 있는 자료이며 2015년 7월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한편 『유가사지론』 권66은 아직 학계에서 공개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로 2017년 2월 경매를 통해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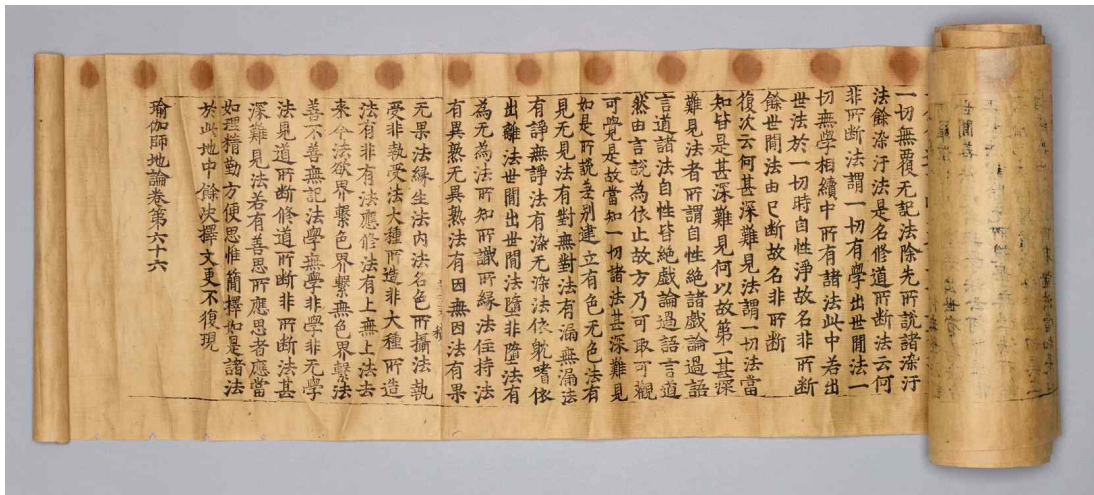
(1) 유가사지론 권66(점토석독구결)

명칭(한글)	유가사지론 권66	명칭(한자)	瑜伽師地論 卷66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0641	시대(상세)	고려(11세기 추정), 초조본
수량	1건 1점	크기	1050.0cm(가로)×28.5cm(세로)
입수일자	2017년 2월		

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은 총 23장으로 이루어진 1권 1축의 목판본이자 권자본(卷子本) 자료다. 가로 길이는 1,050cm이고 세로 길이는 28.5cm이며 표지 및 권축(卷軸)은 결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광고(匡高)는 22.5cm다. 권수제와 판수제 모두 ‘瑜伽師地論’이며 함차(函次)는 ‘적(積)’이다. 본문의 행수와 자수는 일반적인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23행 14자로 나타난다(첫 장은 22행). 누습으로 인한 얼룩과 불에 탄 흔적이 있어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다. 제14장과 제15장에 주서(朱書) 및 묵서(墨書)로 표시한 교정 흔적이 있으며, 각필(角筆)로 쓴 점토구결(點吐口訣)이 기입되어 있다.



[그림1] 『유가사지론』 권66, 1~2장(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그림2] 『유가사지론』 권66, 23장(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그림3] 『유가사지론』 권66, 4장, 4행의 일부(점토 표시)

<유가 권66, 4장, 4행>

A: 由於諸行假立有情

B: 由[시작표시점(+21 『·』)]於諸行[44(·)]假立有情[34(·), 45(\)?, 22(·), 끝표시점(+21 『·』)]

C: {於} 諸行{ }+ 有情乙 假立ノ尸入乙(?) 由{ }

D: 諸行(아)의 有情을 假立홀들(?) 브터

E: 모든 행에 있어 유정을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라서

A: 한문 원문

B: 구결점 판독

C: 판독 결과를 반영한 구결문(구결점을 구결자로 표기)

D: 구결문의 추정 독법(구결자를 한글로 표기)

E: 구결문에 따른 현대 한국어 번역

(2) 유가사지론 권20(자토석독구결)

명칭(한글)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명칭(한자)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20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구)003378	시대(상세)	고려(1246년 刊, 後印), 재조본
수량	1건 1점	크기	1503.2cm(가로)×32.6cm(세로) 1.5cm(봉 지름), 35.5cm(봉 길이)
입수일자	2015년 7월	비고	보물 제1886호(201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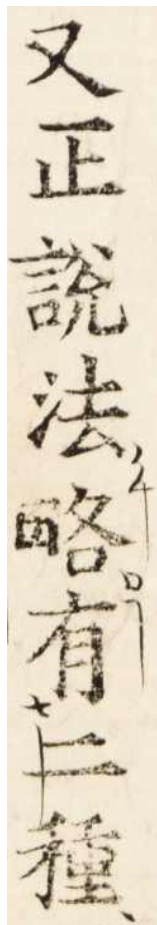
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20은 총 32장으로 이루어진 1권 1축의 목판본이자 권자본(卷子本) 자료다. 전체 가로 길이는 1,503cm이고 세로 길이는 32.6cm이며, 권축(卷軸)의 길이는 35.5cm이고 지름은 1.5cm다.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광고(匡高)는 23cm다. 판수제는 ‘瑜伽師地論’이며 함차(函次)는 ‘습(習)’이다. 본문의 행수와 자수는 23행 14자로 나타난다. 권말의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 奉勅雕造”라는 간기(刊記)를 통해 고려 고종 33년(1246, 丙午年)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재조대장경의 판본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단부에 불에 탄 흔적이 검게 남아 있으며 권수(卷首)의 1장이 결실되고 2~3장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모필(毛筆)로 쓴 자토구결(字吐口訣)이 기입되어 있다. 2016년 1월 7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886호로 지정된 바 있다.



[그림4] 『유가사지론』 권20, 2장(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그림5] 『유가사지론』 권20, 3장(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그림6] 『유가사지론』 권20, 4장, 8행의 일부

<유가 권20, 4장, 8행>

A: 又正說法 略有二種

B: 又正說法[3 +]略[口 1]有[7 1]二種[역독 점]

C: 又 正說法 3 + 略口 1 二種 有 7 1

D: 又 正說法아기 略곤 二種 잇다

E: 또 정설법(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에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A: 한문 원문

B: 구결자 판독

C: 판독 결과를 반영한 구결문

D: 구결문의 추정 독법(구결자를 한글로 표기)

E: 구결문에 따른 현대 한국어 번역

2.3. 음독구결 자료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음독구결 자료는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선종영가집』 등 16세기 이후의 자료 21건 47점이 있다. 자료의 대다수가 17세기를 넘어선 것으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나 회소성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한글 창제 이후로도 한문 텍스트를 익히는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던 음독구결의 통시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국어사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3)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명칭(한글)	함허당득통화상현정론	명칭(한자)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구)003379	시대(상세)	조선(1544년)
수량	1건 1점	크기	17.0cm(가로)×26.0cm(세로)
입수일자	2015년 7월		

- 불교의 교의·계율·수행 등이 유교의 사상과 덕목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혀 불교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책.
- 목판본. 조선 승려 기화(己和) 저. 1책(25장). 사주단변. 반곽18.0x13.7cm. 무게. 9행 19자. 내향흑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顯正論. 권수제: 涵虛堂得通和尚顯正論. 판심제: 顯. 인장: 2개.
- 찢어져서 결락된 글자는 새로 써 넣은 흔적이 있음.
- 권말면에 ‘嘉正廿三年甲辰(1544)正月日黃海道兎山土鶴鳳山石頭寺開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4) 선종영가집 권상,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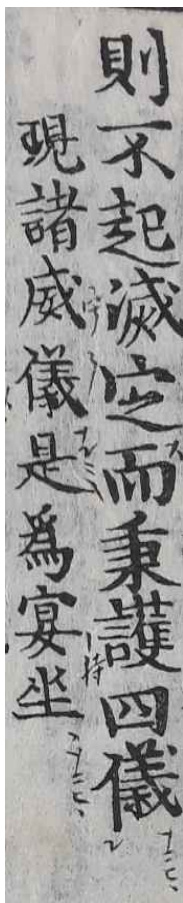
명칭(한글)	선종영가집 권상, 하	명칭(한자)	禪宗永嘉集 卷上, 下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구)003383	시대(상세)	조선(1570년)
수량	1건 1점	크기	18.3cm(가로)×26.6cm(세로)
입수일자	2015년 7월		

- 중국 당나라의 고승 현각(玄覺)의 문집으로, 참선(參禪)하는 10가지 자세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 책.
- 목판본. 당나라 현각(玄覺) 찬, 송나라 행정(行靖) 주, 송나라 정원(淨源) 수정과문(修定科文). 2권 1책(상하권 합본, 95장). 사주단변. 반곽19.0x14.0cm. 무게. 11행 19자. 주쌍행. 상하향2엽화문어미(하상향흑어미 혼입).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永嘉集. 권수제: 禪宗永嘉集. 판심제: 永嘉集. 인장: 2개.
- 앞뒤 표지 박락 심함. 찢어짐과 접힘 및 충해의 흔적이 있음. 전체적으로 갈변됨.
- 권말면에 ‘隆慶四年庚午(1570)夏智異山臣興寺重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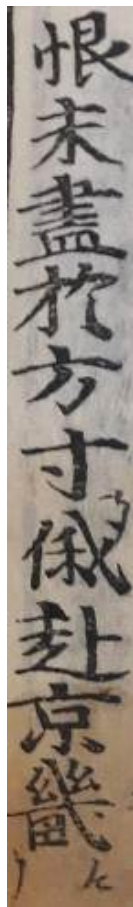
(5) 선종영가집 권상, 하

명칭(한글)	선종영가집 권상, 하	명칭(한자)	禪宗永嘉集 卷上, 下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구)003384	시대(상세)	조선(1572년)
수량	1권 1집	크기	17.9cm(가로)×27.3cm(세로)
입수일자	2015년 7월		

- 중국 당나라의 고승 현각(玄覺)의 문집으로, 참선(參禪)하는 10가지 자세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 책.
- 목판본. 당나라 현각(玄覺) 찬, 송나라 행정(行靖) 주, 송나라 정원(淨源) 수정과문(修定科文). 2권 1책(상하권 합본, 96장(권上은 35장 결락)). 사주단변, 반곽 17.6x13.7cm, 무계, 11행 19자, 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永嘉集. 권수제: 禪宗永嘉集. 판심제: 永嘉集. 인장: 1개.
- 앞뒤표지에 박락이 심하며 찢어짐과 접힘 및 충해의 흔적이 있음. 전체적으로 갈변과 오염이 보임.
- 권말면에 ‘隆慶六年壬申(1572)二月日林川土金論番家刻’이라는 간기(刊記)가 있음.
- 각수(刻手)로는 혜순(惠淳), 덕해(德海), 공묵(空默)의 이름이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둘 이상의 토가 좌우에 동시에 달려 서로 다른 독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음.



[그림7]
『선종영
가 집』
서, 5b



[그림8]
『선종영
가 집』
서, 5b



[그림9]
『선종영
가 집』
권상, 9b

(6) 소학집설구결 권3~4

명칭(한글)	소학집설구결 권3, 4	명칭(한자)	小學集說口訣 卷3, 4
자료번호	국립-국립한글박물관-한구000304	시대(상세)	조선(16세기 초), 원간본
수량	1건 1점	크기	20.8cm(가로)×35.3cm(세로)
입수일자	2013년 4월		

- 한문본 『소학집설(小學集說)』의 난상에 『소학』의 원문과 한글 구결을 달아서 인쇄한 책.
- 활자본. 을해자본(乙亥字本). 송나라 주희(朱熹) 저, 명나라 정유(程愈) 편. 2권 1책(全6권 4책, 결본, 54장). 사주쌍변. 반곽 23.5x16.0cm. 유계. 10행 18자. 주쌍행. 흑구. 상하3엽화 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한자·한글(난상). 권수제: 小學集說. 판심제: 小學集說.
- 권3 권수부와 권4 권말부가 낙장되어 있고 본문 하단부분 결락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7) 소학집설 권5

명칭(한글)	소학집설 권5	명칭(한자)	小學集說 卷5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004041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16.3cm(가로)×24.8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그림10] 『소학집설』 권5의 상하내향흑어미(두 쌍)

- 『소학』에 여러 주석을 함께 달아 편찬한 책.
- 목판본. 송나라 주희(朱熹) 저, 명나라 정유(程愈) 편. 1책(영본, 66장). 사주쌍변. 반곽 19.3×13.5cm. 유계. 10행 18자. 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두 쌍).
- 표기문자: 한자(본문). 권수제: 미상. 판심제: 小學集說.
- 표지·권수부·권말부 결락. 본문에 얼룩 있음. 판심 부분 헤어짐.
- 본문과 난상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8) 경덕전등록 권17~20

명칭(한글)	경덕전등록 권17~20	명칭(한자)	景德傳燈錄 卷17~20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구)003380	시대(상세)	조선(17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18.0cm(가로)×26.8cm(세로)
입수일자	2015년 7월		

- 중국의 역대 부처와 승려들의 전기(傳記)를 모은 책. 총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활자본. 송나라 승려 도원(道源) 저. 4권 1책(113장). 사주단변. 반곽20.5x14.8cm. 무계. 12행 20자. 무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傳燈錄. 권수제: 景德傳燈錄. 판심제: 傳燈.
- 앞뒤 표지 박락과 찢어짐 및 접힘 있음. 앞표지는 선장 부분이 떨어져 너덜거림. 전체적으로 갈변과 오염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9) 경덕전등록 권21~24

명칭(한글)	경덕전등록 권21~24	명칭(한자)	景德傳燈錄 卷21~24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구)003381	시대(상세)	조선(17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18.5cm(가로)×26.8cm(세로)
입수일자	2015년 7월		

- 중국의 역대 부처와 승려들의 전기(傳記)를 모은 책. 총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활자본. 송나라 승려 도원(道源) 저. 4권 1책(113장, 권21의 24~26장은 결락). 사주단변. 반곽20.5x14.8cm. 무계. 12행 20자. 무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傳燈錄. 권수제: 景德傳燈錄. 판심제: 傳燈.
- 앞뒤 표지 박락과 찢어짐 및 접힘 있음. 앞표지는 선장 부분이 떨어져 너덜거림. 전체적으로 갈변과 오염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0) 경덕전등록 권28~30

명칭(한글)	경덕전등록 권28~30	명칭(한자)	景德傳燈錄 卷28~30
--------	--------------	--------	--------------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구)003382	시대(상세)	조선(17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19.3cm(가로)×28.8cm(세로)
입수일자	2015년 7월		

- 중국의 역대 부처와 승려들의 전기(傳記)를 모은 책. 총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목판본. 송나라 승려 도원(道源) 저. 3권 1책(82장). 사주단변. 반곽19.7x15.0cm. 무게. 12행 20자. 무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傳燈錄. 권수제: 景德傳燈錄. 판심제: 傳燈. 인장: 7개.
- 일부 얼룩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갈변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함.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1) 예기집설대전 권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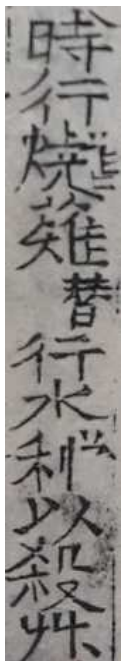
명칭(한글)	예기집설대전 권1~30	명칭(한자)	禮記集說大全 卷1~30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0670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6점	크기	20.6cm(가로)×32.3cm(세로)
입수일자	2013년 4월		

- 예(禮)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기록·편집한 『예기(禮記)』를 원(元)나라 진호(陳澹)가 『예기집성(禮記集成)』으로 편집했고, 명(明)나라 호광(胡廣) 등이 『예기집성』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편집한 책. 『예기(禮記)』 대문(大文)에 대한 한글 구결을 난상(欄上)에 달아 간행함.
- 목판본.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30권 16책. 사주쌍변, 반곽22.4×16.4cm, 유계, 10행 22자, 주쌍행, 상하내향흑어미(상하내향유문어미 혼입).
- 표기문자: 한자(본문), 한자·한글(난상). 표제: 禮記. 권수제: 禮記集說大全. 판심제: 禮記集說大全. 서문: 진호(陳澹) 序.
- 얼룩 있음, 표지에 종이를 덧대었음. 서뇌(書腦)에 ‘共十五’라는 목서가 있음. 한구000670의 16-14는 책 크기 및 책차의 형식이 다른 것들과 차이를 보임. 본래 한 질로 묶인 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됨.
- 권1(77장)/권2~3(99장)/권4(57장)/권5(71장)/권6~7(101장)/권8~9(77장)/권10~11(84장)/권12~13(87장)/권14~16(74장)/권17~18(77장)/권19~20(58장)/권21~22(80장)/권23~25(78장)/권26~27(54장)/권27~28(63장)/권29~30(72장)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14, 15번째 책에만 기입됨).

(12) 예기집설대전 권6

명칭(한글)	예기집설대전 권6	명칭(한자)	禮記集說大全 卷6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4080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12.9cm(가로)×18.5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예(禮)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기록·편집한 『예기(禮記)』를 원(元)나라 진호(陳澹)가 『예기집성(禮記集成)』으로 편집했고, 명(明)나라 호광(胡廣) 등이 『예기집성』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편집한 책.
- 목판본.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1권 1책(영본, 권6: 68장). 사주단변. 반곽 13.5x10.3cm. 유계. 10행 22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禮記. 권수제: 禮記集說大全. 판심제: 月令. 서근제: 禮.
- 표지 박락 있음. 본문에 일부 갈색 얼룩이 있음. 표지와 서근에 묵서된 책차는 ‘五’, 공격지에 묵서된 책차는 ‘六’임.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인쇄 후 묵서로 기입한 것이 아니라 판을 새길 때 구결을 함께 파 넣은 것으로 보임.



[그림11] 『예기집
설대전』 권6, 31
장a



[그림12] 『예기집
설대전』 권6, 44
장a

(13) 예기집설대전 권5, 17~18, 29~30

명칭(한글)	예기집설대전 권5, 17~18, 29~30	명칭(한자)	禮記集說大全 卷5, 17~18, 29~30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070	시대(상세)	조선(18세기)
수량	1건 3점	크기	21.8cm(가로)×34.6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예(禮)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기록·편집한 『예기(禮記)』를 원(元)나라 진호(陳澹)가 『예기집성(禮記集成)』으로 편집했고, 명(明)나라 호광(胡廣) 등이 『예기집성』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편집한 책.
- 활자본 무신자본(戊申字本).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5권 3책(영본). 사주단변. 반곽 25.4x17.0cm. 유계. 10행 18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禮記. 권수제: 禮記集說大全. 판심제: 禮記集說大全.

- 표지 박락 있음. 권5 책차는 ‘四’, 권17~18 책차는 ‘十四’, 권29~30 책차는 ‘十□’임.
- 권5(86장)/권17~18(75장)/권29~30(88장)
- 난상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4) 금강경언해

명칭(한글)	금강경언해	명칭(한자)	金剛經諺解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0261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20.8cm(가로)×31.7cm(세로)
입수일자	2016년 9월		

-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원문에 한글로 한자음을 단 책.
- 목판본. 인도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 역. 1책(35장). 사주쌍변. 반곽23.1x16.4cm. 유계. 10행 21자. 상하향흑어미.
- 표기문자: 한자·한글(본문). 표제: 金剛經. 권수제: 金剛般若波羅蜜經. 판심제: 金剛經.
- 앞표지 박락 있음. 권수에 도상(圖像) 2곳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5) 맹자 권3

명칭(한글)	맹자 권3	명칭(한자)	孟子 卷3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737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12.5cm(가로)×17.5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에 송(宋) 주희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것을 명(明) 호광 등이 다시 편찬한 책.
- 목판본. 수진본.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1권 1책(29장). 사주단변. 반곽12.0x9.6cm. 유계. 10행 22자. 주쌍행. 무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孟子. 권수제: 孟子. 판심제: 孟三.
- 권수제면 제1~3행까지 도려낸 후 다시 필사한 흔적 있음. 인장 3과(顆)가 찍혀 있으나 인문이 흐려 판독이 어려움. 본문에 얼룩 있음.
- 난상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6) 맹자집주대전 권3~14

명칭(한글)	맹자집주대전 권3~14	명칭(한자)	孟子集註大全 卷3~14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075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6점	크기	24.2cm(가로)×36.0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에 송(宋) 주희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것을 명(明) 호광 등이 다시 편찬한 책.
- 목판본. 대구(大邱) 영영(嶺營).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12권 6책(영본). 사주쌍변. 반곽 21.9x16.8cm. 유계. 10행 22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한자·한글(난상). 표제: 孟子. 권수제: 孟子集註大全. 판심제: 孟子集註大全.
- 간기: 庚辰七月嶺營重刊. 인장: 南陽世家 華浦雲孫, 洪容默季晦章.
- 표지 박락과 갈변이 심함. 권3~4 앞표지 하단 모서리 소실됨.
- 권11~12 공격지에 ‘竹洞 冊主 金生員 宅(서명)’이라 묵서됨.
- 권3~4(74장)/권5~6(61장)/권7~8(81장)/권9~10(53장)/권11~12(71장)/권13~14(93장)
- 난상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7) 맹자집주대전 권5~6

명칭(한글)	맹자집주대전 권5~6	명칭(한자)	孟子集註大全 卷5~6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819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20.8cm(가로)×30.8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에 송(宋) 주희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것을 명(明) 호광 등이 다시 편찬한 책.
- 목판본.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2권 1책(권5~6: 59장). 사주단변. 반곽20.8x16.8cm. 유계. 10행 22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孟子, 권수제: 孟子集註大全, 판심제: 孟子集註大全.
- 인면(印面) 상태가 고르지 못함. 본문 가장자리가 심하게 닳아 곳곳에 보수한 부분 있음. 중봉 부분이 대부분 분리되었음.
- 본문 곳곳에 수기로 쓴 목서가 있음. 표지에 ‘庚寅二月’이라고 묵서되어 있음.
- 난상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8) 맹자집주대전 권13~14

명칭(한글)	맹자집주대전 권13~14	명칭(한자)	孟子集註大全 卷13~14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739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1824년 이후
수량	1건 1점	크기	20.0cm(가로)×31.7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에 송(宋) 주희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것을 명(明) 호광 등이 다시 편찬한 책.
- 목판본. 대구(大邱) 영영(嶺營) 장판 후쇄본.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2권 1책(113장). 사주단변. 반곽23.3x16.6cm. 유계. 10행 18자. 주쌍행. 상하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孟子, 권수제: 孟子集註大全, 판심제: 孟子集註大全.
- 간기: 甲申新刊(1824)嶺營藏板. 인쇄면에 목리(木理)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구 감영(영영)에서 만든 목판을 후쇄한 것으로 추정.

- 표지 박락 있음. 본문에 누습으로 인한 얼룩 있음.
- 난상에 한문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19) 맹자집주대전 권13~14

명칭(한글)	맹자집주대전 권13~14	명칭(한자)	孟子集註大全 卷13~14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738	시대(상세)	조선(18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21.5cm(가로)×33.3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유교 경전인 『맹자(孟子)』에 송(宋) 주희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것을 명(明) 호광 등이 다시 편찬한 책.
- 활자본. 무신자본(戊申字本). 명나라 호광(胡廣) 등 편. 2권 1책(120장). 사주단변. 반곽 24.2x16.3cm. 유계. 10행 17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孟子. 권수제: 孟子集註大全. 판심제: 孟子.
- 인장: 豐壤趙載一得而之章. 조재일(趙載一, 1700~?)의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득이(得而). 영조 때 진사시에 합격함.
- 표지 갈변 및 박락 있음, 본문에 누습으로 인한 손상 있음.
- 난상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20) 서전정문

명칭(한글)	서전정문	명칭(한자)	書傳正文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710	시대(상세)	조선(17~19세기)
수량	1건 1점	크기	22.9cm(가로)×35.5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유교 경전 『서경(書經)』의 원문을 필사하고 구결을 단 책.
- 필사본. 1책(71장). 무변. 무계. 10행 31자. 무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권수제: 書傳 正文.
- 표지 박락 있으나 상태 양호.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21) 소학제가집주

명칭(한글)	소학제가집주	명칭(한자)	小學諸家集註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607	시대(상세)	조선(18세기 이후)
수량	1건 1점	크기	17.8cm(가로)×26.0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소학(小學)』에 여러 학자의 학설을 인용하여 주석한 책.

- 필사본. 영조(英祖) 명찬. 1책(146장). 사주쌍변. 반곽19.9×16.6cm. 유계. 10행 22자. 주쌍행. 상하향흑어미.
- 선정전훈의(宣政殿訓義)본 계통의 필사본 추정. 목판인찰공책지에 본문 필사. 「입교(立敎)」부터 「경신(敬身)」편까지 필사되어 있음.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및 권수제 없음.
- 표지 박락 있음. 본문에 얼룩 있음.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주서, 朱書).

(22) 소학제가집주언해 권1~6

명칭(한글)	소학제가집주언해 권1~6	명칭(한자)	小學諸家集註諺解 卷1~6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구 000306	시대(상세)	조선후기
수량	1건 5점	크기	21.8cm(가로)×34.0cm(세로)
입수일자	2013년 4월		

- 유학 수신서 『소학(小學)』에 이이(李珣)가 제설(諸說)을 인용하여 주석하고 언해한 책.
- 필사본. 이이(李珣) 집주. 6권 5책. 사주쌍변. 반곽21.2x17.5cm. 무계. 12행 22자. 주쌍행.
- 표기문자: 한자(본문), 한글·한자(난상). 표제: 小學. 권수제: 小學諸家集註(권1~4).
- 5책 모두 앞뒤표지 박락됨. 권2에 누습 흔적 있음. 전체적으로 본문 상태 양호.
- 사주쌍변의 용지에 필사함. 원문에 현토를 달고 난상에 언해를 실음.
- 권1(22장)/권2(43장)/권3~4(33장)/권5(41장)/권6(37장)
- 본문에 한자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23) 소학제가집주 권1, 3~6

명칭(한글)	소학제가집주 권1, 3~6	명칭(한자)	小學諸家集註諺解 卷1, 3~6
자료번호	국립2-국립한글박물관-한기 004459	시대(상세)	1918년
수량	1건 1점	크기	20.6cm(가로)×31.0cm(세로)
입수일자	2012년 12월		

- 『소학(小學)』에 대한 유학자의 학설을 인용하여 주석한 원문 상란에 구결을 묵서한 구결본.
- 목판본. 남송(南宋) 유자징(劉子澄) 찬술. 이이(李珣) 편. 5권 4책(全6권 5책). 사주단변. 반곽22.8x17.0cm. 유계. 10행 17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 표기문자: 한자(본문). 표제: 小學. 권수제: 小學諸家集註. 판심제: 小學集註.
- 서문: 歲在甲戌(1694)春正月...李德成奉敎書, 간기: 乙亥(1695)新刊小學者春坊藏板. 을해년의 춘방장판을 저본으로 한 20세기 간행본.
- 권6 권말에 '冊主朴永植'이라고 묵서되어 있음, 「朴永植信」 도장이 찍혀 있음.
- 권1(48장)/권3~4(57장)/권5(71장)/권6(64장)
- 본문에 한자·한글 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의 활용 방안

3.1. 연구 활용 현황 및 방안

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는 현재 한글박물관 자료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자료집 제작> 사업이 대표적이다. 『유가사지론』 권66은 같은 계열의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권17, 권32, 권53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³⁾ 국보급 자료에 준하는 문화재적 가치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가사지론』 권66에 기입된 점토구결을 통해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으며, 자료의 희소성이 높은 미공개 신자료로서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글박물관은 『유가사지론』 권66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미공개 소장 자료의 학계 및 일반 공개를 통해 한글문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가사지론』 권66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한글박물관은 2018년 3월부터 학계의 연구진과 함께⁴⁾ 『유가사지론』 권66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사지론』 권66의 기초 서지와 불가 자료로서의 특성, 자료에 나타난 점토구결의 특성, 자료의 국어사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료 도판과 함께 점토구결의 판독 및 번역 결과를 수록할 계획이다. 점토구결 연구가 자료의 절대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공개 신자료의 영인본과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록된 자료집의 발간은 점토구결의 초학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발견된 2000년대 이후, 구결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정리한 고정익(2004), 김성주(2008), 남경란(2008), 남풍현(2008), 장경준(2008), 장경준(2013)에 의하면 학계에서는 구결의 문자론, 음운론, 형태·통사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대 국어의 모습과 미해결된 15세기 이후 언해문의 문법 형태 및 어휘 변천 등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자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기존의 기초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화된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료의 양이 방대한 음독구결 자료는 유·불경 자료들 간의 계통 정리, 학계에 존재가 소개되었지만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료들의 체계적 연구, 개설서 출간 및 자료 원본과 영인본의 수집·정리·보급 등이 향후 과제로 제안된 바 있다.

이렇듯 구결 자료의 연구 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여러 층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관인 박물관에서는 구결 자료를 보다 대중적인 콘텐츠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구결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당시의 문자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의 창조와 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의 사람을 중심으로 구결 자료를 재가공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자 생활사 관점으로 구결을 바라본 박진호(2007: 20~22), 석독구결 자

3) 초조본 및 재조본 『유가사지론』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보지정: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제273호), 권17(제244호), 권32(제272호), 권53(제276호)
- 보물지정: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제1886호), 권42(제1658호), 권55(제972호), 권64(제969호)

4)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자료집 제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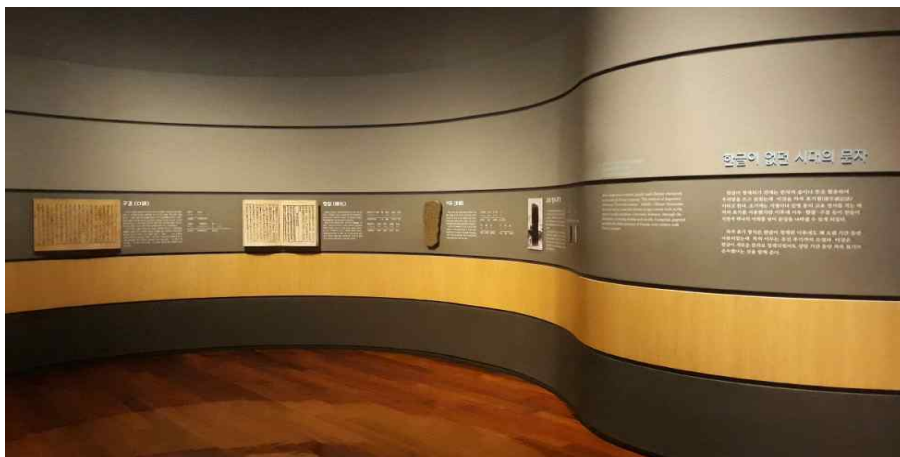
- 관외: 권인한(성균관대), 김성주(동국대), 안대현(한국과학기술대), 이용(서울시립대), 장경준(고려대), 황선엽(서울대), 문현수(숭실대)
- 관내: 자료관리팀 박준호 학예사, 정내원 연구원

료를 활용한 한국 문화사 기술 가능성을 언급한 장경준(2013: 28~32), 문화사를 기반으로 구결에 대해 개괄한 김영옥(2017) 등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학문 연구와 지식 습득을 위해 한문 텍스트를 필수적으로 익혀야 했던 시대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석독을 위한 어순 표시 체계의 고안 과정’, ‘점토 및 부호의 제작 원리(모양·위치)’, ‘점토가 만들어진 순서(어떤 위치의 점이 먼저, 왜 생겼을까?)’, ‘맨눈으로 식별조차 어려운 기입 방식(점토)을 선택한 이유⁵⁾’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연구 주제들이 자료를 통해 실증되기는 어렵겠지만, 방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추정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자문화권 내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훈점 자료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구결 자료와 훈점 자료의 영향 관계, 구결(석독→음독)과 훈점(훈독 유지)의 변천 방향과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역시 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문자 문화 교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3.2. 전시 활용 현황 및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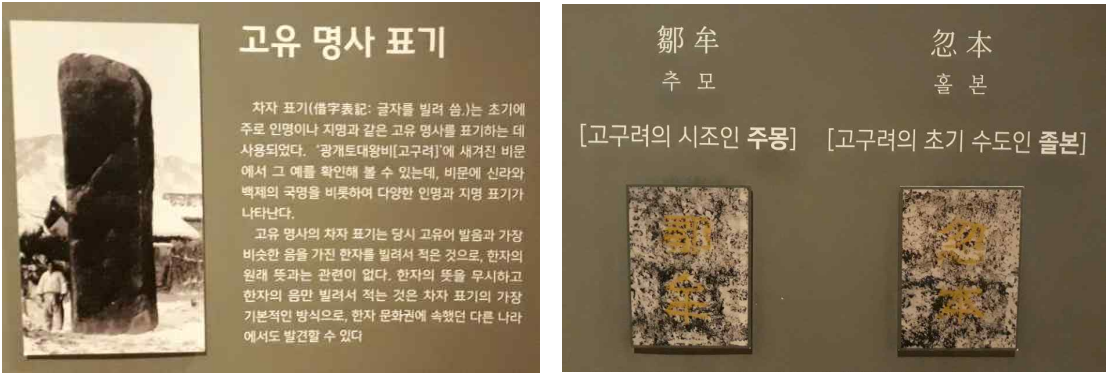
한글박물관 소장 구결 자료를 활용한 기획전시나 교육(교육프로그램, 강연, 세미나 등)이 기획된 것은 아직 없다. 한글박물관 콘텐츠로 선보이기 위한 대표성이나 시급성이 일반적인 한글 자료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이 전문적인 까닭에 대중적인 콘텐츠로 가공하는 것이 힘들었던 탓으로 보인다. 다만 한글의 역사 전반을 다룬 상설전시에서는 한글 이전의 문자로서 구결을 일부 다루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전시 및 해설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한글박물관 2층에 자리한 상설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의 도입부에는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라고 이름 붙인 공간이 있다. 1부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공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글이 없던 시절에 우리 민족이 어떤 문자 생활을 했는지를 보이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한글 이전의 문자 생활을 ‘고유 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의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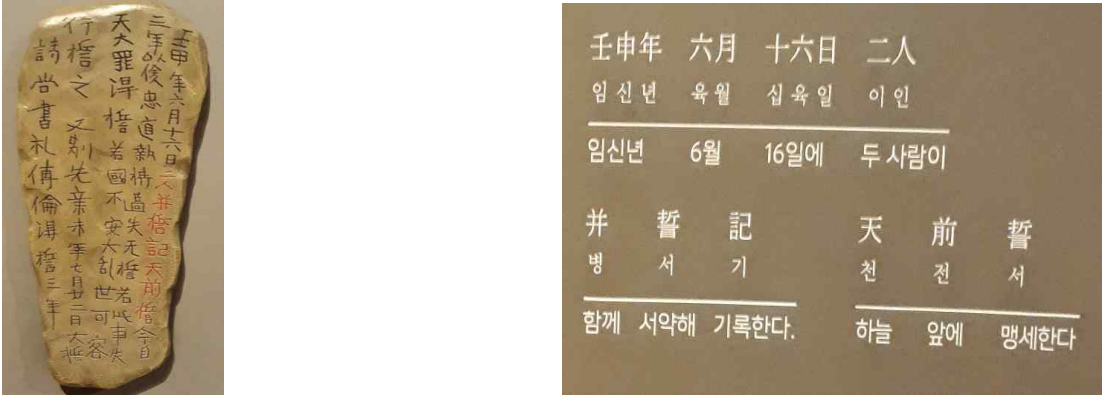


[그림13] 상설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의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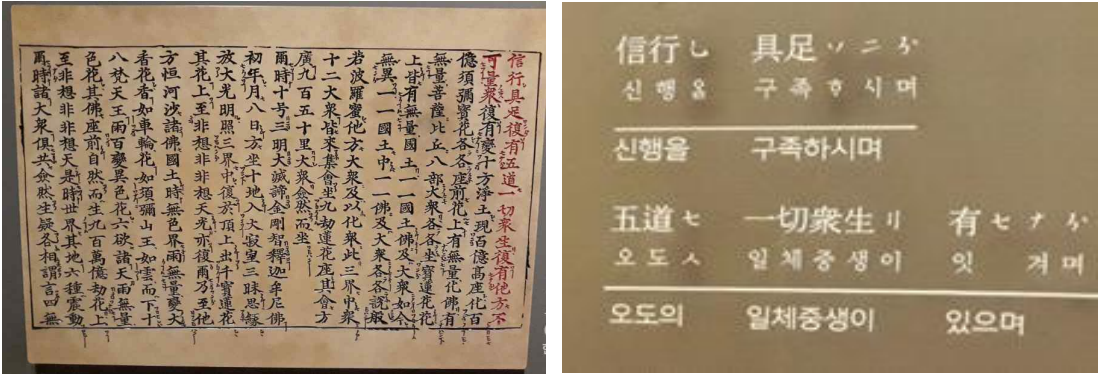
5) 이에 관하여 윤행순(2003:82-83)은 각 필 용구가 모필에 비해 자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먹을 가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데다, 기입자만 알 수 있는 메모나 비망록 작성 시 비밀 유지에 용이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불경 자료의 점토는 비밀 유지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며, 불경 학습 및 내용 전승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의문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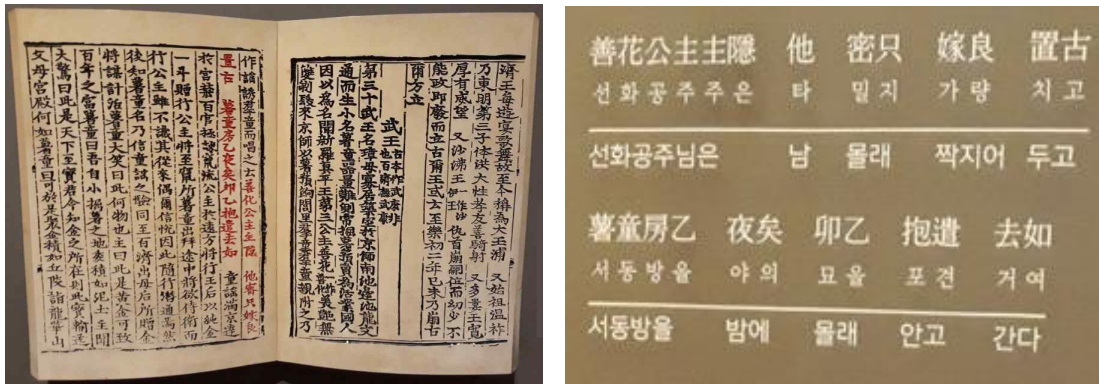
[그림14]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중 고유 명사 표기 관련 내용



[그림15]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중 이두 관련 내용



[그림16]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중 구결 관련 내용



[그림17] ‘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중 향찰 관련 내용

<고유 명사 표기>에서는 차자표기 초기에 주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음차한 한자로 적은 것을 설명하였다. 예시로는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 나타난 ‘鄒牟(주몽)’, ‘忽本(졸본)’을 소개하고 광개토대왕비 탁본의 해당 부분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두>는 한자를 빌려 쓰되 우리말 어순에 따라 우리말 문장을 적은 것임을 설명하면서, 초기 형태의 이두 자료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을 소개하였다. 동사가 앞에 나오는 일반적인 한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天前誓(하늘 앞에 맹세한다)’와 같이 우리말 어순에 따라 문장을 적었음을 보인 것이다. <향찰>은 한자를 빌려 쓰되 우리말 어순에 따를 뿐 아니라 우리말 어휘와 문법 요소 등을 전면적으로 표기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예시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서동요(薯童謠)」를 소개하였다. 해당 부분에 쓰인 ‘隱(은)’, ‘古(고)’, ‘乙(을)’ 등은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나타낸 것이며 ‘善花公主主’에서 두 번의 ‘主’가 나오는데 첫 번째 ‘主’는 한자의 음을 빌려 선화공주의 ‘주’를, 두 번째 ‘主’는 한자의 뜻을 빌려 ‘님’을 표현하였음을 안내하였다.

<구결>은 이두나 향찰처럼 우리말 문장을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문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한자를 이용한 조사나 어미 등을 끼워 넣은 것임을 설명하였다. 한자를 음으로 읽으면서 중간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만 끼워 읽는 음독구결과 한문을 우리말 어순과 문법에 맞게 풀어 읽도록 한 석독구결을 설명하고, 예시로는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을 소개하였다. 석독구결을 해독할 수 있는 규칙까지는 안내하지 않고, 일정한 구결을 구결문으로 옮긴 뒤 ‘ㄴ(을)’은 한자 ‘乙(을)’, ‘ㄷ(시)’는 한자 ‘示(시)’, ‘ㅁ(며)’는 한자 ‘脉(며)’를 각각 간략하게 표기한 것임을 안내하였다.

해당 전시 내용에 대한 해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전시의 도입 부부터 한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관람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데다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짧은 시간 내에 관람객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한글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다수는 ‘말’과 ‘글’을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라는 질문에 ‘중국어’, ‘한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초·중·고 학생 단체, 가족 단위 관람객, 서양계 외국인 관람객 등에게는 해당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지나치고 대학생, 성인,

6) 한글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에 대한 해설을 하루 3회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정기 해설 이외에도 개별 예약을 통해 수시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담당하는 4명의 전문 해설사와 해설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동아시아계 외국인 관람객 등에게 ‘이두’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편이다. ‘이두’의 경우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구결’, ‘향찰’에 비해 그 명칭이 익숙하여 호기심을 갖는 까닭이다.

‘이두’에 대한 설명은 전시장에 제시된 임신서기석의 내용 대신 [그림14]와 같은 보다 단순하고 쉬운 예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간단한 예문을 한문식(중국어식) 어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이를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어 보인 뒤 한자로 표현한 우리말 조사를 끼워 넣은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이두의 원리를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다.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처럼 한자 문화권을 공유한 외국인 관람객이나 기초 한문 지식을 가진 내국인 관람객의 경우 해설 내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한다.

我	愛		你		
나	사랑하다		당신		
我	你		愛		
나	당신		사랑하다		
我	隱	你	乙	愛	多
나	는	당신	을	사랑하	다

[그림18] ‘이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해설 자료

‘구결’, ‘향찰’의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관람객의 수가 적은데다가, 복제를 통해 제시한 보조 자료의 표기가 흐릿하여 해설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정적인 해설 시간 내에 상설전시 내용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해설사 입장에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차자표기 자료들을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차자표기로 이루어지던 문자 생활이 한글 창제로 인해 쉬워졌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에 대한 관람객의 막연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당 시기의 역사 자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시 보조 자료와 해설 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설전시의 일부 전시 내용으로서가 아닌 구결 또는 한글 이전의 문자 생활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시를 기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누구를 위한(대상)’, ‘무엇을 위한(목표)’ 전시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시의 주제(메시지)와 내용(콘텐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을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전시 주제나 자료 성격에 따라 중점적으로 공략할 대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글박물관을 방문하는 주요 관람객은 유아 및 초중등 학생 단체지만 구결을 소재로 한 전시라면 대학생 이상의 성인 관람객 또는 국어 관련 전공을 가진 대학생이나 전문가군을 대상으로 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전시의 목표다. 전시의 목표가 관람객에게 구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지, 구결 자료를 읽도록 하는 것인지, 구결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인지에 따라 전시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 최근의 박물관은 역사 자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공간에서 나아가 역사 자료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쉬어 갈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관람객에게 박물관은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느끼러 가는 곳’, ‘쉬러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글박물관의 구결 전시 역시 구결 혹은 구결 자료에 대한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오늘날과는 다른 문자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글을 기반으로 한 문자 생활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시 대상과 목표가 결정되면 구결의 어떤 내용을 전시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가려진다. 한글 이전의 문자 생활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삶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서는 차자표기가 무엇이고 구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보다 ‘왜’, ‘어떻게’, ‘누가’, ‘언제’ 쓴 것인지를 풀어주는 생활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소개함에 있어서 자료에 찍힌 점과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보다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은 왜 글자 대신 점과 선을 선택했는지,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적었는지, 이런 점과 선은 도대체 무엇으로 적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구결과 같이 매우 생소한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람객과 전시 내용에 대한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라도 나와의 접점이 없다면 그저 지금은 죽어버린, 박제된 옛날 자료가 되어 자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 적어도 전시를 관람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관람객 자신이 한글이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 어려운 한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영어 책을 보면서 주어와 동사부터 찾고, 관계절의 경계를 끊고, 어려운 단어에는 뜻을 적어가며 내용을 파악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한문 원문에 기입된 구결의 모습이 닮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문자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니만큼 전시 자료의 대다수가 책, 편지, 서류 등의 지류로 구성된다. 체험관이 아닌 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 자료의 원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크기가 작은 평면 자료들이 연속되면 관람객은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구결 전시 역시 마찬가지다. 『유가사지론』 권66·권20 같이 지정문화재급이면서 규모감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각종 음독구결·한글구결 자료, 자토·점토 기입 및 점토 판독 도구, 일본의 훈점 자료, 현대의 한문 학습 교재, 이두·향찰 자료, 『훈민정음해례본』 등 전시 자료의 시대와 범위를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문자로 구성된 전시 자료를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각종 영상, 음성, 체험물 등으로 풀어낸 주변 자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결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결을 소재로 한 전시의 메시지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겠지만, 한글박물관의 구결 전시라면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를 통해 어렵고 불편한 문자 생활을 했지만, 한글 덕분에 문자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쉬운 한글’, ‘고마운 한글’과 같이 한글의 가치를 부각하는 주제가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결을 사용하던 시대의 문자 문화를 느끼고, 오늘날 한글을 기반으로 한 문자 생활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4. 맺음말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을 매개로 이룩된 한글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보여 주고 한글문화의 미래를 대중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록 한글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 창제 이전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의 일면을 담고 있는 구결 자료 역시 한글박물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자 자료라 할 수 있다. 한글박물관에 소장된 구결 자료의 수량이나 그 활용 현황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자료수집·연구·전시·교육 등 박물관 기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콘텐츠를 가공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자료 자체의 해독이나 연구와 같은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문화사 또는 문자생활사 관점의 접근을 통해 자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학계의 연구 성과와 제언을 활용한 한글박물관의 콘텐츠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어학 성과의 대중화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주(2008). 字吐釋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39~66쪽.
- 김영옥(2006). 角筆의 起源에 대하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71~88쪽.
- 김영옥(2017). 『한국의 문자사』. 태학사.
- 남경란(2008). 音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99~137쪽.
- 남풍현(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8). 口訣學會 20年の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5~25쪽.
- 박진호(2007). 문자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口訣. 제25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말연구학회. 20~31쪽.
- 윤행순(2003). 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비교-『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79~114.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67~98쪽.
- 장경준(2013).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 59. 한국어학회. 75~112쪽.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구결의 특성을 반영한 구결자료 전시 방안

장윤희(인하대)

<별지 참조>

<개인 연구 발표>

《眞言集》悉曇章의 ‘濁音’에 대한 음운분석

안영희(안양대)

1. 서론

眞言은 불경에서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音譯이 원칙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梵-中 대응 譯音은 중국어 中古音(대개 6세기-12세기)의 재구에 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도 15세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 梵-韓-中 세 가지 문자가 함께 병기된 眞言 자료가 있어서,¹⁾ 당시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고찰하는데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특히 당시 유통되었던 眞言들을 모은 《眞言集》에는 ‘梵本五十字母悉曇章’이 실려 있는데, 이 悉曇章에는 悉曇 梵字 자형뿐만 아니라 동시에 漢譯 기준과 韓譯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한국어 음운 관련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眞言集》은 현재까지 많은 판본들이 남아 있는데 실담장에 제시된 범자와 한자는 거의 대부분 일치 하지만, 유독 한글 표기에서만 일부 체계적인 차이가 반영된다. 제일 특징적인 차이가 바로 판본에 따라 중국어 濁音 한자에 대응하는 한글 자모가 각자병서 ‘ㄱ, ㄷ, ㅁ’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悉曇章에서도 ‘濁音’이 제시되는데 기존의 중국 전통 ‘濁音’의 개념과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바로 한국의 진언자료에 실린 悉曇章에서 반영된 ‘濁音’의 음운현상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한글 표기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당시 한국어 자음체계에 대해 알아 보겠다.

2. 《眞言集》悉曇章 자음체계에서 ‘濁音’의 특징

2.1 중국어 자모체계의 역사 및 ‘濁音’의 성격

실담장에서의 ‘濁音’에 대한 고찰에 앞서 먼저 중국어 전통 자모체계에서의 ‘濁音’ 개념에 대해 보겠다. 중국어의 전통 자모체계라면 우선 ‘36字母’부터 떠오른다. ‘36자모’는 중국어 음운사에서 後期 中古漢語(8세기중엽-12세기)의 자모 체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중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前期 中古漢語(5세기-8세기)시기가 기반이 되는 것으로 전기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전기 중고한어의 연구는 주로 《切韻》系韻書의 反切자료를 통하여 진행하여 당시 자음의 체계는 反切上字의 聲類로부터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절운계운서의 대표 운서인 《廣韻》(1008)은 대개 51개 聲類를 갖는다. 하지만 聲類는 해당 운서의 反切 사용에 대한 분류이므로 당시 중국어 자음체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는 37개 자

1) 현재까지 제일 이른 시기의 범-한-중 세 문자 병기의 진언집 자료로는 오대진언(1485)가 있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에는 悉曇章이 실려 있지 않고, 이와 전혀 다른 계열의 眞言集인 《眞言集》의 여러 판본에서 실담장이 보인다.

음으로 이를 37聲類이라 부르며, 중국어 음운학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각각 ‘36자모’의 명칭과 연결시켜 부른다. 전기 중고한어 37성류는 麥耘(2009)를 따랐으며 전기 중고한어자모의 재구음은 麥耘 (2009:54-66)을 참고할 것이다.

아래 전기 중고한어와 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를 비교하여 중국 전통 자모체계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

<표 1: 後期 中古漢語 36字母 체계>

분류	全清	次清	全濁	次濁	清	濁
牙音	見	溪	群	疑		
舌音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脣音	重脣音 幫	滂	并	明		
	輕脣音 非	敷	奉	微		
齒音	齒頭音 精	清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喉音	影			喻	曉	匣
半舌音				來		
半齒音				日		

<표 2: 前期 中古漢語의 37聲類 체계>

분류	全清	次清	全濁	次濁	清	濁
脣音	幫 _非 *p	滂 _敷 *ph	并 _奉 *b	明 _微 *m		
牙音	見 *k	溪 *kh	群 *g	疑 *ŋ		
舌音	舌頭音 端 *t	透 *th	定 *d	泥 *n		
	舌上音 知 *tʰ	徹 *th	澄 *d	娘 *n		
齒音	齒頭音 精 *ts	清 *tsh	從 *dz		心 *s	邪 *z
	正齒音 莊 _{照2} *tʂ	初 _{穿2} *tʂh	崇 _{牀2} *dʒ		生 _{審2} *ʃ	俟 _{禪2} *ʒ
		章 _{照3} *tʃ	昌 _{穿3} *tʃh	常 _{禪3} *dz	書 _{審3} *ç	船 _{牀3} *ʒ
喉音	影 *ʔ			餘 _{喻4} ʔ	曉 *h	匣 _{喻3} *ɦ
半舌音				來 *l		
半齒音				日 *ɳ		

위의 36자모와 37성류의 중국어 전통 자모체계는 우선 조음위치에 따라 ‘牙, 舌, 脣, 齒, 喉’音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배열 순서에 있어서 전기 중고한어는 흔히 ‘脣, 牙, 舌, 齒, 喉’音으로 한다.²⁾ 다음 조음 방법에 따라 淸音과 濁音으로 나누는데, 하위부류로 全과 次가 있어 구체적으로 각각 全淸, 次淸, 全濁, 次濁등으로 되어 있다.

전기 중고한어 37성류로부터 후기 중고한어 36자모로 중국어 자모체계의 변화를 보면 주로 순음과 치음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순음을 보면 전기 중고한어 37성류에는 한 組의 脣音만 있지만, 후기 중고한어 36자모에는 重脣音 幫組과 輕脣音 非組 두 가지로 나뉜다.³⁾ 다음 치음을 보면 전기 중고한어의 正齒音에는 莊組(즉 照2組)와 章組(즉 照3組)

2) 중국어 음운학에서 흔히 전기 중고한어 체계를 반영하는 早期 韻圖 자료에서 ‘脣, 牙, 舌, 齒, 喉’으로 반영하고, 후기 중고한어 혹은 그 이후의 체계를 반영하는 後期 韻圖 자료들에서는 ‘牙, 舌, 脣, 齒, 喉’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麥耘(2009:61)은 일부 중국 사람의 注音 혹은 梵漢대응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이 분류가 보이는 경향이 보이거나 이는 해당 자모와 결합하는 모음 즉 경순음은 세음성 개음이 있는 글자에만 나타나므로 개음의 영향을 받아 마찰성분이 들어 pf와 같은 발음이 날 수 있도 있겠지만 일종의 변이음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p/=[p, pf]의 관계로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은 아직

두 갈래가 있지만, 후기 중고한어 36자모에는 正齒音에 照組 한 組만 있다.⁴⁾ 위의 전기 중고한어에서 후기 중고한어로 자음의 변화는 주로 조음위치에서 세분화되거나 합병하는 등의 변화만 있을 뿐 조음방법의 淸濁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기 중고한어 37성류의 재구 음을 보면 淸音 계열에서 ‘全淸’은 *p, *t, *k등의 무성음으로 재구 되고, ‘次淸’은 *ph, *th, *kh등의 무성유기음으로 재구된다. 그리고 ‘全濁’은 *b, *d, *g의 유성음으로 재구되고, ‘次濁’은 *m, *n, *ŋ등의 비음으로 재구되어 있다. 이외 또 하나의 ‘淸’과 ‘濁’이 있는데 이는 각각 무성과 유성의 마찰음이다. 이런 전기 중고한어의 淸濁 체계는 그대로 후기 중고한어의 36자모 체계로 이어진다. 이 또한 중국어 전통 자모체계에서 전기 중고한어로부터 후기 중고한어로 ‘全濁’은 줄곧 유성음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이는 재구한 음가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특히 ‘全濁’음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유성음이 아닌 유성유기음일 것이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劉廣和(1984)에서는 不空(705년-774년) 불경 번역에서 중국어 全濁音 글자가 범어의 유성유기음과 대응하는 것으로 중고한어 全濁音 글자의 음가를 유성유기음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대부분 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施向東(1983)은 玄奘(602년-664년)⁵⁾의 번역에서 중국어 全濁音 글자가 범어의 유성음과 유성유기음 모두와 대응하므로 마땅히 유성음으로 대응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 또한 不空과 玄奘 번역의 체계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다. 현장과 불공의 全濁音 번역 차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중고한어 시기 현장과 불공의 유성음 범-한 대응 비교>

중고한어	범어(7C 현장)	범어(8C 불공)
群母(全濁)	g, gh	gh
定母(全濁)	d, dh	dh
并母(全濁)	b, bh	bh

施向東(1983)은 현장 번역의 예외 대응의 예에서 만약 중국어 全濁音가 유성유기음이라면 범어의 무성유기음과 혼용의 예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범어의 유성유기음과 중국어 무성유기음의 次淸 글자의 예와 혼용하는 예외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어 全濁音의 음가는 유성음의 *g, *d, *b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중국어 음운학에서 不空 번역의 중국어는 唐代 長安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으며⁶⁾, 보편적인 견해로 중국어 全濁音의 음가는 여전히 순수 유성음으로 본다.⁷⁾

음소적인 대립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 4) 正齒音 글자는 전기 중고한어에서 韻圖에서 2등칸에 나타나는 글자와 3등칸에 나타나는 글자들이 섞이지 않고 분류가 되어 있어 照2系, 照3系로 나누어 부른다. 하지만 흔히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흔히 照2系를 莊組, 照3系를 章組라고 부른다. (‘系’와 ‘組’의 명칭은 혼용하여 부른다)
- 5) 玄奘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옌스(偃師)지역 출신이며 627년 8월 장안에서 출발하여 천축 행을 떠났고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와서 불경 번역에 큰 영향을 미친 고승이다.
- 6) 프랑스의 Henri Masper(1920)는 현장 번역은 7세기의 표준음을 대표하고 불공 번역은 8세기 長安方言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보았으며 8세기 장안 방언의 중국어 비음은 순수한 비음이 아니라 폐쇄음 성격이 함께 동반한 음일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明母 글자는 순수 비음의 *m이 아닌 폐쇄성격을 동반한 *mb이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 7) 朱曉農(2010)등을 비롯한 최근 연구에서도 유형론적 시각에서 중국어 전탁음자는 아마 유성유기음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점은 언어접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언어접촉의 시각에서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앞서 불공과 현장의 번역 차이에 있어서 물론 시기적인, 공간적인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불공은 스리랑카 출신이고 현장은 순수 중국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언어적 배경의 차이가 미

2.2 진언집 실담장의 표기 체계 및 ‘濁音’의 성격

《眞言集》의 여러 판본 중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⁸⁾,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 등이 있다. 이들의 편집 구성을 보면 대부분 본격적인 眞言 번역에 앞서 먼저 悉曇章과 凡例 등 내용들이 실려 있다.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은 모두 重刊本으로 기존의 안심사본(1569)에 수록된 진언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또 기타 진언들도 추가하여 보충하고 있다. 망월사본(1800)은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 悉曇章과 凡例 등의 내용을 거의 만연사본(1777)을 그대로 옮겼다.⁹⁾ 그런데 망월사본(1800)의 실제 眞言 본문의 한글 번역은 만연사본(1777)의 한글 표기 체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안심사본(1569)의 한글 표기체계를 계승하고 있다.¹⁰⁾ 즉 망월사본(1800)의 한글 표기체계는 실담장에서는 만연사본(1777)을 따르고, 진언 본문에서는 안심사본(1569)을 따르고 있다.

안심사본(1569)과 만연사본(1777)의 한글 표기 체계는 다르다. 이들을 단순한 시기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만연사본(1777)은 18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각자병서 ‘ㄱ, ㄷ, ㅅ’ 등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심사본(1569)에서 각자병서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분명히 진언 번역의 한글 표기 체계의 차이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는 안심사본(1569)의 표기 체계를 ‘표기A’라 부르고, 만연사본(1777)의 표기 체계를 ‘표기B’라 부르겠다.

진언집 실담장의 중국어 번역 한자 표기에 작은 글씨로 淸濁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고찰한 중국어 전통 자모체계의 淸濁과 전혀 다르다. 먼저 안심사본(1569)의 표기A에서의 淸濁 체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실담장 體文의 한글 표기A - 안심사본(1569)>

		1행	2행	3행	4행	5행
牙音	梵	ka	kha	ga	gha	ṇa
	中	迦 _{平清} [見 *k]	佉 _{平濁} [溪 *kh]	誡 _上 [疑 *ŋ]	伽 _去 [群 *g]	仰 _入 [疑 *ŋ]
	韓	가ᄃ거ᄃ	카ᄃ커ᄃ	:야:ᄃ:어:ᄃ	·가·ᄃ·거·ᄃ	·향·ᄃ·영·ᄃ
齒音	梵	ca	cha	ja	jha	ṇa
	中	左 _{平清} [精 *ts]	差 _{平濁} [初 *tʃh]	惹 _上 [日 *n]	社 _去 [禪 *dz]	攘 _入 [日 *n]
	韓	자ᄃ저ᄃ	차ᄃ쳐ᄃ	:샤:ᄃ:사:ᄃ	·자·ᄃ·저·ᄃ	·상·ᄃ·영·ᄃ
舌音	梵	ṭa	ṭha	ḍa	ḍha	ṇa
	中	吒 _{平清} [知 *t]	佉 _{平濁} [徹 *th]	拏 _上 [娘 *n]	茶 _去 [澄 *d]	曩 _入 [泥 *n]
	韓	다ᄃ더ᄃ	타ᄃ터ᄃ	:나:ᄃ:너:ᄃ	·다·ᄃ·더·ᄃ	·낭·ᄃ·녕·ᄃ

치는 영향도 고민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8)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제시된 자료 중 실제로 실담장은 신흥사본(1658)에서 보이고 안심사본(1569)에는 없다. 그러나 신흥사본(1658)은 대개 안심사본(1569)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담장도 이에 맞추어 안심사본(1569)으로 볼 수 있겠다.
- 9)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의 실담장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망월사본(1800)의 실담장 摩多에서 한글 표기의 초성자음이 ‘ㅇ’으로 되어 있고, 만연사본(1777)은 ‘ㅇ’이다. 만연사본의 진언 본문 표기에서 해당 글자들은 또 대부분 ‘ㅇ’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망월사본(1800)의 이런 차이는 역시 만연사본(1777)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 10) 안심사본(1569)과 비교하여 보면 망월사본(1800)에는 ‘ᄃ, ᄆ’ 등의 소실 문자가 사라지고 대신 ‘ㅂ, ㅇ’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중세 한국어로부터 근대 한국어의 시기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시기적인 차이 이외 두 판본의 한글 표기의 체계는 계승관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喉音	梵	ta	tha	da	dha	na
	中	多 _{平清} [端 *t]	佗 _{平濁} [透 *th]	那 _上 [泥 *n]	駄 _去 [定 *d]	娜 _入 [泥 *n]
	韓	다드더드	타타터트	:나:느:너:느	·다·드·더·드	·낭·농·녕·농
脣音	梵	pa	pha	ba	bha	ma
	中	波 _{平清} [幫 *p]	頗 _{平濁} [滂 *ph]	摩 _上 [明 *m]	婆 _去 [并 *b]	莽 _入 [明 *m]
	韓	바브버브	파포퍼프	:마:므:머:므	·바·브·버·브	·망·몽·명·몽

위의 도표는 실담장 體文(범자 자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자는 모음 ‘a’와 결합한 음절문자이다)에서 반영된 梵-中-韓 대응이다.¹¹⁾ 원본에서는 梵字 자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위의 도표는 범자를 로마자로 전환하여 보여준 것이다.

먼저 범자를 보면 세로로 조음의 위치에 따라 ‘牙, 齒, 舌, 喉, 脣’의 순서로 되어 있고,¹²⁾ 가로로는 조음의 방법으로 제1행부터 제5행까지 각각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실담장의 조음 위치는 중국어 자모체계의 조음 위치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舌音’은 치조음을 말하고, ‘喉音’은 후음을 말하는데, 실담장에서 범자의 ‘舌音’은 권설음이고 ‘喉音’이 치조음이다. 그리고 범자의 조음방법에 ‘유성유기음’이 있다는 것이 비교적 특이하다. 예를 들어 牙音의 범자는 ‘k, kh, g, gh’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유성음은 유기와 무기의 두 가지로 나뉜다.

다음 실담장의 한자를 보면 먼저 중국어 번역 기원을 보면, 즉 실담장의 梵-中번역의 체계는 중국 8세기 不空(705-774)¹³⁾를 따르고 있었다. 안주호(2002:177-178)에서 소개된 《고려대장경》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실담장 한자는 不空의 것으로 해당 50字門의 한자와 <진언집> 한자와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일치한다.¹⁴⁾ 한국 진언자료에서의 漢字 텍스트는 대부분 중국에서 번역이 완성된 후 다시 건너온 것으로 중국어의 번역은 8세기 不空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한자의 재구음은 不空이 활동한 시기인 8세기의 前期 中古音으로 하였다.

실담장에서 범자 ‘牙, 齒, 舌, 喉, 脣’에 대응하는 한자는 각각 ‘牙, 齒, 舌上, 舌頭, 脣’이다. 권설음 범자의 ‘舌音’에 대응하는 한자는 舌上音의 知組 글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행 무성무기음 범자에 대응하는 한자 역시 무성무기음의 ‘迦[見 *k], 左[精 *ts], 吒[知 *t], 多[端 *t], 波[幫 *p]’이고, 제2행 무성유기음 범자에 대응하는 한자 역시 무성유기음의 ‘佞[溪

11) 실제로 진언집 실담장의 체문은 모두 34개의 범자가 제시되어 있다. 기타 9개 범자는 ‘超音’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대개 반모음, 마찰음, 유음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의 편의상 생략하였다.

12) 여기서의 舌音은 범어의 권설음을 말하며, 喉音은 치조음을 말하는데 이는 중국어 음운학에서의 전통적인 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

13) ‘不空’은 사자국(師子國: 스리랑카) 사람이며 唐나라 시기 밀종조사(密宗祖師)라 불리우며 밀교경전 번역의 고승이다. 그는 중국에서 善無畏(637년-735년), 金剛智(669년-741년)와 나란히 개원삼대사(開元三大士)로 불린다.

14) 비록 일부 차이가 보이지만 전반적인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부 차이에 대해 보면 예를 들어 범자 ‘na’에서 ‘穰→攘’ 즉 <자모품>의 한자 ‘穰’가 진언집에서 ‘攘’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두 한자 모두 日母 글자로 자모의 번역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타 이와 같은 예로 범자 ‘tha’에서 ‘他→佗’는 모두 透母, 범자 ‘da’에서 ‘那→那’는 모두 泥母, 범자 ‘na’에서 ‘囊→娜’는 모두 泥母, 범자 ‘pa’에서 ‘跋→波’는 모두 幫母, 범자 ‘ba’에서 ‘麼→摩’는 모두 明母, 범자 ‘la’에서 ‘囉→攞’는 모두 來母, 범자 ‘sa’에서 ‘捨→舍’는 모두 書母, 범자 ‘sa’에서 ‘灑→沙’는 모두 生母, 범자 ‘sa’에서 ‘娑→薩’은 모두 心母이다. 하지만 일부 불일치의 예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범자 ‘cha’에서 ‘磋→差’의 변경이 있는데 전자는 淸母 즉 齒頭音이고 후자는 初母 즉 正齒音 2등 서로 다른 자모를 갖는다. 하지만 범어에서 치음계열은 하나만 있지만 전기 중고한어에는 세 개의 계열이 있어 범어와 중국어가 ‘1:多’의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즉 범어의 치음은 중국어 齒頭音과 正齒音이 섞여서 번역이 가능할 수 있다.

*kh], 差[初 *tʃh], 佗[徹 *th], 佗[透 *th], 頗[滂 *ph]이다. 하지만 제3행은 유성무기음 범자 대응 한자는 비음의 ‘誡[疑 *ŋ], 惹[日 *ŋ], 拏[娘 *ŋ], 那[泥 *n], 摩[明 *m]’이고 제4행 유성유기음 범자 대응 한자는 유성음의 ‘伽[群 *g], 社[禪 *dz], 茶[澄 *d], 駄[定 *d], 婆[并 *b]’이다. 마지막으로 제5행 비음 범자 대응 한자는 역시 같은 비음의 ‘仰[疑 *ŋ], 攘[日 *ŋ], 囊[泥 *n], 娜[泥 *n], 莽[明 *m]’이다. 즉 유성음 한자는 유성유기음의 범자와 대응하고, 비음의 한자는 범자의 유성음 및 비음과 대응한다. 이는 不空 번역의 특징으로 앞서 2.1절에서 玄奘 번역과 비교한바 있어 더 이상 서술하지 않겠다.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 한글 표기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범자의 ‘牙, 齒, 舌, 喉, 脣’ 대응 한글은 ‘牙, 齒, 舌, 舌, 盾’이다. 그러니 한글 표기에서 범자의 권설음과 치조음을 분별하지 못하여 모두 같은 하나의 舌音 즉 ‘ㄷ, ㅌ, ㄴ’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음 조음 방법에 있어서 제1행의 무성유기음 범자 대응 한글은 ‘ㄱ, ㄷ, ㅂ’등이고, 제2행의 무성유기음 범자 대응 한글은 ‘ㄱ, ㅌ, ㅍ’등이며, 제3행 유성무기음 대응 한글은 ‘ㅇ, ㄴ, ㅁ’로 되어 있고, 제4행 유성유기음 범자 대응 한글은 ‘ㄱ, ㄷ, ㅂ’이며 제5행 비음 범자 대응 한글은 ‘ㅇ, ㄴ, ㅁ’로 되어 있다.

한글에서도 한자와 같이 유성음 범자 대응에 비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이 不空의 한자 번역 체계를 따랐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한국어 비음의 유성성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영희(2018:184-185)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문제는 한글 표기에서 ‘ㄱ, ㄷ, ㅂ’는 제1행 무성유기음 범자와도 대응하고 제4행 유성유기음과도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에서 제1행 무성음의 범자와 제4행 유성유기음의 범자를 각각 무성음의 ‘見 *k, 端 *t, 幫 *p’와 유성음의 ‘群 *g, 定 *d, 并 *b’으로 차이를 갖고 있지만 위의 표기A 도표의 한국어 번역은 제1행과 제4행 범자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같은 ‘ㄱ, ㄷ, ㅂ’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실담장 또 다른 표기 체계의 표기B에서는 제1행과 제4행의 범자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 만연사본(1777)의 표기B 체계에 대해 보겠다.

<표 5: 실담장 體文의 한글 표기B-만연사본(1777)>

		1행	2행	3행	4행	5행
牙音	梵	ka	kha	ga	gha	ṇa
	中	迦 _{平清} [見 *k]	佞 _{平濁} [溪 *kh]	誡 _上 [疑 *ŋ]	伽 _去 [群 *g]	仰 _入 [疑 *ŋ]
	韓	가ㄴ거그	카ㄴ커크	:야:ㅇ:어:으	·까·ㄱ·꺼·끄	·앙·ㅇ·영·웅
齒音	梵	ca	cha	ja	jha	ṇa
	中	左 _{平清} [精 *ts]	差 _{平濁} [初 *tʃh]	惹 _上 [日 *ŋ]	社 _去 [禪 *dz]	攘 _入 [日 *ŋ]
	韓	자ㄴ저즈	차ㄴ처즈	:샤:ㅇ:아:스	·짜·ㅈ·쩌·쯔	·상·ㅇ·성·웅
舌音	梵	ṭa	ṭha	ḍa	ḍha	ṇa
	中	吒 _{平清} [知 *t]	佗 _{平濁} [徹 *th]	拏 _上 [娘 *ŋ]	茶 _去 [澄 *d]	囊 _入 [泥 *n]
	韓	다ㄴ더드	타ㄴ터트	:나:ㅇ:너:느	·파·ㅌ·퍼·프	·낭·ㅇ·녕·능
喉音	梵	ta	tha	da	dha	na
	中	多 _{平清} [端 *t]	佗 _{平濁} [透 *th]	那 _上 [泥 *n]	駄 _去 [定 *d]	娜 _入 [泥 *n]
	韓	다ㄴ더드	타ㄴ터트	:나:ㅇ:너:느	·파·ㅌ·퍼·프	·낭·ㅇ·녕·능
脣音	梵	pa	pha	ba	bha	ma
	中	波 _{平清} [幫 *p]	頗 _{平濁} [滂 *ph]	摩 _上 [明 *m]	婆 _去 [并 *b]	莽 _入 [明 *m]
	韓	바ㄴ버브	파ㄴ퍼프	:마:ㅇ:머:므	·뻬·ㅍ·뻬·뻬	·망·ㅇ·명·몽

위의 도표에서 반영되는 한글 표기의 표기B를 표기A와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일치하지만

오직 제4행 유성유기음 범자의 ‘gha, jha, dha, dha, bha’ 대응에서 표기B는 각자병서 ‘ㄱ, ㄷ, ㅂ’등으로 되어 있지만, 표기A는 ‘ㄱ, ㄷ, ㅂ’등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표기B의 한자는 앞서 표기A와 완전 일치하다. 즉 표기B와 표기A의 차이는 제4행 유성유기음 범자, 全濁音 유성음 한자 ‘伽(群母 *g), 社(禪母 *dz), 茶(澄母 *d), 駄(定母 *d), 婆(并母*b)’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실담장 한자들을 보면 사실 표기A이든 표기B이든 모두 동일하게 매 한자마다 작은 글씨의 ‘平, 上, 去, 入’ 성조 표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중고한어 ‘平, 上, 去, 入’ 성조 체계와 비교하여 보면 중국어 성조와 일치한 것도 일치 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迦, 佉, 差, 吒, 佉, 多, 佉, 波, 頗’은 중국어 성조와 일치하여 모두 平聲이지만, 실담장에서 平聲인 ‘左’, 去聲인 ‘社’, 入聲인 ‘仰, 曩, 娜, 莽’는 실제 중국어에서의 성조는 모두 上聲이고, 실담장에서 上聲인 ‘譏, 惹, 拏, 那, 摩’, 去聲의 ‘伽, 社, 茶, 駄, 婆’ 및 入聲의 ‘攘’는 중국어에서 平聲이다. 즉 실담장에서 한자의 성조표기는 중국어의 성조 표기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실담장의 ‘平, 上, 去, 入’ 표기는 조음 방법과 대응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1행 무성무기음과 제2행 무성유기음에는 平聲, 제3행 유성무기음은 上聲, 제4행의 유성유기음은 去聲, 제5행의 비음은 入聲으로 되어 있다. 다만 ‘平, 上, 去, 入’은 4개만 있고 조음방법은 5개이므로 平聲은 제1행과 제2행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분화하여 분류하기 위해 平聲에 각각 하위분류로 ‘淸’과 ‘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제1행의 무성무기음은 ‘平淸’으로 표기하고, 제2행 무성유기음은 ‘平濁’으로 표기하고 있다.

제2행 ‘平濁’과 대응하는 범자는 무성유기음의 ‘kha, tha, pha’등이고이고, 한자 역시 무성유기음의 ‘佉(溪母 *kh-), 佉(透母 *th-), 頗(滂母 *ph-)’등이고 한글 역시 ‘ㄱ, ㄷ, ㅂ’등이다. 즉 실담장의 ‘濁音’에 대응하는 梵, 中, 韓 모두 유기음인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어 전통 자모체계에서 濁音은 유성음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실담장의 濁音은 중국어 자모의 濁音과 서로 다른 개념일 것으로 반영된다.

위의 고찰들을 통하여 실담장에서의 ‘濁音’은 유기성과 관련되며, 한글 표기에서 A와 B의 차이는 각자병서의 유무로 범자의 유성유기음 혹은 중국어의 全濁音과의 대응에 대한 편찬자들의 입장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한국어의 어떤 음운적 특징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보겠다.

3. 실담장 ‘濁音’의 한글 표기에 대한 음운 분석

3.1. 梵-中-韓 대응 분석

본 절은 <진언집>의 실담장에서의 梵-中-韓 대응에서 한글 표기에 대한 음운 분석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글 진언 표기A에 대해 볼 것인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牙音 글자를 대표로 보겠다.

15) 이는 한글의 傍點 체계와 대응함을 볼 수 있는데 平聲에 대응하는 한글에 방점이 없고, 上聲에는 兩點의 방점이 있고, 去聲과 入聲은 一點의 방점이 있다. 《훈민정음》에서 ‘왼쪽에 一點을 더하면 去聲이고, 二點(을 더하면) 上聲이며, (방점이) 없으면 平聲이다. 入聲은 (一)點을 더하여 같은데 (소리가) 측급하다[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 同而促急]’로 되어 있다.

<표 6: 진언집 실답장 한글 표기의 梵-中-韓 대응>

梵字	k	kh	g, ṅ	gh
↓	↓	↓	↓	↓
漢字	見 *k	溪 *kh	疑 *ŋ	群 *g
한글A	ㄱ	ㅋ	ㅇ	ㄱ
한글B	ㄱ	ㅋ	ㅇ	ㄲ

위의 대응에서 우선 한글 비음의 대응에서 ‘ㅇ’ 초성자음이 유성음 범자 ‘g’와 대응하고 있는데 앞서 이미 설명 한바 이는 불공 번역 체계의 반영이며 동시에 한국어 비음의 성격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논의는濁音を 중심으로 하고 있어 비음의 대응은 제외하고 파열음의 ‘ㄱ, ㅋ, ㄲ’에 대해 보겠다.

위의 대응 관계를 한글 표기를 기준으로 한자 대응과 범자 대응으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글 진언 표기A

한자와의 대응: ㄱ ⇔ 見*k, 群*g ㅋ ⇔ 溪*kh

범자와의 대응: ㄱ ⇔ k, gh, ㅋ ⇔ kh

2) 한글 진언 표기B

한자와의 대응: ㄱ ⇔ 見*k, ㄲ ⇔ 群*g, ㅋ ⇔ 溪*kh

범자와의 대응: ㄱ ⇔ k, ㄲ ⇔ gh, ㅋ ⇔ kh

위의 1)번 표기A의 대응에서 한글 ‘ㄱ’는 한자 *k와 *g의 차이를 분별하지 않고 있고, 동시에 범자의 k와 gh를 분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한글 ‘ㄱ’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다음 2)번 표기B를 보면 ‘ㄱ’는 한자와의 대응에서도 *k이고, 범자와의 대응에서도 k으로 동일하지만 ‘ㄲ’가 한자와는 유성음의 *g와 대응하고 범자에서는 gh와 대응한다. 즉 ‘ㄲ’ 표기를 추가하여 음가 대응을 더욱 세분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ㄱ’가 무성음과 대응을 분담하고 유성음의 표기는 ‘ㄲ’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위의 표기A와 표기B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사실 한글 표기 A와 B의 차이는 외국어 표기에서 1:多 대응이 있을 경우, 엄격하지 않는 번역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의 차이임을 볼 수 있다. 즉 표기A에서 ‘ㄱ’는 한자의 *k, *g 혹은 범자의 k, gh와는 1:2의 대응관계이고, 표기B에서 ‘ㄱ’는 한자와 범자의 k와의 대응하고, ‘ㄲ’가 한자의 *g 혹은 범자의 gh와 대응하여 각각 1:1의 관계로 대응한다. 다만 문제는 ‘ㄲ’가 순수 유성음과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성유기음과 대응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실답장의 凡例와 관련 字母圖로 부터 보다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인데 아래와 같다.

3.2. ‘洪武韻字母圖’에서 한글의 ‘濁音’ 표기

중고한어시기의 청탁체계는 근대한어 즉 13-14세기로부터 점차濁音의 淸化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洪武正韻》(1375)은 비록 시기적으로 근대한어와 가깝지만 운서의 음운체계는 보수적인 면을 띠고 있어 전통적인 淸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후기 중고한어시기의 36자모에 비하여 5개 자음이 적어 31성류¹⁶⁾인데 구체적으로 輕唇音에서 非母와 敷母

가 합병되어 있고, 舌上音에서 知組와 正齒音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娘母는 泥母가 합쳐진 것이다.¹⁷⁾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후 훈민정음 표기법으로 표기한 운서가 1455년에 《洪武正韻譯訓》¹⁸⁾이 반포된다. 《洪武正韻譯訓》에서 31聲類의 한글 표기는 아래와 같다.

<표 7: 《洪武正韻譯訓》 한글의 31자모 표기>

	全清	次清	全濁	次濁	清	濁
牙音	見 ㄱ	溪 ㅋ	群 ㄲ	疑 ㅇ		
舌音	端 ㄷ	透 ㅌ	定 ㄸ	泥 ㄴ		
唇重音	幫 ㅍ	滂 ㅍ	并 ㅂ	明 ㅁ		
唇輕音	非 ㅍ		奉 ㅍ	微 ㅍ		
齒頭音	精 ㅈ	清 ㅈ	從 ㅈ		心 ㅈ	邪 ㅈ
正齒音	照 ㅈ	穿 ㅈ	牀 ㅈ		審 ㅈ	禪 ㅈ
喉音	影 ㅇ			喻 ㅇ	曉 ㅇ	匣 ㅇ
半舌音				來 ㄹ		
半齒音				日 ㄹ		

위의 도표에서 중국어 全濁音 자모를 각자병서의 한글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담장에도 字母圖가 있는데 《洪武正韻》(1375)의 31성류를 저본으로 하지만 《洪武正韻譯訓》과 전혀 다른 한글 표기가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만연사본(1777)의 범례에서 ‘洪武韻字母圖’에 대한 설명의 글을 보겠다.

범례 제4조항: 고저음과 청탁음은 옛적 고승 了義가 처음으로 36자모를 만드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옥편, 자회 등 여러 서적에서 모두 자모음을 모방하여 반절, 사성, 청탁을 해석하여 자세히 하지 않은 바 없다. 홍무정운에 이르러 31개 자모로 줄었고 우리나라에 이르러 자모에 따라 언문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국어로써 여러 경전을 역해할 때 사성의 고저는 방점의 많고 적음 혹은 유와 무로 분별하고, 清濁의 全次는 諺字의 단수와 복수의 차이로 분별하여 왔으며 고로 진언 구본의 실담 범자의 자모는 諺文에 따라 사용하여 왔다. 유독 清濁의 全次의 사용법은 五音에 影示되어 있을 뿐 원문에서 상세히 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 홍무정운의 자모와 우리나라 여러 경전의 역해를 신증하여 諺字를 明示하고자 한다. (高低清濁, 昔高僧了義始撰三十六字母, 而玉篇字彙諸書, 皆效字母音, 釋反切四聲清濁, 無不詳盡. 至洪武正韻減字母爲三十一母, 至於我國朝依字母製述諺文, 以國語譯解諸經高低四聲以點多小有無分之, 清濁全次諺字單複邊辨之. 故眞言舊本悉曇梵本字母, 諺文依其例用之, 惟清濁全次之法, 只爲影示於五音中. 而元文中終不舉論. 故今依洪武正韻字母及國朝諺本諸經譯解新增明示于諺字中.)

16) 《洪武正韻》(1375)의 反切上字를 정리하면 31聲類가 나온다. 중국에서 이를 처음으로 분류하여 나온 연구는 劉文錦(1931)이다. 그러나 훨씬 이른 시기 1455년의 《洪武正韻譯訓》에서 이미 31字母로 파악되어 반영하고 있었다.

17) 《洪武正韻》이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대체적으로 남방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거의 동시기 이보다 더욱 과격적인 음운변화의 체계가 반영된 《中原音韻》(1324)도 있다. 이 같이 비록 지역적 차이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각에서 《洪武正韻》의 31성류 체계의 변화는 역사적인 음운변화의 반영임은 분명하다.

18) 《洪武正韻譯訓》은 신숙주 등의 학자들이 왕의 명에 의하여 《正韻》의 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운서이며, 76韻 체계의 《正韻》을 따랐다. 총 16권 8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1책인 1, 2권은 소실되어 현존하는 것은 총 14권 7책이다. 《正韻》의 각韻目마다 모두 한글로 음을 표기하였으며, 한글 표기는 正音과 俗音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통 韻圖와 韻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음은 正音, 실제로 중국인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운도나 운서에 맞지 않는 것은 俗音이라 하였다.

위의 범례로부터 우선 만연사본(1777)의 편찬자는 중국어의 36자모 및 《洪武正韻》의 31자모 등의 역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한국어의 불경 번역에 대한 이해도 깊으며 성조는 한글에서 방점으로 표기하고 청탁의 全과 次의 분류는 한글 자모의 '단수', '복수' 즉 각자병서의 차이로 표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구본 실담장은 이런 한글 표기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본인이 '洪武韻字母之圖'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록 字母圖는 만연사본의 편찬자 즉 18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법은 이미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음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언집>의 '洪武韻字母之圖'는 아래와 같다.

<표 8: <진언집> '洪武韻字母圖' 한글의 자모 표기>

	全清	次清		全濁	次濁	
牙音	疑 ㅇ	見 ㄱ		溪 ㅋ	群 ㄲ	
舌音	泥 ㄴ	端 ㄷ		透 ㅌ	定 ㄸ	
脣重音	明 ㅁ	幫 ㅂ		滂 ㅃ	并 ㅄ	
脣輕音	微 ㅁ	非 ㅂ			奉 ㅃ	
齒頭音		精 ㅈ	心 ㅊ	清 ㅊ	從 ㅈ	邪 ㅅ
正齒音		照 ㅈ	審 ㅊ	穿 ㅊ	牀 ㅈ	禪 ㅅ
喉音		喻 ㅇ	曉 ㅎ		匣 ㅎ	影 ㅇ
半舌音				來 ㄹ		
半齒音	日 ㄷ					

위의 字母圖를 보면 앞서 중국어 자모 체계와 같이 아, 설, 순, 치, 후의 분류가 있고 淸濁의 분류도 있으며 청탁은 진일보 각각 全과 次로 다시 나눈다. 하지만 내부 한글의 분류를 보면 우선 全濁音에서 '溪母 ㅋ, 透母 ㅌ, 并母 ㅃ'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담장에서 범어와의 대응에서 한글 'ㅋ, ㅌ, ㅃ'는 범어 'kh, th, ph'와 대응하고 '濁音'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기타 자모를 본다면 '疑母 ㅇ, 泥母 ㄴ, 明母 ㅁ'은 全淸, '見母 ㄱ, 端母 ㄷ, 幫母 ㅂ'은 次淸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음의 全濁과 대립하여 淸音은 무기음을 나타낸다. 즉 淸音은 무기음, 濁音은 유기음이다. 남은 '群母 ㄲ, 定母 ㄸ, 并母 ㅄ'가 次濁으로 되어 있는데 濁音이므로 유기성이 있을 것이고, 다시 '次'로 분류된다는 것은 일반 무성유기음보다 유기성이 약함을 말할 것으로 유성유기음이 될 것이다. 이 자모도는 1차 분류는 淸과 濁이고, 2차 분류는 全과 次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진언집 字母圖의 淸濁과 한글 표기의 대비>

1차 분류	淸무기음		濁유기음	
2차 분류	全淸	次淸	全濁	次濁
범자	n, g	k	kh	gh
한글	ㅇ, ㄴ, ㅁ	ㄱ, ㄷ, ㅂ	ㅋ, ㅌ, ㅃ	ㄲ, ㄸ, ㅄ

이러한 분류는 《洪武正韻譯訓》의 자모체계의 한글 표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譯訓의 한글 자모표기는 아래와 같이 1차적 분류는 淸과 濁의 유성성 분류이며 2차 분류의 全과 次가 유기성 분류이다.

<표 10: 역훈 자모체계 淸濁과 한글 표기의 대비>

1차 분류	淸·무성음		濁·유성음	
2차 분류	全淸	次淸	全濁	次濁
중국어	*k	*kh	*g	*ŋ
한글	ㄱ, ㄷ, ㅂ	ㅋ, ㅌ, ㅍ	ㄱ, ㄷ, ㅂ	ㅇ, ㄴ, ㄹ

위의 내용을 통하여 실담장의 字母圖와 譯訓의 淸濁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며 자모도는 1차적으로 유기성을 변별하고, 역훈은 1차적으로 유성성을 변별함을 볼 수 있다.

4. 두 종류의 淸濁 체계와 한국어 자음의 특성

4.1 두 종류의 淸濁 체계

위의 진언집 字母圖와 譯訓의 자모체계에서 1차적 淸濁 분류에서 각각 유기성을 분류하느냐 아니면 유성성을 분류하느냐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淸濁 체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표 11: 淸濁의 유성성과 유기성의 체계의 분류>

체계1)	1차적 변별	淸·무기음		濁·유기음	
	2차적 변별	全淸(무성)	次淸(유성)	全濁(무성)	次濁(유성)
	음가	k	g	kh	gh

체계2)	1차적 변별	淸·무성음		濁·유성음	
	2차적 변별	全淸(무기)	次淸(유기)	全濁(무기)	次濁(유기)
	음가	k	kh	g	gh

위의 도표에서 체계1)은 1차적으로 유기성을 변별하고, 2차적으로 유성성을 변별한다. 1차에서 유기성을 변별할 때 유성성 여부의 차이가 없으며, 2차 변별까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全淸 k, 次淸 g, 全濁 kh, 次濁 gh’으로 분류된다. 이런 체계는 진언집 字母圖와 실담장의 범자 체계와 같은데 이를 ‘유기성 淸濁체계라고 부르겠다.

다음 체계2)를 보면 1차적으로 유성성을 변별하고, 2차적으로 유기성을 변별하는데 여기서 1차 변별은 유기성 여부의 차이가 없다. 2차 변별 후의 결과는 ‘全淸 k, 次淸 kh, 全濁 g, 次濁 gh’가 된다. 이는 중국어 자모체계와 같으며 이를 ‘유성성 淸濁체계’라고 부르겠다.

위의 두 체계는 이론적인 분류인 것이고 실제로 중국어와 범자의 자모가 보여주는 현상은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아래 먼저 중국어의 자모체계부터 살펴보겠다.

<표 12: 유성성 淸濁체계와 중국어 자모 및 한국한자음의 표기>

1차적 변별	淸·무성음		濁·유성음	
2차적 변별	全淸(무기)	次淸(유기)	全濁(무기)	次濁(유기)
실제 음가	k	kh	g	×
중국어 자모	見 *k	溪 *kh	群 *g	(疑 *ŋ)
한자음(동국)	ㄱ	ㅋ	ㄱ	(ㅇ)

위의 유성성 淸濁체계의 분류와 실제 중국어 자모체계와 비교하여 보면 ‘유성유기음’의 는

次濁에 빈칸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次濁의 위치에 비음을 넣었다. 아마 유성성이 유기성에 앞서 1차적 변별로 나타날 때 유성유기음이 빈칸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가질 것이다.

중국어의 이런 자모체계는 한국한자음에서도 반영되는데 먼저 《東國正韻》을 보면 중국어 자모체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각각 見母 ㄱ, 溪母 ㅋ, 群母 ㄲ, 疑母 ㅇ'으로 정연하게 대응하여 반영한다.

다음은 범어의 유기성 체계에 대해 보겠다. <진언집>에서 제시된 字母圖는 한글 진언 표기를 근거로 만든 것이며 실담장 한글표기 B와 비교하여 모두 각자병서 표기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표 13: 범어의 유기성 淸濁체계와 한글의 진언 표기>

1차적 변별	淸:무기음		濁:유기음	
2차적 변별	全淸(무성)	次淸(유성)	全濁(무성)	次濁(유성)
음가	k	g	kh	gh
실담장표기A	ㄱ	ㅇ	ㅋ	ㄱ
실담장표기B	ㄱ	ㅇ	ㅋ	ㄲ
洪武韻字母圖	ㅇ	ㄱ	ㅋ	ㄲ

위의 도표에서 실제 실담장표기A와 B에서 全淸이 ‘ㄱ’이고 次淸이 ‘ㅇ’인데 字母圖에서는 거꾸로 全淸이 ‘ㅇ’이고 次淸이 ‘ㄱ’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범-중-한 대응 분석에 본 것과 같이 ‘ㄱ’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여 [k, g]의 두 가지 변이음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kh’와 ‘gh’를 보면 실담장 표기B와 字母圖는 ‘ㅋ’와 ‘ㄲ’로 정연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실담장 표기A에서는 ‘gh’ 대응에 ‘k’ 대응과 같이 ‘ㄱ’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실제 한국어 언해문 등자료에서 각자병서 ‘ㄲ’의 출현은 극히 드물다. ‘ㄲ’은 일반적으로 중국어 혹은 진언 등의 외국어 표기에서 많이 사용한다. 실담장 표기A에서 ‘ㄲ’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진언을 독송을 실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였을 것이다.

4.2 《訓音宗編》에서 한국어의 淸濁체계

18세기 李思質(1705-1776)의 《訓音宗編》 ‘第七五音淸濁辨’에서 당시 현실 발음을 근거¹⁹⁾로 한글 자모의 淸濁을 분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아설순치후 오음은 음마다 세 개의 소리가 있고 세 소리마다 淸과 濁이 있어 이로써 두 가지 소리를 변별하여 각각 한 음을 갖는다. 탁음의 발성은 편평하고 낮고, 청음의 발성은 거칠고 높으며 차청은 편평하고 낮는데 조금 높고 차탁은 거칠고 높은데서 좀 낮다. ㄱㅌㅍㅈㅎ의 소리는 모두 거칠어서 全淸에 속하고, ㄴㄷㅌㅍㅈㅎ의 소리는 작게 거칠고 또 열어서 次淸에 속하고, ㄱㅌㅍㅈㅍ의 소리는 편평하고 낮아서 마땅히 全濁에 속하며, ㅇㄴㅇㅍ의 소리는 편평하고 낮으며 가벼워서 次濁에 속한다. (牙舌唇齒喉五宮, 宮各有三聲, 三聲各有淸濁且二變聲, 只各有一音. 濁音發聲平低, 淸音發聲剽高, 次淸平低中

19) “생각이 막히고 요령을 막지 얻지 못하였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곁에서 엿보고 있다가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고 喉, 舌, 唇, 齒, 牙의 소리를 시원스럽게 밝혀내었기 때문에 조리가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意思茫昧, 要領沒捉, 則兒從傍窺竊, 輒醒其迷途, 洞下喉舌唇齒牙之音, 條理不錯)”이란 기록도 있다. (안대희·김성규 2000:268 참고)

稍高, 次濁剽高中稍低. ㄱ ㅋ ㆁ ㅎ 其呼聲皆剽當屬全清, ㄲ ㆁ ㅁ ㅂ 其呼聲小剽而淺當屬次清, ㄴ ㄷ ㄹ ㅅ ㅇ 其呼聲皆平低屬當屬全濁²⁰⁾, ㄴ ㄷ ㄹ ㅇ 其呼聲平低而輕當屬次濁)

위 서술에서 濁音의 소리는 편평하고 낮으며 ‘ㄱ, ㄷ, ㄴ’등이 全濁, 淸音은 거칠고 높아서 ‘ㅋ, ㆁ, ㆁ’등이 全淸으로 대립을 이룬다고 하였. 즉 여기서는 유기음을 ‘淸音’으로 하여 실담장에서 유기음을 ‘濁音’으로 처리한 것과 다르지만 일단 유기성을 1차적 변별 자질로 삼았다는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음 소과 次로 하위분류를 하여 각자병서를 약한 유기음으로 즉 ‘ㄱ, ㆁ, ㆁ’은 全淸, ‘ㄲ, ㆁ, ㅁ’이 次淸이라 하였다. 次淸의 발음은 ‘작게 거칠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유성유기음과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 훈음종편의 청탁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4: 훈음종편의 유기성 淸濁체계와 한글 표기의 원칙>

1차적 변별	濁·무기음		淸·유기음	
2차적 변별	全濁(무성)	次濁(유성)	全淸(무성)	次淸(유성)
음가	k	g	kh	gh
훈음종편	ㄱ	ㅇ	ㅋ	ㄲ

훈음종편은 비록 유기음의 명칭을 淸音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에 실담장과 차이가 있지만 실제 한글 표기는 완전 일치하다. 즉 순수 한국어은 유기성 淸濁체계로 범어의 청탁체계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훈음종편에서 구조적 체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각 자모의 淸濁 묘사는 위의 설명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아래와 같다.

<표 14: 훈음종편 실제 한글의 淸濁체계의 반영>

牙音	舌音	唇音	齒音		喉音
ㄱ 全濁	ㄷ 全濁	ㄴ 全濁	ㄷ 全濁	ㄴ 全濁	ㅇ 全濁
ㅋ 全淸	ㆁ 次濁近淸	ㆁ 次濁近淸	ㆁ 全淸		ㆁ 次淸近濁
ㄲ 次淸近濁	ㄷ 全淸	ㅁ 全淸	ㅁ 次淸近濁	ㅁ 次淸近濁	ㆁ 全淸
ㅇ 次濁近淸	ㄴ 次淸近濁	ㄹ 次淸近濁			ㅇ 次濁近淸

위 도표는 훈음종편에서 실질적으로 각 자모에 대한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표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淸濁은 앞서 자신이 세운 청탁분류의 기준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분류기준의 원칙에서 ‘ㄱ, ㄷ, ㄴ’를 全濁으로 한 것은 일치하지만, ‘ㅋ, ㆁ, ㆁ’를 全淸이라고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 묘사에서 ‘ㅋ, ㆁ’만 全淸이고 기타 ‘ㆁ, ㆁ, ㆁ’은 次濁 혹은 次淸이다. 그리고 각자병서의 ‘ㄲ, ㆁ, ㅁ’등은 次淸이 원칙이지만 실제 묘사에서 ‘ㄲ, ㆁ, ㅁ’가 次淸이고 ‘ㆁ, ㅁ, ㆁ’는 全淸이다. 이외 비음 역시 원칙은 次濁이지만 ‘ㄴ, ㄷ’는 次淸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자모의 분류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며 마치 규칙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次濁’에는 ‘近淸’이 동반하고, ‘次淸’에는 ‘近濁’이 동반하고

20) 원문 이미지에서 ‘ㄴ’로 되어 있는데 ‘ㄷ’의 오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있는데 평음 표기의 ‘ㄱ, ㄷ, ㅂ’등 계열이 전부 全濁을 제외하고 기타 계열의 자모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조음위치의 자모를 단위로 보면 全清, 次清, 次濁이 상보적인 분포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ㄱ, ㄲ, ㅇ’에는 각각 全清, 次清, 次濁으로 중복된 것이 없으며, ‘ㅌ, ㄷ, ㄴ’와 ‘ㅍ, ㅂ, ㅁ’도 역시 次濁, 全清, 次清으로 중복이 없다. 마찰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보적인 분포는 ‘ㄱ, ㅌ, ㅍ’, ‘ㄲ, ㄷ, ㅂ’, ‘ㅇ, ㄴ, ㅁ’를 모두 ‘清音’ 하나로 묶을 수 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자음의 체계는 크게 ‘ㄱ, ㄷ, ㄴ’의 濁音과 기타 자음의 清音과 2분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도표에서 청음 부분을 음영으로 처리 하였다.

이로부터 한국어의 자음체계는 크게 清音과 濁音의 1차적 유기성의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2차적의 유성성 변별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 고유의 체계는 본래 /k, g/와 /kh, gh/의 2분 대립이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점차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가 작용되면서 점차 /kh/와 /gh/으로 분화되면서 중세 한국어 시기 한글이 창제 되면서 훈민정음, 동국정운, 그리고 실담장의 표기B등에서 각각 ‘ㄱ’ /k, g/, ‘ㅋ’ /kh/, ‘ㄲ’ /gh/으로 대응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에서 ‘ㄲ’ /gh/ 음가는 음소로 작용하기 어려우며, /k, g/와 합류하여 ‘ㄱ’ /k, g, gh/가 되는 진언 표기A와 같은 상황이 된다. 이를 현실한자음에서 반영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현실한자음을 유기성 청탁체계에 넣어 비교하여 보겠다.

<표 16: 유기성 清濁체계와 현실한자음의 표기>

1차적 변별	清:무기음		濁:유기음	
2차적 변별	全清(무성)	次清(유성)	全濁(무성)	次濁(유성)
음가	k	g	kh	gh
현실한자음	ㄱ	ㄱ, ㅇ	ㄱ, ㅋ	ㄱ
	ㄷ, ㅌ	ㄴ, ㄷ, ㄷ	ㄷ, ㅌ	ㄷ, ㅌ
	ㅂ, ㅍ	ㅁ, ㅂ	ㅂ, ㅍ	ㅂ, ㅍ

위의 도표를 보면 여전히 ‘k, kh, gh’에서 한자음의 자음은 ‘ㄱ, ㄷ, ㅂ’와 ‘ㅋ, ㅌ, ㅍ’가 각각 혼용하여 사용하여 앞서 유성성체계의 고찰과 일치한다. 하지만 여기서 유성음 ‘g’ 대응 한글을 보면 ‘ㄱ, ㄷ, ㅂ’도 오고 ‘ㅇ, ㄴ, ㅁ’의 비음도 오는데 한국어 비음의 유성성 성격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동시에 ‘ㅋ, ㅌ, ㅍ’가 오지 않는 것은 유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즉 현실한자음의 청탁체계는 유성성이 아닌 유기성체계에 더욱 가깝다.

이는 훈민정음에서 한글 자모는 동국정운과 같이 중국어 자모의 유성성 청탁체계를 따라 만들었을 모르지만 실제 현실 한자음의 표기는 분명 유성성 청탁체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6: 동국정운한자음과 현실한자음의 중국어 자모 대응의 비교>

중국어	見 *k	溪 *kh	群 *g
동국	‘ㄱ’ /k, g/	‘ㅋ’ /kh/	‘ㄲ’ /gh/
현실	‘ㄱ’ /k, g, gh/	‘ㄱ’ /k, g, gh/, ‘ㅋ’ /kh/	‘ㄱ’ /k, g, gh/

위의 도표에서 동국정운 한자음과 현실한자음에서 한글 표기가 담당하는 음가는 다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문헌자료에서 반영되는 음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중 현실한자음은 고유어의 음가와 더욱 가까운 것으로 중세 한국어 시기의 한국어 자음은 ‘ㄱ’ 표기

대응 음가가 /k, g, gh/이고, ‘ㄱ’은 /kh/임을 볼 수 있다. 만약 ‘ㄱ’ 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는 /gh/와 가까울 것이다.

5. 결론

본고의 연구는 《眞言集》실담장의 ‘濁音’이 중국어 자모체계에서와 서로 다른 음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의 출발이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두 가지의 淸濁 체계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1차적 변별이 유성성이고 2차적인 변별이 유기성이며, 다른 하나는 1차적 변별이 유기성이고 2차적 변별이 유성성인 것으로 하여, 전자를 ‘유성성 淸濁체계’라 하고 후자를 ‘유기성 淸濁체계’라고 하였다. 중국어 자모는 유성성 청탁체계에 속하고, 진언의 범어 자음은 유기성 청탁체계에 속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청탁체계는 중국어의 유성성 청탁체계보다 범어의 유기성 청탁체계와 더 가까울 것으로 보았다. 즉 고유의 한국어는 1차적으로 유기성을 변별하였다가 점차 2차적으로 유성성 변별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에서 각자병서는 유성유기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ㄱ’은 /gh/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gh/는 하나의 음소로 작용하기 어려워 실제로 각자병서 ‘ㄱ’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gh/가 사실 /k, g/와 합류하게 되었으며 한글 ‘ㄱ’이 담당하는 음가는 /k, g, gh/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청탁체계와 중국어의 청탁체계는 서로 다른 체계이므로 한국한자음에서 유기성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본고의 위와 같은 추정은 아직 많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보다 폭 넓고 면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 음성학의 기초적인 설명도 있어야 한다. 비록 아직 향후 걸어야 할 길은 멀지만 한국어 자음체계의 연구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적인 시작을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眞言集>(1569), 安心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眞言集>(1777), 萬淵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眞言集>(1800), 望月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訓音宗編>(18세기), 《韓山世稿》, 李思質(1705-1776).
 권인한(2009), 중세 한국한자음의 분석적 연구 (자료편), 제이앤씨.
 안대회·김성규(2000), 李思質이 제시한 훈민정음 창제 원리 (1), 문헌과 해석 통권 12호, 267-278.
 안주호(2002),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31).
 안영희(2018), 진언의 한글 표기법 연구 -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허인영(2014), 「全一道人」의 한국어 복원과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董同龢(1965), 《漢語音韻學》, 臺灣文史哲出版社. (中華書局, 2001年第1版).

李榮(1973), 《切韻音系》, 鼎文書局(臺灣).

麥耘(2009), 《音韻學概論》, 江蘇教育出版社。

劉廣和(1984), 唐代八世紀長安音聲紐, 語文研究, 總第12期.

施向東(1983),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 語言研究.

朱曉農(2010). 全濁馳聲論-兼論全濁清化(消馳)低送高不送, 《語言研究》 第三期. (朱曉農, 2012, 《音法演化-發聲活動》, 商務印書館에 수록).

Henri Masper(1920), Le dialecte de Tchang-ngan sous les Tang, BEFEO., XX, 2. (唐代長安方言考, 馬伯樂 著, 聶鴻音 譯, 2005, 中華書局)

제주어의 시상법에 대하여*

- 특히 서사 시상법과 관련하여 -

고영근(서울대 명예교수)

1. 들어가기

제주어에 에스펙트, 곧 동작상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형태가 확인된다는 사실은 일찍이 이승녕 (1957)에서 지적되었다. 이승녕은 ‘감싸’ 등에 나타나는 ‘口’을 현재 진행으로 파악함으로써 제주도 방언의 동작상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현평효 (1974/1985: 4-133)와 이남덕 (1982)에서는 구조주의적 방법에 기대어, 제주어의 서법과 동작상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독자적인 문법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강정희 (1978/1988: 171-220), 홍중립 (1993)을 거치는 사이에 제주어의 시상법은 생성문법의 바람을 쫓면서 그 제약 관계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고 최근에 와서는 우창현 (1997)에서 상황 유형과 관점상이 도입됨으로써 제주어의 동작상 연구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었다. 특히 문숙영(1998/ 2003)에서는 동작상 형태의 분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 사이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쳐 많은 업적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의 시상법이 정체를 드러내지 못한 것은, 제주어의 토착적 요소와 공통어에서 유입된 외래적 요소를 섞어서 작업을 한 데도 한 가닥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한다. 그리고 상담 시상법을 서사 시상법과 섞어서 다룬 것도 또 한 가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한다. 이를테면 회상법에는 다음 같은 두 형태가 존재한다.

- (1) 가. 철수도 그것을 보아라(/철수도 그것을 보더라)(현평효 1974/1985: 90¹⁾)
나. 는 그때 말 잘 꼰더라(/너는 그때 말을 잘 하더라)(현: 88)

필자가 보기에는 (1가)는 토착적인 요소이고 (1나)는 공통어에서 유입된 외래적인 요소로 보인다. 필자는 제주도 토박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법을 가릴 처지에 있지 않으나 두 형태가 상보적으로 교체된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수의적인 이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전자를 토착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회상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 형태에서도 목격된다. 그리고 서사 시상법에서는 (1가)와 같은 형태는 보이지 않고 (1나)와 같은 형태만 보인다.

- (2) 농막 쏘곶에서 네가 나니 소천국이 이섯더라 (현용준 1992: 43)

* 오늘의 발표는 고영근 (2004/2007: 453-461)의 내용에다가 서사 시상법 (敍事 時相法, TAM of Narration)을 더함으로써 제주어의 시상법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질과 현상>을 편집하고 게시는 현길연 교수 (한양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1) 앞으로는 현평효 (1974/1985)의 인용이 많기 때문에 ‘현: 쪽수’로 인용하기로 한다. 쪽수는 현평효 (1985)을 가리킨다.

(2)의 ‘이섯더라’는 상담 세계에 나타나는 (1나)와 형태가 같아 제주어의 시상법이 모종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특히 고영근 (2008, 2011: 301-363)에서 제기된 서사 시상법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어의 시상법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함으로써 그것이 공통어나 다른 방언과 어떻게 단절이 되고 연속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오래 전에 제안하고 (고영근 1993: 18)하고 고영근 (2004/2007: 3-4)에서 확인한 공존 규칙과 확대 규칙을 의미한다.

2. 서법

제주어도 공통어나 다른 방언과 같이 기본 서법을 세울 수 있다.²⁾ 조사자 문숙영 교수는 원칙법과 확인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어 조사 여하에 따라서는 발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공통어와 같이 부정법,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이 확인된다. 부정법은 공통어와 같이 관형사형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현평효 (1974)에서는 추측법과 의도법을 따로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 형태가 같다는 점을 중시하여 통합하는 태도를 취한다³⁾.

제주어의 직설법은 여러 가지가 등록되어 있다.(현: 115).

- (3) 가. ① 먹었찌/먹었다, 먹었쑤/먹었네, 먹었수다/먹엄십네다
 ② 먹엄찌/먹엄따, 먹엄쑤/먹엄네, 먹엄수다
 나. ① 먹어시냐, 먹어신가, 먹었수가
 ② 먹엄시냐, 먹엄신가, 먹엄수가

위의 (3)은 직설법이 실현되는 평술법과 의문법 가운데서 대표적인 형태를 제주어의 준비법의 세 등분 낮춤 (ㅎ라체), 보통 (ㅎ여체), 높임 (ㅎ서체)에 따라 배열하되⁴⁾ 토착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빗금을 경계로 하여 앞에 배치하고 외래적인 것은 뒤에 두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들지 않았지만 받침 있는 어간 아래 붙는 ‘나’(예: 먹나)에는 공통어의 직설법과 관련한 ‘ㄴ’이 발견된다.⁵⁾ (3가)는 평술법에서 ‘엇’과 ‘엄ㅅ’⁶⁾이 각 준비법에 걸쳐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형태소로 분석되고 이를 제거한 나머지 요소 ‘찌/다, 쑤/네, 수다/ㅅ네다’는 각 준비법의 평술법 어미다. (3나)는 의문법에서 ‘어시’와 ‘엄시’가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형태소로 분별되고 이를 제거한 ‘-냐, -ㄴ가, -수가’는 각 준비법의 의문법 어미다. (3)에 나타나는 평술법 어미와 의문법 어미가 직설법을 선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계열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회상법과의 비교에 의하여 분명해진다.

2) 제주어에서 고영근 (1965)와 같이 기본 서법을 설정한 문법가는 현평효 (1974)이다.

3) 용어는 필자가 고영근 (2018)에서 개발한 용어를 취하였다.

4) 필자는 고영근 (2018)에서 준비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령법에 의한 명칭 대신에 ‘아주높임, 높임, 예사높낮춤, 낮춤’과 같이 높낮이 등급에 따른 명칭을 취하였다는 것을 밝혀 둔다.

5) ‘-나’의 분석에 대하여는 현평효 (1974/1985: 82) 참조.

6) 제주어의 이른바 미완료상의 ‘-엄-’과 ‘-엄시-’의 기저형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다.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정승철 (1997)을 따라 ‘-엄ㅅ-’을 기저형으로 삼기로 한다.

다음 예는 회상법으로 간주되는 어형을 세 준비법의 등급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 (4) 가. ① 먹어라/먹더라, */먹데, */먹읍데다
 ② 먹었어라⁷⁾
 ③ 먹읍서라, */*, */먹읍싹데다
 나. ① 먹어나/먹더나, 먹언가/먹던가, */먹어싹데까
 ② */*, 먹읍선가,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어의 회상법은 다른 어미와 마찬가지로 토착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의 두 변종이 공존하고 있다. 토착적인 것은 준비법의 각 등급에 걸쳐 고루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계열표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곳에서도 빗금을 경계로 토착적인 것은 앞에, 외래적인 것은 뒤에 배치하되 현재 확인되지 않는 어형은 별표를 하였다.

(4)를 보면 하라체의 평술법과 의문법, 하여체의 의문법에서만 두 변종이 공존하고 있고 나머지 문체법과 준비법에서는 외래적인 변종만 보인다. (4가)①의 ‘먹어라’에 나타나는 ‘어’는 제주어에 존재하는 직설 평술법 어미의 한 변종 ‘나’(예: 먹나)의 ‘ㄴ’과 계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4가)②의 ‘먹었어라’는 ‘먹어라’라는 회상 평술법에 이른바 완료의 ‘었’이 붙은 것이다. (4가)③의 ‘먹읍서라’는 ‘먹어라’라는 회상 평술법에 이른바 미완료의 ‘읍ㅅ’가 붙은 것이다.⁸⁾ 공통어로는 ‘먹고 있더라’로 번역된다. (4나)①의 ‘먹어나, 먹언가’, (4나)②의 ‘먹읍선가’에서도 회상법 ‘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회상 의문법에 완료상 ‘었’이 붙은 예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현대어의 ‘먹었더라’에 대응하는 ‘먹었더나’와 같은 예를 가리킨다. (3)과 (4)에 해당하는 예문과 그 출전을 들기로 한다.

- (3) 가’ ① 철순 일하엿제 ‘철수는 일하였다’ (현: 28).
 ② 철순 일하엿저 ‘철수는 일하고 있다’ (현: 24).
 (4) 가’ ① 철수도 그거 보아라 ‘철수도 그것을 보더라’ (현: 90)
 ② 1) 철순 아적의 하교레 감서라 ‘철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더라’ (현: 26)
 2) 가의 그디서 밥 먹읍싹데다 ‘그애는 거기서 밥을 먹고 있습디다’ (현: 26)
 나’ ① 그 사람 밥 하영 먹언가? ‘그 사람 밥을 많이 먹던가’ (현: 91)
 ② 예 찾지 못함⁹⁾

(3)을 (4)와 비교하면 공통어만큼은 반듯하지 않지만 회상법은 직설법과 계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법 범주로 묶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직설법은 공통어의 경우와 같이 무표적인 ∅에 기대어 표시된다.

7) 이 어형은 홍종립 (1993/정승철 1998: 964)에 나오는 ‘똥앗어라’를 기초로 하여 필자가 만든 어형이다.

8) 이곳에서는 현평호(1974/1985: 18-35)를 따라 잠정적으로 ‘었’은 완료상, ‘읍ㅅ’은 미완료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9) 제주어 사전 (1995)에는 ‘업선고’라는 표제어 아래 의문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설명만 있고 예문은 없다. 필자는 예시의 일관성을 위하여 관정 의문법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제주어도 중세어나 공통어처럼 추측법이 보인다.

- (5) 가. 가키여. 가크라, 가쿠다
나. 가크냐, 가크까, 가쿠까
다. 가크라라

(5가)는 평술법에 나타나는 추측법이고 (5나)는 의문법에 나타나는 추측법이다. 현평효 (1974/1985: 93-96)에서는 'ㄱ'을 추측법 형태소로 보고 있으나 지은이는 '크'로 잡는 것이 설명력이 크지 않을까 한다. (5다)는 회상법에 추측법이 선접된 것으로 공통어의 '-겠더라'에 대응한다. 해당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가'. 오늘밤 비 오키여 '오늘 밤에 비가 오겠다' (현: 93)
그건 나도 헝키여 '그것은 나도 하겠다' (현: 94)
나'. 오늘밤 비 오쿠가 '오늘밤에 비가 오겠습니까' (현: 95)
이제 어디 가쿠가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현: 97)
다'. 그 사람 일 잘 헝크라라(/그 사람은 일을 잘 하겠더라) (현: 92)

제주어의 추측법에는 공통어나 다른 방언에 나타나는 'ㄱ' 계열의 추측법이 확인된다. 이는 토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공통어나 다른 방언으로부터 유입된 외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한다.

- (6) 가. 느 이제 집의 갈다? '너 이제 집에 가겠냐' (현: 100)
나. 그 사람은 모리 떠날걸 '그 사람은 모레 떠날걸' (현: 96)
다. 낭에 올랐당 털어지려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질라) (현: 95)

(6가)에 나타나는 '-르다'는 중세어의 제2인칭 추측 의문법 '-르다'와 이어지는 것 같으나 속단할 수 없다. (6나)는 공통어와 형태가 같고 (6다)는 경계법 어미 '-(으)르라'와 계열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동작상

앞의 (3)(4)를 보면 제주어에는 동작상과 관련한 요소가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당 예를 가져오기로 한다.

- (7) 가. 철순 일헝엿쨌 '철수는 일하였다' (현: 28), 비교: (3) 가①
나. 철순 일헝엿져 '철수는 일하고 있다' (현: 24), 비교: (3) 가'②
(8) 가. 철순 아적의 헝교래 잡서라(/철수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더라)
(현: 26), 비교: (4')가②1)
나. 가의 그디서 밥 먹엿신테다(/그애는 거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 26), 비교: (4')가②2)

(7가)의 ‘일흐엿찌’에 나타나는 ‘-엿-’이 과거 시제라면 이와 계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7나)의 ‘일흐엿저’의 ‘엿’은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이승녕 (1957/1960: 313)에서는 어떠한 활용형이든 ‘ㄱ’이 들어가면 현재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의 김병제 (1985: 131)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어+ㄱ’에 의하여 현재 시칭이 표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제로 규정하기에는 걸리는 곳이 너무 많다¹⁰⁾. 우선 (8)의 ‘감서라, 먹엄십테다’는 회상 평술법의 현재형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4가’)①의 ‘보아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보아라’는 공통어의 ‘보더라’와 같이 경험 당시의 현재 시제를 표시한다. 둘째로 ‘엄ㅅ’와 계열 관계를 맺고 있는 ‘엇’은 다음과 같이 명령법에도 사용된다.

(9) 는 이디 숨어시라 ‘넌 여기 숨어 있거라’ (현: 18)

현평효 (1974/1985: 18)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엇’이 명령법에 사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동작상에 속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엇’과 ‘엄’은 정동사형뿐만 아니라 부동사형에서도 실현된다. 문숙영 (1998)의 제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동사형이 ‘엇’과 ‘엄ㅅ’을 취한다.

(10) -(으)난 (먹어시난: 먹엄시난), -(으)메 (어형 예시 이하 생략), -(으)민,
-(으)ㄴ들, -(으)ㄴ디, -판디, -곤테, -건테, -걸랑, -주만, -기로, -건만,
-거든 (건), 건디, -젠/쟁, -아단/-아당,

다음에 한 예를 들기로 한다.

(10') 나가 잠시난 부릅디다(/ 내가 가고 있으니까 부릅디다 (김병제 1985: 131))

공통어에서는 부동사형 어미의 경우, 우설적인 ‘-어 있다’와 ‘-고 있다’에 기대어 동작상을 표시하는데 제주어에서는 선행 어미 ‘-엇-’과 ‘-엄ㅅ-’이 계열 관계를 이루어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어의 ‘-엇-’과 ‘-엄ㅅ-’는 동작상을 표시하는 절차가 공통어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어에도 공통어와 같이 ‘-어 가다, -어 오다’와 같은 우연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는 바 아니나 공통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엄ㅅ-’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일반적이다. 현평효 (1974)에서 ‘-엄ㅅ-’을 ‘미완료상’이라고 부른 것은 크게 보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는 진행상이다. 그러나 미완료상 가운데는 진행상뿐만 아니라 예정상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어의 ‘-엄ㅅ-’은 미완료상, 그 가운데서도 진행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어의 진행상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 형성되었는지는 현재의 필자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이를 명사형어미 ‘-(으)ㄱ’과 결부시켜 어원론을 전개하는 일이 없지 않으냐

10) 이미 현평효(1974/1985: 16-18)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현재 시제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현재형도 미래 시제를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다.

(김병제 1985: 131) 그럴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회상법 ‘-어-’, 추측법 ‘-크-’ 등과 함께 일정한 확대 규칙을 적용해야만 공통어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제주어에 과거 시제의 하나로 ‘-가라’를 들어 이를 중세어의 부정 확인법 ‘-과라’와 관련시키는 일이 없지 않으나(홍종립 1993: 78-94), 현지인들은 이를 들어 본 일이 없다는 문숙영 교수의 제보에 따라 이곳에서는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4. 한국 역대 및 제주어의 서사 시제

이곳의 “서사 시제”란 상담 세계와 대를 이루고 있는 서사 세계에서 실현되는 시상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말의 서사 시제는 훈민정음 창제 후에만 어느 정도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이전은 아직도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곳의 서사 세계란 서술자 내지 이야기꾼의 말씨를 가리킨다.

석보상절 등의 서사물을 보면 서사 세계에서 실현되는 서술자의 말씨는 다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영근 2008, 2011: 301-357).

- (11) 가. 그 王 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불니라 (월인석보 1, 7)
 나. 阿羅漢을 得히리도 있더라 六師의 弟子들토 다 舍利弗의 와 出家
흐니라(석보상절 6, 35)
 다 (王) 夫人 베틀 아스시고 그 蓮花를 브리라 흐시다 (석보상절 11, 31)

모두 부처의 과거의 행적을 묘사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내지 문장 종결의 방식이다 (11가)는 보수적인 부정 평술형이고 (나)는 회상법과 보수적 부정 평술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세어에는 평술형에 신형과 구형이 공존하고 있었다. (다)는 (가)와 같은 보수적 평술형과 그 가치가 다르지 않는 부정 평술형이다. 중세어의 서사 세계에는 위와 같이 세 가지 형태개가 큰 의미 차이가 없이 섞여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체적 장치는 조선조 말기까지 존속되어 왔다.

(11)과 같은 문장 종결의 방식이 변모를 보인 것은 신소설부터 아주낮춤의 이른바 해라체로 바뀌기 시작하여 이광수의 무정 (1917)에서 마지막 숨결을 멈추었다.

- (12) 가. 다시 안방으로 향하고 강동지를 부른다 (귀의 성)
 나. 벌써 십유여년 전이로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남으로 십여리 되
 는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정)

(12)는 신소설인 <귀의 성>과 현대소설의 첫 작품인 <무정>에 아주낮춤의 정동사형이 쓰인 예이다.

(12)와 같은 문장 종결의 방식은 김동인의 단편 <약한 자의 슬픔>을 계기로 하여 직설법 현재형 ‘-는/ㄴ다, -다’로 바뀌고 말았다. 이러한 문장 종결의 방식은 염상섭의 <삼대> (1932)를 거쳐 남북은 물론 옛 소련의 고려인 사회와 중국의 조선족 사회의 작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품에 따라서는 직설법 현재형 위주로 나가지만 대부분 과거형 위주의

시상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각 지역의 구비 문학 작품의 문장 종결 양식을 보기로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려 있는 설화를 보면 15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 볼 수 있었던 부정법과 회상법 중심의 문장 종결 방식은 전혀 목격할 수 없다. 모든 서사물이 20세기 이후의 현대 문학작품과 같이 직설법으로 일관하여 있다.

다음 작품은 필자의 고향인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에서 채취한 선돌 설화이다 (고영근 2018: 807).

- (13) 시방은 (지금은) 대천리 (大川里)지만 이전에는 한골이라. 한골, 한골 쿠는 동네가 인자 이반성에 있는데 그 선돌이라고 있어예, 말이 선돌이지, 선돌인지 그게 선돌. 선들이라고 쿨 (할) 만도 하고 선돌이라고 쿨 만도 하고 들 가운데 돌이 두 개 있으니께네 말이지, 안 그런가베? 게네 말이지 ….

(13)은 제보자의 말씨인 구어를 그대로 옮겨 놓아 19세기 이전의 소설류에서 볼 수 있었던 정형화한 투식을 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정이 좀 달라 보인다 (고영근 2018).

- (14) 영주엔 태초 사름이 웃엇저. 홀연이 시 신인이 한락산/한로상 북녘 기슭이서 솟아나난 응혈 (毛興血)이렌 흐엇저. 장 (長)은 고을나 (高乙那)고 차 (次라)는 양을나 (良乙那)고 삼 (三)은 부을나 (夫乙那) 여 (<이여). 그덜 모양은 장대하고 도량이 넓언 인간사훼엔 엇 (웃은) 모습이엇주. 그들은 가죽옷을 입곡 꿰길 먹으멍 홍상 시농흐멍 살앗주만 가업을 일지 못흐엇저.

위의 ‘웃엇저, 흐엇저, 못흐엇저’에 나타나는 ‘-저’는 공통어의 평술형 어미 ‘-다’에 대응하는 어미이고 ‘(모습)이엇주’에 나타나는 ‘-주’는 공통어의 반말의 서상법 ‘-지’에 대응한다 (고재 환 교수의 메일, 2018. 7. 26에 의함). 위의 (14)를 통하여 제주어에는 방언 특유의 서사 시상법이 엄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6세기 중엽의 이두의 ‘齊’ (박성종 2016: 456-457)와 비교할 때 음상과 기능이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상법도 당대 제주 구어 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제주도에는 신앙, 창세, 여성 영웅, 남성 영웅, 신앙 비판, 성자, 성자, 생활 등의 다수의 서사시가 확인되어 있다 (조동일 1997). 앞에서 필자는 제주어의 시상법은 토착적인 것과 반도에서 유입된 외래적인 것이 섞여 있다고 하였는데 서사 무가에는 토착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 (15) 가. 판관술을 베여 전선 혼척을 무어 무나무 양석을 혼배쥬 싫고 백만 군스를 대동허여서 조선국을 나온다 (현용준 1992: 45)
나. 그 놈을 심어다가 잡아먹으니 요기를 멀렸더라 (같은 책, 42)
다. 백주님이 청풍체를 내여놓고 하울하울 부끄시니 제장안 죽진어남
보히애기 걸어지옵데다(같은 책 40)

(15가)의 ‘나온다’를 (7나)에 미루면 ‘나옴저’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15나)의 ‘떨렸더라’는 ‘면하였더라’를 의미하는데 (8가)에 미루면 ‘떨럼서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16다)도 같은 예이다. (7)(8)을 보면 구어에서는 제주어의 토착적 동작상이 실현되는 데 대하여 무가 등의 서사시에서는 반도와 같은 시상법 형태가 발견된다.

5. 휘갑

아이누 민족의 서사시 ‘유카르’(yukar)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와는 달리 고형의 어법과 공식화된 수식의 “雅語”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동일 1997: 151)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앞으로의 과제로 돌려 둔다. 서사 무가, 전승 민요, 판소리 사설, 가사 작품을 통공 간적, 동시대적으로 다루면 한국 서사 문학의 원형 (原型, architype)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참고문헌

- 고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고재환 (2013), 제주어 개론, 보고사.
문숙영 (2001), 제주 방언의 시제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 국문과 석사논문.
이승녕 (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석과 서사무가. 집문당,
정승철 (1998), 제주 방언, 서태룡 밖에,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955-984.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현용준 (1992),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집문당.
현평효 (1974), 제주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평효 (1985), 제주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Schmitter, P. (2003), Historiographie und Narration, Seoul: Sowadalmmedia/Tübingen: Narr.
Harweg, R.(2003), Zeit in Mithos und Geschichte (1,2,3,4). Berlin: LIT.

<초청 발표 및 특강>

Methods for English Transcriptions of Kundoku and Gugyeol Texts

(일본 훈점 자료 및 구결자료의 영어 기술방법에 관해서)

Matthew Zisk (Yamagata University)

지스크 매슈(야마가타 대학)

개요

최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보여지는 각 나라들의 한문훈독과 중세 유럽에서 활발히 행해진 glossing과의 공통점이 주목되고 있다.

Glossing이란 간본(刊本)이나 사본(寫本)에서 보이는 행간(行間) 또는 그 사이의 여백에 주석을 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을 gloss라고 하지만, 한문문화권 용어로 바꾸면 glossing은 훈점기입, gloss는 훈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라틴어 문헌이 glossing의 주 대상으로, gloss 그 자체는 라틴어 혹은 기입자의 모어로 기입되었다. 특히 기입자의 모어로 기입된 것은 훈점과 공통점이 많다.

Weiland (1983)은 라틴어 문헌에 보여지는 gloss를 그 기능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Weiland의 분류는 일본의 고문헌에 보여지는 훈점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 (1) Prosodic glosses | 액센트나 음률을 표시한 것 |
| (2) Lexical glosses | 대응하는 자국어 어휘를 표시한 것 |
| (3) Grammatical glosses | 단어 시제, 무드(mood), 격(格) 등을 표시한 것 |
| (4) Syntactical glosses | 품사 분해나 어순을 표시한 것 |
| (5) Commentary glosses | 내용의 주석이나 어원을 표시한 것 |

다시 말하자면, (1)은 훈점자료에서 말하는 성점(声点), (2)(3)은 가나(仮名) 점 및 오코토(ヲコト) 점, (4)는 재독(再讀)·반독(返讀) 점, (5)는 의주(義注 : 글의 의미해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3)은, 라틴어 명사·형용사 곡용(曲用)이나 동사의 활용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고립어인 고대 중국어를 바탕으로 한 한문훈독에서는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것처럼 위 형태의 glossing과 훈점기입은 나라는 틀려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같은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단 형태상 같은 것 같아도, 그 내실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몇 가지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큰 다른 점은 glossing과 훈점자료의 목적이다. 즉, glossing은, 주석을 다는 gloss가 행해진 것을 모어로 읽을 수 있지만, 훈점자료처럼 문(文) 또는 문장 전체를 모어로 바꿔읽기—다시 말해, 훈독 읽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또, glossing의 목적의 하나는 위의 (3)에서 알 수 있듯 라틴어 문법학습이지만, 훈점자료의 경우는 훈독의 룰만 알면 그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한문법의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glossing과 훈점기입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동시에 다른 점도 적지 않다. 이것을 언어를 비교하는 것처럼 이 둘의「고전주석활동(古典注釈活動)」을 비교하는 것으로 서로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일본과 유럽에서 glossing과 훈독의 비교 워크숍이 수차례 열렸고, 또 2015년에 Network for the Study of Glossing이 설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연구 기회가 많아져도 훈점자료(또는 구결자료)의 용례를 영어로 표시하는 기준이 없다면 훈독에서 나타나는 여러현상을 해외의 학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훈점어학과 구결학의 국제 발신에 일조하기 위해 영어로 작성한

훈점자료와 구결자료의 인용기준(Glossing Rules)을 소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한문, ②한문의 음소표기, ③한문의 형태적 해석, ④일본어 · 한국어의 역문(訳文), ⑤역문(訳文)의 음소표기, ⑥역문(訳文)의 형태소 분석, ⑦영어의 패러프레이즈(주석)라는 7단계로 구성되는 "gloss"(여기서 gloss란 언어학에 있어 행간에 형태소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인용형식을 가르킴)를 제안하고, 각 단계의 형식과 훈점을 표시하기 위해 기호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

1. Introduction

The following is a tentative set of glossing rules and abbreviations for use when citing examples from Japanese (kundoku) and Korean (gugyeol) glosses of Classical Chinese texts in English publications. There exists a standard for citing kundoku texts in Japanese known as the *yakubun* 'lit. translated text', which makes use of a number of orthographical conventions such as script type (hiragana vs. katakana) or bracketing to distinguish between gloss type or mark reconstructed readings. No such system has been proposed for English publications, however, greatly impeding the discussion of the kundoku and gugyeol traditions outside of Japan and Korea. With the recent surge of interest in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ies of glossing practices (see Whitman 2011 and 2015 for an overview of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now is ideal time to propose such a system.

The glossing rules outlined below have been an ongoing project by the author gradually refined through a series of presentations and papers on kundoku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Zisk 2014, 2015, 2016ab, 2017, 2018). The formatting follows the Leipzig Glossing Rules established by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with a number of modifications to more accurately describe kundoku texts. While the rules have been designed with kundoku texts in mind, many of these rules could be applied to contemporary glosses of Classical Japanese or Old/Middle Korean texts at large. In addition to the current proposal, readers are directed to Whitman et al. (2010), which presents a list of English translations for commonly used terminology in kundoku and gugyeol studies.

2. Glossing tiers

As kundoku and gugyeol are a direct word-by-word translations (or 'transposition': see Zisk 2018) of a Classical Chinese tex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along with its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to accurately portray the transposition process. This results in a total of seven tiers of glossing: three each devoted to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and its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with an English paraphrase and the source of the citation given in the final tier.

- (1)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한자 원본문)
- (2) Phonemicization of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한자 원본문의 음소표기)
- (3) Morphological gloss of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한자 원본문의 형태소 gloss)
- (4)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번역문)
- (5) Phonemicization of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번역문의 음소표기)
- (6) Morphological gloss of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번역문의 형태소 gloss)
- (7) English paraphrase and citation source (영어 번역 및 출처)

In most cases, it will be preferable to omit the phonemicization of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2), as the pronunciation of the original text will vary from period to period and from region to region, and in

many cases only exist as a reconstruction. The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5) may also be omitted when space is at a premium. While this runs the risk of obfuscating the link between each character and its reading, most of this information can be inferred by comparing the two morphological glosses. See below for an example of a seven-tier and five-tier gloss. In the latter example from *Nihon ryōiki* (일본영이기), an additional line is given ad-hoc under the second tier for transcribing the *kunshaku* (훈식) glosses, which are separated from the main text in the original manuscript. Notice the use of curly brackets to display alternate readings, a method that will be explained in further detail below.

(a) Seven-tier gloss (kundoku text)

①舍利弗	汝等	當(IT)	一(RE)	心	信解(2)	受持(3)	佛語(1)
②syaeXlijHpjut	nyoX-tongX	tang	'jit	sim	sinH+heaX	dzyuwX+dri	bjut+ngjoX
③Śāriputra	you-PL	NEC	unite	heart	believe+comprehend	receive+preserve	Buddha+words
④舍利弗	汝等 ^ラ	當(IT.1)	心(ヲ)	一(ニ	シ)て(RE)	佛語を(1)	
⑤(SYARIPOTU	NANDI)-RA	(MASANI	KOKORO=WO	PITOTU=NI	S-I)te	(BUTU-GO)=wo	
⑥Śāriputra	you-PL	truly	heart=ACC	one=LOC	do-CVB	Buddha+teaching=ACC	
④信解し(2)		受持(ス) (3)ベシ(IT.2)と		(マウス)			
⑤(SIN-GE)+s-i		(ZYU-DI+S-U)BE-SI=to		(MAUS-U)			
⑥believe+comprehend+do-ADV		receive+preserve+do-NEC-CCL=COMP		speak-CCL			

⑦Śāriputra said, “You must truly put your hearts together as one to believe and comprehend, to receive and preserve, the teachings of the Buddha.”

Myōhōrengekyō, Yamada M.S., ln. 146, mid-9th C gloss; Kobayashi (小林) 2012: 182

(b) Seven-tier gloss (gugyeol text)

①信行	具足	復	有(2)	五道	一切衆生(1)	
②sinH+haengH	gjuH+tsjowk	bjuwH	hjuwX	nguX+dawX	'jittshet+sraengtsyuwngH	
③faith+practice	equip+be.sufficeint	again	exist	five+path	all+sentient.beings	
①復	有(2)	他方	不(3')	可(2')	量(1')	衆(1)
②bjuwH	hjuwX	tha+pjang	pjuw	khaX	ljang	tsyuwngH
③again	exist	other+direction	NEG	POT	measure	people
④信行乙	具足爲示爾		復爲隱	五道叱		
⑤(SIN+HAENG)=AR	(GJU+TSJOWK+HA)+SI-MJĬ		(STO+HA)=N	(NGU+DAW)=S		
⑥faith+practice=ACC	equip+be.sufficeint +do-RESP-CVB		again+do=NMNLZ	five+path=GEN		
④一切衆生是(1)	有叱在彌(2)	復爲隱	他方叱	量乎音(1')		
⑤('JITTSHET+SRAENGTSYUWNG=I)	(I)S-(KJĬ)-MJĬ	(STO+HA)-N	(THA+PJANG)=S	(LJANG)+HO-M		
⑥all+sentient.beings=NOM	exist-CONT-CVB	again+do=NMNLZ	other+direction=GEN	measure+do-VN		
④可叱爲隱(2')	不知是飛叱(3')	衆(1)	有叱在彌(2)			
⑤(CI)S+(HA)=N	(AN)TI=(I)-NA=S	(TSYUWNG)	(I)S-(KJĬ)-MJĬ			
⑥possible+do=NMNLZ	NEG=COP-PRES-GEN	people	exist-CONT-CVB			

⑦‘Keep your faith and practice! For in addition to all the sentient beings of the five paths, there exist people of uncountable numbers in other realms, and...’

Kwuyek Inwang-kyeng (Benevolent King Sutra), Dongguk University M.S. (early 13C), vol. 2 ln. 1-2
(adapted from Nam 2012 and Whitman 2015)

(c) Five-tier gloss (kundoku text)

①沙彌 聞 [之] 輕 咲 些 故 候(2) 己 口(1) 訛(2) 音(1) 效 讀
 ②Samanera listen EXCL belittle laugh mock especially distort self mouth slur sound imitate read
 Kunshaku glosses: 些^{阿左毛リ {アザケル}}, 故^{已止左良二}, 候^{毛刀良奈之天波リ天 {毛トロカシテ 碁五反}}, 效^{万尔比}

③(SYAMI KIK-ITE KAROM-I WARAP-I) AZAKER-I {AZAKER-U}, KOTOSARA=NI (ONO=GA KUTI=WO)(1)

④Samanera listen-CVB belittle-ADV laugh-ADV mock-ADV {mock-ADN} especially=ADVLZ self=GEN mouth=ACC

③MOTORANAS-ITE PAR-ITE {MOTOROKAS-ITE}(2) (KOWE=WO)(1) (YOKONAMAR-ITE)(2) MANEB-I+(YOM-U)

④distort-CVB spread?-CVB {distort-CVB} voice=ACC slur-CVB imitate-ADV+read-CCL

⑤‘The Samanera (young monk) heard [the beggar chanting the Lotus Sutra] and belittled [him], laughing and mocking [him]. In particular, [he] distorted his mouth and slurred [his voice], imitating [the beggar] as [he] read.’

Nihonryōiki, Kōfukuji M.S. {Gunshoruijū M.S.}, Jō, *kunshaku* from early 9th C; SNKBZ 10: 74

3. Overall format

Each tier of the gloss is to be format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rules. Rules 1 through 4 are adapted from the Leipzig Glossing Rules with Rules 5 and 6 added by the author.

● Rule 1: Word-by-word alignment

Left-align the corresponding elements (morphemes or morpheme strings) of each tier so that they line up vertically. This can be easily achieved in Microsoft Word or other word processing software by using tabs (set to 1 or 2mm) or by placing elements in cells of a table.

子	曰く	學びて	時に	之を	習ふ(RE)
si	iw-aku	manab-ite	toki=ni	kore=wo	nara-u
Confucius	say-NMNL	study-CVB	time=LOC	this=ACC	learn-CCL

● Rule 2: Morpheme-by-morpheme correspondence

When adding segmentation (further below) be sure to add the same segmentation to both the phonemicization and morphological gloss tier. No segmentation is needed in the original Chinese or Japanese/Korean transcription tiers. While interpretations of morpheme boundaries will vary from author to author, avoid over-simplification of boundaries such as in the last example below.

<i>ar-iker-i</i>	NOT	<i>ar-iker-i</i>	or	<i>arikeri</i>	or	<i>ari-keri</i>
exist-HPST-CCL		existed		exist-HPST-CCL		exist-HPST.CCL

● Rule 3: Grammatical category labels

Grammatical morphemes and properties are to be marked with category labels (abbreviations of the main grammatical function of each morpheme) in the morphological gloss using small caps. A list of common glossing labels can be found at both the end of the Leipzig Glossing Rules and, more suited for Classical Japanese, at the end of this document.

● Rule 4: One-to-many correspondences

When a single element of the phonemicization embeds multiple grammatical elements or an affix is morphologically opaque, each metalanguage element is to be separated by a period. The same rule applies when two or more English words are used to mark a single Japanese/Korean element.

<i>maus-u</i>	<i>tabe</i>
speak.HUM-CCL ('speak' and humble variant)	eat.ADV ('eat' and opaque adverbial suffix)
<i>buQten</i>	
Buddhist.scripture (two English words to one Japanese element)	

● Rule 5: Simplification of category labels

It is the case particularly in Classical Japanese that multiple grammatical meanings are expressed by a single grammatical function. Perhaps the most notorious example of this is the case marker *ni*, which carries out no less than 10 different grammatical functions. While marking each function with separate glosses may be useful in some circumstances, the majority of the time it simply results in confusing the reader. Thus it is preferable to place all functions of a particular grammatical morpheme under one umbrella label whenever possible.

4. Segmentation

The following rules apply to the segmentation of morpheme boundaries in the phonemicization tier of the gloss. As a rule of thumb, all bound morphemes such as verbal suffixes, particles and copulas, should be linked to their base form through the use of hyphenation and not separated by spaces.

4.1. Affix boundaries

Morpheme boundaries in an affix string (boundaries between a stem and its affixes) are to be indicated by use of a hyphen. When the morpheme boundary is morphologically opaque, it is to be indicated by use of a period (see Rule 4 above).

<i>tanosim-u</i>	<i>kosiraye-sase-rare-ker-eba</i>	<i>yuk-azu</i>	<i>ar-urasi</i>
enjoy-CCL	invite-CAUS-PASS-HPST-COND	go-NEG.CCL	exist-EVD.CCL

4.2. Quasi-affix boundaries

Boundaries between a base form and a particle or copula, or between multiple particle strings, are to be indicated by use of an equal sign. Note that while an equal sign is typically used to mark clitic boundaries, here it simply indicates a bound form that is not a fully developed suffix.

<i>paru=wa</i>	<i>nyoogo=bakari=ni=wa</i>	<i>sukuse=nar-iker-i</i>	<i>kikoyu=ru=nar-i</i>
spring=TOP	court.lady=LMT=LOC=TOP	destiny=COP-HPST-CCL	hear-ADN=COP-CCL

4.3. Compound boundaries

Morpheme boundaries in a compound (including auxiliary verbs and adjectives) are to be indicated by use of a plus sign. For commonly occurring or semantically opaque compounds, the plus sign may be omitted. In either case, be sure to accurately translate the compound in the morphological gloss.

<i>tabe+wep-ite</i>	<i>yuk-i+tamap-u</i>	<i>paru+kaze</i>	OR	<i>parukaze</i>
eat.ADV+get.drunk-CVB	go-ADV+RESP-CCL	spring+wind		spring.breeze

5. Rules specific to kundoku and gugyeol texts

The following rules are to be us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rules outlined in section 3 when adding contemporary glosses to kundoku and gugyeol texts. See also the examples in section 2.

5.1. Inversion labels

The following tags are to be placed after inverted (반독) and iterated (재독) characters in the Classical Chinese text and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or phonemicization when the transposition is omitted).

- 1, 2, 3 ... complex inversion (一二三点*ichi-ni-san-ten*, 上中下点*jō-chū-ge-ten*, 天地人点*ten-chi-jin-ten*, 甲乙丙点*kō-otsu-hei-ten*, etc.)
- RE simple inversion (ㄴ点*re-ten*: here, RE stands for both *re-ten* and ‘reversed’)
- IT iterated character (use IT in the Classical Chinese text and IT.1 for the initial reading and IT.2 for the iterated reading in the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Labels for inversion glosses present in the manuscript are to be placed in angle brackets and labels for reconstructed inversions (i.e. those not given in the manuscript) are to be placed in parenthesis.

學而時習<RE>之 (simple inversion gloss present in manuscript)

學而時習(RE)之 (reconstructed inversion)

5.2. Unread characters

Unread characters (어조사) are to be placed in brackets and given the label [(unread character) UNREAD] or [(unread character) UR] in the corresponding position in the Japanese/Korean transposition or phonemicization when the transposition is omitted.

學[而]時習(RE)之 > 學びて[而UNREAD]時に之を習ふ(RE) OR 學びて[而UR]時に之を習ふ(RE)

5.3. Distinguishing between gloss types

In kundoku texts in which both kana glosses (가나점) and *wokoto-ten* glosses (오토코점) are employed, kana glosses are to be indicated by lowercase letters and *wokoto-ten* glosses by capital letters. Likewise, for gugyeol texts with both *jato* (자토) and *jeomto* (점토) glosses (if such texts exist), the two are to be indicated by lowercase and capital letters, respectively. Reconstructed readings, i.e. readings not given in the glosses but necessary for reconstructing a coherent transposed text, are to be indicated by capital letters in parenthesis. So-called ‘supplemented readings’ (보독), i.e. glosses with no corresponding character in the Classical Chinese text, are to be given in capital letters in square brackets. When multiple layers of glossing from different periods or by different hands are present within the same text, these layers may be distinguished by curly brackets: no brackets for layer 1, curly brackets for layer 2, double curly brackets for layer 3. When more than three glossing layers exist, curly brackets with a letter (a), (b), (c), (d), etc. or similar symbol indicating layer may be used. The same system can be used when multiple readings are attributed to a single character, compound or phrase by the same hand.

kana (가나점) and <i>jato</i> (자토) glosses	CAPITAL LETTERS
<i>wokoto-ten</i> (오토코점) and <i>jeomto</i> (점토) glosses	lowercase letters
reconstructed readings	(CAPITAL LETTERS IN PARENTHESIS)
supplemented readings (보독)	[CAPITAL LETTERS IN SQUARE BRACKETS]
alternate glossing layers	layer 1, {layer 2}, {{layer 3}}
	OR {(a) layer 1}, {(b) layer 2}, etc.

5.4. Other labels

Other metalinguistic labels such as Middle Chinese tone marks (성점), *fanqie* spelling guides (반절) or annotation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ading of the text are to be given in angle brackets on an ad hoc basis.

Two-lines-in-one annotations (할주) may be marked by double angle brackets with a vertical bar to mark a line break when deemed necessary.

tone marks (성점)	東<平>: east <PING>, east <LEVEL>, east <P>, east <L>, etc.
<i>fanqie</i> spelling guides (반절)	東<德紅切>: east <tok-huwng FQ>, east <FQ: tuwng>, etc.
two-lines-in-one (할주)	東<<德紅 切>>: east <<tok-huwng FQ>>, east <<FQ: tuwng>>, etc.

References

- Kobayashi, Yoshinori (小林芳規). 2012. 『平安時代の佛書に基づく漢文訓讀史の研究III—初期訓讀語體系』 汲古書院
- Nam, Pung-hyn. 2012. Old Korean. In: Tranter, Nicolas (ed.). *The Languages of Japan and Korea*. New York: Routledge.
- Whitman, John, Miyoung Oh, Jinho Park, Valerio Luigi Alberizzi, Masayuki Tsukimoto, Teiji Kosukegawa & Tomokazu Takada. 2010. Toward an International Vocabulary for Research on Vernacular Readings of Chinese Texts (漢文訓讀). *SCRIPTA* 2: 1-36.
- Whitman, John. 2011. The ubiquity of the gloss. *SCRIPTA* 3: 95-121.
- Whitman, John. 2015. ラテン語經典の独法と仏典の訓読. In: 新川登亀男編 『仏教文明の転回と表現—文字・言語・造形と思想』 勉誠社
- Zisk, Matthew. 2014. Motives for Semantic Borrowing and Calquing from Old Chinese into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014 Annual Conference, Minneapolis, Minnesota.
- Zisk, Matthew. 2015. Kambun Kundoku (Vernacular Reading of Chinese Texts) and Linguistic Borrowing. Paper presented at Séance Scientifique, Samedi 12 Decembre 2015: From Punctuation to Morphosyntactic Glosses: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Université Paris Diderot, Paris, France.
- Zisk, Matthew. 2016. Formation Principles and Diffusion of Chinese Loan Translations and Loan Derivations in Japanese. The 24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NINJAL, Tokyo, Japan.
- Zisk, Matthew. 2016. Sources Used in the Glossing of Classical Chinese Texts and Their Influence on Modern Japanese Orthography. Paper presented at Tapping Immaterial Resources: Glossing Practices between the Far East and the Latin West, c. 600 C.E., Goethe-University Frankfurt-am Main, Frankfurt, Germany.
- Zisk, Matthew. 2017. Three Types of Semantic Influence from Chinese through Kundoku Glossing on the Japanese Languag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the Linguistic Sciences,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Paris, France.
- Zisk, Matthew. 2018. Middle Chinese Loan Translations and Derivations in Japanese. Funaoka, Kenshi, Shigeto Kawahara & Christopher D. Tancredi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 24., Stanford: CSLI Publications.

口訣學會 第 55 回學術大會 (2018/08/16)

日本에서의 '漢文'의 概念과 變種

田中 草大 (Tanaka, Sota. 東京大學)

(1) 日本에서의 漢文의 定義・概念

‘漢文’은 日本에서 主로 다음과 같은 意味를 갖는다.

[1] 中國語 텍스트 (쓰여진 것)

[2] (中國語形式에 따른) 日本語 텍스트 (쓰여진 것)

cf. 日本에서의 ‘漢文’은 中等教育 ‘國語科’의 教育內容임.

...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 中國語 텍스트가 日本에서 受容된 經緯에 由來한다.

처음으로 日本人이 漢文을 받아들였을 때 (5 世紀頃), 當然히 그것은 外國語 文章이었다.

하지만 어떤 時點부터 (6 世紀頃?), 外國語 文章으로서의 中國語文을 ‘日本語文’으로 읽으며 解釋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可能하게 된 것은, 中國語文을 構成하는 文字, 卽 漢字が, 表語文字인 것에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卽, 各各의 漢字의 意味에 對應하는 日本語를 그 漢字의 讀音으로 定함으로써 (= ‘訓読み(뜻 읽기)’), 漢字를 日本語로 읽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이러한 뜻 읽기를 모든 말에 行하면, 中國語文을 日本語로 읽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그 외에 語順 調整도 必要).

이것을 ‘訓讀’이라 하며, 이것은 日本에서 오랫동안 中國語를 읽는 主要한 手段으로 자리잡았다.

(參考) 朝鮮에서의 釋讀

(參考) 遣唐使 停止(AD 894)는 日本人이 言語로서의 中國語를 멀리하게 만든 決定打가 되었다.

訓讀은 翻譯의 一種이지만, 한 글자씩의 翻譯이라는 點과 翻譯해도 原文이 남는다는 點에서 一般的인 翻譯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Whitman 2013, Zisk 2018).

어떻게 訓讀할지를 明示하기 위해 中國語文에 쓴 記號를 ‘訓點’이라 하며, 訓點이 있는 資料를 ‘訓點資料’라고 한다. 이것은 古代~中世 日本語를 알 수 있는 重要資料이다.

이러한 ‘訓讀’의 傳統에 의해, 日本에서의 中國語文 텍스트는 中國語로도 日本語로도 解釋된다.

→ 中國語: 텍스트 自體(即, 訓讀하기 前 狀態의 텍스트)에 着目하는 觀點

日本語: 訓讀을 前提로 하는 觀點

‘訓讀’・・・中國語 텍스트를 (日本語文으로) 읽는 方法

→ 이것을 逆方向으로 使用하면, 日本語文을 中國語文 形式에 따라 쓰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橋本進吉(하시모토 신키치)는 이것을 ‘漢文’이라고 불렀다 (橋本 1933).

・・・前近代의 日本에 있어서, ‘中國語로서의 中國語 텍스트’보다 ‘日本語로서의 中國語 텍스트’가 日常的인 文字表記에서 支配的이었다고 한다면, 漢文을 橋本과 같이 定義하는 것이 日本語史의 觀點에서는 便利하다.

(2) 日本에서의 2種類의 ‘漢文’

前述의 規定에 依據해 漢文을 ‘日本語를 中國語式으로表記한 것’이라 하면, 日本에서는 다음과 같은 2種類의 ‘漢文’이 使用되었다고 할 수 있다.

正格漢文: 中國語文 方式에 準하여 쓰여진 日本語文

變體漢文: 中國語文 方式에 準하지 않고 쓰여진 日本語文

中國語文 形式을 忠實하게 지키면서도 日本語文을表記하기에는, 制約과 困難이 많다.

例: 日本語 特有의 말 (例: 敬語), 活用語尾와 助詞, 語順

變體漢文에는, 正格漢文을 志向하면서도 意圖치 않게 日本語的인 要素가 섞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上記와 같은 制約을 避해 積極的으로 日本語的인 要素를 採用한 것이 많다.

・・・漢文 中에서, 中國語文 方式에서 벗어난 部分(≒日本語的인 要素)을 ‘和習’이라 한다.

變體漢文이 어떤 和習을 지니고 있었는지 平安(헤이안)時代의 事例를 中心으로 紹介하겠다.

・・・大略 아래와 같은 3項目으로 分類된다.

[1] ‘訓’에 依據한表記

例 1: 若無_レ仰者, 上卿可_二令_レ驚奏_一者, (九曆・天慶 7(944)年 9 月 14 日)

(若し仰せ無く者(ば), 上卿驚か令(し)め奏す可(べ)し者(てへり))

(萬若 指示가 없으면, 責任者가 連絡하여 말씀 올리라는 것이다)

例 2: 夕方, 可_下令_二出家_一給_上有_レ仰, (御堂関白記・寛弘 8 年(1011)6 月 14 日)

(夕方, 出家せ令め給ふ可き仰せ有り)

(저녁에 出家하셔야만 한다는 命이 있었다)

→訓을 使用함으로써 本來 中國語에 없는 語義・用法으로 擴張.

[2] 仮名(가나)의 使用

例 1 : 雨降, 上達部乗馬五六人, 糸星く見事無し極, (御堂関白記・長和 2 年(1013)12 月 22 日)

(雨降る, 上達部乗馬五六人, 糸星く見る事極まり無し)

(비가 내렸다. 간다치메(高位 貴族) 5, 6 名이 말을 타고 있었다. 이보다 더 막할 수 없었다.)

→萬葉仮名(만요가나)(漢字의 表音用法)의 例

例 2 : 悦思せる有二氣色一, (御堂関白記・寛弘 8 年(1011)6 月 14 日)

(悦び思せる氣色有り)

(기뻐하시는 모습이였다)

→平仮名(히라가나)의 例

→活用語尾 등을 表記하기 위해 仮名를 混用.

*‘あて字’(=同音異義語에 의한 表記)도 仮名에 準한다.

例 : 無二相違一可二下給一候也, 穴賢穴賢, (大舍人助某書狀・某年正月 10 日)

(相違無く下し給ふ可く候也, あなかしこ あなかしこ)

(꼭 (稅을) 보내 주십시오. 敬具)

※穴=ana=アナ (感嘆詞)

→中國語에 없는 말을 訓을 使用하여 宛字(아테지)(取音字)로 表記.

[3] 語順의 日本化

例 : 遅参由仰, (貞信公記抄・延長 3 年 (925) 6 月 3 日)

(遅参の由を仰す)

(늦는다고 말씀하셨다) cf. 仰遅参由

(3) 正格漢文과 變體漢文의 關係性

・・・兩者를 語學的으로 區別할 수 있다고 判斷하는 根據

[1] 使用處가 다르다.

正格漢文 : 文芸 (韻文・散文), 儀式, 外交

變體漢文 : 日常的인 政務 文書, 男性의 私的인 書狀・日記, 實用的인 著作物(例 : 매뉴얼)등

→萬若 變體漢文이 ‘어설픈 正格漢文’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變體漢文은 無作爲로

나타날 것이나, 그렇지 않다.

[2]同一人이 兩者를 併用하는 境遇가 있다.

例：藤原道長(후지와라노 미치나가)・・・“御堂關白記(미도칸파쿠키)” = 變體漢文

“本朝麗藻(혼쇼레소)”所收 漢詩 = 正格漢文

→萬若 變體漢文이 ‘어설픈 正格漢文’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同一人物이 (正格漢文에 더해) 變體漢文을 쓸 理가 없다.

[3] ‘往來物(오라이모노)’가 變體漢文으로 쓰여 있다.

・・・書簡文의 模範文例集

平安(헤이안)~鎌倉(가마쿠라)時代의 例：“明衡往來(메이코오라이)” (藤原明衡후지와라노아키히라), “和泉往來(가센오라이)”, “高山寺本古往來(고잔지본코오라이)”

→萬若 變體漢文이 ‘어설픈 正格漢文’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教科書에 變體漢文이 실릴 理가 없다.

→ 以上과 같이, 變體漢文은 ‘正格漢文이 영성해진 것’이 아니라, 그 自體로 獨立된 하나의 表記方法이었다고 看做할 수 있다.

(參考)變體漢文의 歷史

變體漢文의 例는 奈良(나라)時代(8C)以前부터 보인다. 平安(헤이안)時代(794-1185)以後는 男性의 日記와 公私文書에 常用되었다.

變體漢文은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明治(메이지)時代(1868-1912)쯤까지는 活發하게 사용되었다. 森鷗外(모리 오가이)와 夏目漱石(나쓰메 소세키)는 正格漢文을 쓰면서도 日常的인 便紙에는 變體漢文을 사용하기도 했다.

日本語 表記法으로서의 漢文은 現在 거의 絶滅했지만, 實은 歷史上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日本語 表記法 中 하나였다.

【文獻】

橋本進吉(1933)『国語学概論 下』岩波書店

Whitman, John (2013) 「他言語を自国語で読むこと：「訓読」の普遍性について」高田智和・小助川貞次 編『訓点資料の構造化記述 成果報告書』(国立国語研究所共同研究報告 12-08)

Zisk, Matthew (2018) “Toward a Set of Glossing Rules and Abbreviations for Citing Kundoku Texts”第 118 回 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配付資料

口訣学会 第 55 回学術大会 (2018/08/16)

日本における「漢文」の枠組みとバリエーション

田中 草大 (東京大学)

(1) 日本における漢文の定義・枠組み

「漢文」は日本では主に次の意味を持つ。

[1] 中国語のテキスト (書かれたもの)

[2] (中国語の形式による) 日本語のテキスト (書かれたもの)

cf. 「漢文」は日本では中等教育の「国語科」で教えられる。

・・・なぜこ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のか？

・・・中国語のテキストが日本で受容された経緯に由来する。

最初に日本人が漢文を受け入れた時 (5 世紀頃)、当然ながら、それは外国語の文章であった。ところがある時点から (6 世紀頃?)、この中国語文を「日本語文」として読むことによって解釈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ことが行われたのは、中国語文を構成する文字、則ち漢字が、表語文字であることに原因があると考えられる。則ち、各々の漢字が持つ意味に対応する日本語をその漢字の読みに定める (= 「訓読み」) ことで、漢字を日本語で読むことが可能となる。

この訓読みを、各語について行くと、中国語文を日本語として読むことが可能となる (※この他に語順の調整も必要)。

これを「訓読」と呼び、これは日本において長らく中国語を読む主要な手段であり続けた。

(参考) 朝鮮における釈読

(参考) 遣唐使停止 (894AD) が日本人から言語としての中国語を遠ざける決定打となった。

訓読は翻訳の一種であるが、一語ごとの翻訳である点と、翻訳しても原文が残るという点で、普通の翻訳と異なる (Whitman 2013, Zisk 2018)。

どのように訓読するかを明示するために中国語文に記した記号のことを「訓点」と呼び、訓点が付された資料のことを「訓点資料」と呼ぶ。これは古代～中世の日本語を知る重要資料である。

このような「訓読」の伝統により、日本では中国語文のテキストは中国語とも日本語とも解釈される。

- 中国語：テキストそのもの（則ち、訓読を経る前の状態のテキスト）に着目する観点
- 日本語：訓読を前提とする観点

「訓読」・・・中国語のテキストを（日本語文として）読む方法

→ これを逆方向に使うと、日本語文を中国語文の形式によって書くことが可能となる。・・・橋本進吉はこれを「漢文」と呼んだ（橋本 1933）。

・・・前近代の日本において、「中国語としての中国語テキスト」よりも「日本語としての中国語テキスト」の方が日常書記において支配的であったとすると、漢文を橋本のように定義する方が日本語史の観点からは便利。

（2）日本における 2 類の「漢文」

先述の規定に基づき、漢文を「日本語を中国語式に表記したもの」とすると、日本では次の二種類の「漢文」が用いられていた。

正格漢文：中国語文の方式に正しく則って書かれた日本語文

変体漢文：中国語文の方式に正しく則らずに書かれた日本語文

中国語文の形式を忠実に守りながら日本語文を表記するのには、制約や困難が多い。

例：日本語に特有な語（例：敬語）、活用語尾や助詞、語順

変体漢文には、正格漢文を意図して書かれたものの事故的に日本語的要素が混ざったものもあるが、むしろ上記のような制約を避けて積極的に日本語的要素を採り入れたものが多い。

・・・漢文の中の、中国語文の方式に外れた部分（≡日本語的要素）を「和習」と呼ぶ。

変体漢文がどのような和習を有するかについて、平安時代の事例を中心に紹介する。

・・・大別して以下の 3 つに分類される。

[1] 「訓」に基づく表記

例 1：若無_レ仰者、上卿可_二令_レ驚奏_一者、（九暦・天慶 7（944）年 9 月 14 日）

（若し仰せ無く者（ば）、上卿驚か令（し）め奏す可（べ）し者（てへり））

例 2：夕方可_下令_二出家_一給_上有_レ仰、（御堂関白記・寛弘 8 年（1011）6 月 14 日）

（夕方、出家せ令め給ふ可き仰せ有り）

→訓を用いて、本来の中国語にない語義・用法に拡張。

[2] 仮名の使用

例1：雨降、上達部乗馬五六人、糸星久見事無し極、(御堂関白記・長和2年(1013)12月22日)

(雨降る、上達部乗馬五六人、糸星く見る事極まり無し)

→万葉仮名(漢字の表音用法)の例

例2：悦思せる有二気色一(御堂関白記・寛弘8年(1011)6月14日)

(悦び思せる気色有り)

→平仮名の例

→活用語尾などを示すために仮名を混用。

*「あて字」(=同音異義語による表記)も仮名に準ずる。

例：無二相違一可二下給一候也、穴賢穴賢、(大舎人助某書状・某年正月10日)

(相違無く下し給ふ可く候也、あなかしこ あなかしこ)

※穴=ana=アナ(感嘆詞)

→中国語にない語を、訓を用いて宛字によって表記。

[3] 語順の日本化

例：遅参由仰、(貞信公記抄・延長3年(925)6月3日)

(遅参の由を仰す) cf. 仰遅参由

(3) 正格漢文と変体漢文の関係性

・・・両者が語学的に区別されると判断される根拠

[1] 用いられた場が異なる。

正格漢文：文芸(韻文・散文)、儀式、外交

変体漢文：日常的な政務における文書、男性の私的な書状・日記、実用的な著作物(例：マニュアル)など

→もし変体漢文が「不出来な正格漢文」でしかないのならば、変体漢文はランダムに現れるはずである。

[2] 同一人が両者を併用している場合がある。

例：藤原道長・・・『御堂関白記』 = 変体漢文

『本朝麗藻』所収の漢詩 = 正格漢文

→もし変体漢文が「不出来な正格漢文」でしかないのならば、同一人物が（正格漢文に加えて）変体漢文を書くはずがない。

[3]「往来物」が変体漢文で書かれている。

・・・手紙文の模範文例集

平安～鎌倉時代の例：『明衡往来』（藤原明衡）、『和泉往来』、『高山寺本古往来』

→もし変体漢文が「不出来な正格漢文」でしかないのならば、教科書に変体漢文が書かれるはずがない。

→ 以上のことから、変体漢文は「正格漢文の出来損ない」ではなく、それ自体が独立した一つの表記方法だった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

（参考）変体漢文の歴史

変体漢文の例は奈良時代（8c）以前から見られる。平安時代以降は、男性による日記や公私の文書に常用された。

変体漢文は、その姿を変えながらも、明治時代頃までは活発に用いられていた。森鷗外や夏目漱石は、正格漢文を書く一方で日常的な手紙には変体漢文を用いることがあった。

日本語表記法としての漢文は、現在ではほぼ絶滅してしまったが、実は歴史上最も長く用いられた日本語表記法の一つであった。

【文献】

橋本進吉(1933)『国語学概論 下』岩波書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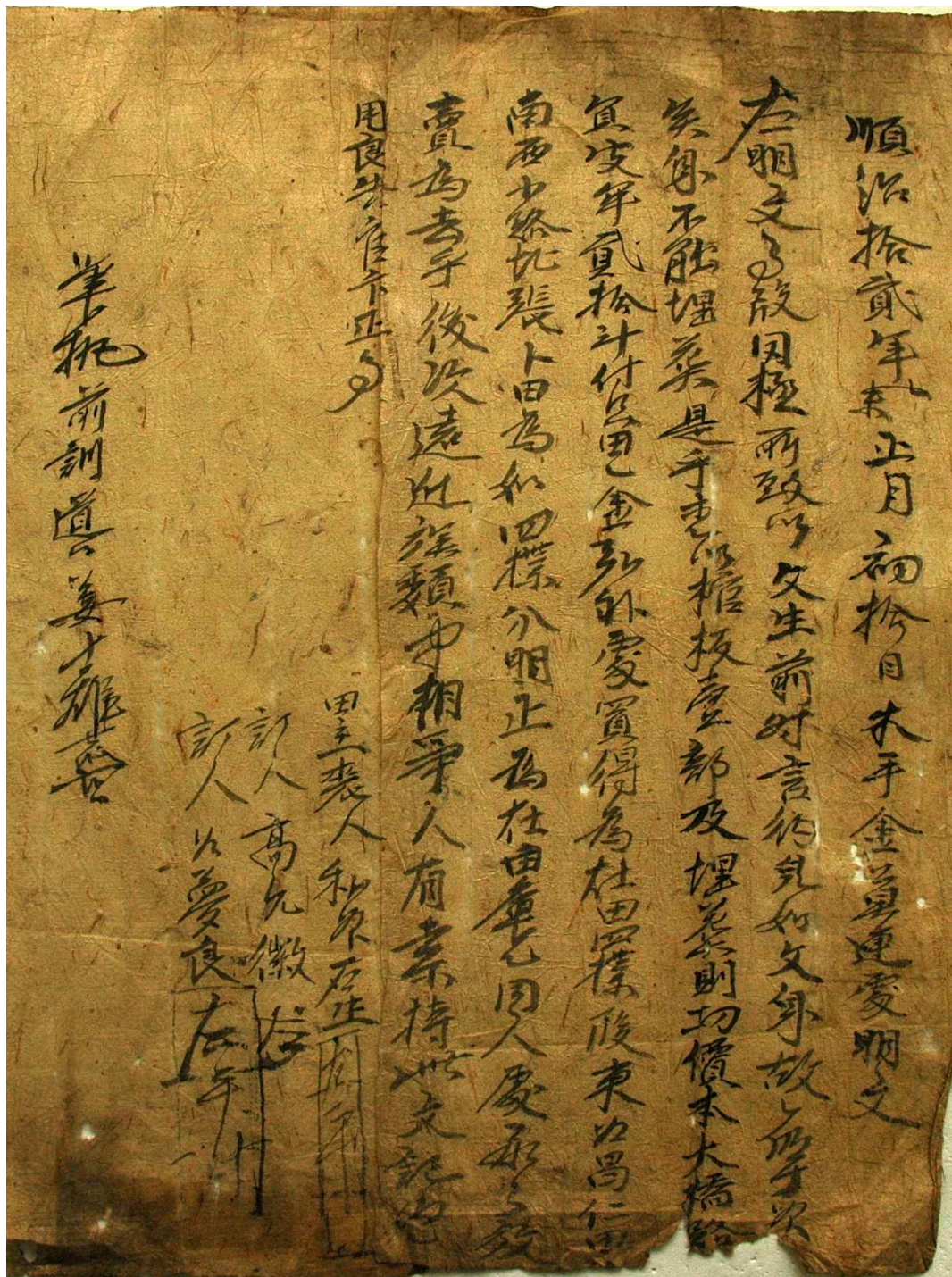
Whitman, John (2013) 「他言語を自国語で読むこと：「訓読」の普遍性について」高田智和・小助川貞次編『訓点資料の構造化記述 成果報告書』（国立国語研究所共同研究報告 12-08）

Zisk, Matthew (2018) “Toward a Set of Glossing Rules and Abbreviations for Citing Kundoku Texts”第 118 回 訓点語学会研究発表会配付資料

제주지역 이두 강독

오창명(제주국제대)

順治拾貳年【乙未】正月初拾日木手金莫連處明文



이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거주했던 水山姜氏 宗家에 전해온 전답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답문서는 순치 12년 을미(1655, 효종 6) 정월 초10일에 田主인 喪人 私婢 石生이 木手 金莫連에게 明文해 준 것으로, 訂人으로 高允徽와 奴 夢良이 참석하고, 筆執은 전 訓導 姜士雄이 담당했다.

이 문서를 활자화하면 아래와 같다.

順治拾貳年【乙未】正月初拾日木手金莫連處明文

右明文事段 罔極所致以 父生前時 言約兒如 父身故乙仍于婢//矣身不能埋葬是乎 乙以棺板壹部及埋葬則 功價本大橋路//員皮牟貳拾斗付只田乙金弘福處買得爲在田四標段東奴昌仁田//南西小路北張卜田爲如四標 分明正爲在田庫乙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次遠近族類中相爭人有去未持此文記內乙//用良 告官卞正事

田主喪人私婢石生(右手決)

訂人高允徽(手決)

訂人奴夢良(左手決)

筆執前訓導姜士雄(手決)

右【이미】 : 위. 위에. / 앞. 앞에.

事段【일쑤/일든】 : 일은. 일의 경우에는.

以【로】 : 로.

兒如【꺄다히】 : 兒如의 兒는 貌의 약체자이다. 兒如/貌如를 ‘가로혀’로 읽고, ‘-같이, -처럼, -대로’의 뜻을 가진 이두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兒如의 兒는 ‘모습이나 모양’의 뜻을 가진 ‘꺄’(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꺄’으로 나타난다.)의 훈독자, 如는 ‘다히’에 대응하는 표기로 보아야 한다. 兒如/貌如는 ‘모습(또는 모양. 문서에서는 주로 문서의 내용)과 같이/모습처럼’ 정도의 뜻을 가진 말로 보아야 한다. 貌 꺄 모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상:12>. 더 王돌히 一切 有情의그에 慈悲心을 내야 가도엿던 사름 노코 알피 니르던 양다히 더 藥師瑠璃光如來를 供養호스면 <『석보상절』(1447) 9:33>. 大臣이 닐오디 그러면 太子스 뜯다히 호리이다 <『석보상절』(1447) 11:20>. 호물며 一心으로 드러 닐그며 외와 大衆의거괴 님 위호야 고티 내 니르며 말다히 修行호스니쁘너 <『석보상절』(1447) 19:8>. 세 번 호뻘 소리 내야 술보디 世尊스 勸다히 다 奉行호스보리니 世尊하 분별 마르쇼셔 <『석보상절』(1447) 20:4>.

乙仍于【을지즐우】 : 을 말미암아 / 으로 말미암아

矣身【의몸】 : ~의 몸

是乎未乙以【이온들로】 : 인 것으로. 인 것이기 때문에.

及【및】 : 및

斗付只【*말붙이>말부찌】 : 말부치기. 씨앗 한 말 정도를 뿌릴 만한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말.

田【밭】 : 밭.

乙【을】 : 을

爲在【호건】 : 한.

段【든】 : 은. 의 경우에는.

爲如【호다】 : 爲未如에 未을 생략한 표기인 듯. 한 것대로. 한 것과 같이.

田庫【밭곳】 : 밭.

同【오힌】 : 같은.

爲去乎【헛거온】 : 하였으니.

有去未【헛거든】 : 있거든. 있으면.

內【안ㅎ】 : 안. 내용.

乙用良【을쓰아】 : 으로써.

事【스/일】 : 일.

大橋【한드리】 : 한 다리. 큰 다리.

大橋路【한드릿길】 : 한다리의 길. 큰다리의 길.

<해석>

순치 12년【을미】 정월 초10일 목수 김막런에게 밝히는 글

앞에 밝히는 일의 경우에는, 어버이 은혜가 한이 없는 까닭으로,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한 言約
와 같이 (한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계집종의 몸을 매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을 짜는 널
빚지 1부 및 매장하는 공력의 값으로 한드릿길 지경에 있는 길보리 20말부치기의 밭을, 이 밭은 金弘
福에게 산 밭으로, 사방의 경계표의 경우에, 동쪽은 사내중 창인의 밭이고, 남서쪽은 작은 길이고, 북
쪽은 장복의 밭인 것과 같이 사방의 경계표가 분명하게 바른 밭곳을 같은 사람에게 영원히 팔았으니,
나중에 촌수가 먼 일가나 가까운 일가 가운데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기의 내용을 가지고서
관에 알리고 따져서 바로잡을 일이다.

전주 상인 사비 석생 (우촌형 수결)

정인 고윤휘 (문자형 수결)

정인 사내중 몽랑 (좌촌형 수결)

필집 전 훈도 강사웅 (문자형 수결)

同治八年己巳十一月二十五日
先世掃祭條列錄文

十一代祖父母主掃祭條段皮文里內二庫合
皮年二石五斗付

十代祖父母主掃祭條段西明里明岳負
皮年三石付及西洪里小邊回項負二庫合
年十斗付

九代祖父母主掃祭條段今岳北過總川田負
相換田粟種一斗八升付及皮文里內相換田
數年五斗付及里內負乾番租種二斗付

八代祖父母主掃祭條段水希木巨負乾番
租種五斗付及巨東水負乾番租種五
斗付及同負二庫合粟種五斗付及農
家水負粟種七斗付及明月城內負皮
年十斗付及山乃田負粟種二斗付

七代祖父母主掃祭段日家基田二合皮年二石付

六代祖父母主掃祭段明月水閣負租種一斗五升付及者古川負租種
化田皮年六石付及家坐田皮年十斗付及外孫輔祭條段吃田
負粟種八斗付及今岳西過猪田負粟種一斗付

五代祖父母主掃祭段今岳西過坪代水東過負乾番租種二斗付
及者古川負皮年一石五斗付及同負皮年十斗付

高祖父母主掃祭段明月水閣負租種一斗付及皮文里內負麻子五斗
付及同負山坐田皮年五斗付及不峯下負皮年二石付

曾祖父母主掃祭段明月島者水負租種一斗五升付及潛魚川大橋負
租種一斗三升付及西明里內分基田負皮年十八斗付及今岳北過負粟
種二斗付及同負相換田皮年七斗付及同負墓坐田粟種四斗付及
明家田負墓坐田粟種一斗付及者古川負皮年一石付
祖父母主掃祭段明月北城低紙木負租種六斗付及今岳西過
莫金巨負皮年一石五斗付及皮文里內負所謂金哥基皮年
十斗付

父母主

門長 元卿
宗孫 恒仁

이 문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거주했던 水山姜氏 宗家에 전해온 전답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답문서는 동치 8년 기사(1869, 고종 6) 11월 25일에 門長 元弼과 宗孫 恒仁이 글로 써서 남긴, 先世 掃祭條를 죽 벌여서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를 활자화하면 아래와 같다.

同治八年己巳十一月二十五日 // 先世掃祭條列錄¹⁾文
 十一代祖父母主掃祭條段皮文里內二庫合 // 皮牟一石五斗付
 十代祖父母主掃祭條段西明里明岳員 // 皮牟三石付及西洪里小遶回 項員二庫合 // 皮牟十斗付
 九代祖父母主掃祭條段今岳北過總川田員 // 相換田粟種一斗八刀付及 皮文里內相換田 // 皮牟五斗付及
 里內員乾畝租種二斗付
 八代祖父母主掃祭條段水希木巨員乾畝 // 租種五刀付及巨東水員乾畝 租種五 // 刀付及同員二庫合粟種
 五刀付及農 // 家水員粟種七刀 付及明月城內員皮 // 牟十斗付及山乃田員粟種二斗付
 七代祖父母主掃祭段旧家基田二合皮牟二石付
 六代祖父母主掃祭段明月西門外月鷄員租種一斗五刀付及者古川員所謂 // 化田皮牟六石付及家坐田皮牟
 十斗付及外孫輔祭條段吃田 // 員 粟種八刀付及今岳西過楮田員粟種一斗付
 五代祖父母主掃祭段今岳西過坪代水東過員乾畝租種一斗付 // 及者古 川員皮牟一石五斗付及同員皮牟
 十斗付
 高祖父母主掃祭段明月水閣員租種一斗付及皮文里內員麻子五斗 // 付 及同員山坐田皮牟五斗付及下岩
 下員皮牟二石付
 曾祖父母主掃祭段明月烏者水員租種一斗五刀付及潛盃川大橋員 // 租 種一斗三刀付及西明里內分基田
 員皮牟十八斗付及今岳北過員粟 // 種二斗付及同員相換田皮牟七斗付及同員墓坐田粟種四刀付及 // 明
 素田員墓坐田粟種一斗付及者古川員皮牟一石付
 祖父母主掃祭段明月北城低紙水²⁾員租種六刀付及今岳西過 // 莫今巨 員皮牟一石五斗付及皮文里內員所
 謂金哥基皮牟 // 十斗付
 父母主

門長 元弼

宗孫 恒仁

1) 원문에는 綠으로 되어 있는데, 錄의 잘못인 듯하다.

2) 원문에는 木과 같이 보이는데, 水의 잘못인 듯하다.

掃祭條 :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지내는 조.

輔祭條 : 조상의 제사를 돕는 조.

祖父母主 : 여기서 主는 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뜻하는 말이다.

斗付 【*말붙이>말부찌】 : 말부치기. 한 말부치기는 한 말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150평 정도이다. 한 말을 부쳐 먹을 만한 논밭이라는 뜻으로 썼다.

石付 【*섬붙이>섬부찌】 : 섬부치기. 한 섬부치기는 한 섬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한 말부치기의 열 배이며, 논은 약 2,000평, 밭은 약 1,000~1,500평을 이른다. 한 섬을 부쳐 먹을 만한 논밭이라는 뜻으로 썼다.

刀付 【*되붙이>뒤투찌】 : 뒤투치기. 한 뒤투치기는 벼씨 한 되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한 마지기의 10분의 1이다. 한 되를 부쳐 먹을 만한 논밭이라는 뜻으로 썼다.

皮牟 : 겉보리.

租種 : 벼씨. 제주방언에서는 예로부터 ‘밭벼’에 대응하는 한자어 山稻의 변음인 ‘산디 · 산뒤 · 산뒤’ 등으로 불려왔다.

粟種 : 조 씨. 제주방언에서는 주로 ‘줍씨’라고 했다.

皮文里 【갓그리믈】 : 지금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 옛 이름 ‘갓그리믈’의 차자표기.

西明里 【서맹월믈】 : 지금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한 마을.

明岳 【붉은오름】 : 지금 제주시 명월리 ‘붉은오름>붉은오름’의 차자표기.

西洪里 【서홍로믈】 : 지금 서귀포시 서홍동 옛 이름 ‘서홍로믈’의 차자표기.

回項 【도로목】 : 지금 서귀포시 서홍리 ‘도로목’(>도루목)의 차자표기.

今岳 【금을오름/검은오름】 : 今勿岳악에서 勿을 생략한 차자표기.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금을오름’ 또는 ‘검은오름’의 차자표기 가운데 하나. 이 오름 가까이에 있는 마을을 今勿岳里라 하다가 나중에 今岳里라 했다.

細川田 【-내왓?】 : 細는 삼베(삼실로 짠 천) 또는 시마(細麻: 가는 베로 만들어 상사(喪事)에 입는 옷)를 뜻하는 말인데, 훈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가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水希木巨 【무희남케>무의남케】 :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지명? 제주방언에서 ‘산호(珊瑚)’를 ‘무이낭, 무희낭’이라 하는데, 다른 나무를 이르는 것인 듯하다. ‘케’는 잡초가 자라는 들판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相換田 : 서로 맞바꾼 밭.

巨東水 【케동물?】 : ?

農家水 【농가물/농개물】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ㄱ레동산’ 북쪽에 ‘논개물, 논가물’ 등으로 전하는 물 이름 지명이 있는데,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쓴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山乃田 【살레왓】 :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용다니하원’ 남쪽에 있는 밭을 ‘살레왓’이라 하는데, 이의 차자표기이다. ‘살레’는 ‘찬장(饌穢)’을 이르는 제주방언이다.

旧家基田 【묵은집터왓】 :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세미왓’ 남쪽에 있는 밭을 ‘묵은집터’ 또는 ‘묵은집터왓’이라 하는데, 이의 차자표기이다.

月鷄 【월계】 : 지금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와 옹포리 경계에 있는 ‘월계’의 차자표기. 보통 月溪로 표기되었는데, 여기서는 月鷄로 표기되었다.

者古川 【자고내】 :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자고내’(오늘날은 주로 ‘자구내’로 알려짐.)의 차자표기.

化田 【뎨밭】 :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뎨밭’의 차자표기.

家坐田 【집아진밭】 : 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집아진밭’의 차자표기.

吃田【홀왓】：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홀왓’의 차자표기.

楮田【닥밭】：‘닥밭’의 차자표기. 지금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중동 동쪽에 있는 밭으로, 닥나무가 있는 밭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坪代水【병테물>뽕디물】：지금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뽕디물’의 옛 이름 차자표기.

水閣【물각】：‘물각’의 차자표기.

山坐田【산아진밭】：‘산아진밭’의 차자표기.

下岩下【알바우알?】：‘알바우알?’의 차자표기.

烏者水【오자물】：지금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오자물’의 차자표기.

潛盞川【즈베남내?】：오늘날 명월리에 ‘췌남내’라 전하는 내가 있고, 그 내 하류에 있는 다리를 ‘췌남넛드리’라고 한다. 潛盞川과 ‘췌남내’의 음성형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와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보인다. 한편 명월리에 ‘즈베나목>즈베나목·즈베낭목’ 등으로 전하는 지명도 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억지 추정을 하자면, 潛盞川은 ‘즈베남내’의 불완전한 차자표기이고, 이 ‘즈베남내’가 오늘날 ‘췌남내’ 정도로 음상이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大橋【큰드리>큰더리】：‘큰드리>큰더리’의 차자표기.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 서쪽에 있었던 다리를 이른다. 이 다리 가까이에 형성된 못을 ‘큰드리못>큰더리못’이라 하고, 이 못 가까이에 형성되어 있던 논을 ‘큰드리>큰더리’ 또는 ‘큰드리논>큰더리논’이라 했다.

分基田【분터왓?】：?

墓坐田【묘아진밭】：‘묘아진밭’의 차자표기.

明素田【명소왓?/붉은소왓?】：?

紙水【종잇물?/종인물?】 / 低紙水【눅인물?】

莫金巨【막금이케】：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막가름케’(막금이케?)의 차자표기인 듯.

金哥基【김가터>짐개터】：‘짐개터’의 차자표기.

<해석>

동치 8년 기사(1869, 고종 6) 11월 25일 선세의 소제조를 벌려 기록한 글

11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갓그리믄을 안 2곳을 합하여 걸보리 1섬 5말부치기이다.

10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서명리 붉은오름 지경의 걸보리 3섬부치기 및 서흥리 小遶 도로목 지경의 2곳을 합하여 걸보리 10말부치기이다.

9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금을오름 북변 總川田 지경의 相換田 범씨 1말 8되부치기 및 갓그리믄을 안 相換田 걸보리 5말부치기 및 마을 안 지경의 乾畚 범씨 2말 부치기이다.

8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무희남케 지경의 乾畚 범씨 5되부치기 및 케동물 지경의 乾畚 범씨 5되부치기 및 같은 지경의 2곳을 합하여 좁씨 5되부치기 및 농개물 지경의 좁씨 7되부치기 및 명월 성안 지경의 걸보리 10말부치기 및 살래왓 지경의 좁씨 2말부치기이다

7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묵은집터왓 2곳을 합한 걸보리 2섬부치기이다.

6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명월 서문 밖 월계 지경의 범씨 1말 5되부치기 및 자고내 지경의 소위 뽕밭의 걸보리 6섬부치기 및 집아진밭의 걸보리 10말부치기 및 외손의 보제조는 홀왓 지경의 좁씨 8되부치기 및 금을오름 서변 닥밭 지경의 좁씨 1말부치기이다.

5대 조부모주의 소제조는 금을오름 서변 뽕디물 동변 지경의 건답 범씨 1말 부치기 및 자고내 지경의 걸보리 1섬 1말부치기 및 같은 지경의 걸보리 10말부치기이다.

고조부모주의 소제조는 명월 물각 지경의 범씨 1말부치기 및 갓그리믄을 안 지경의 삼씨 5말부치기 및

같은 지경의 산아진밭 겉보리 5말부치기 및 下岩下 지경의 겉보리 2섬부치기이다.
증조 부모주 소재는 명월 오자물 지경의 벼씨 1말 5되부치기 및 즈배남내(?) 큰드리 지경의 벼씨 1말 3되부치기 및 서명리 안 분터왓 지경의 겉보리 18말부치기 및 금을오름 서변 지경의 좁씨 2말부치기 및 같은 지경의 相換田 겉보리 7말부치기 및 같은 지경의 묘아진밭 좁씨 4되부치기 및 명소왓 지경의 묘아진밭 좁씨 1말부치기 및 자고내 지경의 겉보리 1말부치기이다.
조부모주 소재는 명월 북성 늦인물(?) 지경의 벼씨 6되부치기 및 금악 서변 막가름케(?) 지경 겉보리 1말 5되부치기 및 갓그리믈 안 지경 소위 김개터(>짐개터) 겉보리 10말부치기이다.

문장 원필

중손 향인

<지역 특집 발표>

濟州牧에서 開刊된 古文獻 冊板 分析

윤봉택(서귀포예총 회장)

I. 서론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 제주에서 처음 개간된 책판은 官版이 아니라, 고려조 충렬왕 22년(1296) 妙蓮社¹⁾에서 판각된 『金光明經文句』²⁾라는 寺刹板本이다.

『金光明經文句』는 호국삼부경의 하나로서, 이 판본은 지금까지 제주에서 개간된 판본 가운데 가장 시대가 앞선 것으로서, 13세기 제주도가 원나라 지배하에 있을 때 사찰에서 개간되었다.

그동안 제주에서 개간된 冊板 사실이 수록된 자료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王朝實錄』, 『攷事撮要』, 『耽羅志』, 『南槎日錄』, 『知瀛錄』,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鏤板考』,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이 있다.

이들 사료는 제주에서 개간되었던 책판류에 대하여 「冊板目錄」과 「冊版庫 目錄」으로 분류되어 기록된 자료로서, 제주지방의 책판류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문헌 자료들을 통하여 책판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료에서 나타난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를 중심으로, 당시 제주목에서 발생하였던 화재로 인하여 제주목관아지가 모두 소실되었음에 따라, 책판 개간 시기와 성격에 대한 시대 분류를 1435년, 1677년 두 차례 화재 시점을 중심으로 1~3기로 시대 구분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1~3기 중에 개간된 冊板類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II. 濟州牧에서 開刊된 冊板類 分析

1. 초기 冊板 改刊과 時代 分流

제주에서는 13세기 제주 妙蓮社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板刻을 시작으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板刻文化 형성은, 조선이 건국되고 난 후, 조정에서 지방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의 한 결과이다. 조정에서는 제주목에 대하여도 “태조 3년(1394)에 敎授

1)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佛宇 條 ; “妙蓮寺 在州西南二十里 ……”

2) 이 佛典은 순천 송광사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분실되었다.

官을 두어 土官의 자제를 교육시켜 上京 侍衛하게하고 千戶 등의 관직을 주도록 했다.”³⁾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정에서는 지방 감영에 醫書 등 서책을 내려 보내 교육에 힘쓰도록 하였고, 감영 등에서는 이러한 서책을 底本으로 하여 책판을 조성 인출하고 향교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하였다.

이렇게 지방 감영에서 개간된 간인본이나 책판에 대하여서 “조정에서는 전국의 書冊을 정비하고 脫簡·落字를 修補하며 판본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조사토록 하여,”⁴⁾ “각 도 고을에 보관된 冊板은 신·구 수령이 교대할 때 무슨 책판이 몇 쪽임을 명백하게 기록 인계하되, 재임 중에 파손·유실된 판본에 대하여는 보충하여 인계”⁵⁾토록 하였다. 또한 각도 감사에게는 서로 다른 고을과 같은 서책이 간행되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음대로 서책을 간행하거나 타 도와 같은 책판을 개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⁶⁾

이와 같이 조선조의 “官板本은 중앙의 校書館 혹은 주자소에서 인출한 국가의 典章·史書 및 왕가의 기록 등과 같은 중요한 官撰書에 속한 것인데, 대개 중앙에서 먼저 활자판에 인쇄하여 관계의 관서 및 관원들에게 頒賜하게 된다. 그러나 널리 반사의 필요가 있는 것이나 또는 후대에까지 널리 전해야 될 중요한 서책들은 그 활자본을 지방의 각 감영에 보내어 관명으로써 다시 각판케 하며, 때로는 서책의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교서관이나 감영에서 각판케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사가의 저술이라도 국가 사회의 발전과 교육문화의 향상에 중요한 것이라면 관명으로써 중앙이나 지방관서에서 각판하게 하는 예도 적지 않다.”⁷⁾

지방 자제들이 간혹 과거에 급제하면서 무예보다는 경서를 보아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하는 자제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감영에서는 學舍가 없고 판각으로 인출된 서책이 없어 자제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해당 지역의 승려들을 징발하여 학사를 신축하고 판각에 필요한 자재를 모으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서를 간행하도록 하면서 많은 지방 관판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⁸⁾

조정에서는 이와 같이 체계 있게 책판을 개간·관리·보전하려 하였으나, 책판을 관리·인출을 총괄하는 “校書館의 관리들이 冊板을 방치하거나 또는 유실·훼손·부패하여 못쓰게 될 때까지 방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⁹⁾하여, 당시 지방 감영의 冊版庫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판본의 보존과 관리 운영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중종 26년(1531) 제주 출신으로 여겨지는 高根孫이가 쓴 『大慧普覺禪師書』¹⁰⁾寺刹板

3) 『朝鮮王朝實錄』, 太祖 三年 三月 二十七日 丙寅 (條) : 都評議使司上言 濟州 未嘗置學校, 其子弟不入仕於國 故不識字不知法制 各所千戶 率皆愚肆作弊 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又以赴京侍衛從仕者 許爲千戶百戶 以給筭付上從之.

4) _____, 世宗 六年 三月 十四日 辛卯 (條).

5) _____, 世宗, 七年 九月 一日 丁酉 (條).

6) _____, 世宗 十四年 八月 三日 己丑 (條), 成宗 二年 一月 十四日 丁亥 (條).

7)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探求堂, 1974), p. 231.

8) 『朝鮮王朝實錄』, 世宗 十年 五月 六日 丁巳 (條) : 咸吉道 監司 崔鑄 啓 本道地極北鄙 前此不設學校 識字者蓋寡 今文明之化廣被 大小州縣 各置教官 生徒之額 不減他道 登科第者 比比有之 人皆觀感 漸拋馳馬試劍 咸願叩篋橫經 然或學舍未備 且無板刻經書 學者患之 伏望依各司營造例 募僧構學舍 啓聞賞職 又募僧刊行經書 姑將道內二三年濟用監納神稅布及犯罪人沒官財産 收贖錢布 換紙以印 分于各官下禮曹禮曹啓 請依所啓 但印書紙 則以道內公儲布物 量宜支給上曰 可給一年貢納神稅布.

9) 『朝鮮王朝實錄』, 世祖 四年 四月 二十八日 丙戌 (條).

본이 있다. 이는 “조선 초기의 독자적 판본 중에서도 당대의 명필가인 成達生과 成概 형제를 비롯하여 省琚·空菴·黃振孫 등 독특한 필법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힘 있게 쓴 것 등을”¹¹⁾ 들 수가 있는데, 『大慧普覺禪師書』는 승려들이 講院에서 四集 교재로 사용되는 『書狀』인바, 당시 제주에 거주하였던 板書者인 高根孫이 제주도에서 쓴 판각용 淨書本을 판각한 것이 있어, 당시 제주인들의 板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목에서 책판 조성은 조정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목민관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板書者들에 의해 정서본을 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694~6년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李益泰는 당시 濟州牧에서의 冊版 조성과 보존·인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주에 있는 冊版은 일찍이 화마¹²⁾로 인하여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그 후에 『四書諺解』,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의 冊版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冊版을 보관할 藏閣이 없어서 제주향교 내에 있는 東齋에 보관하고 있다. 봄 가을 재를 모실 때, 여러 유생들이 齋에 머무르면 그 유생들로 하여금 冊版을 마당으로 꺼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구차하기 때문에 入番하는 下人으로 하여금 番을 면제하는 대신 藏閣의 재목을 구해 오도록 했다. 그래서 大木은 5~6명, 中木은 3~4명, 小木은 매 사람마다 나누어 모은 것을 가지고 冊版을 보관할 5칸의 藏閣을 지어 그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책을 印出할 때에는 齋任이 冊版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교생들이 각각 冊版 제작에 필요한 板材를 하나씩 준비하여와 『小學』, 『諺解喪禮備要』, 등의 冊版을 만들고 싶다하였다.

이에 營牧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刻手 70여명을 뽑아 각각 당번을 세워 板木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板刻을 잘하는 善手 10여명에게는 별도로 급료를 주고, 校正토록 하였는데, 3개월 후 板刻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또한 宣廟御筆인 『大字草書』 八帖을 板刻하였다.

그리고 새로 板刻한 『小學』 및 『喪禮』는 3帙을 찍어 내어 제분한 후, 濟州牧 · 旌義縣 · 大靜縣에 있는 鄉校에 나누어 줬다.¹³⁾

10) 『大慧普覺善師書』, 목판본, 단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소장, 刊記 : 順治四年丁亥(1647) 六月 慶尙道靑松土普賢山普賢寺重刊, 嘉靖十年(1531)辛卯之春 有一道人請求曰大慧說文雖有舊本字細故老德對目前欲觀其而未詳哉畫中則以謂視之而書于濟州上將在家居士高根孫.

11)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민음사, 2004), p. 151.

12) 李增 著 ; 金益洙 譯, 『南槎日錄』, 1680년, 부록(영인본), (제주:제주문화원, 2001), 公廨 (條) : 冊版庫 丁巳(1677)失火諸冊板□燒云.

13)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695, 부록(영인본), (제주:濟州文化院, 1997), p. 121~122. 增減十事 (條) : 本州冊版曾因回祿之災蕩然無餘其後所備四書 俱諺解疑禮問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 置於鄉校東齋春秋釋采諸生齋宿時出板外庭罷 齋後還入置非但苟艱多有風雨致傷之弊故令入番下人除番鳩村而大木則五六名中木則三四名小木 則每名分芝收聚造成五間屋於校中以為藏置冊 板而印出時則齋任主管開閉且校生輩各備板材 一立欲刊小學及諺解喪禮備要等冊者抄々云出故營牧下 人中可合刻手者七十餘名各其當番使之刻役又 擇其善手數十名給料校正三閱月而畢功又得 宣廟御筆大字草

이처럼 李益泰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시기에 제주목에는 “官府의 화재(1677년, 丁巳)로 인하여 책판이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화재 이후에 판각된 『四書諺解』와 『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 冊板만이 제주향교에 임시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후 1696년 鄉校의 校生들의 청에 의하여 당시 제주목사였던 李益泰에 의해 『小學』, 『喪禮備要』¹⁴⁾ 등이 새롭게 판각되었고, 책판을 보관할 藏閣도 건립하였다”¹⁵⁾. 이 가운데 『諺解喪禮備要』와 『小學』은 李益泰목사가 지방 교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판각하였고, 또한 『宣廟御筆大字草書』 8첩을 판각하여 冊版庫에 보관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제주목에서는 1418년 『禮記淺見錄』이 개간된 이후 세종 17년(1435) 안무사 崔海山 때 官府가 실화¹⁶⁾되었고, 그리고 다시 1677년 2차 화재가 발생되어 관아를 비롯한 책판고가 소실되면서, 제주목에 관한 고문헌 및 책판류 등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濟州牧의 冊板 板刻 시대 구분은 제1기 1418~1435년, 제2기 1435년~1677년, 제3기는 1678년~1899년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2. 冊板 板刻과 筆寫

제주지역에서의 책판 조성은 당시 제주목에 거주하고 있는 刻手들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판각에 필요한 판재는 직접 수혜자인 향교의 교생들에 의하여 공급이 되었으며, 鍊板 처리는 각수들이 담당 하였다.

판각은 각수 중에서 새김이 뛰어난 善手들을 별도 선발하여 일정의 급료를 지불하였고 직접 교정을 하도록 하였다. 印出은 최소한의 필요한 부수로 한정하였다. 인출에 필요한 印紙는 도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북제주군 한림지역과 서귀포시 효돈동 지역에서 닥나무를 재배하여 종이를 제작하였다는 증언¹⁷⁾이 있다.

이와 같이 책판 개간은 19세기 까지 지역민의 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이뤄졌고 판각에 필요한 판재 수급과 연관 또한 지역민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판각이 이뤄지는 등 당시 제주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판 조성 과정 등이 확인되었다.

제주에서 이처럼 板刻이 쉽게 이뤄질 수가 있었던 것은, 기후·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아열대 수종인 후박나무·담팔수나무·녹나무 등 목재나 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산림 자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시대 제주에서 대형 선박이나 사찰 건립에 필

書八帖入梓而新刊小學及喪禮印 出三件粧冊分上三邑鄉校.

14) 『喪禮備要』, 목판본, 1책,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康熙三十四年歲在乙亥(1695년)冬濟州鄉校開刊.

15)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997), p. 121~122. 增減十事 (條) : 本州冊版曾因回祿之災蕩然無餘其後所備四書 俱諺解疑禮問解剪燈新話史略等板而無藏閣權.

16) 李元鎮, 『耽羅志』, (1653년), 建置沿革 (條) : 世宗十七年按撫使崔海山時官府失火文籍盡爲灰□惜哉.

17) 康丁生, 1929년 11월 7일생.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166-5), <採錄日 2004. 6. 9. 서귀포시 향토사료전임연구원 尹奉澤>.

요한 목재들이 강제로 몽고나 고려로 보내어 지고, 이러한 목재들은 대장경 제조¹⁸⁾ 등에도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며, 지금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에는 후박나무와 담팔수¹⁹⁾·녹나무²⁰⁾·각종 난대림지대²¹⁾ 등이 해안 가까이 까지 많이 자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조선조 초기부터 濟州牧에도 지방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官學인 향교와 私學기관인 서원과 서당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각종 書冊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태조 3년(1394) 濟州鄉校 설립을 시작으로 세종 2년(1420)에 旌義鄉校와 大靜鄉校가 각각 세워졌다. 서원은 선조 11년(1578년) 冲庵 金淨을 추모하기 위하여 橘林書院이 설립되었고, 중종 29년(1534) 서당으로서는 처음으로 鄉學堂이 설립되었다. 이후 인종 원년(1545) 金寧精舍와 月溪精舍, 영조 12년(1736) 三泉書堂 등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지방 자제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가 제주목에서 자체적으로 편각하여 冊板庫에 보관하면서 인출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제주목에서 편각되어 유통되었던 濟州牧藏本에 대한 책판 기록은, 조선조 제주목사로 임명된 목사 가운데 재임 중에 만들어진 私撰邑誌인 『耽羅誌』의 「冊板庫」目錄과 『朝鮮王朝實錄』 그리고 기타 史料 등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다. 邑誌에는 관찬읍지와 사찬읍지가 있는데 지방의 내용을 수록 발간한 地理誌이다.

제주도의 경우 관찬읍지 발간은 18세기에 와서야 이뤄졌으며, 正祖 年間에 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濟州邑誌』와 『濟州大靜旌義邑誌』가 있다. 그러나 私撰邑誌는 이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濟州牧民官으로서 私誌를 편찬한 牧使는 효종 4년(1653) 『耽羅誌』를 편찬한 李元鎮과 헌종 9년(1843) 『耽羅誌草本』을 草稿 편찬한 李源祚가 있다.

이후에도 『耽羅誌』 2종이 추가로 편찬되는데, “일본 동경대학교 소장본 『耽羅誌』”²²⁾는 1848년 제주방어사로 부임한 張寅植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1902년 경 南萬里가 편찬한 『耽羅誌』”²³⁾라 여겨지고 있으나, 『耽羅誌』 2종 모두가 편찬 구성과 내용이 『耽羅誌』의 것을 傳寫하였고 이후의 것만 보충하는 등,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邑誌의 편집구성은 해당 지역에 대해 沿革·姓氏·風俗·形勝·山川·土產·城郭·防護所·宮室·倉庫·學校·鄉約·軍兵 등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성종 18년(1487) 敬差官으로 제주를 探勝했던 崔溥는 “州에 소장된 옛날 역사를 찾고자 하였으나, 官府의 화재로 모두가 소실되었다고 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이 땅은 옛날에 나라로 삼고 星主·王子를 封한지가 천 여년이 되었는데, 지난날의 沿革과 유적이 없어져서 들어볼 수가 없으니 참으로 한스러울 뿐이로다. 그리하여 野史를 찾아보고 父老에게 여쭙 보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추슬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어 耽羅詩 35絶을 엮고 합쳐서 한 편을 만들어 뒤에 붙인다. 州人으로 하여금 정사하여 책을 만들어 이 邑에 보관케 함으로써 장래에 참고가 되는 文獻으로 삼고자한다.”²⁴⁾하여 筆寫本을 만들어

18) 千惠鳳, 『韓國 書誌學』 (2004), p. 149.

19) 천연기념물 제163호, 『서귀포 담팔수나무 자생지』, 1966년 1월 31일(지정).

20)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1964년 1월 31일(지정).

21) 천연기념물 제375호, 『남읍난대림지대』, 1966년 1월 31일 (지정), 제주시 애월읍 소재.

22)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제주:경신인쇄사, 1989).

23) 濟州市 ; 濟州大學校博物館 共編, 『濟州牧 地誌總攬』 (제주:세림원색인쇄사, 2002), p. 23~24.

濟州牧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3. 제주목에서 개간된 冊板類 分析

가. 『冊板目錄』의 冊板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목록이 기록된 자료로는 『攷事撮要』, 『古冊板有處攷』, 『林園十六志』, 『鏤板攷』 등이 있다.

『攷事撮要』는 명종 9년(1554)에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이다. 본서는 原撰된 후, 영조47년(1771) 徐明膺에 의해 攷事新書로 대폭 개정증보 되기 이전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續撰과 改修가 이뤄²⁵⁾졌다. 현재 원찬본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선조18년(1585)에 간행된 목판본²⁶⁾을 영인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본 『攷事撮要』의 八道程途 全羅道 十一日半程 濟州(條)에서는 “제주목의 책판에 대하여는 『東國史畧』, 『浣花流水』”²⁷⁾ 등 2종이 있는 사실을 확인되었다.

『古冊板有處攷』는 “1책 29장에 7개 도를 다시 고을 별로 나눈 다음 책판을 기록한 것으로 편자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책이 첫 머리에 ‘海東地志三十五冊中記載 姜世晃豹庵時代寫本’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海東地志』에 수록된 책판에 관한 기록을 간추려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海東地志』는 豹庵 姜世晃(1713~1776)시대의 필사본으로 내용이 各人各筆이고 題簽은 豹庵의 親筆임을 宋錫夏 舊藏本인 原鈔本이 밝혀 주고 있다.”²⁸⁾ 그러므로 이 地志에서 傳載한 冊板은 姜世晃의 생존한 英祖代까지의 것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책판목록의 傳寫本은 尹炳泰도 소장하고 있다.²⁹⁾ 이로 미루어 『古冊板有處攷』는 姜世晃(1713~1776)이 죽은 영조 52년(1776)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³⁰⁾된다. 본 고에서는 정형우·윤병태가 편찬한 『韓國의 冊板目錄』³¹⁾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인용하였다. 『古冊板有處攷』에는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濟州島), 慶尙道, 江原道, 黃海道, 咸鏡道 등 전국 7도에 보관되어 있는 책판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濟州島에 관한 책판목록 수록은 全羅道の 羅州郡·光州郡의 다음

24) 李元鎮, 『耽羅志』, 목판본, 1653년, 題詠(條): 崔溥三十五絶 渤海之南天接水 保我生平伊尹志. 崔溥는 1486년(성종 17년) 『東國輿地勝覽』 교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1487년(성종 18년) 9월에 敬差官으로 제주에 왔었다.

25)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부산:도서출판 민족문화, 1983), p. 7.

26) 『攷事撮要』, 木版本, 2권 1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8개도 119지방 989종의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

27)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1995) (上), p. 105. 『攷事撮要』: 八道程途 全羅道 十一日半程 濟州(條): 冊板東國史畧 浣花流水.

28) 千慧鳳 解題, 「古冊板所在攷 寫本 舊石南藏」, 『古書目錄集成』 (서울:동국대학교도서관, 1962), p. 333~334.

29) 安美璟, 「朝鮮時代 千字文 刊印本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28.

30) 南權熙, 『古印刷文化』 8집 (2001), p. 226.

31)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下 (1995), p. 769~770. 『古冊板有處攷』: 全羅道 濟州島(條).

으로 濟州島에 대한 책판목록을 기록하였다. 全羅道 濟州島(條)에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具諺解板各一秩, 宣廟御筆草書 板,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 板, 新增類合, 春種書類, 顏真卿書, 敬齋箴書, 石峰書, 雪峰書, 篆字板, 太公事筆 板, 出師表, 草書大字中字, 板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板各一秩具, 大靜縣(條) 史略 初板一件 등 35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林園十六志』는 113권 52책 필사본으로 조선 후기에 농업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이다. 전체 열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林園十六志』 또는 『林園經濟志』라 한다. 순조 때의 실학자 徐有渠(1764~1845)가 만년에 저술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긴요한 일을 살펴보고 이를 알리고자하여 『山林經濟』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저서 900여 종을 참고 인용하여 엮어낸 농업 위주의 백과사전으로서, 정조 20년(1796) 이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은 本利志 13권, 灌畦志 4권, 藝畹志 5권, 晚學志 5권, 展功志 5권, 魏鮮志 4권, 佃漁志 4권, 鼎俎志 7권, 贍用志 4권, 葆養志 8권, 仁濟志 28권, 鄉禮志 5권, 游藝志 6권, 怡雲志 8권, 相宅志 2권, 倪圭志 5권 등 16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방대한 저술은 농업기술과 농업경제의 양면에서 종전의 농업이 크게 개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향촌에서의 생활 전반을 시대적 조건과 관련시켜 정연하게 정리한 실학서이다. 책판목록은 『林園十六志』 卷百五 怡雲志 卷七에 수록되어 있다.³²⁾ 〈經類〉 三經四書大全(九十卷), 禮記淺見錄(二十六卷), 喪禮備要(二卷), 疑禮問解(四卷), 疑禮問解續解(一卷), 增補三韻通考(一卷), 〈史類〉 三國誌(六十五卷), 通鑑節要(五十卷), 十九史略通考(八卷), 耽羅志(一卷), 〈子類〉 小學集說(六卷), 擊蒙要訣(二卷), 三略直解(三卷), 兵學指南(五卷), 〈集類〉 密山世稿(二卷) 등 15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經類〉 三經四書大全(九十卷), 疑禮問解(四卷), 疑禮問解續解(一卷), 增補三韻通考(一卷), 三略直解(三卷) 등 5책이 누락되었다.

『鏤板考』³³⁾는 필사본으로 7권 3책이다. 정조 2년(1778) 전국 관아를 비롯 관가, 사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의 판본을 중앙에 보고토록 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규장각에서 정리한 것이며, 정조 20년(1796) 규장각 관원이었던 徐有渠에 의하여 종합 분류 목록화한 책이다. 『鏤板考』의 제주목 책판에 관한 기록은 卷二 經部 禮類 條에 禮記淺見錄 二十六卷, 喪禮備要 二卷, 疑禮問解四卷 續解, 小學類 條에 增補三韻通考 一卷, 卷三 史部 通史類에 三國誌六十五卷, 通鑑節要 五十卷, 十九史略通考 八卷, 耽羅志 一卷, 卷四, 子部 上 儒家類 條에 小學集說 六卷, 童蒙先習 一卷, 擊蒙要訣 二卷, 兵家類에 三略三卷, 兵學指南 五卷, 雜纂類에 千字文 一卷, 卷六, 集部 總集類 條에 密山世稿, 嶺海唱酬錄 등이 있으며, 이 중 『嶺海唱酬錄』³⁴⁾의 간인본이 남아 있다. 책판목록은 鏤板考券第二(經部 上) 禮類 雜禮書 17部 中 禮記淺見錄 二十六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二十三牒八張, 喪禮備要 二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二牒十二

32) 정형우, 윤병태가 편찬한 『한국의책판목록』의 『林園十六志』를 인용하였다.

33) 徐有渠 著, 李鍾萬 編, 洪命喜, 『鏤板考』, 영인본(필사본), 전7권 3책, (서울:大同出版社, 1941).

34) 朴星錫(朝鮮)編, 李世成(朝鮮)監, 高福星(朝鮮) 校, 『嶺海唱酬錄』, 木版本, 규장각 소장, 1701년(肅宗 27年), 序, 後刷, 1冊(63張) : 四周單邊, 半葉匡郭: 22.2×17 cm, 有界, 10行18字, 版心 : 上下內向花紋魚尾 ; 34×22 cm. 序 : 歲在辛巳(1701)…南九萬. 刊記 :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 : 濯白唱酬錄.

張, 疑禮問解 四卷 · 續解 一卷 : 濟州牧藏 印紙七牒一張, 小學類 5部 中 增補三韻通考 一卷 : 濟州牧藏 印紙二牒一張. 鏤板考券第三(史部) 通史類 11部 中 三國志 六十五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二十五牒一張, 通鑑節要 五十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三十牒二張, 十九史略通考 八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十七牒十張, 掌故類 地理 등 12部 中 耽羅志 一卷 : 濟州牧藏 印紙二牒一片(李翊漢). 鏤板考券第四(子部 上) 儒家類 41部 中 小學集說 六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八牒八張, 童蒙先習 一卷 : 濟州牧藏 印紙八張, 擊蒙要訣 二卷 : 濟州牧藏 印紙一牒六張, 兵家類 15部 中 三略 三卷 : 濟州牧藏 印紙一牒七張, 兵學指南 五卷 : 濟州牧藏 印紙二牒七張, 雜纂類 3部 中 千字文 一卷 : 濟州牧藏 刊缺 印紙一牒一張. 鏤板考券第六(集部 上) 總集類 密山世稿 : 濟州牧藏印紙一牒十二張(朴忠元 卷6-5전), 嶺海唱酬錄 : 濟州牧藏印紙一牒十六張(朴忠元 권6-5후) 등 16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17종이라 하였다.

나. 문헌자료의 「冊版庫 目錄」

조선조 제주목의 「冊版庫」에 보존되었던 「冊板目錄」 및 書板目錄 자료가 수록된 문헌으로는 『耽羅志』, 『南槎日錄』, 『知瀛錄』,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南槎日錄』,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耽羅誌』,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의 「冊版庫 目錄」에 대한 자료가 없다.

『耽羅志』는 목판본으로 단권 1책의 지리지이며 1653년에 간행되었다. 간본은 국내 여러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耽羅志』의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黃紙紅絲로 되어 있고 表題는 耽羅志, 규격은 가로 23cm, 세로 35.4cm이다. 변란은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으며, 半郭의 크기는 가로 16.9cm, 세로 25cm이고, 界線이 있다. 半葉은 8行으로 行字數는 20字씩 배자되어 있다. 版心題는 耽羅志이며 그 아래로 張數 표시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二葉花紋黑魚尾이다. 卷首題는 耽羅志이고 다음 行으로 三邑의 표시를 알리는 '濟州' 세 번째 行에는 建置沿革 條로 이어지며, 張數는 81張이다. 卷末에는 '耽羅志 終, 이며 다음으로 '耽羅一域僻處海外三姓神人之耽羅一域 尾遂不敢辭敬爲之跋' 다음 行으로 '癸巳季秋上澣 平城後人申纘謹跋'이라 하여 『耽羅志』가 1653년 가을에 李元鎮에 의해 제주목에서 판각 인출되었다는 申纘의 발문이 있다. 『耽羅志』의 저자 李元鎮(1594~1665)은 문신으로서, 본은 驪州, 자는 昇卿, 호는 太湖·漁隱이다. 광해군 4년(1612)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15년 인목대비의 폐모론과 관련하여 귀양 갔다가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인조 11년(1633) 홍문관 수찬이 되었고, 1635년 순천부사, 인조 22년(1644) 동래부사, 1649년 강원감사, 효종 2년(1651) 6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653년 10월에 이임하였다. 재임 시에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표류해 오기도 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었다. 『耽羅志』는 李元鎮이 이임하던 1653년 『東國輿地勝覽』을 참고로 하여 찬술되었다. 발문은 당시 濟州鄕校 教授였던 申纘이 썼다. 발문에서 申纘은 『耽羅志』의 자료 정리는 冲庵의 『風土錄』에서 중요한 것을 취하고 각기 문헌 등 자료를 인용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고 했다. 다음은 발문 중 관련 내용이다.

지금 李太湖 漁隱공이 제주목에 부임한 이래 民風을 상고하고 俗情을 살핀 다음 圖籍을 보니 황당무계함을 개탄하고 고을 백성들의 무지몽매함을 근심하였다. 이에 『東國與地勝覽』을 참고하여 고을의 자취를 살피고 또한 본 기록에 누락된 것을 모아 한편의 책으로 엮어 내었다. 그러면서 沖庵의 『風土錄』에서는 중요한 것을 취하였다. 使客의 樓觀에 대한 題詠은 그 화려한 것은 수집하되, 번잡한 것은 추스리고 간명한 것은 헤아려 이것을 길이 전하고자 匠人들을 모아 판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士人 高弘盡³⁵⁾에게 명하여 감독과 교정을 맞게 하였다. 그 후 한달이 지나서 목판이 완성되었다. 목판이 완성되자 初印한 후 冊版은 校宮에 비치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이후로부터 이 고을의 일을 알고자한다면 이 『耽羅志』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고금의 사실을 널리 수집하여 가려낸 후 미미한 것 까지 살폈으니, 이 고을의 인물과 旌義縣 · 大靜縣의 산천을 비롯하여 명승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1653년(癸巳) 9월 상순에 平城 後人 申纘³⁶⁾이 삼가 跋을 쓰다.³⁷⁾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耽羅志』는 李元鎮이 1651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 후 제주목을 순력하고 난 후, 『東國與地勝覽』을 참고로 하여 제주목의 제반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임 26개월여 동안 자료를 정리한 것임이 나타난다. 그 후 도내 장인을 모아 책판을 판각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감독 및 교정은 제주 선비였던 高弘進³⁸⁾이 담당하였다. 목판의 판각은 한달 여 만에 완성이 되었다. 완성된 책판으로 初印本을 인출한 李元鎮은 책판을 제주향교 내에 보관하게 하여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耽羅志』의 책판은 숙종 3년(1677)에 화마³⁹⁾로 일부 소실이 되었다. 『耽羅志』의 濟州牧 倉庫條에는 司倉, 東別倉, 西別倉, 常平倉, 歸厚倉, 紫電庫, 清霜庫, 息波庫, 朝天庫, 別防庫, 涯月庫, 明月庫, 火藥庫, 戶籍庫, 州司, 營繕, 氷庫, 冊版庫, 旗幟庫, 獄 등 20개의 창고가 있고, 이

35) 高弘進은 제주 출신이다. 선조 35년(1602)에 태어났다. 본관은 濟州, 字는 退而이다. 현종 7년(1666)에 丙科에 급제하였다. 濟州牧의 教授와 성균관 典籍을 지냈다.

36) 申纘 (1613~?)의 본관은 平山, 字는 子述, 효종 2년(1651)에 式年試에 丙科2로 합격하였으며 察訪을 지냈다.

37)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耽羅志 終 耽羅一域僻處海外三姓神人之前邈矣不可詳己 自羅迄麗千有餘年間偉人碩士往往間出蜚英藝 花接武昭代而類占遷喬之進率爲揚庭之臣故若 人苗裔之瑄紳者鮮有居士厥後聞人之作漸不逮 於古此邦文獻之無徵者蓋以是也前此州府雖有 耽羅之記而撲焉不精略焉不詳者舊無所傳後生 無所考豈非斯州之一大欠乎今者李太湖漁隱公 刺州以來考民風察俗情慨圖籍之無稽愍鄉珉之 曹識於是取輿地勝覽究其往蹟又采本記之闕遺 者述爲一編之書而沖庵風土之錄撮其要者使客 樓觀之詠掇其華者刪煩就簡謀壽其傳鳩工鐫梓 而受命士 高弘進監校其役閱旬月而告訖頒印 之後置板於學宮以爲鄉人之傳覽自茲以後欲知 是州之事者觀此志足矣蒐羅今古剔抉眇微一州 人物之衆二縣山川之勝無不備述不惟爲士者得 稽往古之事跡抑亦爲後來觀風之一助然則公之 述是記者其有惠於遐壤而開牖於輿俗者不亦大 矣乎于斯時也公以秩滿解歸而徵余不肖之贅卷 尾遂不敢辭敬爲之跋 癸巳季秋上澣平城後人申纘謹跋.

38) 高弘進은 1602~1682 조선중 문신, 자는 退而, 본관은 제주, 제주시 이호동에서 고정순(高定舜)의 셋째 아들로 출생하여 어려서 학문을 쌓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주목사 李元鎮과 함께 靈洲誌 . 고려사 . 탐라사기 등 각종 문헌을 탐구 고증하였고, 효종 4년(1653) 8월에 목판으로 탐라지를 편찬 간행에 감독 및 교정을 맡았다. 1664년 문과에 급제하여 1666년 성균관의 式年榜에, 다시 문과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가 수년 후 귀향하였다.

39)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997), 公廨 (條) : 冊版庫 丁巳(1677)失火諸冊板 燒云.

‘倉庫’條에 ‘冊版庫’가 있다. 당시 ‘冊版庫’는 제주목 내에 있는 濟州鄉校에 있었으며,⁴⁰⁾ 冊版庫에 보존되어 있는 冊板類는 34종, 書板類는 7종 등 총 41종이다.

『耽羅志』‘冊版庫’에서 특이한 것은 책판을 책판류와 서판류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책판목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구분된 서판류는 子部 중 藝術類에 속하는 것을 서판류로 분류하였음을 볼 수가 있으며, 책판목록 중 冊板類는 書傳大文, 詩傳大文,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孝經,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十九史略, 唐詩絕句, 三韻通考, 將鑑博議, 玉壺冰, 牧民心鑑, 兵學指南, 剪燈新話, 千字, 圃隱集, 冲庵集, 東溟集, 續靑丘風雅抄, 家禮, 童子習, 童蒙先習, 類合, 正俗, 擊蒙要訣, 救急方, 經驗方, 馬牛方, 耽羅志(1653년 간). 書板類는 春種, 赤壁賦, 藤王閣序, 浣花流水, 草千字, 退溪書, 聽蟬書 등 34종의 책판과 7종의 서판 등 총 41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南槎日錄』은 稿本으로서 단권 1책이며 1680년대에 筆寫되었다. 개인소장이다. 책의 첫 장에는 서문 없이 바로 卷首題로 이어지고 있다. 卷首題는 南槎日錄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으로는 己未八月濟州牧使 ...으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張數는 136張이며, 卷末에는 義州府尹李公碣銘으로 噫噫奈何로 마치고 있다. 『南槎日錄』의 저자인 李增(1628~1686)은 문신으로서, 본은 全州, 자는 成大이며 양녕대군의 8세손이다. 현종 3년(1662) 생진과에 급제하였고, 숙종 5년(1679) 8월에 제주목에서 前목사와 정의현감의 비행이 드러나 조정에서는 李增을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南槎日錄』은 李增이 1679년 9월 16일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되어 1680년 4월 4일 이도할 때 까지 5개월 동안 행적을 청음의 『南槎錄』에 따라 일기체 형식으로 엮어낸 고본이다.

李增은 제주목을 순력하면서 1680. 2. 7일 제주목의 관아 건물을 용도별로 기록하였다. 책판고에 대하여는 “丁巳年(숙종 3년, 1677) 화재 때에 모든 冊板이 소실”⁴¹⁾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耽羅志』에 수록된 책판고 소장 판본 41종은 丁巳年 화재 때 대부분 소실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知瀛錄』은 筆寫本으로 단권 1책이며 1696년에 筆寫되었다. 본서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있다. 『知瀛錄』의 형태적 특징은, 표지는 黃紙紅絲로 線裝되어 있으며, 表題는 知瀛錄, 규격은 가로 17.6cm, 세로 26.4cm이다. 첫장에는 지영록 서문이 있고, 다음 행으로는 圓嶠一域即海中 ...丙子(1696년)暮春 行節制使延安後人書于臥仙閣으로 되어 있다. 卷首題는 知瀛錄으로 되어 있고, 다음 행으로는 甲戌五月余在韓山 ...으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후에 부록 형식으로 숙종대의 외국인 漂流關聯記錄이 수록 되어 있으며, 張數는 111張이다. 卷末에는 표류기의 기록으로 同年十月二十七日防船也로 마치고 있다. 『知瀛錄』의 저자인 李益泰(1633~1704)는 문신으로서, 본은 延安, 자는 大裕, 호는 冶溪이다. 현종 1년(1600) 司馬試의 초시·복시에 합격하였으며, 1770년 吏曹佐郎, 현종 12년(1671)에 외직인 함경도 高山察訪에 임명되었다. 숙종 7년(1681)에 공주목사, 1687년에 서산 郡守, 숙종 20년(1694) 同副承旨, 62세가 되던 해 5월 26일에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숙종 22년(1696) 2월에 遞去되고, 1703년 병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2년간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한라산에 두 번 등정할

40) 李元鎮, 『耽羅志』, (1653년), 倉庫 (條) : 冊版庫 在鄉校 …… 聽蟬書.

41) 李益泰 著 ; 金益洙 譯, 『知瀛錄』, (1997), 公廨 (條) : 冊版庫 丁巳失火諸冊板□燒云.

만큼 巡歷을 하였다. 관덕정과 운주당 등을 중창하였고, 耽羅十景을 선정하여 畫屏으로 耽羅十景圖를 남겼다. 『知瀛錄』은 이익태가 제주목사에 제수를 받고 난 후 임기를 다하고 체거될 때까지 2년 동안 기록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冲庵의 『風土記』, 청음의 『南槎錄』, 임제의 『南溟小乘』, 이원진의 『耽羅志』를 살펴보면서 재임기간 동안 기록하여 놓은 일기에 謄錄을 첨삭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편집하고 書名을 『知瀛錄』이라 하였다. 처음에 한 책으로 2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주목에 비치하고 하나는 이임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지금의 『知瀛錄』은 후자의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9대손(完熙)이 보존하여 오다가 2002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李益泰 목사에게 의하여 당시 제주목에서 새롭게 조성한 책판류는 『小學』, 『諺解喪禮備要』 등이다. 이 중 『諺解喪禮備要』와 『小學』은 지방 교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또한 『宣廟御筆大字草書』 8점을 관각 보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당시 화재 이후 四書와 『諺解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등 일부 책판만이 새롭게 관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耽羅志』의 冊版庫나 『知瀛錄』의 기록에는 없으나,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冊版類는 4冊이 확인되었으며 『知瀛錄』에 수록된 冊板類는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諺解疑禮問解, 剪燈新話, 史略, 小學, 諺解喪禮備要, 宣廟御筆大字草書 등 10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耽羅誌草本』⁴²⁾은 稿本으로 전4권 1책으로 1841년에 편찬되었다. 耽羅誌草本의 卷首題는 耽羅誌卷之一이고 다음 行으로 三邑의 표시를 알리는 ‘濟州’ 세 번째 行에는 建置沿革 條로 이어지고 있다. 卷二의 分卷은 자세하지가 않다. 卷三은 奇聞 條에서 시작된다. 卷四는 旌義 條부터 시작되며 卷末題 없이 官案 條의 마지막으로 高性奎에서 마치고 있으며 발문 등은 없다. 『耽羅誌草本』을 남긴 李源祚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서 1792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星山, 초명은 李永祚, 자는 周賢, 호는 毫宇, 凝窩이며 시호는 定憲으로 1871년에 사망하였다. 순조 9년(1809)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1812년 권지 승문원 정자에 임명된 이후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예부 감찰, 예조·병조 좌랑, 정언 등을 거쳐, 1840년 강릉 부사, 1841년 제주 목사가 되었다. 그 이후 형조 참의와 춘추관 편수관, 우부승지·좌승지, 대사간, 좌승지 겸 상의원 부제조, 경연 참찬관, 병조참판, 한성부 판윤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용양위 대호군 겸 지의금부사·지춘추관사, 공조 판서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凝窩文集』, 『性經』, 『凝窩雜錄』, 『布川誌』, 『布川圖誌』, 『武夷圖誌』, 『耽羅錄』, 『耽羅誌草本』, 『耽羅關報錄』, 『耽羅啓錄』 등이 있다. 『耽羅誌草本』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현종 7년(1841) 3월 부임하여 1843년 6월 이임할 때 까지 제주도의 역사·지리·인물 등에 대하여 이원진의 『耽羅志』(1653년)를 저본으로 하여 기록한 초고본이다. 『耽羅誌草本』의 濟州牧 倉庫 條에는 賑恤倉, 補民倉, 雇馬庫, 牧子庫, 鑄役庫, 覃恩庫, 司倉, 萬戶倉, 平役庫, 場稅庫, 戶籍庫, 營繕庫, 火藥庫, 紫電庫, 息波庫, 朝天庫, 明月庫, 旗幟庫, 冊版庫 등 19개의 창고가 있고, 이 ‘倉庫’ 條에 冊版庫가 있다. 당시 “冊版庫는 제주목의 城 남쪽”⁴³⁾에 있었으며, 冊版庫에 보존되어 있는 冊版類는 37종으로서,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42) 李源祚 編纂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편집, 『耽羅誌草本』, 筆寫本(영인본), 1841년간,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p. 140.

43) 李源祚 編纂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편집), 『耽羅誌草本』, 筆寫本(영인본), 1841년간, (1989), p. 140. 倉庫(條) : 冊版庫 在南城內.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⁴⁴⁾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峰帖 雪峰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책판이 훼손되어 찍어 낼 수 있는 판이 얼마 되지 않았다.”⁴⁵⁾하였다. 冊板目錄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⁴⁶⁾, 密山世稿, 玉壺冰,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峰帖, 雪峰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등 36종의 책판 목록 사실과 소장된 책판 대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濟州邑誌』는 단권 1책이며 필사본으로 편찬 시기는 미상이나 正祖 연간에 조사된 읍지의 後寫本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규장각 소장본으로 실사하였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表題는 濟州邑誌, 규격은 가로 18.5cm, 세로 29.8cm이다. 卷首題는 濟州邑誌이고 다음 행으로 濟州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張數는 38張이다. 내용은 濟州邑誌, 大靜縣誌, 旌義縣誌 순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卷末題 없이 정의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데, ‘冊板 無’이다. 본 邑誌에는 다른 자료와는 달리 三邑(濟州·大靜·旌義)에 대해 각각 책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제주읍의 冊版庫⁴⁷⁾는 관덕정 동쪽에 있었다. 冊板에 대한 기록은 濟州邑의 내용 말미에 冊板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주읍에 보관된 책판으로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具諺解板各一秩 宣廟御筆草書板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板 新增類合 春種書 顏眞卿書 敬齋箴書 石峯書 雪峯書 篆字板 太公口筆板 出師表 草書大字中字板 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⁴⁸⁾’ 등 36종이 있었으나, 모두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大靜縣에는 책판이 “史略 初卷板 일건”⁴⁹⁾이 있었으며, “旌義縣에는 冊板”⁵⁰⁾이 없었다. 책판목록은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 新增類合, 春種書, 顏眞卿書, 敬齋箴書, 石峯書, 雪峯書, 篆字板, 太公口筆, 出師表, 草書大字中字, 地圖, 馬醫, 兵學指南, 三略, 焰硝新方, 捷解新語. 大靜縣 冊版庫 史略(初卷板) 등 36종의 책판 목록 사실과 소장되어 있는 책판 대부분이 훼손되어 인출하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고, 대정현 책판고에 史畧 初卷板이 보존된 것으로 보아 현에서도 책판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는 단권 1책이며 필사본으로 “편찬 시기는 미상이나 1793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⁵¹⁾되고 있으며 규장각 소장본으로 실사하였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44)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刊記: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 濯白唱酬錄.

45) 李源祚 編纂 : 제주대학교담라문화연구원(편집), 『耽羅誌草本』, 筆寫本(영인본), 1841년간, (1989), p. 140. 倉庫(條): 冊版庫 在南城內 論語 捷解新語 諸板太半朽剝又多□失可印者少.

46)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47) 『濟州邑誌』,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濟州邑 倉庫 冊版庫(條): 在觀德亭東.

48)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濟州邑 冊版(條).

49)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大靜縣, 冊版(條): 冊板 史略初卷板一件.

50)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旌義縣, 冊版(條): 冊板 無.

表題는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규격은 가로 22cm, 세로 31.8cm이다. 표지 다음으로 내지에는 濟州大靜旌義라 하였고, 다음 장으로 卷首題는 濟州邑誌이며 같은 장에 제주읍지의 지도가 있고, 다음 장으로 建置沿革이 이어지고 있다. 張數는 46張이다. 내용은 濟州邑, 大靜縣, 旌義縣 순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卷末題 없이 정의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데 冊板 無이다. 본 邑誌에는 『濟州邑誌』와 같이 三邑(濟州·大靜·旌義)에 대해 각각 책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冊板에 대한 기록은 濟州邑의 내용 말미에 冊板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제주읍에 보관된 책판으로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三略 焰焰新方 捷解新語”⁵²⁾ 등이 있었으나 책판 상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大靜縣에는 “책판 史略”⁵³⁾이 있었으며, 旌義縣에는 “冊板”⁵⁴⁾이 없었다. 확인된 책판목록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略,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三略, 焰焰新方, 捷解新語 등 29종의 책판 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耽羅誌』⁵⁵⁾는 1책이며 영인본(활자본)으로서 편찬 시기와 저자가 미상이다. 일본 동경대 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表題는 耽羅誌이다. 卷首題는 耽羅志卷之一이며 다음으로 濟州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은 濟州邑, 大靜縣, 旌義縣 순으로 되어 있다. 卷末에는 卷末題 없이 정의현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데, “冊板 無”이다. 당시 冊板⁵⁶⁾에 대한 기록은 濟州邑 冊版庫⁵⁷⁾에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성의 남성 안에 있다고 하였다. 당시 제주읍에 보관된 책판으로는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畧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玉壺氷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畧 焰焰新方 捷解新語 諸板太半 朽剝又多□失可印者少”⁵⁸⁾라 하여 대부분의 책판이 훼손 또는 마모되어 있었으며, 책판목록은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宣廟御筆草書, 史畧, 通鑑, 剪燈新話, 童蒙先習, 擊蒙要訣, 喪禮備要, 疑禮問解, 禮記淺見錄, 新增類合, 三國誌, 三韻通考, 嶺海唱酬錄, 密山世稿, 玉壺氷, 牧民心鑑, 千字文, 春種帖, 顏眞卿帖, 朱子筆敬齋箴, 石峯帖, 雪峯帖, 篆千字文, 太史公筆, 耽羅地圖, 馬醫方, 耽羅誌, 兵學指南, 三畧, 焰焰新方, 捷解新語 등 36종의 책판목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光武三年五月日邑誌』는 단권 1책이며 필사본으로서 광무 3년(1899)에 편찬되었고 규장각

5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검색, 해제검색,

<http://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2.jsp/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4. 4.

52)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濟州邑 冊版 (條).

53)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大靜縣, 冊版 (條): 冊板 史畧.

54) _____, 필사본, 규장각 소장본, 旌義縣, 冊版 (條): 冊板 無.

55)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56) _____,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耽羅誌卷之一 濟州 倉庫 (條): 冊版庫 在南城內.

57) _____,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耽羅誌卷之一 濟州 倉庫 (條): 冊版庫.

58)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 5 (1989), p. 110.

소장본으로 실사하였다. 형태적 특징으로 표제는 濟州邑誌, 表題는 규격은 가로 18.7cm, 세로 26.5cm이다. 표지 다음으로 채색지도가 있다. 다음 장으로 내지에는 第一七號 다음 향으로 光武三年五月日邑誌이고 다음 장으로 卷首題는 光武三年五月日邑誌이고 다음 향으로 濟州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張數는 26張이다. 卷末에는 遮歸鎮西距一百里 다음 향으로 濟州郡守 金熙胃라 하여 당시 제주군수가 조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光武三年五月日邑誌』의 倉庫(條) 冊版庫⁵⁹⁾는 구 교동에 있다고만 하였을 뿐, 책판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現存本 자료

濟州牧에서 개간된 책판 중 현전하는 책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현전 책판류는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木板 11종이다.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목판에 대하여 濟州牧에서 개간한 사실 여부는 證言⁶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 중 현존 간인본은 11종으로 파악되었다. 현존 冊板에 대한 형태적 특징과 현존 간인본은 다음과 같다.

1) 現存 冊板類

〈1〉 『판독미상』 권2, 1종, 5~6張.

板式：四周單邊, 全郭 18.3×24.3cm, 有界, 半葉 8行20字, 無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판독미상』의 목판은 권(미상) 중 5~6 등 여러 판이 있으나 알 수가 없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5~6張을 기준으로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24.3cm 세로 18.3cm이며 앞 뒤면으로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8행으로 한 행은 20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위의 어미만 하향되어 있고 아래는 없는 흑어미이다. 版心題는 없으며 어미 아래로 卷二라는 卷數 표기와 五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의 전곽을 제외한 부분이 여유가 없을 만큼 제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孟子大全』 권6, 1판.

板式：四周單邊, 全郭 20.6×33cm, 有界, 半葉 10行 미상, 上下向 黑魚尾.

59) 『光武三年五月日邑誌濟州邑誌』, 필사본, 1899년(광무3년, 5월), 규장각 소장본. 冊版庫(條): 舊校洞.

60) 吳文福, 金益洙, 증언(2006. 3. 9. 채록 윤봉택), ‘당시 판재들을 관리했던 관리들이 제주목 「책판고」에 보존되어 있던 책판들을 마루 판재나 건축 자재용으로 처분했고, 당시 시민들은 이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마루 판재로 사용을 하였다. 현재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판본들은 마루 판재로 사용되다가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채집된 판각들이기 때문에 마루판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孟子大全』의 목판은 권6 중 17장 1板 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3cm 세로 20.6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이나 배자 상태는 알 수가 없다. 어미가 없다. 版心題인 ‘孟子大全’과 그 아래로 卷六이라는 卷數 표기와 十七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卷末의 마지막 행에 ‘孟子大全 卷六之□’라고 되어 있다. 권말판이라 行의 자수를 알 수가 없지만,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제주목에 보존되었던 목판들이 한일합방을 거치면서 대부분 마루나 건축 자재용 등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3〉 『孟子諺解』 권9·14, 4판.

板式：四周雙邊, 全郭 21×33cm, 有界, 半葉 10行 18字, 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孟子諺解』의 목판은 권(미상), 권(미상) 중 25장, 권9 중 8장과 제주교육박물관 소장 『孟子諺解』의 목판 권 14 중 19장 등 4판 뿐이다. 권九의 八張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 흑어미이다. 그러나 二十五張의 상어미는 평어미로 되어 있으며, 권 14의 19장 어미는 상 일엽, 하 이엽어미로 되어 있다. 版心題인 ‘孟子諺解’와 그 아래로 卷九이라는 卷數 표기와 二十五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4〉 『未詳』 권6, 1판.

板式：四周單邊, 半郭 21.4×18.5cm, 有界, 半葉 10行 18字, 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판독미상』의 목판은 권(미상) 중 1판이 있으나 판심 부분의 훼손 상태가 심하여 알 수가 없다. 또한 마루 판재로 사용하면서 좌측 변란이 인위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전곽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반곽의 크기는 가로 18.5cm 세로 21.4cm이며 단면으로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8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이다. 版心題는 마모되어 있어 확인할 수가 없으나 卷을 나타내는 六이라는 卷數 표기와 十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5〉 『□通』 권32, 1판.

板式：四周單邊, 全郭 21×36.7cm, 有界, 半葉 10行 17字, 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판독미상』의 목판은 □□ 32 중 1판이나 판심 부분이 심하게 훼손

손되어 있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6.7cm 세로 21cm이며 단면으로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 이엽이다. 版心題는 마모되어 있어 확인할 수가 없으나 상어미 위에 文□澄이라 되어 있고 그 아래로 상어미가 있으며 다음으로 판심제인 '□鑑'가 있고 그 아래로 卷을 나타내는 三十二라는 卷數 표기와 六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編年類인 듯 하다.

〈6〉 『論語大全』 권17, 1판.

板式：四周雙邊, 全郭 21×33.2cm, 有界, 半葉 10行 20字, 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論語大全』의 목판은 권 17 중 12장 1板 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3.2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20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내향 이엽어미이다. 版心題인 '論語大全'은 상어미 위에 있고 어미 아래로 卷十七이라는 卷數 표기와 그 아래로 十二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7〉 『三國演義』 권11, 3판.

板式：四周雙邊, 全郭 21×37cm, 有界, 半葉 13行 23字, 上下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三國演義』의 목판은 권 11 중 42장·43장·68장 등 3판뿐이다. 권11의 43張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쌍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3행으로 한 행은 23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평형 흑어미이나, 목판 68장은 상하 내향 일엽 흑어미이다. 版心題인 '三國演義'는 상어미 위에 있고, 어미 아래로 卷十一이라는 卷數 표기와 四十三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8〉 『通□』 권19, 1판.

板式：四周單邊, 全郭 21×37cm, 有界, 半葉 10行 17字, 上 內向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通□』의 목판은 권 19 중 9장 1판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21cm이며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어미만 내향 二魚尾이고 하어미는 평어미이다. 版心題인 '通□' 아래로 十九라는 卷數 표기와 九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

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編年類인 듯 하다.

〈9〉 『疑禮問解』 권2, 1판.

板式：四周單邊，全郭 ?×30cm，有界，半葉 10行 19字，上下 黑魚尾.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疑禮問解』의 목판은 권 2 중 23장 1판뿐이다. 목판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식은 사주단변으로 되어 있고 그 전곽의 크기는 가로 30cm이고, 세로 규격은 마루판으로 사용 시 훼손되어 있어 확인이 불확실하다. 단면만 판각되어 있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은 10행으로 한 행은 19자씩 배자되어 있고 어미는 상하 二魚尾이다. 版心題인 ‘疑禮問解’ 아래로 卷之二라는 卷數 표기와 二十三이라는 張數가 표시되어 있다. 목판 후면이 마루 판재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아 제주목에 보관되었던 목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제주대학교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된 목판은 11종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 중 판독미상 1종, 『孟子大全』 1종, 『孟子諺解』 1종, 판독미상 1종, 『□通』 1종, 『論語大全』 1종, 『三國演義』 1종, 『通□』 1종, 『疑禮問解』 1종 등 9종이 濟州牧藏本으로 추정됐으며, 나머지 『拓菴先生文集』과 『龍山世稿』는 濟州牧冊板이 아니고 외지에서 반입된 것이며, 현존 책판의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현존 책판

분류 \ 판류	판 식	전곽규격(cm) 가로×세로	계선	행 자 수	어 미	판심제	비 고
미상	사주단변	24.3×18.3	유	반엽8행20자	상어미 하향	무	5~6張외
孟子大全(권6)	사주단변	33×20.6	유	반엽10행(불상)	무	孟子大全	17張
孟子諺解(권9)	사주쌍변	36×21	유	반엽10행18자	상하내향 흑	孟子諺解	8張 외
미상(권6)	사주단변	반곽 18.5×21.4	유	반엽10행18자	상하내향		10張
‘□鑑’(권32)	사주단변	36.7×21	유	반엽10행17자	상하내향	文□澄 / □鑑	6張
論語大全(권17)	사주쌍변	33.2×21	유	반엽10행20자	상하내향	論語大全	12張
通□(권19)	사주단변	37×21	유	반엽10행17자	상어미 하향	通□	9張
疑禮問解(권2)	사주단변	30×?	유	반엽10행19자	상하 二어미	疑禮問解	23張

현전하는 목판은 당시 관리했던 관원들이 목판이 훼손 등이 사유로 인해 새로 조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가구의 마루 등 판재용으로 사용되면서 거의 남아 있지 못하고, 현전하

는 것조차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 現存 刊印本

15~16세기 제주목에서 간인된 판본류 중 현전하는 판본류는 개간된 책판에 비하여 많지가 않다. 세종 17년(1435) 안무사 崔海山 때 官府의 실화⁶¹⁾로 일시에 소실되는 화마를 겪게 되자, 世宗은 같은 해 9월 제주향교에 교생들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大學』·『中庸』·『論語』·『孟子』·『詩經』·『書經』·『禮記』·『易經』·『春秋』·『性理大全』 각 2帙과 小學 10秩 등 각종 書冊을 하사하였다. ⁶²⁾

15세기에 개간된 책판류 중 자료를 통해 『禮記淺見錄』, 『檢屍狀式』 등 2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전 판본류로는 태종 18년(1418) 3월 『禮記淺見錄』이 있다.

16세기에 개간된 책판류 중 자료를 통해 『東國史畧』, 『牧民心鑑』, 『浣花流水』, 『赤壁賦』 등 4종이 확인되었으며, 현전하는 판본류로는 선조 7년(1574) 8월 7일에 제주목에서 개간되어 간인된 『赤壁賦』⁶³⁾가 있다.

17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耽羅志』 冊版庫에 41종, 『知瀛錄』에 10종, 책판목록에는 없으나, 현전 간본을 통해 확인된 『吳子直解』, 『性理大全書』, 『喪禮備要』 3종 등 총 54종이 나타나 있다.

현전하는 판본류는 인조 11년(1633) 1월 제주목에서 개간된 『新編集成馬醫方』과 『新編牛醫方』⁶⁴⁾, 인조 18년(1640) 『吳子直解』⁶⁵⁾, 인조 22년(1644) 『性理大全書』⁶⁶⁾, 『耽羅志』(1653년간)가 개간 되었다. 이 가운데 冊版庫의 목록에는 없으나, 간인본으로 확인된 17세기 판본류는 『吳子直解』(1640년간), 『性理大全書』(1644년간), 제주향교에서 개간된 『喪禮備要』(1695년) 등 3종 등 5종이 현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8세기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은 『古冊板有處攷』 35종, 『林園十六志』 15종, 『鏤板考』 16종 등 66종과 책판목록에는 없으나 현전 간본을 통해 확인된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謹齋先生集』 2종 등 총 68종이 나타나 있다.

현전하는 판본류는 숙종 27년(1702)에 개간된 『嶺海唱酬錄』⁶⁷⁾, 숙종 44년(1718년) 5월 제주에서 개간된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 영조 16년(1740)에 개간된 『謹齋先生集』의 판

61) 李元鎮, 『耽羅志』, (1653년), 建置沿革 (條) : 世宗十七年按撫使崔海山時官府失火文籍盡爲灰□惜哉.

62) 『朝鮮王朝實錄』, 世宗 十七年 九月 二十一日 己丑 (條) : 賜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 書 禮記 易 春秋 性理大全 各二件、小學 十件于 濟州 鄉校.

63) 蘇軾(宋) 著, 趙孟頫(元) 書, 『赤壁賦』, 木板本, 1冊(46張), 藏書閣所藏, 刊記 : 萬曆二年(1574)八月初七日濟州開刊.

64) 趙浚(朝鮮) 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1책, 木版本,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刊記 : 崇禎六年(1633)正月日濟州開刊.

65) 南權熙, 『古印刷文化』 8집 (2001), p. 232.

66) 胡廣(明)等 命編, 『性理大全書』, 木版本, 1644년간(인조 22年) 70卷 35冊:四周雙邊, 半葉匡郭:25×17 cm, 有界, 10行16字, 版心:上下黑魚尾:35.7×22 cm.卷首: 御製序…永樂十三年(1415)…[太宗] 奉勅纂修翰林院學士…胡廣[等諸臣銜名] 卷末:濟州牧使…元肅羽[等].

67) 『嶺海唱酬錄』,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濟州營, 肅宗27年(1701), 後刷, 1冊(63張), 刊記 : 崇禎紀元後壬午(1642)正月日 濟州營開刊, 附錄:濯白唱酬錄.

본 등 3종이다.

규장각 소장본 『嶺海唱酬錄』의 간기는 1680년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南九萬(1629~1711)이 辛巳年(1701)에 쓴 서문과 朴星錫의 생몰년인 1650~1709년을 고려해 볼 때, 刊記는 '崇禎紀元後再壬午(1702)'의 誤記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집은 숙종 27년(1701)에 편찬되고 이듬해인 숙종 28년(1702)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謹齋先生集』은 高麗末의 문신인 安軸(1282~1347?)과 그의 아들 宗源(1325~1394), 宗源의 孫 純(1371~1440), 그리고 純의 아들 崇善(1392~1451) 등 先祖 四代의 유고 및 傳, 碑碣文 등을 합쳐 후손인 安慶運이 펴낸 책으로, 跋文은 '崇禎紀元後庚申(1680) ... 慶運', 刊記는 '庚申(1680)冬刊于濟州移藏板本於羅州'라고 하여 庚申年을 모두 1680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순흥안씨삼파중회에 의하면 安慶運은 安軸(6世)의 14대 후손으로 字는 善餘, 號는 感齋이며, 1683년 癸亥에 태어나 1749년 己巳에 졸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⁸⁾

그러므로 "安慶運의 생몰년을 고려해 볼 때, 『謹齋先生集』에 쓰여진 庚申은 1680년이 아닌 174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謹齋先生集』은 1740년 庚申에 제주에서 간인하여 장판과 인본을 모두 전라도 나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⁶⁹⁾ 이상과 같이 18세기의 판본류로는 『嶺海唱酬錄』(1702년간),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1718년간), 『謹齋先生集』(1740년간)의 현전본을 통하여 이상 3종의 판본류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9세기, 현전하는 판본류는 1856년에 개간된 『婚禮笏記』가 있다. 이상 현전하는 간인본은 15세기 1종, 16세기 1종, 17세기 5종, 18세기 3종, 19세기 1종 등, 11종이다.

이상 조사한 바와 같이 조선조에 개간된 책판류 중 동일 서명이 아닌 책판류는 99종이나, 각종 자료와 간인본 등에 수록된 것은 동일 책판류 포함 276종으로 자료별로 분류하여 <표 2>로 제시하였다.

<표 2> 제주목 개간 『冊板』

資 料 名	編 纂 時 期	冊板 種數	備 考
계		276	
刊印本(現傳)		11종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소화13년(1938)	1종	金光明經文句
攷事撮要(木版本日本寫本)	선조 18년(1585)	2종	
耽羅志(木版本)	효종 4년(1653)	41종	
南槎日錄(筆寫本, 影印本)	1680년대		1677년 화재
知瀛錄(筆寫本, 影印本)	숙종 22년(1696)	10종	
古冊板有處攷	영조 52년(1776) 이전	35종	
林園十六志(京外鏤板)	정조 20년(1796) 이전	15종	

68) <http://www.shahn3.com/3/17.pdf>

69) 윤봉택, 노기춘, 『書誌學研究』 제34집 (2006. 9), p. 263~264.

鑲板考	정조 20년(1796)	16종	
耽羅誌草本(筆寫本)	헌종 7년(1841)	36종	
濟州邑誌(筆寫本)	19세기	35종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筆寫本)	19세기	29종	
耽羅誌(影印本)	19세기	36종	
光武三年五月日邑誌	광무 3년(1899)		‘冊板 無’
板本(濟州大學校 · 濟州道教育博物館所藏)		9종	교육박물관 1종

Ⅲ. 제주 冊板類의 開板 時期 分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조부터 19세기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 및 판본류는, 책판 명칭이 같은 것을 제외한 결과, 고려조 1종, 조선조 99종 등 100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판본류는 육지의 兵火와는 달리 제주지방에서는 세종 17년(1435)과 숙종 3년(1677) 등 두 차례의 火魔를 겪으면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이후에 大火災 사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다.⁷⁰⁾

그러나 제주목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화재는 제주목에서 개간된 판본류의 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 때 책판고 등에 보관되었던 책판들이 모두 소실됨에 따라 새롭게 판본이 만들어지거나 개간 또는 飜刻이 이뤄지게 되었고, 이러한 화재 시점으로 인하여 개간 추정 연대를 각각 시기별로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1435년과 1677년 화재를 기점으로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를 1기는 조선조 개국부터 1차 화재 시기까지인 1435년, 제2기는 1차 화재 이후부터 2차 화재 시기까지인 1677년, 제3기는 제2차 화재 이후부터 『耽羅誌』(19세기) 까지 3기로 분류하여, 시기별로 개간된 책판류를 四分法으로 분류하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가. 제1기(15세기)

조선조 개국부터 1차 화재가 발생한 1435년까지 각종 기록물이나 현전본을 통해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는 『禮記淺見錄』이다. 본서는 1418년 제주목에서 개간되었으며, 간인본은 현재 고려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1585년에 간행된 『攷事撮要』의 책판목록과 1653년 편찬된 『耽羅志』 책판고 목록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종 17년(1435) 화재 때 판본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70) 李增 著 ; 金益洙 譯, 『南槎日錄』, 1680년, 부록(영인본), (2001), 公廨 (條) : 冊版庫 丁巳(숙종 3년, 1677)失火諸冊板□燒云.

『禮記淺見錄』, 이 책에 대한 책판 기록은 1418년 濟州牧에서 개간된 간인본을 통해 알 수 있다. 濟州牧藏板類 가운데 현전하는 간인본 중 시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木版本(癸未字覆刻本)이며, 주 내용은 禮記의 내용에서 글의 뜻에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한 註釋書이다.

서지사항으로는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26卷, 11冊,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四周單邊 半郭 22.8 × 14.4 cm, 有界, 8行17字 小字雙行, 間混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7 × 17.7 cm, 序: 淺見錄序: 永樂五年(1407)…河崙. 集說序: 至治壬戌(1322)…陳澹, 跋: 永樂十六年(1418)戊戌…河澹. 濟州이다.

본서는 태종 5년(1405) 어명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다. 권근의 自序와 권1에 1407년 河崙이 쓴 序文이 있으며, 권말에는 태종 18년(1418) 河澹이 쓴 발문이 있다. 권근의 자서에 의하면, 권근은 李穡의 뜻을 이어 받아 이 책의 編成을 완결하였고, 1407년 黃喜의 추천으로 경연에서 이 책을 進講하게 되었는데, 태종은 교서관에 명하여 주자로 인쇄하여 유포하게 하였다. 그 후 1418년 河澹의 아들 河蹈가 얻어온 초간본을 제주목사 李暎이 覆刻本을 냈고, 숙종 31년(1705) 宋廷奎가 濟州牧藏本에 약간의 補訂을 가하여 간행하였다.

『禮記淺見錄』에 대한 기록은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1796년), 『鏤板考』, 『耽羅誌草本』,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등의 책판고에 있다.

나. 제2기(16~17세기)

제주목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한 1435년 이후부터 2차 화재가 일어난 1677년까지 각종 기록이나, 현전본을 통해 확인된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류는 47종으로 이를 분류하면 經部 15종, 史部 4종, 子部 20종, 集部 8종이며, 개간 연대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제2기에 개간된 책판류(1435~1677)

분류 판류		現 傳 本(記錄)		耽 羅 志	
		書 名	刊行 時期	書 名	刊行 時期
經部	書 類			書傳大文	1653년 이전
	詩 類			詩傳大文	1653년 이전
	禮 類			家禮	1653년 이전
	孝經類			孝經	1653년 이전
	大學類			大學	1653년 이전
				大學諺解	1653년 이전
	中庸類			中庸	1653년 이전
				中庸諺解	1608년(現)
	論語類			論語	1653년 이전
	孟子類			孟子	1653년 이전
	小學類			三韻通考	1653년 이전
				童蒙先習	1653년 이전
				類合	1653년 이전
				千字	1653년 이전

				童子習	1653년 이전
	계			15	
史部	別史類			十九史略	1653년 이전
	職官類			牧民心鑑	1555년(記)
	刑獄詞訟	檢屍狀式	1439년(記)		
	地理類	耽羅志	1653년	耽羅志	1653년
	계	2		3(1)	
子部	儒家類	性理大全書	1644년	小學	1653년 이전
				小學諺解	1653년 이전
				正俗	1653년 이전
				擊蒙要訣	1653년 이전
	兵家類	吳子直解	1640년	將鑑博議	1653년 이전
				兵學指南	1653년 이전
	醫家類	新編集成馬醫方	1633년	救急方	1653년 이전
		新編牛醫方	1633년	經驗方	1653년 이전
				馬牛方	1653년 이전
	藝術類			春種	1653년 이전
				赤壁賦	1574년(現)
				藤王閣序	1653년 이전
				草千字	1653년 이전
				浣花流水	1653년 이전
				退溪書	1653년 이전
				聽蟬書	1653년 이전
	계	4		16	
集部	總集類	嶺海唱酬錄	1642년	唐詩絕句	1653년 이전
				玉壺冰	1653년 이전
				續青丘風雅抄	1653년 이전
	別集類			圃隱集	1653년 이전
				冲庵集	1653년 이전
				東溟集	1653년 이전
	小說類			剪燈新話	1653년 이전
	계	1		7	

다. 제3기(18~19세기)

제3기는 1677년 화재 이후부터 『知瀛錄』(1696년), 『古冊板有處攷』(1776년), 『林園十六志, 京外鏤板』(1796년), 『鏤板考』(1796년), 『耽羅誌草本』(1841년), 『濟州邑誌』,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耽羅誌(19세기)』까지 나타난 책판류이다. 이는 1677년 화재 때 책판고에 소장되어 있던 책판류 등이 모두 소실되어 이후부터 새롭게 책판이 개간·복각되었기 때문이다. 1677년부터 1899년까지 제무목에서 새롭게 개간되거나 복각된 책판류는 70종으로, 이를 분류하면 經部 23종, 史部 11종, 子部 31종, 集部 5종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제3기에 개간된 책판류(1678~19세기)

판 류 분 류		書 名		수록 · 책판
		판본류	간행시기	
經部	禮 類	喪禮備要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諺解喪禮備要	1696년	知
		疑禮問解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諺解疑禮問解	1696년 이전	知
		疑禮問解續解	1796년 이전	林
		禮記淺見錄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婚禮笏記	1856년	現
	大學類	大學	1696년 이전	知·草·島·羅
		大學諺解	1776년 이전	古·草
		三經四書大典	1796년 이전	林
	中庸類	中庸	1696년 이전	知·草·島·羅
		中庸諺解	1776년 이전	古·州
	論語類	論語	1696년 이전	知·草·州·島·羅
		論語諺解	1776년 이전	古·州
	孟子類	孟子	1696년 이전	知·草·島·羅
		孟子諺解	1776년 이전	古·州
	小學類	三韻通考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增補三韻通考	1796년 이전	林·鏤
		玉堂釐正字義韻 律 海篇心鏡	1718년 간	現
		千字板	1776년 이전	古
		千字文	1796년 이전	鏤·草·島·羅
		童蒙先習	1776년 이전	古·鏤·草·州·島·羅
		新增類合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계	23		
史部	正史類	三國誌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別史類	史略	1696년 이전	知·古·草·州·島·羅
		十九史略通考	1796년 이전	林·鏤
	編年類	通鑑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通鑑節要	1796년 이전	林·鏤
	職官類	牧民心鑑	1841년 이전	草·羅
	地理類	耽羅志	1796년 이전	林·鏤
		耽羅誌	1841년 이전	草·羅
		板地圖	1776년 이전	古
		耽羅地圖	1841년 이전	草·羅
		地圖	1841년 이전	州
	계	11		
子部	儒家類	小學	1696년	知·草·島·羅
		小學諺解	1776년 이전	古·州
		小學集說	1796년 이전	林·鏤

		擊蒙要訣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島·羅
		敬齋箴書	1776년 이전	古·州
	兵家類	兵學指南	1776년 이전	古·林·鏤·草·州·羅
		三略	1776년 이전	古·鏤·草·州·島·羅
		三略直解	1796년 이전	林
		焰硝新方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醫家類	馬醫	1776년 이전	古·州
		馬醫方	1841년 이전	草·羅
	藝術類	宣廟御筆大字草書	1696년	知
		宣廟御筆草書 板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春種書類	1776년 이전	古
		春種帖	1841년 이전	草·島·羅
		春種書	1841년 이전	州
		顏眞卿書	1776년 이전	古·州
		顏眞卿帖	1841년 이전	草·島·羅
		朱子筆敬齋箴	1841년 이전	草·島·羅
		石峰書	1776년 이전	古·州
		石峰帖	1841년 이전	草·島·羅
		雪峰書	1776년 이전	古·州
		雪峰帖	1841년 이전	草·島
		篆字板	1776년 이전	古·州
		篆千字文	1841년 이전	草·島·羅
		千字	1841년 이전	州
		太史公筆	1841년 이전	草·羅
		太公事筆 板	1776년 이전	古·州
		草書大字中字	1776년 이전	古·州
		出師表	1776년 이전	古·州
	譯學類	捷解新語	1776년 이전	古·草·州·島·羅
	계	31	1.	
集部	總集類	嶺海唱酬錄	1776년 이전	古·鏤·草·州·島·羅
		謹齋先生集	1740년	現
		玉壺冰	1841년 이전	草·羅
	別集類	密山世稿	1776년 이전	林·鏤·草·州·島·羅
	小說類	剪燈新話	1696년 이전	知·古·草·州·島·羅
	계	5		

- ‘刊印本’으로 확인된 것은 ‘刊’ - 『史料(實錄)』으로 확인된 것은 ‘史’
 - 『攷事撮要』는 ‘攷’ - 『古冊板有處攷』는 ‘古’ - 『林園十六志』는 ‘林’
 - 『耽羅志』는 ‘耽’, - 『知瀛錄』은 ‘知’ - 『鏤板考』는 ‘鏤’ - 『耽羅誌草本』은 ‘草’ - 『濟州邑誌』는 ‘州’ -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는 ‘島’ - 『耽羅誌』는 ‘羅’로 표기.

IV.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개간된 책판과 板本類가 기록된 『冊板目錄』과 「冊版庫 目錄」, 그리

고 현존 책판과 간인본을 중심으로, 제주지방의 책판류를 살펴보았다.

본 자료를 통하여, 조선 건국과 함께 제주지방에서도 조선조의 건국이념인 崇儒政策에 따라 향교와 서원이 건립되면서 지방자제들의 교육과, 醫療濟民, 우마 방목에 필요한 獸醫書,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빈번하는 왜침 방어를 위해 兵書가 간행되었고, 지방 자제들의 書學을 위한 書學書들이 많이 개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 째, 제주지방에서 개간된 책판 판각은 제주목에서 이뤄졌고, 치목·연판·판각 등도 제주인들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당시 제주지방의 출판문화 수준이 매우 뛰어났음이 확인되었다.

셋 째, 제주지방에서 개간된 책판 사실을 기록한 문헌으로는 『曹溪山松廣寺史庫』 1종,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朝鮮王朝實錄』 등이며, 『冊板目錄』이 수록된 문헌은 『攷事撮要』 2종, 『古冊板有處攷』 35종,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15종, 『鏤板考』 16종이고, 『冊版庫目錄』 사실이 기록된 자료는 『耽羅志』 41종, 『知瀛錄』 10종, 『耽羅誌草本』 36종, 『濟州邑誌』 35종,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29종, 『耽羅誌』 36종, 『光武三年五月日邑誌』 등이며, 이를 통하여 동일 책판 명칭을 포함 256종의 책판목록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 비교한 결과 동일 명칭의 책판을 제외하고 유사한 책판류를 포함하면, 고려조 제주도에서 개간된 판본이 1종, 조선조 제주목에서 개간된 유사 책판류 등 118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現傳하는 책판이 극히 날개에 불과 하지만, 『孟子大全』 권6, 『孟子諺解』 권9, 『論語大全』 권17, 『三國演義』 권11, 『通□』 권19, 『疑禮問解』 권2, 판독미상 2종 등 現전하는 冊板 9종이 濟州牧藏本으로 조사되었다.

넷 째, 임란 이전에 개간된 출판물은 현존본을 포함하여 『禮記淺見錄』, 『東國史畧』, 『牧民心鑑』, 『檢屍狀式』, 『赤壁賦』, 『浣花流水』 등 6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조선조 태종 18년(1418) 3월 제주목에서 『禮記淺見錄』이 가장 먼저 개간되었음이 밝혀졌다.

다섯 째, 1418년에 개간된 『禮記淺見錄』을 비롯하여 『赤壁賦』(1574), 『新編集成馬醫方』(1633), 『吳子直解』(1640), 『性理大全書』(1644), 『耽羅志』(1653), 『喪禮備要』(1695), 『嶺海唱酬錄』(1702),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1718), 『謹齋先生集』(1740), 『婚禮笏記』(1856) 등을 포함 11종의 간인본이 現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섯 째, 제주목에서 세종 17년(1435)과 숙종 3년(1677)에 발생한 두 차례 화재가 당시 제주목 관아 건물과 책판 등이 전부 소실될 만큼 大火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책판이 개간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조 제주목에서 책판이 개간된 시기를 조선 개국~1435년, 1436년~1677년, 1678~1899년까지 3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동일종의 판본 개간 절대 年代를 시기별로 구분 추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주목에서 개간된 판본류를 시기별로 구분한 결과, 제1기 조선조 개국부터 1435년까지는 『禮記淺見錄』 1종이 개간되었다. 제2기 1436년부터 1677년까지는 『赤壁賦』 등 經部 15종, 史部 4종, 子部 20종, 集部 8종 등 47종이 개간되었다. 제3기 1678부터 1899년까지는 『諺解喪禮備要』 등 經部 23종, 史部 11종, 子部 31종, 集部 5종 등 70종이 개간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 1418년 『禮記淺見錄』이 처음 개간된 이후 19세기 말 까지 개간·복각을 포함하여 經部 39종, 史部 15종, 子部 51종, 集部 13종 등 118종의 책판이 개간되

였음이 조사되었다.

일곱 째, 제주지방의 조선시대에 개간된 책판류를 四分法으로 분류하면서 출판문화 특성을 살펴본 결과, 동일 책판류를 제외한 經部에서 28종, 史部 14종, 子部 47종, 集部 10종 등 99종이었다. 板種 數로는 子部·經部·史部·集部 순으로 子部에서도 藝術類가 27종이 되고 있어, 당시 제주지방에서는 書學을 비롯한 藝術 문화 활동이 제주도로 流配된 선비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이뤄졌음이 조사되었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제주에서 개간된 冊板類에 대하여 살펴 보고, 시대별로 開刊된 冊板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제주에서는 濟州牧을 비롯하여 제주향교에서 일부 개간된 책판류 등을 포함하여 많은 冊板이 개간되었다. 그러나 조선조 제주목 관아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하여 책판을 비롯한 모든 자료가 일시에 소실되는 등 두 차례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주에서는 두 차례 飜刻이 시기를 두고 일어 났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제주목에서 개간된 책판을 통하여 지방 관아의 책판 개간의 필요상과 번각 진행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冊板目錄과 冊板庫目錄의 자료를 통하여 제주에서 판각된 책판류가 고려조 1종, 조선조 99종 등 100종의 책판이 있었으며, 제1~3기 까지 번각된 동일 책판류 까지 포함하면, 모두 276종임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要語 : 濟州牧 冊板類, 濟州牧藏板, 冊板目錄, 冊板庫.

참고문헌

1. 원전자료

李元鎮, 『耽羅志』, 木板本, 1653년간, 개인소장.

松廣寺, 『曹溪山松廣寺史庫』, 권4, 4책, 稿本, 1934년간, 송광사 소장.

朝鮮古蹟研究會,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 單券, 1책, 稿本, 1938년간, 藏書閣 소장.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板本(癸未字覆刻), 1418년간,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

蘇軾(宋) 著 ; 趙孟頫(元) 書, 『赤壁賦』, 木板本, 1574년간, 藏書閣所藏.

魚叔權(朝鮮) 編, 『攷事撮要』, 影印本(筆寫本), 부산 : 민족문화, 1995.

趙浚(朝鮮) 等 撰集, 『新編集成馬醫方』, 木版本, 1633년간, 高麗大學校圖書館 所藏.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卷之三十八.

金相憲, 『南槎錄』, 木版本, 규장각 소장.

『朝鮮王朝實錄』.

李源祚, 『耽羅志草本』, 草稿(影印本), 1841년간, 제주 :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編), 『耽羅誌』, 影印本, 耽羅文化叢書(5), 제주: 경신인쇄사, 1989.

鄭亨愚·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上·下), 서울 : 보경문화사, 1995.

李 增, 『南槎日錄』, 稿本, 1680년간, 개인소장.

李益泰, 『知瀛錄』, 筆寫本(影印本), 제주 : 濟州文化院, 1997.

朴星錫(朝鮮) 編, 李世成(朝鮮) 監, 高福星(朝鮮) 校, 『嶺海唱酬錄』, 木版本, 1642년간, 奎章閣所藏.

李佑成 篇, 『古本 鷹鵠方 外 二種』,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0.

徐有渠(著);李鍾萬(編);洪命喜, 『鏤板考』, 영인본(필사본), 서울:大同出版社, 1941.

『濟州邑誌』, 筆寫本, 단권, 1책, 규장각 소장.

『濟州島濟州大靜旌義邑誌』, 筆寫本, 규장각 소장.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편집), 『耽羅誌』, 影印本.

『光武三年五月日邑誌濟州邑誌』, 필사본, 1899년(광무3년 5월), 규장각 소장.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3.

2. 단행본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9輯-충청북도·제주도, 서울 : 旻成文化社, 1996.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 민음사, 2004.

西歸浦市, 『法華寺址 綜合整備復元計劃報告書』, 서울 : 大明企劃, 1998.

鄭亨愚, 尹炳泰 共編, 『韓國冊版目錄總攬』,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求堂, 1974.

金致雨, 『故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부산 : 도서출판 민족문화, 198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2001.

濟州市 ;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牧 地誌總攬』, 제주 : 세림원색인쇄사, 2002.

林東錫, 『中國學術綱論』, 서울 : 고려원, 1986.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 주 지식산업사, 2003.

辛良善,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 혜안, 1997.

李榮基,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前間恭作(著) ; 安春根(譯), 『韓國板本學』, 서울 : 범우사, 1985.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解題 1』, 서울 : 경인문화사, 2003.

李元鎮 畚 ; 김찬흠 등역, 『譯註耽羅志』, 서울 :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3. 학술논문

金成俊, 「‘牧民心鑑’과‘居官要覽’의 比較研究」, 『동방학지』제62호, 서울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김무봉, 「조선후기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제23집, 2004.

1.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8집, 청주 : 청주고인쇄박물관, 2001.

藤田亮策, 「紙反古」, 『書物同好會會報』第2號, 日本國 京城府 : 書物同好會 昭和 十三年.

윤봉택, 「13세기 濟州 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耽羅文化』 제29호, 서울 : 도서출판 보고사, 2006.

윤봉택, 노기춘, 「濟州牧에서 개간된 17세기 冊板 研究」, 『書誌學研究』제34집, 서지학회, 2006. 9.

4. 학위논문

安美璟, 「朝鮮時代 千字文 刊印本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金致雨, 「조선조 전기 지방간본의 연구 - 책판목록 소재의 전존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제주의 고문헌¹⁾

홍기표(제주도문화재위원회)²⁾

I. 머리말

제주의 역사문화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옛 문헌으로 무엇이 있을까?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옛 문서들은 어떤 종류와 내용의 문서들일까? 이들 옛 문헌과 문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읽기 힘든데 혹시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책은 없을까? 최근 들어 제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고문헌은 자주 발굴되고 소개되며, 역주서 또한 해가 다르게 출간되고 있는데 어떤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하는가?

이상의 질문은 제주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물음이다.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일반인들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의 고문헌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종합적인 해설을 하려 한다. 고문헌은 책의 성격을 먼저 분류 하고 나서 간행 시기와 간략한 내용 및 소장처 등을 소개할 것이다.

제주의 고문헌은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김정의 『제주풍토록』 등 개인문집, 이원진의 『탐라지』 등 역사지리지, 이원조의 『탐라계록』 등 장계첩, 군사전적류의 『탐라방영총람』, 방목류의 『급제선생안』 및 김영락의 『효열록』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옛 문헌을 크게 성격별로 나눈 뒤 해당 문헌별로 간략한 개요를 소개할 것이다.

II. 제주의 고문헌

제주의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문헌은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저술이 있다. 조선시대 여러 관료 학자들이 펴낸 개인문집에서부터 탐라의 건치연혁과 풍속토산 등이 상세히 기술된 역사지리지에 이르기까지 약 35편의 저술이 확인된다. 여기에 제주목사 및 어사가 제주의 실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장계·서계첩, 군사제도와 방어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군사전적류, 제주인의 과거급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목류까지 더하면 약 50편에 달하는 고문헌을 만나게 된다.

개인문집은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등 21권이 제주 관련 시문이나 기행문 및 일기체 저술을 남기고 있다. 이들 문헌은 제주의 실정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는 저술들이어서 제주의 변화상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와 관련 있는 여러 선대의 기록을 병행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주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지지서는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에서부터 『제주·대정·정의군읍지』

1) 본고는 2017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제주학개론』의 필자 논고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2) 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까지 10편이 넘는 고문헌이 전한다. 여기에 1918년 『탐라기년』과 1954년 『증보탐라지』까지 더하면 약 15편의 제주 역사지지가 전한다. 제주의 역사문화와 사회경제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역사지지를 접하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건치연혁에서 풍속, 토산, 명승, 고적, 성곽, 인물, 관풍안까지 약 40개 전후의 주제를 설정하여 제주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목의 장계·서계첩은 제주목사 및 어사들이 제주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헌인데 당시 제주의 여러 현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18~19세기의 조선후기 문헌이어서 조선 전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 사회경제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어서 최근 들어 활발한 역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는 섬이어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의 동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 등 군사통신 시설 및 9진성과 같은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군사편제 역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주속오군군적부』 및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 등의 군사 전적류가 참고 된다.

방목류는 조선시대 소과 및 문무과에 급제한 제주인들의 명단을 시대순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급제선생안』 및 『용방록』, 『연방록』이 대표적인 문헌인데, 이를 통해 수백 명의 조선시대 제주 인재들을 파악할 수 있다. 『탐라빈흥록』은 비록 정조 대에 국한하지만 제주에서의 과거 시행경위, 과거문제, 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은 『효열록』도 전한다. 조선은 유교국가이며 삼강오륜에 입각한 사회규범을 강조했다. 강상죄를 중죄로 여겨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정도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제주의 의사, 효자, 열녀 등의 일화도 채록되어 빠짐없이 전하고 있다. 방목류의 문헌과 더불어 『효열록』은 제주의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문헌이 된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굴된 또는 역주까지 이루어진 제주의 고문헌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개인문집 및 역사지지가 등 아직 미발굴의 상태로 있는, 또한 아직 역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도 상당량에 이른다. 차후 연구 성과에 따라 보다 많은 제주의 고문헌이 소개되며, 과거 제주의 상세한 실정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1. 개인문집

조선시대 제주는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변방이며,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악도(遠惡島)로 알려져 기피 대상이 됐던 곳이다. 하지만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중 하나인 영주산(한라산)이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해서 이 곳 제주에 부임한 제주목사는 물론 안무어사 및 귀양 온 유배인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제주 방문과 관련 여러 시문을 남기거나, 일기체 형식의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다. 대부분 개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제주 관련 시문 및 기행문은 당대의 제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들 문집에는 제주 관련 역사지지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회와 입장까지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의 기술을 통해 당대의 제주를 더욱 더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와 관련한 다수의 시문을 개인 문집에 남긴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의 21권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장 이른 15C의 문집은 두 권이 전하는데, 이약동의 『노촌선생실기』와 최부의

『(금남)표해록』이 있다. 『노촌선생실기』는 1470년(성종 1) 10월부터 1473년 8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약동의 문집이다. 그는 한라산 산신제를 정상에서 지금의 산천단으로 옮겨 그 폐해를 시정하였으며, 제주의 물건은 단 한 점도 가져가지 않아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이다. 『(금남)표해록』은 1487년(성종 18)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부임했던 최부가 부친상을 당해 이듬해 제주를 떠났는데, 중국의 절강성 영파부에 표착하여 이후 중국을 종단하며 조선의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약 6개월간의 역경을 상세히 적어 성종에게 올린 문헌이다. 현재 전하는 ‘표해록’ 중 가장 오래된 귀중한 자료이다.

16C의 문집은 세 권이 전하는데,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충암선생문집』 권4)과 조사수・박충원의 『영해창수록』, 임제의 「남명소승」(『백호선생문집』 부록)이 그것이다. 「제주풍토록」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그 이듬해 제주에 유배 왔다 1년 만에 사사된 김정희의 그의 생질에게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써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글이다. 내용은 제주의 기후, 가옥구조, 풍속, 신앙, 민정, 토산 및 그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펴낸 제주 최초의 풍토지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영해창수록』은 제주목사 조사수와 친구인 영월군수 박충원이 주고받은 한시(132수)를 수록한 시집이다. 1702년(숙종 28) 박충원의 5대손으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박성석이 재임 중 제주영에서 목판본으로 펴냈다. 제주의 풍속, 생활, 지역방어 등의 내용을 한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남명소승」은 임제의 제주도 기행문이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1577년(선조 10)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을 뵈러 제주를 방문하였다. 그 기간 동안 임제는 제주를 일주하며 경승을 두루 구경하고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하여 일기체 형식의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남명소승이다.

17C의 문집은 네 권이 전하는데, 김상헌의 「남사록」(『청음선생유집』 권2), 이건의 「제주풍토기」(『규창집』 권5), 이중의 『남사일록』, 이익태의 『지영록』이 그것이다.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의 일기체 기행문이다. 한라산 산신제 거행, 문무과 시행 및 방어시설 점검(제주 일주), 과원 및 공물의 자세한 실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 문화유적 등을 언급할 때마다 이전의 모든 제주 관련 자료를 인용하며 기술했기 때문에 17세기 이전까지 제주 실정이 종합적으로 기술된 당대 최고의 제주 해설서이다. 「제주풍토기」는 1628년(인조 6) 유배 온 왕족 이건이 1635년(인조 13)까지 약 8년간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풍토기이다. 제주의 풍속, 생업활동, 신앙, 동식물 등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느낌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남사일록』은 1679년(숙종 5) 제주에 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된 이중의 일기체 기록이다. 제주의 군기와 방어시설 점검, 삼읍 수령의 민정, 과거 및 한라산신제 시행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지영록』은 1694년(숙종 20) 7월부터 1696년 9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익태의 문집이다. 목사로서의 공무 시행과 행적(제주도 순력과 명승지 여행), 제주 역사 및 외국인 표류(효종~숙종대) 등이 기록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명승 열 곳을 꼽은 「탐라십경도서」가 수록되어 있다.

18C의 문집은 가장 많아 여덟 권을 들 수 있는데,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형상의 『병와집』, 송정규의 『해외문견록』, 남구명의 『우암선생문집』,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김정의 『노봉선생문집』, 김춘택의 『북헌집』, 신광수의 「탐라록」(『석북선생문집』 권7), 장한철의 『표해록』(제주도유형문화재 제27호)이다. 『병와집』은 1702년(숙종 28)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형상의 문집이다. 이형상은 「탐라순력도」 및 『남환박물』 등의 편찬을 남겼으며, 『병와집』에도 「탐라순력도서」, 「제주

민막장」 외에 다수의 제주 관련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해외문견록』은 1704년(숙종 30) 10월부터 1706년(숙종 32) 9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송정규의 책이다. 17세기 약 100년간 제주에 표류한 외국인 및 타국에 표류한 제주인들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이다. 표류사건 9건, 최부의 「표해록」 요약 1건, 제주의 사건과 인물 6건 등 총 16건의 기록으로 구성됐다. 『우암선생문집』은 1712년(숙종 38) 10월부터 1715년 5월까지 제주판관으로 재임했던 남구명의 문집이다. 내용은 제주의 산천과 형승, 풍속과 신앙, 기후와 풍토, 육지와 의 교통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탐라문견록』은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정필녕을 따라 1731년(영조 7) 9월 제주에 들어온 정운경의 문집이다. 내용은 제주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로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고상영 등 14명의 제주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다. 『노봉선생문집』은 1735년(영조 11) 4월 도입하여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수행한 제주목사 노봉 김정의 문집이다. 그는 삼천서당을 건립하고 화북포 축항공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과거 탐라국의 명소를 복원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이다. 80여 수의 시, 39편의 문과 삼천서당 주변의 명소 제명(중장병 • 용린병 • 호반병 • 지주암 등) 등 상당수의 제주 관련 시문이 전한다. 『북헌집』은 1706년(숙종 32) 제주로 유배 와 이후 6년을 지낸 유배인 김춘택의 문집이다. 「초년록」과 「수해록」은 제주 유배 기간에 쓴 시문집으로 제주의 풍물과 고통스런 유배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탐라록」은 의금부도사 신광수가 죄인 압송차 제주에 왔다가 40여 일 머물며 화북 • 조천 등지에서 동행한 이익 등과 화창한 한시집(95수)이다. 「한라산가」, 「잠녀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해록』은 1771년(영조 47) 제주인 장한철이 지은 표해기행문이다. 장한철은 서울에서 치르는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 1770년 12월 25일 서울로 올라가는 29명 일행의 장삿배를 탔다가 표류하여 유구열도에 이르렀다. 이듬해 5월 초 귀향하기까지 약 6개월간의 표류 일정을 기록하였다.

19C의 문집은 세 권이 전하는데,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 이원조의 『탐라록』, 이강희의 『탐라직방설』이다. 『정헌영해처감록』은 1777년(정조 1) 제주에 유배되어 약 20여년을 지낸 정헌 조정철의 시집이다. 635수의 시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불우한 신세 한탄, 억울한 감정, 제주 특유의 풍속과 경승 등을 읊었다. 「망한라산」(33수), 「탐라잡영」 등이 유명하다. 『탐라록』은 1841년(헌종 7) 1월부터 1843년 7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가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시문집이다. 제주순력, 문무시제, 한라산신제 및 풍우뇌우제 시행 등이 기록되어 있다. 『탐라직방설』은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희가 제주도의 산천, 산물, 인구, 농업, 군사 등 지방통치와 관련된 모든 인문지리적 정보를 기술한 1권과 「상찬계시말」이라는 양제해 옥사(1813) 사건의 진실을 기록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1921년 간행된 김윤식의 『속음청사』는 1887년~1921년 약 35년간의 일기인데, 이중 1898년~1901년(9~10권)이 제주 유배 중의 기록이다. 이상 총 21권의 개인문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한편 제주인이 남긴 개인 문집으로는 다음의 네 권을 꼽을 수 있다. 이한진의 『매계선생문집』, 김양수의 『난곡시집』, 김희정의 『해은문집』, 안병택의 『부해문집』이 그것이다. 이들 문집은 대부분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던 유고시문집 등이 후세에 편철되어 전하기 때문에 문집 자체는 조선시대 고문헌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시기가 19세기 후반 무렵이며 남긴 시문 역시 당대의 산물이고, 무엇보다 제주인이어서 그들의 문집을 통해 당시의 제주 실정을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된다.

[표 1] 개인문집 일람

연번	서명	저자	시기	소장처
1	노촌선생실기	이약동	1473년(성종 4)	제주교육박물관
2	(금남)표해록	최부	1488년(성종 19)	국립중앙도서관
3	제주풍토록	김정(金淨)	1521년(중종 16)	대전시립박물관
4	영해창수록	조사수, 박충원	1540년(중종 35)	서울대규장각
5	남명소승	임제	1578년(선조 11)	성균관대도서관
6	남사록	김상헌	1602년(선조 35)	서울대규장각
7	제주풍토기	이건	1635년(인조 13)	서울대규장각
8	남사일록	이증	1680년(숙종 6)	개인 소장
9	지영록	이익태	1696년(숙종 22)	국립제주박물관
10	병와집	이형상	1703년(숙종 29)	서울대규장각
11	해외문건록	송정규	1705년(숙종 31)	일본 천리대도서관
12	우암선생문집	남구명	1715년(숙종 41)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13	탐라문건록	정운경	1735년(영조 11)	서강대 • 단국대 도서관
14	노봉선생문집	김정(金儆)	1737년(영조 13)	고려대도서관
15	북헌집	김춘택	1760년(영조 36)	서울대규장각 • 국립중앙도서관
16	탐라록	신광수	1764년(영조 40)	고려대 • 성균관대도서관
17	표해록	장한철	1771년(영조 47)	국립제주박물관
18	정헌영해저감록	조정철	1824년(순조 24)	서울대규장각 • 국립중앙도서관
19	탐라록	이원조	1843년(헌종 9)	한국국학진흥원
20	탐라직방설	이강희	19C 중엽 (추정)	일본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
21	속음청사	김윤식	1901년(고종 38)	국사편찬위원회

『매계선생문집』은 조천 신촌리 출신 매계 이한진의 문집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를 사사했고, 당시 제주목사인 목인배로부터 ‘남도의 태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삼천서당에서 훈학에 힘썼으며, 문하생으로 안달삼, 김희정, 이계정 등이 있다. 시 264수가 전하며, 이중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10곳을 선정하여 ‘영주십경’이라 이름 붙이고 시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저작이 돋보인다.

『난곡시집』은 조천리 출신인 난곡 김양수의 시집이다. 영주십경 및 한라산의 정취 등을 담은 한시 총 275수와 「제주향교중수기」를 포함한 잡저 6편 등이 수록됐다. 김양수는 제주목관아에 있는 「영상이공최응영세불망비」의 비음을 지은 인물로, 금석문으로도 그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은문집』은 매계 이한진의 문하생이며, 면암 최익현을 사사했던 조천 출신 해은 김희정의 유고시문집이다. 내용은 시 430여 수, 문 29편 등으로 되어있다. 그의 「한라산기」는 현전하는 제주인 최초의 한라산등정기이며, 「도해록」은 구한말 일본의 제주어장 침탈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이다. 김희정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훼손되자, 오현을 다시 추모하기 위해 1892년(고종 29) 그가 발의하여 오현의 조두석을 세워 현재의 오현단을 조성한 인물이다.

『부해문집』은 조천 선흘리 출신 부해 안병택의 유고 문집이다. 그는 부친 안달삼의 가르침을 받다가, 25세 되던 해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옮긴 후 노사 기정진 및 송사 기우만에 게 성리학을 익힌 유학자이다. 그의 문인으로는 의병장 고사훈, 김만석 및 유학자 김석익,

이응호 등이 있다. 시 389수, 간찰 258편, 기•서•설 등의 문 15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총 네 권의 제주인 개인문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주인 개인문집 일람

서명	저자	생몰년	수록 내용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1823~1881	「영주십경」 등 한시 264수
난곡시집	김양수	1828~1887	한시 275수, 잡저 6편
해은문집	김희정	1844~1925	한시 430수, 문 29편
부해문집	안병택	1861~1936	한시 389수, 간찰 258편, 기•서•설 등 151편

2. 역사지지서

제주의 역사지지서는 총 13편이 전한다.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3편, 지방(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10편이 전한다. 이들 문헌에는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물, 방어시설, 고건물, 명환, 인물, 제영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해 백과사전 역할을 하는 문헌으로 조선시대 제주의 실정 전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제주사 또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에 의해 널리 읽혀졌던 문헌이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3편은 모두 조선전기에 편찬된 것으로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들 수 있다. 『고려사(지리지)』(권57, 탐라현)는 정인지 등이 1451년(문종 1)에 편찬한 문헌으로 제주의 건치연혁과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권151, 제주목•정의현•대정현)는 1454년(단종 2)에 편찬한 문헌으로 제주의 건치연혁과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상 두 문헌은 제주에 관한 내용이 처음 소개되었지만 내용이 빈약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은 제주의 건치연혁, 풍속, 토산 등 총 19항목에 달하는 주제별로 제주의 실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도 풍부하다. 사실상 제주 역사문화 백과사전의 출발점으로 이해되는 중요한 문헌이다. 원래 노사신 등이 1481년(성종 12)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 이행 등이 이를 증수하여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제주(목)에서 발간한 역사지지서로는 총 10편이 있다. 먼저 제주목사의 명으로 편찬된 지지서가 4편으로 이원진의 『탐라지』, 이형상의 『남환박물』, 윤시동의 『증보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이 있다. 읍지류로는 5편이 있는데 정조 때 편찬된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와 고종 때 편찬된 『제주군읍지』, 『대정군읍지』, 『정의군읍지』가 있다. 이들 지지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는 그 주제가 최소 2배가 넘는 36항목에서 44항목까지 소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 역시 방대한 분량이 기술되어 있어 제주 역사문화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 된다. 예컨대 1765년(영조 41) 간행된 윤시동 목사 때의 『증보탐라지』는 조선전기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는 항목별로 세분화한 주제가 눈에 띈다. 관방이 방호소와 수전소로, 봉수가 봉수 및 연대로, 인물에는 효자, 열녀가 별도로 소개되어 있다. 또 부세 수취와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전결,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등 제주의 사회경제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그것이다.

한편 위의 역사지지서와는 달리 편년체 제주통사로 김석익의 『탐라기년』(영주서관)이

1918년 출간되었다. 비록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제주인이 제주 역사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편년체로 상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전의 『탐라지』 류에서 확인되는 ‘건치연혁’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정통 사서들을 두루 섭렵하며 인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역사지리지 13편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는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의 역사지리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종본 성격으로 1954년에 출간된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도 함께 소개한다. 이들 역사지리지에 대한 역주 사업도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은 한글로 번역되어 주석까지 보충하여 제공되고 있다. 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제주의 역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3. 제주목 장계 • 서계첩

제주의 수령(목사 • 현감 등)이 제주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글을 장계(계문)라 하며, 어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글을 서계라 한다. 총 5편의 고문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장계초』, 『서계집록』, 『탐라계록』, 『탐라목관첩』, 『제주계록(탐영계록 • 탐영별계록 • 제주목별계록)』 등이다.

『탐라장계초』는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린 장계만을 모아 별도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장계의 내용에 따라 공물, 포작, 잡녀, 부세, 계후, 시사, 제례, 마정, 농사 등 총 19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편철하였다. 18세기 초 당시 제주의 현안 및 사회경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서계집록』은 조선후기 정조 때 어사들의 서계를 모은 것이다. 총 9책의 필사본으로 1777년(정조 1)부터 1794년까지의 서계인데, 이 중 제4책이 제주순무어사인 박천형의 서계이다. 『탐라계록』은 이원조 목사 재임 중인 1841년(헌종 7)부터 1843년(헌종 9)까지 조정에 보고하거나 청원한 장계(105건)들을 정리한 책이다. 내용은 이양선 출현, 조난사고, 굴의 작황 및 진상, 중죄인 심리 내용, 말의 진상 등으로 되어 있다. 『탐라목관첩』은 1845년(헌종 11)부터 1854년(철종 5)까지 10년간 재임한 제주목사 6인(권직, 이의식, 장인식, 이현공, 백희수, 목인배)이 조정에 올린 장계(99건)를 정리한 책이다. 내용은 이양선 및 표류민, 굴나무 현황, 환곡 및 군역의 폐단, 우도와 가파도의 개간과 입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계록(탐영계록 • 탐영별계록 • 제주목별계록)』은 1846년(헌종 12)부터 1884년(고종 21)까지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을 편철하여 낸 책이다. 총 5책의 필사본으로 이루어졌는데, 198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19) • 전라도편(2)에 영인 수록하여 간행되었다. 총 498건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류민, 해상사고, 제주삼읍의 농사 현황, 굴의 종류와 진상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표 3] 역사지리지 일람

서명	간행연대	편저자	내용(주제 항목)
고려사 지리지	1451(문종 1)	정인지 등	건치연혁, 해로 (2항목)
세종실록 지리지	1454(단종 2)		건치연혁,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8항목)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중종 25)	이행 등	건치연혁, 성씨, 풍속, 형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궁실, 누정, 학교, 교량, 불우, 사묘, 고적, 명환, 인물, 제영 (19항목)
탐라지	1653(효종 4)	이원진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교량, 토산, 전결, 성곽, 방호소, 수전소, 봉수,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열녀, 제영 (36항목)
남환박물	1704(숙종 30)	이형상	읍호, 노정, 해, 도, 기후, 지리, 경승, 사적, 성씨, 인물, 풍속, 문예, 무예, 전답, 토산, 금, 수, 초목, 과원, 마우, 물고기, 약재, 공물, 무역, 사당, 관방, 봉수, 창고, 공해, 병제, 공방, 노비, 관리, 행적, 고적, 명환 (36항목)
증보탐라지	1765(영조 41)	윤시동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지형, 형승, 산천, 도리, 교량, 풍속, 토산, 면촌, 호구, 전결, 성곽, 방호소, 수전소, 봉수연대, 관우,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충신, 열녀, 제영 (41항목)
제주읍지	1781(정조 5)	정조	건치연혁, 군명, 관직, 방리, 도로, 성지, 산천, 성씨, 풍속, 학교, 서원, 단묘, 공해, 진보, 봉수, 교량, 목장, 누정, 형승, 도서, 물산, 진공, 상납, 호구, 전충, 전세, 대동, 봉름, 요역, 창고, 조적, 군기, 군액, 노비, 선생안, 인물, 과환, 고적, 책판 (39항목)
제주대정정의읍지	1793(정조 17)	정조	
탐라지초본	1843(헌종 9)	이원조	건치연혁, 읍호고증, 산천, 도서, 물산, 토속, 관직, 씨족, 방리, 호구, 도로, 교량, 성지, 단묘, 학교, 공해, 누관, 진보, 봉수, 목양, 과원, 공헌, 전결, 대동, 봉름, 요역, 조적, 창고, 군액, 노비, 공장, 인물, 과환, 형승, 제영, 고적 (36항목)
제주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방호소, 수전소, 교량, 토산, 전결, 성곽,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장관,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열녀, 불우, 시읍지(경영리수, 본주사표, 도리, 결충, 호충, 공헌, 천물, 사환, 마장, 장화세충, 공해, 단묘, 진보) (44항목)
대정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정의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탐라기년	1918	김석익	서, 의례, 탐라위호연혁도, 외서(탐라국), 권1(고려), 권2~4(조선), 부록(1906~1955)
증보탐라지	1954	담수계	지리(산천, 천지, 사수, 도로, 도서), 명소고적(명승, 고적, 관아, 누정, 창고, 성곽, 봉수, 사묘, 학교, 사찰, 과원, 감귤, 목장), 연혁(통사, 기문전설, 제영, 구례), 기상, 풍속, 구획, 관공서, 교통, 통신, 교육, 종교, 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산업기관, 금융기관, 인물(과환, 진사, 문학, 재유, 필원, 효자, 의사, 효부, 열녀, 절부, 의녀, 충비, 의술, 천문, 지리, 부호, 골계, 승려, 기타), 관풍안 (55항목)

[표 4] 제주목 장계·서계첩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탐라장계초	1702(숙종 2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4-2호)
서계집록(제4책)	1781(정조 5)	서울대 규장각
탐라계록	1841(헌종 7)~1843(헌종 9)	제주교육박물관
탐라목관첩	1845(헌종 11)~1854(철종 5)	서울대 규장각
제주계록(탐영계록· 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 록)	1846(헌종 12)~1884(고종 21)	서울대 규장각

4. 군사 전적류

조선시대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총 5편이 있는데 시대순으로 『제주속오군군적부』, 『탐라방영총람』, 『보초등록』, 『대정군 군병도안』,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이다. 물론 이 문헌 외에도 각종 역사지리지서에도 ‘성곽’, ‘봉수’, ‘군액’ 등의 주제로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속오군군적부』는 이형상 목사가 1703년(숙종 29) 『탐라순력도』를 제작할 당시 배지(背紙)로 사용했던 낱장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2000년 『탐라순력도』를 보수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조선 숙종 때 정군이 아닌 속오군(예비군)에 대한 군적부로 직역, 이름, 나이, 부친명,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염 상태, 흉터, 기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의 방어체계와 사회제도를 엿볼 수 있다. 『탐라방영총람』은 조선후기 영조 때인 1760년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의 군정, 제주목관아 배치도, 주요 인적 구성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삼읍 군병의 총수를 15,290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봉수와 연대를 구분하여 소개해 봉수 24개소, 연대 37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보초등록』은 1795년(정조 19)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때 진상마의 내역을 기록하여 전라도 감영에 보고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다. 동원된 뱃사공 이름, 배의 길이와 크기, 배에 실은 말의 성격과 숫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정군 군병도안』은 1870년(고종 7)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병들의 도안이다. 도안은 정기적으로 각종 군병들을 조사하여 그 소속이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성정군, 좌우마대, 속오군, 군수 수졸, 차귀진·모슬진외 방군과 파수, 봉수·연대의 각종 군병, 교직생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 수록 인원은 1,843명이며, 당시 지방의 군사행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은 제주의 병제와 봉수연대에 관한 기록으로 편자, 편년은 미상이다. 제주 삼읍의 군제, 봉수연대, 장졸총록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5. 방목류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총 네 편이 있는데 시대순으로 『급제선생안』, 『탐라빈홍록』, 『용방록』, 『연방록』이다. 물론 이 문헌 외에도 『탐라지초본』(이원조) 및 『증보탐라지』(담수계) 등 역사지리지서에도 ‘과환’의 주제로 제주인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명단을 확인하려면 이들 문헌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급제선생안』은 1720년(숙종 46)부터 처음 작성되었으며 1558년(명종 13)부터 1815년(순조 15)까지 총 338명의 무과급제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탐라빈홍록』은 1794년(정조 18년)에 제주도에서 시행한 문무과의 시행경위와 급제자 명단, 과문 등을 한데 모아 규장각에서 간행한 것이다. 내용은 윤음, 장계, 회유문, 방목, 과문 등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용방록』은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이다. 표제는 용방록이라 하였으나 안 표제는 「진신선생안」이라 되어 있다. 『연방록』은 조선시대 소과(사마시)인 생원과, 진사과의 향시(1차)와 회시(2차)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이다. 표제는 연방록이라 하였으나 내제는 「사마선생안」이라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6]이다.

[표 5] 군사 전적류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제주속오군군적부	1703년(숙종 29) 이전	제주국립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5호 (2002.04.17.)
탐라방영총람	1860년대 추정	개인 소장	•
보초등록	1795년(정조 19)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0호 (2009.07.24.)
대정군 군병도안	1870년(고종 7)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9호 (2009.07.24)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	미상	서울대 규장각	•

[표 6] 방목류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급제선생안	1720년(숙종 46)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2호 (1991.06.04.)
탐라빈홍록	1794년(정조 18)	서울대 규장각	•
용방록 (진신선생안)	1863년(철종 14)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0호 (1991.06.04)
연방록 (사마선생안)	1891년(고종 28)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1호 (1991.06.04)

6. 기타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아 엮은 『효열록』이 있다. 1834년(순조 34) 당시 한응호 제주목사의 명으로 김영락이 작성하였는데, 효자, 효부, 열녀, 의사의 순서로 총 62인의 효행, 열행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8호(2009.07.24.)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Ⅲ. 맺음말

제주의 고문헌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저술이 있다. 개인문집 총21권, 역사지리지 총 13편, 제주목 장계·서계첩 5편, 군사전적류 5편, 방목류 4편, 효열록 1권 등 약 50편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 고문헌은 제주의 역사문화 전반을 알고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제주의 편년 역사를 알고 싶으면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읽고, 풍속, 토산, 방어시설, 명승, 고적, 인물, 관리 등 제주의 각 분야별 자세한 실정을 알고 싶으면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를 읽으면 된다. 제주의 역사문화를 고문헌으로 처음 접할 때 위의 두 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임제의 『남명소승』과 김상헌의 『남사록』 같은 개인문집을 읽으면 당대 제주의 상황 뿐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제주를 일주하고 한라산을 등반했던 그들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최부와 장한철의 『표해록』 및 『해외문견록』(송정규), 『탐라문견록』(정운경) 등을 읽으면 제주인과 외래인의 교류 관련 사실과 여정 및 해양을 통한 상호 교류의 과정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제주의 고문헌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은 번역이다. 한문으로 된 원문을 한글로 해석하고 거기에 참고 해설까지 붙인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고문헌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번역서, 역주서 등이 없어서 제주의 역사문화를 깊이 연구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했고, 따라서 한문에 소양 깊은 일부 향토사학자 등의 연구자만 고문헌과 고문서류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전후부터 제주의 역사지리지 및 개인문집 등이 번역되고 해설까지 곁들인 역주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10여 년간은 제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두 기관을 중심으로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에 대해 다양한 역주서가 출간되어 일반인의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 차원 끌어올려주고 있다.

참고 문헌

- 고양부삼성사재단, 『삼성사 소장 고문헌·편액』, 2016.
 고창석 역주, 『제주계록』, 서귀포시, 1996.
 고창석 역주, 『효열록(김영락)』, 제주교육박물관, 1996.
 고창석 역해, 『하가리 소장 고문서(영인본)』, 제주문화원(북제주문화원), 2007.
 고창석 외 역주, 『탐라지초본(상·하)』(이원조), 제주교육박물관, 2007.
 고창석 역해, 『향토문화교육자료집(효열록·대정군군병도안·보초등록)』, 제주교육박물관,

2011.

- 고창석 해제, 『우리고장의 기록문화유산(안성리)』, 서귀포문화원, 2011.
- 고창석 역해, 『제주의 고문서』, 제주교육박물관, 2012.
- 고창석 • 김상옥 역주, 『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2.
- 고창석 역해, 『역해 탐라빈홍록』, 제주교육박물관, 2013.
- 고창석 역해, 『탐라계록 • 제주목관첩』, 제주교육박물관, 2017.
-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19) • (전라도편 2) • 「제주계록」, 1986.
- 김동진, 「제주향교 소장 조선후기 고문서 자료의 종류와 내용」 『역사와 실학』 (36), 2008.
- 김영길 역주, 『국역 우암선생문집(남구명)』, 제주교육박물관, 2010.
- 김영길 역주, 『국역 매계선생문집(이한진)』, 제주교육박물관, 2016.
- 김영길 역주, 『국역 증보탐라지』 (윤시동), 제주문화원, 2016.
- 김영란, 「소장 고문서자료의 종류와내용」, 『학예~보고서』 (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009.
- 김영란, 「안민고 절목(해제)」, 『공립박물관 학예~보고서』 (2), 제주도 문화진흥본부, 2010.
- 김영란, 「제주 어도리 진주강씨가의 토지매매 연구」, 한국한중양연구원 장서각 콜로키움 (제31회), 2012.
- 김오순, 『탐라순력도 산책』, 제주문화, 2001.
- 김용태 • 김새미오 옮김, 『해외문견록(송정규)』, 휴머니스트, 2015.
- 김익수 역주, 『속음청사(김윤식)』, 제주문화원, 1996.
- 김익수 역주, 『지영록(이익태)』, 제주문화원, 1997.
- 김익수 역주, 『남사일록(이증)』, 제주문화원, 2001.
- 김익수 역주, 『노봉문집(김정)』 (1,2), 제주문화원, 2001 • 2003.
- 김익수 역주, 『정헌영해처감록(조정철)』, 제주문화원, 2006.
- 김익수 역주, 『도영절차』,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007.
- 김익수 역주, 『규창집(이건)』, 제주문화원, 2010.
- 김일우외역주, 『역주제주고기문집(제주풍토록 • 남명소승 • 제주풍토기 • 탐라록)』, 제주문화원, 2007.
-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이원진), 푸른역사, 2002.
- 김희동 역주, 『남사록(김상헌)』, 영가문화사, 1992.
- 박성호, 「장서각 제주도 고문서 조사수집 활동과 현황」, 한국한중양연구원 장서각 콜로키움(제31회), 2012.
- 박찬식, 「제주계록의 종합적 검토」, 『탐라문화』 (1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
- 백규상 역주, 『역주 규암선생문집(송인수)』, 제주교육박물관, 2014.
- 백규상 역주, 『역주 해은문집(김희정)』, 제주문화원, 2014.
- 백규상 역주, 『역주 탐라록(이원조) • (상)』, 제주문화원, 2016.
- 서울대 규장각, 『고문서』 (1~47), 1986~2014.
- 신호열 • 임형택 역주, 『역주 백호전집』 (상 • 하), 창작과비평사, 1997.
- 오문복 역주, 『노촌선생문집(이악동)』, 제주교육박물관, 2006.
- 오문복 역주, 『부해문집(1~4) • (안병택)』, 제주문화원, 2008~2015.
-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2004.
- 이상규 • 오창명 역, 『남환박물』 (이형상), 푸른역사, 2009.

- 이진영 역주, 『국역 난곡선생문집(김양수)』, 제주교육박물관, 2015.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 정민 역, 『탐라문건록(정운경)-바다 밖의 넓은 세상』, 2008.
- 정수환, 「제주지역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한국한중양연구원 장서각 콜로키움(제31회), 2012.
-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제주풍토록 • 남사록 • 탐라지 • 제주풍토기)』, 1976.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 지도』, 1996.
- 제주시 •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제주속오군군적부』, 2001.
- 제주시 •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2000.
- 제주시, 『제주목관아 소장유물』, 2013.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문서).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집성(108)』 (제주 애월 수산리 • 중엄리 • 하가리 고문서), 201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집성(110)』 (어도 진주강씨 • 조천 김해김씨 • 구좌 동래정씨 고문서), 201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집성(114)』 (진주강씨 • 곡산강씨 • 김해김씨 • 경주김씨 • 제주고씨 • 동래정씨 고문서), 2015.
- 허원영, 「제주지역 고문서의 연구 방법과 전망」, 한국한중양연구원 장서각 콜로키움(제31회), 2012.
- 허홍식, 『한국의 고문서』, 민음사, 1988.
- 현행복 역주, 『탐라직방설(이강회)』, 도서출판 각, 2008.
- 현행복 역주, 『영해창수록(조사수 • 박충원)』, 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011.
- 홍기표 역주, 『남사록(김상헌) 역주(상 • 하)』, 제주문화원, 2008 • 2009.
- 홍기표 외 역주, 『역주 탐라기년』 (김석익), 제주문화원, 2016.
- 홍순만 외 역주, 『역주 증보탐라지』 (담수계), 제주문화원, 2005.

제주 고문서와 이두

- 제주 고문서 중 姜受璜 후손가 결송입안에 나타난 이두의 사용례 -

양진석(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

제주도에 현존하고 있는 고문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타도에서처럼 고문서가 다양하고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새로운 고문서가 발굴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는 고문서의 대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것들이라 하겠다.

그동안 제주도와 관련하여 간행된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고문서 및 고도서 관련 자료로는 제주도 관련 읍지를 비롯하여 절목과 같은 고문서들을 들 수 있으며,¹⁾ 하원리의 호적중초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작성된 호적중초들을 들 수 있다.²⁾ 그 외에도 제주 관련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발굴되어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제주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근래에는 고문서를 소장한 집안들의 것들을 소개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³⁾

제주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과 지리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타 지역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제주가 언어와 풍습이 타 지역과 유별될 정도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와 함께 이곳은 산업에서도 바다와 농사를 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논이 거의 없고 밭이 대부분인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언어 혹은 풍습들도 타지역과는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세제와 관련하여 전세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채취되는 각종 해산물과 굴과 관련된 농사 및 목장과 관련하여 진상되어야 하는 각종 특산물들은 제주 지역민들의 생활을 제약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주민들의 생활은 제주의 여러 기록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제주관련 자료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시대의 제도적인 규정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중앙의 제주에 대한 통제력이 보다 강화되면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제주만의 독자적인 형태만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현존하는 많은 기록들이 식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제주 외의 지역에서 작성

1) 읍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으로는 『탐라순력도』를 비롯하여, 『탐라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고문서는 고창석의 『제주도고문서연구』(2002, 세림)를 비롯한 고문서 및 고도서 관련자료를 소개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 1992년에 최초로 『제주하원리호적중초』가 간행되어 소개되었으며, 이후 제주의 여러 지역에서 작성된 『호적중초』들이 영인 간행되었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문서집성』으로 모아져 간행되었으며, 현재 일부 집안의 것만 간행되어 많은 고문서들이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된 것과 유사한 내용을 지닌 경우가 많다. 특히 제주목사가 중앙에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들은 타 지역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기록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일방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중앙이 파견한 관리의 요구와 제주 토착민들의 생각과 표현이 상호 타협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기록들은 기록물의 성격상 대체로 중앙에서 요구하는 표준적인 내용을 담는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문서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절목, 토지매매문기, 분재기 등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도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제주도의 언어가 드러나고 있으며, 제주도 관련 고문서에서는 이두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제주에서 작성된 문서들 중에서 결송입안을 택하였다. 결송입안은 문서의 성격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여 판결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술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 간의 공방들이 담겨 있으며, 보다 많은 증거를 대기 위해 진술 내용들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진술 중 많은 부분은 대화체적인 서술을 띤 진술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생한 언어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들의 진술이 문장으로 서술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말투가 변형되고 있는 점은 감안하고 살펴야 한다. 제주어가 공식적인 문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변형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 제주의 문서가 지니는 모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1. 결송입안의 제작시기와 내용구성

검토대상으로 삼은 ‘濟州牧決給立案’은 訟官인 濟州判官이 원고와 피고의 진술 및 관련 증거 문서들을 살핀 후 결급한 문서이다. 원고는 喪人 洪敬源과 姜彦俊, 高孝彦, 校生 金挺傑 등으로 제주에 거주하였는데, 현재 문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진술의 주체는 강언준이다. 이에 상대자인 피고는 한성부에 거주하는 李順達이다. 소송대상은 노비 2口로, 비福台(補台, 補代)와 노 石叱屎(石廻屎)이다. 제주판관은 최종적으로 원고 강언준에게 소송대상 노비 2구를 결급하였다. 입안을 결급하게 된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문서가 부족하고, 그가 진술하는 과정에 1차 진술과 2차 진술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가족 관계를 1차와 2차 진술에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들고 있다.

이 문서의 소장처는 濟州 於道 晉州姜氏 姜受璜 後孫家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 발간하여 『고문서집성』 110책 300~305쪽에 실었다. 이 문서의 중간부분이 결락되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중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이두와 관련한 부분은 문서의 해당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어서 제주지역에서 사용된 문서의 실제 사용례를 다루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문서는 초서로 쓰여 있으며, 여러 곳에 부분적으로 훼손된 곳들이 있어서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일부 훼손된 곳들

은 이미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맞춰갈 수 있다. 앞뒤의 문서들의 내용들을 서로 대조하고, 한편으로는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두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곳은 이두의 서술과 관련된 특성을 감안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정할 수 있기도 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영인본인 『고문서집성』 110책에는 이 결송입안이 1577년(선조 10)년에 작성된 것으로 제시하다. 그러나 이는 연대 설정을 잘못된 것이다. 아마도 등장을 제출하는데 참여한 강언준(1530 ~ ?)의 나이 49세인 때에, 다른 이들과 함께 그가 등장을 낸 것을 기준으로 삼아 1577년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언준의 나이가 정확하고 아울러 이를 기준삼아 계산하더라도 적어도 1578년에 해당하며, 1년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나마 계산상의 잘못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결송입안이 작성된 시기가 1577년이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결송입안이 작성된 시기는 등장의 형태로 소지를 작성한 시기로 설정할 수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결송입안이 작성된 시기를 확정지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처음에 제시된 등장은 원고인 강언준 외의 사람들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청에 바친 것으로 결송입안을 받기 위한 과정에 작성된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소지 혹은 등장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시점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소송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 시송다짐을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결송입안도 많은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내용 중 109행에 ‘萬曆 19년’에 掌隸院 立案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도 決訟立案을 발급한 것은 1577년일 수는 없다. 시송한 이후 적어도 1591년(선조 24)까지도 소송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송입안이 작성된 시기는 더 이후로 꼽을 수밖에 없다.

이 결송입안식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적어도 임진왜란이 있었던 1592년(선조 25)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문서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만력 19년(1591년, 선조 24)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壬辰年之亂”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1592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임진왜란이 발생한 이후의 시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은 174행의 ‘乙未年’이란 표현 때문이다. 이는 1595년(선조 28)로 임진왜란이 일어나 진행 중인 상태인 시기이다. 그러나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작성시기가 훼손되어 있고, 작성시기를 정확하게 지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수황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 중에는 1601년(선조 34)에 강언준과 이순달 간의 노비매매 관련 조사(영인본 434쪽)가 있는데, 이는 이순달이 강언준에게 노비를 방매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진술서이다. 이 문서가 해당 시기에 작성된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결송입안은 1601년 이후로도 볼 수 있다. 양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서 위의 결송입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결송입안은 적어도 17세기 초반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연계하여 살필 때, 이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두들은 적어도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사용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중간 부분에 많은 내용이 缺落되어 있어서 소송과정의 모두를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도 그간의 소송과정에서 언급된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決訟立案을 살펴보면, 姜彦俊을 비롯한 다수인의 등장과 시

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 및 증거문기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문서의 형식적인 구성은 총 14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 1행 始面, (2) 2행 起頭語, (3) 2행~15행 원고 강언준 등의 등장等狀, (4) 15행~18행 始訟俁音, (5) 18행~45행 원고 강언준의 招辭, (6) 45행~101행 피고 유학 李順達의 조사, (7) 101행~115행 원고 강언준이 제출한 증거 문서인 <매매문기 사급 입안>, (8) 115행~125행 원고 강언준이 제출한 증거 문기인 <이규장이 강언준에게 써 준 불망기不忘記>, (9) 125행~136행 원고 강언준 등의 조사 (피고 이순달이 제출한 증거 문기<김륜 처 조씨가 신경광 처 김씨에게 준 별급 문기> 포함), (10) 136행~171행 원고 강언준 등의 조사, (11) 171행~182행 피고 이순달의 조사, (12) 182행~185행 결송다짐, (13) 185행~236행 판결, (14) 237행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문서를 보면 소송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세기 초에 여러 문서들 중에서도 소지류를 중심으로 그 형식을 정리한 『儒胥必知』에는 「決訟立案式」이 소개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 「決訟立案式」은 이전의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18세기까지 적용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16세기의 문서 중에도 1578년 홍해군의 결송입안과 같이 앞의 문서와 같은 형식을 그대로 갖춘 경우도 있으나, 다만 개별 決訟立案들은 이와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도 있다.

참고적으로 『儒胥必知』에 제시된 「決訟立案式」은 다음과 같다. 다소 길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형식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決訟立案式」 初行

年號某年某月日某官立案⁴⁾

右立案爲決給事⁵⁾ 節呈某人所志云云是乎等乙用良이

온들쓰아 隻某捉來始訟次 某年月日 元告某年幾許

各戶牌準 白等矣徒等의니등 某物相訟事以로 當日

日⁶⁾ 始訟爲白在果호숯결⁷⁾과 元隻中如有滿限不就訟

者是去等이거는 依法典親着人處 決給敎事 各各 白

着名是齊이저⁸⁾

同日元告某 更推 白等 汝矣身亦너의

몹이여 矣身云云敎味白齊이산맛숯저⁹⁾ 同日 隻某更

招 白等 元告某呈狀據 某物相訟根因 現告亦 推問敎¹⁰⁾

敎是臥乎在亦 矣身云云敎味白齊 各各 白 着名是齊¹¹⁾

同日元告某 隻某 更招 白等 汝矣等 可考文書 各各現

納亦 推考敎是臥乎在亦 元告某段 某某文書 并幾度

隻某段 某某文記幾丈 一時現納爲白去乎 彼此文記

4) 始面이다.

5) 起頭語이다.

6) ‘日’이 重複, 愼字

7) ‘결’의 잘못. 같은 책에 실린 「吏頭彙編」에는 ‘호숯결과’로 기록되어 있음.

8) 始訟俁音이다.

9) 원고의 招辭이다.

10) ‘敎’가 重複, 愼字

11) 피고의 招辭이다.

相考處決敎味 各各 白 着名是齊¹²⁾
 同月某日 元告某 更
 招 白等 隻某 所供云云是置有亦이두이시이여 矣身
 云云 更良가식아 相考處決敎事 同日 隻某 更招 白等
 元告某所供 如此如此 矣身云云 更良 相考處決敎味
 各各 白 着名是齊¹³⁾
 同月某日 元告某 隻某 更招 白等 汝
 矣身 所訟某物落漏除良 各各 詳細花名現納亦 推考
 敎是臥乎在亦 矣徒等 上項某物 各各 別件花名著名
 以納爲去乎 如有落漏之事是去 依法典處置敎味 各
 各 白 着名是齊¹⁴⁾
 同日 元告某 隻某 更招 白等 汝矣身相
 訟 未盡條件乙 更良 現告亦 推考敎是臥乎在亦 矣徒
 等 相訟根因段 各日招納之外 更無所達是去乎 依官
 式 施行敎味 各各 白 着名¹⁵⁾
 16)爲等如히트리 元隻招辭是
 置有亦 元告段 如此如此 隻某段 如此如此是乎等以
 某人處 某物決給立案于後爲遣 合行立案者¹⁷⁾
 某官 着押
 後錄 依此花名列書 印

『儒胥必知』에 실린 「決訟立案式」의 형태를 始面, 起頭語를 비롯하여 본문 및 結辭를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하여 실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구분하여 별행으로 처리하였다. 기두어부터 결사에 이르는 본문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기록될 수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참고하여 이해하면 결송입안이 작성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노비와 관련한 것이었다. 원고 강언준이 1588년(선조 21)에 司果 柳積에게 제주에 사는 奴 召口達, 婢 石代를 매득했는데, 유적의 5촌 숙부 李奎章의 사위인 李順達이 빼앗아 갔다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적과 이규장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화회 분깃이 이루어져 유적은 노비인 비 북태와 노 석질시로 바꾸어 부리고, 장예원에 서 입안도 사출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이순달은 법전의 내용 중에 동생 외에 화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면서 해당 노비들은 李封 후처의 재산이어서 전처의 자손인 유적이 상속 대상자가 아니며 유적이 盜賣한 것임을 주장했다.

원고는 증거로 매득 사실을 공증한 장예원 사급 입안, 이규장이 강언준에게 준 不忘記, 이규장이 신공을 받아오도록 한 패지의 후록에 수록된 노비 명단을 들었으며, 피고는 선대

12) 원고와 피고의 증거(可考文書) 제출이다.

13) 재차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更招招辭이다.

14) 삼차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更招招辭이다. 추가 증거 제시.

15) 원고와 피고의 決訟招辭이다.

16) 이하 판결 내용이다.

17) 結辭이다.

의 별급문서를 들었다.

2. 결송입안의 내용과 이두의 사용례

다음에 예시하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해당하는 이두가 있을 경우 관련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밑줄을 표시하였다.

- 001 □□□□□正月二十五日 濟州牧判官立案¹⁸⁾
- 002 □□□(右立案)爲決給事 喪人洪□□(敬源) 姜彦俊 高孝彦 校生金挺傑
- 003 □…□等狀 右謹言所志 矣徒段 京中接李順達稱名人亦 多捧勢
- 004 □…□念入來 矣徒等 京中接司果柳積處 買得奴婢等乙 其矣妻父李
- 005 □…□(奎章)奴婢樣以 無傳係文記 依勢起訟 並只 橫奪後 矣徒等亦中 貢役至亦
- 006 □…□到處勝楊爲白有如可 城主入來聞奇 自知理屈 出陸廻避次以
- 007 □…□□(用) 方待順風爲白臥乎所 奸術無乎豈不喻 側聞爲白乎矣 矣徒等
- 008 □…□買□□(得文)記乙 當初相訟時 收取紙筒上爲白有如可 欲滅他日爭訟之
- 009 端 ■主處 多般請囑 搜出持去是如爲白去等 同李順達亦 今明日間 稱爲
- 010 □…□亦中 海外之人以 控訴無路 伸冤不得爲白乎去¹⁹⁾ 各各聞望爲白良
- 011 □(結) □□(上項)李順達進來推閱 他矣奴婢買得文券 奪取辭緣 痛治後 刻期
- 012 □□教是白乎旆 其時次知通引等 并以 推問 更覈曲直 條以 其矣所率奴子
- 013 □(爲)先捉囚 俾無逃走之弊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牧官處分 萬曆
- 014 □□年十二月日所志 面質次以 李順達乙 捉來向事 十八日 官署 踏
- 015 □(印)□…□十月十一日始訟²⁰⁾ 元告洪敬源年五十 姜彦俊年四十九 高孝彦
- 016 □(年)□…□ 金挺傑年三十三 隻李順達年卅三 白等 矣徒等 奴婢相訟事以 當日
- 017 □□□□(始訟爲白)在果 彼論中 限滿無故不就訟爲白去等 依法典施行教事 白着名 白着
- 018 □(名) □□□(白着名) 白着名 白着名 官署 踏印 同月十二日 元告姜彦俊 更推白等
- 019 □…□李順達果 奴婢相訟根因 推考教是臥乎在亦 去戊戌年²⁰⁾分 初試上京爲
- 020 □…□京中接司果柳積亦 州居其矣收貢爲白如乎 奴召口達婢石代等乙 放賣
- 021 爲□□(白去)乙 買得使喚次 柳積五寸叔父李奎章亦 柳積果 祖上遺漏奴婢等乙
- 022 □□(姪子)以 獨亦 放賣是如 呈刑曹所志內辭緣以 同曹關字入送 右奴婢等乙
- 023 李奎章柳積等 和會分給問乙良 使喚安徐亦 捧²⁰⁾斜出文記乙良
- 024 收上爲白有如乎 去庚寅年分 洪敬源亦 科舉觀光事以上京 右良辭緣
- 025 呈法司 相訟始爲次 李奎章柳積等亦 五寸叔姪等以 自來退訟 祖上未
- 026 分奴婢二十餘口乙 十餘口式 和會分執爲白有去乙 柳積²⁰⁾付奴婢以 前買
- 027 □□□(得文記) 經官斜出入來豈不喻 辛卯年分 矣身亦 爲初試上京 李
- 028 □…□□(所)爲乙 爭辨曲直條以 呈法司 不意推捉 同人等文記 刻期督
- 029 □…□中 所納文記 和會判然爲白沙餘良 同文記良中 洪敬源金挺傑
- 030 等 奴婢買得 背爻周 印信 經官昭然 李奎章所持文記段置 和會分給

18) 이 자료는 박경의 탈초작업을 토대로 수정한 것이다. 그의 도움에 많이 의지하였으며, 그가 이두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하였으며, 일부 글자는 교정하였다.

19) ‘不得爲白乎去’는 ‘不得爲白去乎’의 오기로 판단된다.

20) 이 문서의 뒤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戊戌年’은 ‘戊子年’의 오기로 판단된다.

- 031 分明之餘 上項人等亦 各各衿付奴婢以 更良成文 官斜許給爲良結 自求退
 032 訟 仍爲前買得奴召口達婢石代等段 李奎章衿付爲白乎等用良 同奴婢本柳積
 033 □(衿)付婢補代奴石叱尿等 許給後 斜出爲白有在而亦 絕島之人以 趣卽出陸 呈
 034 □□得爲白乎去²¹⁾ 上項李奎章亦 右奴婢等乙 勢家多捧稱念 入送之弊 不無
 035 □…□後日 前得條以 矣身亦 前²²⁾李奎章以 和會分衿緣由 成文爲乎爲
 036 □…□ 李奎章亦 分執緣由 不意成給爲白去乙 下來爲白有在乎
 037 □…□申年 李奎章等 勢家多捧稱念 入送爲白有在而亦 前牧使教 矣²³⁾
 038 □…□□(李)奎章自手筆跡名署相考後 買得奴婢乙良 經官斜出貌如 使
 039 用爲白遣 李奎章衿付奴婢²⁴⁾ 貢亦 行下爲白乎等用良 右奴婢等乙 使
 040 喚爲如乎 李順達稱名人亦 去四月分入來 李奎章女婿稱云 矣身買得奴婢
 041 □(等)乙 據奪爲白臥乎所 絕域之人以 無訴告處 日夜呼天罔極爲白如乎 節
 042 明政守法之時 非理好訟 李順達亦 李奎章女婿眞僞 知不得爲白在果
 043 同□…□祖父前 傳係文記 及李順達亦 其妻父前應得文記 一一現納爲
 044 白乎旆 凡相訟之法 一從文券是置 李奎章自筆成文名署 相考彼此
 045 曲□(直)明決 分揀施行教事 白着名 官署 踏印 同月十三日 隻京中居
 046 幼學李順達 更推白等 洪敬源姜彦俊高孝彦金挺傑等果 相訟奴
 047 婢根因 推考教是臥乎在亦 矣妻父異姓七寸姪柳積稱名人亦 去戊子年分
 048 □□(妻)家奴婢十餘口至 州居洪敬源高孝彦梁達源吳夢悅高明允姜
 049 □(彦)俊金挺傑李公良等亦中 潛隱盜賣爲乎等以 同奴婢等 上京來告
 050 □□良 己丑年春 矣妻父李奎章亦 他矣奴婢盜賣辭緣 同柳積當
 051 □依律治罪亦 呈刑曹爲在如中 該曹備盡推閱後 隻柳積段置 一一首服
 052 爲良在乙 盜賣辭緣 并以 治罪後 該曹右良緣由移關本州 價物段 洪敬源
 053 卽時還推於柳積爲有如可 壬辰年之亂 矣妻家一門 盡陷賊手是如 聞奇
 054 爲遣 向前洪敬源等 更生謀計 侵責奴婢爲去乙 同奴婢等亦 前牧使時緣
 055 由 枚舉呈狀爲乎亦中 議送內 李哥奴婢的實勞不喻 同柳積亦 亂離之
 056 初 假稱宣傳官 橫行列邑爲如可 明示典刑爲有去等 其爲用心無狀乙 據
 057 此可知是在果 同盜賣事段 刑曹以已爲辨覈爲有去乙 恃其土豪 橫奪
 058 ■(設)計 極爲過甚 後勿如是亦 各人等 捧倭音爲有齊 節 矣身花名收貢事以
 059 入來爲在如中 向前洪敬源等 庚寅辛卯年間 柳積處 更爲買得是
 060 如 假作文記 萬端飾辭爲白乎矣 柳積亦 戊子年分 李奎章果 相訟後
 061 □(和)會分□(衿)爲有去乙 和會白文據 經官斜出是如爲去等 法典內 同生外和
 062 會不得亦爲在如中 七寸叔姪之間 和會成文 萬無其理爲旆 況旆 柳
 063 積亦 旣爲盜賣被罪後 還推其價下來爲有去等 當初段 柳積奴婢
 064 是去 的知不得 必于 誤買爲乎喻良置 厥後詳知盜賣之狀 柳積被罪
 065 之由 卽爲推價爲有在如中 庚寅年分 柳積處 又爲買得爲乎所 揆楮[諸]
 066 情理 萬無其理爲在果 設使柳積僞造白文記以 假稱和會爲乎乙
 067 喻良置 違格白文以 斜出 取實不得事是旆 至於不忘記換來是如爲臥乎
 068 所 尤于 不近人情 凡牛馬田地買賣乙良置 白文不忘記以 似難取信

21) ‘爲白乎去’은 ‘爲白去乎’의 오기로 판단된다.

22) ‘前矣’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3) ‘教矣’ 혹은 ‘教 矣’로 구분지어 보아야 하는데, 이 문장으로는 알 수 없다.

- 069 莫大奴婢買賣之際 寸紙不忘記以 爲一大證 其爲姦術 立見無疑 其間
 070 情狀 明若觀火爲齊 節 矣現納文記段 妻曾祖母亦 妻祖母亦中 傳係
 071 文記是置 相考後 向前洪敬源等 戊子年分 買得於柳積 己丑年分 還
 072 退爲乎所 刑曹關是沙餘良 前牧使時捧招緣由 及上項柳積亦 本是
 073 無狀之人以 假稱宣傳官 身被兇誅事 并以 相考 如此絕島 俾無紛
 074 紜爭訟之弊教矣 他餘圭筆繩樞 氓隸之流不喻 世爲衣冠生長□…□²⁴⁾

(文書 內容 缺落)으로 이하 101번부터 시작함.

- 101 考施行教事 □□□(白着名) □…□ 踏印 □…□
 102 致以 去戊子年 父邊傳來 收□…□居奴召口達 □(婢)□□(石代)□…□□(楮)
 103 貨各四千張本木綿三十二疋 捧□…□(上爲遣 後所生) 并以 永永放賣爲有□□五
 104 寸李奎章果 上項奴婢 未分□□(是如) 稱念入送爲乎等乙用良 買者 始訟計料□(乙)
 105 仍于 同奴婢等乙 去二月分 和會得 分執爲有在 婢玉叱三所生婢补台
 106 年戊辰生 五所生奴石叱尿□□□(年壬申)生 并二口乙 木綿參拾貳疋捧上
 107 爲遣 後所生 并以 濟州姜彦□(俊)□…□ 放賣文記成置時 矣徒等 訂
 108 人以 各各隨參爲乎事是良尔 □□(相考)施行教事 堂上署 司評署
 109 沈大進 着名 崔□(世)林 着名 踏印 萬曆十九年九月日 掌隸院立
 110 案 右立案爲糾給事 粘連所志及文記是乎等用良 放賣眞僞 自
 111 筆訂人進來 取招爲置 本文記推納 相考爲乎矣 萬曆十八年庚
 112 寅二月二十日 忠義衛李奎章 着名著 和會文記 柳積□…□
 113 三所生婢补台年戊辰生 五所生奴石叱尿年壬申生是如施行 他□(衿)
 114 奴婢并付白文是置有等以 葉作粘連退給爲遣 合行立案□□(者 堂)
 115 上署 司議 司議 司議 司□…□(評 司評 司評 司)評 踏印 同日追納辛卯十□(月)
 116 初二日 濟州居姜彦俊亦中 □…□ □(不)忘記事段 前矣 柳積亦 右姜
 117 彦俊處 同州居婢厚今所生奴□□□(召口達) □…□玉叱所生婢石代等 二口乙 放
 118 賣爲有在果 上項奴婢等乙 未□…□于 節分執爲乎矣 奴召口達婢
 119 石代段 矣衿得爲有置 同奴婢□(中) 柳積衿得 奴玉叱所生婢补台 奴
 120 石叱尿等 貳口乙 更良 成文許給爲遣 奴召口達等名付文記段 濟州官
 121 上同文記 傳書 踏印 公文段 矣亦中 許給爲在果 同州上 掌隸院糾出
 122 文記乙 歲前 奴召口達出來時 不忘記現納 受出上送爲乎矣 萬一 後
 123 次 相爭爲在如中 將此不忘記辨正爲乎事 自筆忠義衛李奎
 124 章着名著爲有置有良尔 相考施行教事 白 拒逆不着
 125 官署 踏印 同日 洪敬源金挺傑姜彦俊高孝彦等 更推白等 隻
 126 李順達所納文記內 嘉靖十年辛卯正月二十日 女嘉善□□(大夫)
 127 義興衛副護軍申景洸妻貞夫人延安金氏亦中 明文 右明文□(爲)
 128 臥乎事段 汝亦 晝夜侍側 不離勞不喻 性本溫柔 事我至孝□
 129 極爲可嘉 他無論賞乙仍于 濟州牧官郭州居婢 仇叱今所生奴□(厚)
 130 同年丁卯 婢怪之年庚午 □…□□(所)生奴訥叱孫年丁亥 二所生奴訥叱□(金)

24) 이하 101번으로 표시된 곳까지는 문서내용이 缺落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며, 중간의 내용이 탈락되어 앞뒤로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다. 탈락된 행수는 알 수 없다. 내용이 탈락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탈락된 부분을 □…□로 표시하고 탈락된 내용 바로 뒤의 행수를 101행으로 표기했다.

- 131 □(年)己丑□(等) 四口乙 後所生 并以 永永別給爲去乎 傳之子孫 鎮長使喚
- 132 □(爲)乎矣 萬一 遠近子孫中 爭望謀計爲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
- 133 □(正)爲乎事 財主 父工曹正郎金倫妻趙氏 訂 同生甥 訓練院僉正趙淑
- 134 □(男) 訂 家翁同生弟 尙衣判官金信 筆執 三寸姪 幼學金順孝 各着
- 135 □(名)署圖署爲有置 相考施行教事 白 拒逆不着 白 拒逆不着 白
- 136 拒逆不着 白 拒逆不着 官署 踏印 同月十六日 元告 洪敬源姜彦
- 137 俊高孝彦金挺傑等 更推白等 拒逆不着事段 節李順達招內 其矣
- 138 所訟奴婢等乙 去戊子年分 矣徒等 一時買得爲乎樣以 泛然納段爲白良置
- 139 金挺傑段 和會分給後 辛卯買得爲有旆 況旆 柳積之祖父 乃李奎章母矣
- 140 同生甥是白去乙 同柳積 李奎章矣七寸姪子是如 寸數疎遠詐稱爲白有齊
- 141 上項 李順達亦 實爲李奎章女婿是在如中 必有其妻家傳係文記事
- 142 良中 其矣所納文券段置 柳積曾祖父矣妻母金氏 別得文記是白去等 其矣
- 143 妻曾祖母趙氏亦 其妻祖母申景洸妻金氏亦中 傳係是如爲白乎旆 其矣妻
- 144 祖母段 柳積矣同姓四寸大母柳氏是去乙 金氏是如 變稱納段爲有在而亦 其
- 145 矣妻曾祖母段 李奎章之祖母也 其矣妻祖母段 李奎章母也 則李
- 146 哥之妻 章章明矣 而以申哥之妻 苟且變換飾辭納招爲白臥乎所 此則
- 147 不過將此久遠文記 頓邀萬一之幸 其爲情狀 極爲奸猾劣不喻 又以不
- 148 義多捧渠間 恐動上下 非理好訟之端 據此可知 雖稱衣冠之裔 反不如
- 149 繩樞之子 亂常敗倫 莫此爲甚 而揚揚憑藉 矜誇於稠人廣衆之中是
- 150 沙餘良 況又奎章順達等亦 同所納文記 實爲其矣傳係是在如中 右文記
- 151 付奴婢所生等乙 州居高百源金鏡姜宝奴千伊奴有卜山等亦中 十餘口至
- 152 退計數年間 放賣爲有去等 必有背爻周事良中 頓無爻周處 實是不當
- 153 文券 據此可知是白乎旆 李奎章自筆和會文記乙 或稱違格 或稱假作
- 154 白文是如爲白良置 義當 則不可謂之屈法其語是沙餘良 同和會乙 洪敬
- 155 源同坐處良中 分明成置劣不喻 姜彦俊段置 追乎 上京後 覈憑 李奎章
- 156 自筆不忘記捧置爲旆 奴召口達處 所奴婢收貢爲如乎 牌字 尙存爲有□(乎)
- 157 □(矣) 所訟奴婢段 不付於牌字後錄爲白有置 矣徒等 經官斜出文記及不忘
- 158 記牌字等乙 一處憑考 則可知其和會論分之由是沙餘良 所訟奴婢 專不
- 159 涉於順達之爭 自見無疑事是去乙 節李順達亦 寸紙白文以 取信不得
- 160 是如爲白在果 李奎章奴婢自筆放賣文券 尙存於高百源金鏡姜
- 161 宝等處爲白去等 一處比對 則亦知其李奎章筆跡名署事是齊
- 162 又況壬辰之亂 其妻家盡陷賊賊手聞奇 更生謀計 侵責奴婢是如
- 163 爲白良置 去丁亥戊子兩年分 買得文記以 因執使喚爲有臥乎所不
- 164 喻 其後庚寅年分 上京呈法司 始訟次 苦求退訟 和會分給 辛卯年分段
- 165 斜出使喚爲白有齊 同柳積矣 給付奴婢 放賣法當事乙 下致以 冒以論斷 強稱
- 166 盜賣是如爲白良置 其妻父李奎章段置 本州人高百源等亦中 他矣奴婢 多數盜
- 167 賣 曾已現捉 其爲奸術 莫此爲甚劣不喻 同李順達亦 前城主時 只以稱念
- 168 他給付奴婢至亦 二十餘口至 橫奪爲白有如可 節段置 亦以奸謀欺納段 欲掩其詐 僥□
- (倖)
- 169 對訟爲白有置 前矣李奎章柳積等 呈刑曹備坐推閱決得文記 李奎章傳係□□(文記)
- 170 是沙餘良 其矣妻前應得文記 并以 一一督納 明決施行教事 白着名 白着名 白

- 171 着名 白着名 官署 踏印 同日 李順達 更推白等 拒逆不着事段 前招內 無
- 172 加減爲在果 矣妻父李奎章父李封 有前後妻 柳積段 前妻之女婿曾孫
- 173 矣妻父段 後妻申氏之子 而申氏之母金氏 別得於其母趙氏之奴婢是去等
- 174 前妻後孫 絕無分執之理爲乎等用 乙未年分 州居奴召口達亦 持貢出陸 其矣
- 175 班奴婢等 洪敬源等處 受侵緣由乙 物物說善爲去乙 矣妻母亦 全羅監司道
- 176 良中 家翁前 同生妹曾孫 柳積亦 專不干人以 隱然盜賣是如 呈議送受
- 177 題音 付送乙仍于 同召口達亦 同議送乙 至今藏置爲有如可 節 矣身亦中 來授
- 178 勞不喻 同奴婢等 不勝被侵 年年呈本州 受立旨爲有去等 同議送推納 後
- 179 妻奴婢不干於前妻後孫辭緣 并以 相考教是在如中 矣妻父亦 柳積果 不爲
- 180 和會 自然明白爲旆 同奴婢等段 亦知柳積不干之由 至於呈狀立旨爲有去等
- 181 同立旨 并以 相考教是則 洪敬源等 托稱更買 威制使喚 尤于 明白爲置
- 182 相考施行教事 白着名 官署 踏印 同月十六日 元告 洪敬源姜彦俊金挺
- 183 傑高孝彦 隻李順達等 更推白等 矣徒等 奴婢相訟 各日僇音 則他無
- 184 未盡情由爲白去乎 依官式施行教事 白着名 白着名 白着名 白
- 185 着名 白着名 官署 踏印 爲等如 招辭是置有亦 元告洪敬源姜彦
- 186 俊高孝彦金挺傑 隻李順達等 奴婢相訟 各月²⁵⁾僇音 及元隻本文記 推納相考
- 187 爲乎矣 僇音是沙餘良 □(元)隻所納文記內 節該 洪敬源文記段 婢补朱婢仇叱德
- 188 高孝彦段 婢厚今婢十月 姜彦俊段 奴召口達婢石代等 本婢补台奴石廻屎
- 189 金挺傑段 婢石今等乙 去辛卯年分 京居司果柳積處 買得 掌隸院斜出
- 190 立案決尾內 萬曆十八年庚寅二月二十日 忠義衛李奎章 司果柳積 和
- 191 會 自筆 着名著 白文據 柳積衿付奴婢以 斜給爲臥乎味 文記是齊 同日
- 192 姜彦俊追納 李奎章自筆名著不忘記內 柳積亦 未分奴召口達婢石代等乙
- 193 姜彦俊亦中 放賣乙仍于 同奴婢段 矣身分執 同召口達石代等本 柳積衿付婢
- 194 补台奴石廻屎等 許給爲去乎 後次相爭爲在如中 將此不忘記 辨正亦爲有齊
- 195 高孝彦一時現納 李奎章自筆署 其奴召口達付收貢事 牌字內 奴召口達婢石
- 196 代等乙 柳積亦 前矣 姜彦俊亦中 放賣爲有如乎 節分執後 柳積衿付 婢福台奴石叱
- 197 屎等乙 汝等徒 本以 更良 文記成給爲遣 汝等段 還退爲有置 花名牌字後錄相
- 198 考 貢膳雜物 一一捧上出來事 牌字後錄內 節所訟奴婢段 無一名并付爲有齊
- 199 隻李順達所納文記內 嘉靖十年辛卯正月廿日 財主金倫妻趙氏 女申景洸妻
- 200 金氏亦中 奴厚同婢怪之奴訥叱孫奴訥叱金等 四口乙 別給文記是齊 元告洪
- 201 敬源姜彦俊高孝彦等 初更招僇音內 去丁亥戊子等年分 上京 司果柳積亦 節
- 202 所訴奴婢等乙 放賣爲白去乙 各各買得使喚之際 李奎章柳積等 五寸叔姪等以 祖上
- 203 遺漏未分奴婢乙 姪子柳積亦 獨亦 放賣是如 緣由 呈刑曹 矣徒等了 相訟分執間
- 204 使喚安徐事 移關本州乙仍于 庚寅年分 洪敬源亦 監試觀光事以 金挺傑一
- 205 時上京 右良辭緣 呈法司 始訟次 李奎章柳積等 自求退訟 和會分衿爲去乙
- 206 柳積衿付奴婢以 更良 斜出爲有沙餘良 金挺傑段置 婢石今買得爲有乎旆 後
- 207 日俾無爭訟之弊亦 李奎章亦 姜彦俊亦中 至於自筆着名著 成給不
- 208 忘記是沙餘良 辛卯十月初二日成置 李奎章自筆署 其矣衿付 奴召口達付
- 209 收貢事 牌字後錄內 矣徒買得 柳積衿付奴婢等段 無一名并付爲有去乙 上項

25) ‘月’은 ‘日’의 오키로 판단된다.

- 210 李順達亦 無傳係文記 非理相訟是如爲乎所 招辭是齊 隻李順達初更招內 妻²⁶⁾父
 211 李奎章果柳積 七寸是去等 法典內 同生外 和會不得亦爲有沙餘良 寸紙不忘記以
 212 似難取信²⁷⁾不喻 妻父李奎章 不忘記牌字 名署筆跡分²⁷⁾是旆 妻父李奎章父
 213 李封亦 有前後妻 柳積段 前妻女婿之曾孫 奎章段 後妻申氏之子 而同奴婢 則
 214 後妻申氏邊流來 不干於前妻後孫是去等 和會萬無 掌隸院斜出立案段置 亦爲
 215 僞術爲有臥乎所 招辭是乎等用良 洪敬源等 當爲李順達招辭緣由 更
 216 問 則姜彦俊所納 李奎章自筆名署不忘記 與其奴召口達付收貢事 自筆署
 217 牌字 掌隸院斜出文記 及同李奎章亦 他矣奴婢乙 州居高百源金鏡姜宝
 218 等亦中 盜賣時 自筆名署 經官斜出 尙存爲有置 一處筆跡名署憑考 則
 219 可辨玉石是乎所 納招據 高百源金鏡姜宝等段 所持文記取納 同不忘記 其奴
 220 召口達了牌字 一處憑准爲乎矣 李奎章筆畫名署分明和會之端 昭然現著
 221 爲去乙 李順達向爲 旋即推問爲乎亦中 更無可考之文券 一言不答爲沙餘良
 222 相考爲乎矣 李奎章父李封亦 有前後妻 李奎章段 後妻申氏子 同奴婢
 223 □(等) 申氏邊流來 柳積段 前妻後孫是在如中 李奎章柳積等 和會分²⁷⁾ 萬無其
 224 理爲旆 李奎章戶奴召口達付收貢事 自筆署牌字後錄內 同所訟奴婢等
 225 耳亦 不付爲乎所 加于 理無爲齊 掌隸院立案時段置 李奎章柳積等 自筆
 226 和會文記是如 詳明枚舉爲有沙餘良 李順達所納文記段 已過七十餘年 久
 227 遠文記一道以 辨正無據是旆 實爲李奎章奴婢是在如中 自有祖上²⁷⁾
 228 傳係文記事良中 亦無應得文券爲去等 李封亦 有前後妻緣由 及李
 229 奎章祖上族係 詳知不得 僥倖對訟 據此可知²⁷⁾不喻 李順達元情內 其矣現
 230 納文記乙 其妻曾祖母亦 妻祖母亦中 傳係是如 納段爲有在如中 李奎章之母
 231 別得於奎章之祖母是去乙 更招狀良中 妻父李奎章段 申氏之子 而申氏之
 232 母金氏 別得於其母趙氏云 則奎章之外祖母 別得於奎章之外曾祖母
 233 爲乎樣以 前後招辭 互相變換爲臥乎所 加于 違格爲齊 凡訟詞 一從
 234 文券詳覈事是去乙 前判官時 不捧□□ 依官式 李順達亦中 ■(循)■(私)據決
 235 是如爲臥乎等用良 同婢福台奴石廻屎等乙 姜彦俊亦中 依文記貌如
 236 所生并以 決給爲遣 合行立案者
 237 濟州牧判官 〔着押〕

제시된 결송입안에서 제시된 이두들이 많지만, 모두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표현된 이두 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도록 하겠다.

이 문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 사용된 이두는 일반적인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제주에서만 사용되는 이두는 찾아 볼 수 없다. 결송입안은 문서 중에서도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정확한 표현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표준화되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지역의 다른 문서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형태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보이는 결송입안과 관련된 이두 표현을 중심으로 대강을 살펴도록 하겠다.

이 결송입안에 사용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표현을 들어 보자.

우선 문서의 종류와 관련하여 진술서인 拷音(15), 관에서 지급한 낱장 문서인 葉作(114),

26) 원문은 ‘爲乎有旆’이나, ‘내용상 ‘爲有乎旆’로 고쳤다.

27) 내용상 ‘畵’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위임장인 牌字(158) 등을 들 수 있으며, 관에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하는 斜出(23), 官斜(31), 斜給(191) 등의 표현이 있고, 관청의 명을 의미하는 行下(39)를 들 수 있다.

관청에서 진술하는 것과 관련하여 白(17), 白等(16)이 있으며, 근거를 들면서 ‘和會白文據’(61)의 형태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을 종결하면서 쓰인 向事(14)가 있다.

矣徒等(4), 其矣(20), 他矣(50), 矣徒段(4), 汝亦(128), 矣徒等了(203)은 대명사의 형태와 함께 주격 혹은 처격등으로 사용하였다.

재산의 몫을 나누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衿得(119) 分衿(23) 衿付(31) 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한자적인 표현인 것과 같지만 이두로 기능하기도 한 次知(12), 上項(31)과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施行(113)도 들 수 있다.

부사적인 표현으로 節(118), 節段置(168) 가 있으나 ‘節該’(187)는 이두적인 표현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외교문서에서 쓰이기도 하여 이두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至亦(5), 條以(12), 次以(14), 獨亦(22), 安徐亦(23), 貌如(38) 등이 있으며, 爲等如(185)는 결송입안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사이기도 하다.

조사적인 역할 혹은 불완전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十餘口‘式’(26), 分(19)이나, 納招‘據’(219), 相訟始爲‘次’(25)처럼 서술을 도와주는 형태의 것을 들 수 있다.

용언으로서 無乎弊不喻(7), 不得爲白去乎(10), 知不得爲白在果(42), 不得事是脉(67), 是沙餘良(72), 爲乎樣以(138), 爲有在而亦 (144), 取信‘不得是如爲白在果’(159), 爲有臥乎所不喻(163), 爲白沙餘良(29), 爲乎事是良尔(108), 爲有置有良尔(124) 등처럼 복합적인 모습을 띤 것도 있다.

物物(175)은 가지가지, 날날이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 ‘科科’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楮貨各四千張‘本’木綿三十二疋(103)에서처럼 ‘本’은 ‘~ 대신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결송입안에서 이두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예도 있다. ‘果(21)’를 사용하였는데, 한자의 ‘與’와 같이 더불어의 의미로 쓰였는데, 문장의 배열이 원활하지 못하여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

3. 이두 사용의 한계

이 글에서는 제주의 결송입안의 이두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문서에 표현된 이두들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제주에서 작성된 문서상에 표현된 것에 한정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 낸 것들은 제주의 고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송과정에서 문서에 적힌 이두들은 이두사전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결송문서를 읽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두의 표현이 문서상에서는 매우 표준화되고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언어들의 표현과 문자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문서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발굴되는 고문서 혹은 고도서에 사용된 이두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에서 사용하는 여러 문서들에서 보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정해진 격식에 의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문서에서 제주 특유의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같은 집안에서 수집한 문건 중에서도 토지매매문서에서 밭의 매도와 관련하여 매도대상의 크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付只’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단어의 부류들은 지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들이라 하겠으며, 지역 내에서는 고유한 표현에 속하는 것이다. 지역의 사투리의 다양한 표현에 비해 문자로 표현된 것들은 매우 제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투리 내지 지역의 방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제주도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어휘들을 이두의 형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투리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한자로 표현되었을 때 과연 이들 모두를 이두라고 하여야 할 것인지는? 이두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은 필자로서는 이두에 속할 수 있는 어휘 혹은 표현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고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서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결.

이두의 사용은 한문의 제한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문만으로는 원래 드러내려고 했던 내용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소위 끊어 읽기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문이 지니는 약점을 이두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두가 사용되는 것도 사용자에 따라 의도와는 달리 잘못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 한글의 사용도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적어도 조선시대 이두의 사용은 필자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결송입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기록에서는 표현의 정확성은 다루는 사건의 해결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결송입안과 같은 문서에는 이두가 사용되는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다만 제주의 결송입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지역의 특성을 담아 낼 수 있는 표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공문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이두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면서 보다 다양한 표현으로 정확한 내용의 전달과 함께 지역적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고문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 제주도의 고문서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필자도 약 20여 년 전에 『제주하원 리호적중초』를 간행하기 위한 책임을 맡으면서 많은 고문서 소장처를 찾았고 목록도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여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우리의 글과 문자를 내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28) 이와 관련한 연구는 오창명, 2004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연구 - 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 『탐라문화』 24를 들 수 있다. 오창명교수는 그 외에도 제주도의 고유어휘를 찾아내었는데, 오창명, 1999 「고유어휘연구 - <탐라영사례>와 <제주사례>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20를 참고할 것.

<첨부> 제주결급인안(강수황 후손가)_사진자료1

<첨부 1>

제주결급인안(강수황 후손가)_사진자료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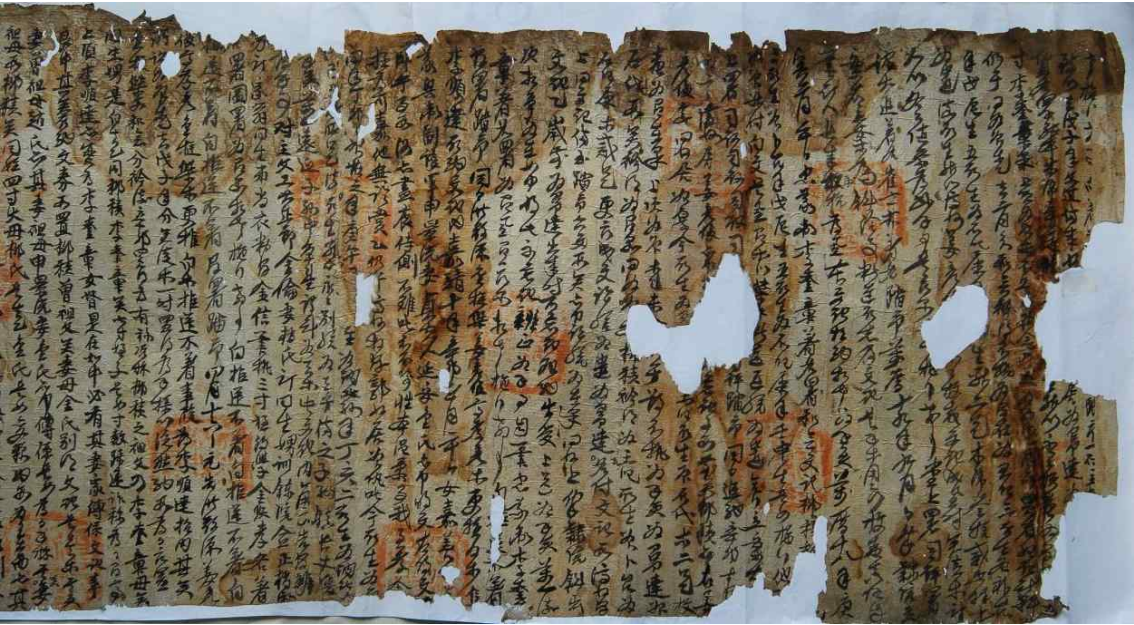


2면



(중간 부분 결락)

3면



4면

